

『철학사상』 별책 제7권 제5호

토픽맵에 기초한, 철학 고전 텍스트들의 체계적 분석 연구와
디지털 철학 지식지도 구축

양계초 『신민설』

이 혜 경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6

『철학사상』 별책 제7권 제5호

토픽맵에 기초한, 철학 고전 텍스트들의 체계적 분석 연구와
디지털 철학 지식지도 구축

양계초 『신민설』

이 혜 경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6

편집위원 : 백종현(위원장)

김남두

박찬국

이남인

이태수

정원재

김상현(주간)

발 간 사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철학문헌정보센터의 전임연구단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육성지원 사업비를 받아 앞서 2년 간(2002.8-2004.7) 「철학 텍스트들의 내용 분석에 의거한 디지털 지식 자원 구축을 위한 기초적 연구」를 수행하여 그 결실을『철학사상』별책 제2권 제1호~제14호, 별책 제3권 제1호~제25호로 출간한 데 이어, 그 후속으로 다시금 2년 동안(2004.9-2006.8) 「토피맵에 기초한, 철학 고전 텍스트들의 체계적 분석 연구와 디지털 철학 지식지도 구축」 사업을 수행하면서 지난 해 일차로『철학사상』별책 제5권 제1호~제14호를 펴냈다. 이제 이 후속 사업의 두 번째 성과물을『철학사상』별책 제7권 제1호~제25호로 엮어낸다.

이 연구 작업은 중요한 철학 문헌들의 내용을 개념 체계도를 세워 분석하고, 이를 디지털 지식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것이다. 이 같은 일은 지식정보 사회에 있어 철학이 지식 산업과 지식 경제의 토대가 되는 디지털 지식 자원을 생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초 연구라 할 것이다.

우리 연구단은 긴 논의 과정을 거쳐 우리 사회 문화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 동서양의 철학 고전들을 선정하고 이를 연구자의 전공별로 나누어, 각각 먼저 분담한 저작의 개요를 작성한 후, 개념들의 관계를 밝혀 개념 지도를 만들고, 그 틀에 맞춰 주요 개념들을 상술했다. 이 같은 문헌 분석 작업만으로도 대표적인 철학 저술의 독해 작업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의 목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이 작업의 성과물을 디지털화된 철학 텍스트들에 접목시켜 누구나 각자의 수준에서 철학 고전의 텍스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대표적인 것으로 꼽는 철학 고전들은 모두 외국어나 한문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이를 지식 자원으로써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화에 앞서 현대 한국어로의 번역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적절한 한국어 번역이 아직 없는 경우에도 원전의 사상을 이루는 개념 체계를 소상히 안다면 원전에 대한 접근이 한결 수월해질 것이다. 우리 연구 작업의 성과는 일차적으로는 이를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이지만, 장차 한국어 철학 텍스트들이 확보되면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기초가 될 것이다.

아무쪼록 우리 공동 연구 사업의 이 성과물이 인류 사회 문화의 자산을 확대 재생산하는 데 초석이 되고, 한국의 철학 문화 향상에도 이바지하는 바 있기를 바란다.

2006년 5월 25일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철학문헌정보센터 장 /
「토픽맵에 기초한, 철학 고전 텍스트들의 체계적 분석
연구와 디지털 철학 지식지도 구축」 연구책임자 백중현

『철학사상』 별책 제7권 제5호

토픽맵에 기초한, 철학 고전 텍스트들의 체계적 분석 연구와
디지털 철학 지식지도 구축

양계초 『신민설』

이 혜 경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6

머 리 말

양계초는 약 100년 전에 계몽사상가로 활약했던 중국 사람이다. 우리가 이름을 들어봤을 법한 중국 근·현대의 유명한 지도자들, 가령 모택동이라든지 노신, 진독수 같은 사람들이 모두 소년 시절에 양계초의 글을 읽고 구국의 열정을 키웠다고 한다. 같은 시기 한반도에서 발행되었던 계몽잡지에도 양계초의 글은 빠지지 않고 실렸다. 그가 관여한 최초의 정치운동이었던 1898년의 개혁운동에 실패한 후, 그는 일본으로 망명해서 일본어로 번역되어 있는 서양의 근대 서적들을 탐욕스럽게 읽어치웠다. 그리고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중국을 구제할 일념으로 자신이 이해한 것들을 잡지라는 매체를 통해 중국인에게 소개했다. 그는 그 방식으로 중국이 근대국가를 이룩하는 데 자신의 모든 열정을 바쳤다.

자연에 대한 과학적 탐구와 산업혁명을 통한 생산의 비약적 증대, 정치영역에서의 자유와 평등, 경제영역에서의 자유로운 활동 등이 ‘근대성’이 갖는 해방의 이미지라면, 생산의 공격적 확대, 고도의 인플레이션과 대량 실업, 소득과 부의 불균등, 생태계의 파괴와 에너지자원의 고갈, 국내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식민지 정복 전쟁 등이, 그 부정적인 이미지들일 것이다.

100년 전의 아시아인들, 특히 중국이나 조선처럼 선진 근대국가들의 식민지 경쟁 대상이 되었던 나라들에게 ‘근대성’은 명백하게 해방과 침략성이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었지만, 그들은 근대성의 부정적 성격을 인식할 수 없었고, 따라서 비판할 수도 없었다. 그들을 정복하고 착취하기 위해 상륙한 서구의 ‘근대성’을 그들은 오로지 자신들도 성취해야 할 목표로만 받아들였다. 제국주의는 교사이자 약탈자였지만, 여차하면 나라의 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는 필사적인 상황의 약자들에게는 약탈자

로서의 그들의 모습을 간파하고 그들의 존재를 비판할 여력이 없었다. 약자들은 그 늪에서 헤어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허우적거렸고, 그 방법은 자신들을 압박하는 그 힘을 배우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압박당하는 처지에서 벗어나 압박하는 자가 되는 것이었다. 그것이 유일한 생존의 길이라 생각했다.

‘근대성’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들은 근대비판이론들이 등장하면서 최근 몇 십 년 사이에야 비로소 우리에게 분명하게 인식되기 시작한 것들이다. 그러나 그 부정적 성격을 인식함으로써 우리의 선택은 얼마나 달라졌는가? 우리에게 그 부정적 요인들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은 자라났는가?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불평등한 경쟁과, 그 결과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의 골, 그 속에서 자기 자신과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달리고 있는 개인들, 우리는 100년 전의 사람들보다 행복해졌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던졌을 때, 21세기의 우리와 100년 전의 양계초가 처했던 상황은 그렇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양계초를 통해 우리의 현실을 객관화시켜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지도 모르겠다. 양계초가 암중모색했던 길은 근대의 성격만큼이나 모순에 가득 찬 것이었지만, 그 모순 속에서 앞으로 나아갈 길의 실마리를 엿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2006년 5월

이혜경

목 차

제1부 철학자 및 철학 문헌 해제	1
1. 양계초의 생애 및 저작	1
1.1 생애 요약	1
1.2 생애 해설	2
1.3 생애 연보	5
1.4 저작	7
1.4.1 신민설	7
1.4.2 변법통의	7
2. 『신민설』 해제	8
2.1 『신민설』 요약	8
2.2 『신민설』 해설	9
2.3 『신민설』 상세 목차	14
2.4 주요 용어	15
2.4.1 민족국가	15
2.4.2 신민	16
2.4.3 공덕	17
2.4.4 사덕	18
제2부 철학 지식지도	21
1. 철학자 지식지도	21
2. 철학 문헌 지식지도	22

3. 철학 용어 지식지도	23
3.1 민족국가	23
3.2 신민	24
3.3 공덕	25
3.4 사덕	25
4. 철학 문헌 내용 지식지도	26
 제3부 『신민설』 내용 분석 연구	45
1. 국가	45
1.1 국가와 진화	45
1.1.1 국가의 성립	45
1.1.1.1 단체의 필요성	45
1.1.1.2 경제로서의 단체	46
1.1.1.3 국가의 성립조건	47
1.1.1.3.1 국가사상의 유무	47
1.1.1.3.2 국가사상의 내용	48
1.1.1.3.2.1 개인과 국가의 관계	48
1.1.1.3.2.2 정부와 국가의 관계	49
1.1.1.3.2.3 타민족과 국가의 관계	50
1.1.1.3.2.4 세계와 국가의 관계	51
1.1.1.3.3 경쟁주체로서의 국가	53
1.1.2 국가와 문명	53
1.1.2.1 문명으로서의 국가	53
1.1.2.2 절대 가치로서의 국가	54
1.2 민족주의	55
1.2.1 민족주의의 정의	55
1.2.2 민족주의와 진화	55

1.2.2.1 민족제국주의로의 발전	56
1.2.2.2 고대제국주의와 민족제국주의	57
1.2.3 민족 진화의 관건	58
1.2.3.1 백인종의 우월성	59
1.2.3.2 튜튼족의 우월성	59
1.2.3.3 앵글로색슨족의 우월성	60
1.2.3.4 진화에 필요한 특성들	62
1.2.4 중국의 민족주의	62
1.2.4.1 중국민족의 가능성	62
1.2.4.2 중국민족의 위기	63
1.2.4.3 중국민족의 과제	64
1.2.4.4 중국민족의 모범	64
1.3 민족국가	65
1.3.1 민족국가의 의의	65
1.3.2 민족국가의 원천	66
1.3.3 민족국가의 요소	66
1.3.3.1 권리	67
1.3.3.1.1 권리사상은 국가의 뿌리	68
1.3.3.1.2 권리는 형이상의 생존 능력	68
1.3.3.1.3 강자의 권리	69
1.3.3.1.4 권리는 경쟁에서	70
1.3.3.1.5 권리와 법	71
1.3.3.1.6 국권은 모든 개인의 권리의 합	72
1.3.3.2 의무	73
1.3.3.2.1 개인과 사회의 협조	74
1.3.3.2.2 의무와 권리의 균형	75
1.3.3.2.3 의무는 권리의 원천	75
1.3.3.3 자유	76
1.3.3.3.1 자유는 천하의 공리	77

1.3.3.3.2	문명의 자유	77
1.3.3.3.2.1	자유와 황금률	77
1.3.3.3.2.2	법률에의 복종	78
1.3.3.3.2.3	단체의 자유	79
1.3.3.4	자치	80
1.3.3.4.1	자치능력은 인간의 조건	81
1.3.3.4.2	자치의 관건은 법률	81
1.3.3.4.2.1	개인적 자치의 극치	82
1.3.3.4.2.2	사회적 자치의 극치	83
1.3.3.4.3	자치는 자유·평등·민권의 바탕	83
1.3.3.4.4	자치능력의 효용	84
1.3.3.5	경제	85
1.3.3.5.1	문명의 경제	85
1.3.3.5.1.1	노동의 증식	86
1.3.3.5.1.2	자본의 증식	87
1.3.3.5.1.3	자본과 노동력의 증감관계	87
1.3.3.5.2	부국의 길	88
1.3.3.5.2.1	소비의 축소와 투자자본의 확대	88
1.3.3.5.2.2	생산의 증대	89
1.3.3.6	파괴와 진보	89
1.3.3.6.1	파괴는 진보의 길	90
1.3.3.6.2	파괴는 불가피한 것	90
1.3.3.6.3	자발적 파괴의 이점	91
1.3.3.6.4	무혈파괴의 이점	92
1.3.3.6.5	계속되어야 할 파괴	92
1.3.3.7	상무	93
1.3.3.7.1	문명의 지지대인 상무	93
1.3.3.7.2	강자만의 평화	94
1.3.3.7.3	무장평화시대의 자구책	95

1.3.3.7.4 상무의 무한한 가능성	95
1.3.4 민족국가를 향한 중국의 과제	96
1.3.4.1 국가사상의 결여	96
1.3.4.1.1 만연한 이기주의	97
1.3.4.1.2 충성에 대한 오해	98
1.3.4.1.3 국가에 대한 지조의 결여	99
1.3.4.1.4 평천하 의식	100
1.3.4.1.4.1 지리상의 원인	101
1.3.4.1.4.2 학설상의 원인	101
1.3.4.1.5 가장 중대한 문제와 그 해결	101
1.3.4.1.5.1 갖가지 이기주의	102
1.3.4.1.5.2 국가는 현명한 이기주의자의 선택	103
1.3.4.2 단결력의 부족	104
1.3.4.2.1 공익을 위한 사적인 이익의 희생	105
1.3.4.2.2 공공의 적(公敵)과 사사로운 적(私敵)의 구분	106
1.3.4.2.3 무규율	107
1.3.4.2.4 시기와 질투	108
1.3.4.3 권리사상의 결여	109
1.3.4.3.1 관대함의 위험성	109
1.3.4.3.2 양주의 위아주의와 권리사상	110
1.3.4.3.3 인仁의 덕과 권리사상	111
1.3.4.4 의무사상의 박약	113
1.3.4.4.1 분업에 기초한 의무와 권리	113
1.3.4.4.2 의무에 관한 중국인과 서양인의 차이	114
1.3.4.4.3 권리와 의무는 애국심의 근거	116
1.3.4.4.4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잃은 의무의 문제점	117
1.3.4.5 중국의 복고적 역사관	118
1.3.4.5.1 자연적 이유	119
1.3.4.5.1.1 경쟁 없는 통일왕국	119

1.3.4.5.1.2 하등문명의 주위 야만국가	120
1.3.4.5.2 인위적 이유	121
1.3.4.5.2.1 표의문자의 약점	121
1.3.4.5.2.1.1 새로운 발명품의 표기 문제	122
1.3.4.5.2.1.2 문자의 습득에 소비되는 시간과 정력	123
1.3.4.5.2.1.3 지식의 대중화 문제	123
1.3.4.5.2.1.4 정치의 진보와 사상의 심화	124
1.3.4.5.2.2 오랜 전제(專制)	125
1.3.4.5.2.3 편협한 학설과 사상	126
1.3.4.6 중국의 경제	127
1.3.4.6.1 중국 경제의 실태	127
1.3.4.6.2 과도한 소모자(비생산자)	128
1.3.4.6.3 중국 경제의 가능성	129
1.3.4.6.4 실천상의 순서	130
1.3.4.7 상무정신이 결여된 중국	131
1.3.4.7.1 무력에 굴복했던 역사	131
1.3.4.7.2 천성처럼 된 문약(文弱)함	132
1.3.4.7.3 문약하게 된 원인	133
1.3.4.7.3.1 국세의 통일	133
1.3.4.7.3.2 유교의 도덕주의	134
1.3.4.7.3.3 패도의 영향	135
1.3.4.7.3.3.1 패도의 정책1 - 족쇄	136
1.3.4.7.3.3.2 패도의 정책2 - 회유(懷柔)	137
1.3.4.7.3.4 무력을 경시하던 습속	138
1.3.4.7.4 자주지권을 보장하는 것은 자위권	139
1.3.4.7.5 상무정신을 위해 키워야 할 세 가지	139
1.3.4.7.5.1 정신력(心力)	141
1.3.4.7.5.1.1 불가능을 모르는 정신력	141
1.3.4.7.5.1.2 당면의 위기를 돌파할 정신력	142

1.3.4.7.5.2 담력	142
1.3.4.7.5.2.1 두려움을 모르는 담력	142
1.3.4.7.5.2.2 담력은 자신감에서	143
1.3.4.7.5.3 체력	144
1.3.4.7.5.3.1 체력은 군국주의 국민의 자격	144
1.3.4.7.5.3.2 체력은 국력	145
2. 국민	146
2.1 근대국가의 국민	146
2.1.1 국민은 국가 권위의 근원	146
2.1.2 국가의 역량은 국민의 역량	146
2.2. 근대 중국의 국민- 신민	147
2.2.1 신민의 의의	147
2.2.2 신민의 의미	149
2.2.2.1 ‘신’(新)의 두 가지 뜻	149
2.2.2.2 보수의 중요성	150
2.2.2.2.1 지켜야 할 것	150
2.2.2.2.2 진정한 수구	151
2.2.2.3 진취의 필요성	152
2.2.2.3.1 새로 채용해야 할 것	152
2.2.2.3.2 가지가 아닌 뿌리의 이식	153
2.2.2.4 보수와 진취의 조화	154
2.2.3 신민창출의 주체	155
2.2.4 신민 창출의 급박함	156
2.2.4.1 대내적인 관점에서	156
2.2.4.2 대외적인 관점에서	157
2.2.4.3 열쇄는 내실	158
2.3 신민의 요건	159
2.3.1 민족정신의 고양	160

2.3.2 민덕, 민지, 민력의 배양	161
3. 도덕	163
3.1 공덕과 사덕	163
3.2 공덕	163
3.2.1 공덕의 정신	164
3.2.2 공덕과 진화	165
3.2.3 중국의 공덕 현황	166
3.2.3.1 현재에 맞는 공덕을 계발할 필요성	166
3.2.3.2 중국에 공덕이 발달하지 못한 이유	167
3.2.3.2.1 도덕의 진화에 대한 무지	167
3.2.3.2.2 사덕의 과도한 발달	168
3.2.3.3 공덕을 창출하지 못할 때의 재난	170
3.2.4 공덕의 실질과 기능	171
3.2.4.1 공덕의 실질은 우수 민족의 장점	171
3.2.4.2 공덕은 사회에 대한 의무	172
3.2.5 공덕의 종류	174
3.2.5.1 국가사상	175
3.2.5.1.1 국가사상의 소유는 국가 수립의 관건	175
3.2.5.1.2 국가사상 고취의 장애	176
3.2.5.1.2.1 객관적 원인	176
3.2.5.1.2.2 도덕적 원인	177
3.2.5.1.2.2.1 비사회적 도덕주의도 결국은 이기심	177
3.2.5.1.2.2.2 위선적 도덕주의의 뿌리 역시 이기심	178
3.2.5.1.2.2.3 이기주의에서 국가사상으로	180
3.2.5.2 권리사상	181
3.2.5.2.1 권리사상은 천성	181
3.2.5.2.1.1 권리사상은 양지양능	181
3.2.5.2.1.2 무한한 권리의 신장 의욕 역시 천성	182

3.2.5.2.2	권리사상은 도덕의 문제	183
3.2.5.2.2.1	권리사상은 인격의 문제	183
3.2.5.2.2.2	권리는 이익과 상반된 것	184
3.2.5.2.2.3	권리사상의 결여는 마비와 마찬가지로	185
3.2.5.2.2.4	권리사상이 결여된 부도덕의 상태	187
3.2.5.2.2.4.1	관대함과 부드러움, 인내	187
3.2.5.2.2.4.2	소극적 개인주의	188
3.2.5.2.2.4.3	권리사상을 쪼먹는 인(仁)	189
3.2.5.3	의무사상	190
3.2.5.3.1	의무사상은 문명국민의 덕성	190
3.2.5.3.1.1	권리와 의무의 균형은 문명의 상징	191
3.2.5.3.1.2	의무사상은 국가의 초석	191
3.2.5.3.1.3	정부의 기강을 바로잡는 것도 의무사상	193
3.2.5.3.1.4	의무사상은 우월함의 원천	194
3.2.5.3.2	의무사상의 부재	194
3.2.5.3.2.1	의무사상의 박약은 권리사상의 박약으로	194
3.2.5.3.2.2	의지와 실천의 박약	195
3.2.5.3.2.3	효제의 문제점	196
3.2.5.4	자유정신	197
3.2.5.4.1	자유와 법	197
3.2.5.4.1.1	개인의 자유는 단체의 질서에서	197
3.2.5.4.1.2	자신이 제정한 법률에 복종하는 것	198
3.2.5.4.1.3	법률은 양지와 노력에 의한 것	199
3.2.5.4.2	마음의 자유	200
3.2.5.4.3	자유 상실 — 마음속의 노예	201
3.2.5.4.3.1	옛사람의 노예	202
3.2.5.4.3.2	세속의 노예	203
3.2.5.4.3.3	상황의 노예	204
3.2.5.4.3.4	정욕의 노예	205

3.2.5.5 진취모험정신	206
3.2.5.5.1 진취모험정신의 성격	206
3.2.5.5.1.1 가장 확실한 생존의 정신	206
3.2.5.5.1.2 용맹불퇴전의 정신	207
3.2.5.5.2 진취모험정신의 근원	208
3.2.5.5.2.1 호연지기의 성격	208
3.2.5.5.2.2 진취모험정신의 네 가지 근원	209
3.2.5.5.2.2.1 희망	209
3.2.5.5.2.2.2 열성	210
3.2.5.5.2.2.3 지혜	211
3.2.5.5.2.2.4 담력과 기력	212
3.2.5.6 단결정신	214
3.2.5.6.1 공화국의 단결은 도덕에	214
3.2.5.6.2 단결을 위해 필요한 덕목	215
3.2.5.6.2.1 공공관념	215
3.2.5.6.2.2 대아와 소아의 구별	216
3.2.5.6.2.3 규율에 대한 복종	217
3.2.5.6.2.4 한마음	218
3.2.5.7 경제정신	219
3.2.5.7.1 경제를 위한 지력	220
3.2.5.7.1.1 문명인으로서 갖는 지식	220
3.2.5.7.1.2 사군자들과 경제	220
3.2.5.7.2 경제를 위한 덕의 힘	222
3.2.5.7.2.1 자신이 중국 빈곤의 주범이라는 각성	222
3.2.5.7.2.2 경제정신의 실천 순서	222
3.2.5.8 의력	223
3.2.5.8.1 의력이 필요한 이유	224
3.2.5.8.2 절망을 방지하는 의력	224
3.2.5.8.3 의력은 성패의 열쇠	225

3.2.5.8.3.1 성공과 실패의 결과는 세대를 넘어서는 것	225
3.2.5.8.3.2 성공과 실패는 정신의 문제	226
3.2.5.8.3.3 성패와 관련한 두 가지 의력	227
3.2.5.8.4 의력의 박약과 극복	228
3.2.5.8.4.1 마무리하는 힘의 부족	228
3.2.5.8.4.2 책임을 자임하는 자의 각오	229
3.2.5.9 자존감	231
3.2.5.9.1 자존은 국민을 존중하는 것	231
3.2.5.9.2 자존은 위대한 기개	232
3.2.5.9.3 자존감을 해치는 것들	233
3.2.5.9.3.1 자포자기	233
3.2.5.9.3.2 겸손	233
3.2.5.9.3.3 객기	234
3.2.5.9.4 자존의 길	235
3.2.5.9.4.1 스스로를 사랑함	236
3.2.5.9.4.2 스스로를 규제함	237
3.2.5.9.4.3 경제적·학문적 독립	238
3.2.5.9.4.4 몸을 낮춰 처신함	239
3.2.5.9.4.5 스스로 책임을 맡음	240
3.2.5.10 상무정신	241
3.2.5.10.1 군사력은 정신력	242
3.2.5.10.2 정신적 군사력을 위해 키워야 할 것	242
3.2.5.10.2.1 정신집중의 힘	243
3.2.5.10.2.2 두려움을 없애줄 담력	244
3.2.5.10.2.3 정신력을 지탱해줄 체력	245
3.2.6 공덕의 약점	245
3.3 사덕	247
3.3.1 사덕의 중요성	248
3.3.1.1 사덕의 중요성에 대한 양계초의 평가 변화	248

3.3.1.1.1	공덕을 중시할 때의 사덕	249
3.3.1.1.1.1	사덕에 치우친 중국의 구도덕	250
3.3.1.1.1.2	구도덕은 도덕의 부분일 뿐	251
3.3.1.1.1.3	중국의 소극적 사덕은 공덕의 좀벌레	253
3.3.1.1.1.4	공덕과 사덕은 별개의 가치체계	254
3.3.1.1.2	재평가된 사덕	255
3.3.1.1.2.1	공덕과 사덕은 전체와 구성원의 관계	256
3.3.1.1.2.2	공덕은 사덕의 확충	257
3.3.1.1.2	공덕의 중요성에 의지하는 사덕의 중요성	259
3.3.1.2	개명전제와 사덕의 중요성	260
3.3.2	사덕의 필요성	261
3.3.2.1	도덕의 과도기	261
3.3.2.2	사덕이 특히 요구되는 상황	262
3.3.2.2.1	파괴주의의 존재	263
3.3.2.2.1.1	파괴와 건설	264
3.3.2.2.1.2	파괴와 건설과 도덕	265
3.3.2.2.1.3	일체파괴는 백해무익한 것	266
3.3.2.2.1.4	파괴주의와 도덕은 양립불가능한 것	267
3.3.2.2.2	마음가짐의 중요성	268
3.3.2.2.2.1	중요한 것은 주의주장이 아니라 마음가짐	269
3.3.2.2.2.2	중요한 것은 정치와 군사의 기술이 아니라 마음가짐	270
3.3.2.2.2.3	도덕은 단체를 만드는 근원	270
3.3.2.2.2.4	도덕은 협동의 근원	271
3.3.2.2.3	이론과 실천의 간극	272
3.3.2.2.3.1	실천에서의 갈등을 해결할 것은 오직 도덕	272
3.3.2.2.3.2	실무에 의한 타락을 방지할 것은 오직 도덕뿐	273
3.3.3	특히 사덕을 갖춰야 할 사람들	274
3.3.3.1	장래의 주인공이 될 선각자들	274
3.3.3.2	국민 양성에 종사할 사람들	275

3.3.3.3 신학문을 하는 청년들	276
3.3.4 중국의 사덕	277
3.3.4.1 중국 사덕의 현황	277
3.3.4.1.1 서양 도덕의 수입	277
3.3.4.1.1.1 도덕이 아니라 과학	278
3.3.4.1.1.2 지식의 도덕 영역 잠식	279
3.3.4.1.2 사덕의 타락	280
3.3.4.2 중국의 사덕이 타락한 원인	280
3.3.4.2.1 전제정치의 영향	280
3.3.4.2.1.1 전제정치 하의 일반적 풍기	281
3.3.4.2.1.2 중국의 전제정치	282
3.3.4.2.2 청조 패권의 영향	283
3.3.4.2.3 수차레 패전의 영향	284
3.3.4.2.3.1 정복전쟁의 장점	284
3.3.4.2.3.2 내란과 피정복의 역사로 점철된 중국사	286
3.3.4.2.4 궁핍한 생계의 영향	287
3.3.4.2.4.1 생계와 민덕의 관계	287
3.3.4.2.4.2 중국의 생계와 민덕	288
3.3.4.2.5 무능력한 학술	289
3.3.4.2.5.1 학술의 힘	289
3.3.4.2.5.2 청조 학술의 무능	290
3.3.4.2.5.3 신사상의 해독	291
3.3.5 사덕의 함양	293
3.3.5.1 도덕적 지도자의 모범들	293
3.3.5.1.1 세계의 모범들	293
3.3.5.1.2 중국의 모범 — 중국번	294
3.3.5.2 양계초의 사덕 함양	295
3.3.5.2.1 근본을 바르게 함(正本)	296
3.3.5.2.1.1 공리주의의 만연	296

3.3.5.2.1.2 애국은 공리가 아닌 순결한 것	297
3.3.5.2.1.3 본원은 마음	299
3.3.5.2.2 신독	300
3.3.5.2.3 작은 일부터 조심함(謹小)	302
3.3.5.2.3.1 작은 일은 모든 것의 씨앗	302
3.3.5.2.3.2 작은 현상의 원인은 근원적인 것	303
3.3.6 사덕의 등장이 의미하는 것	304
3.3.6.1 도덕 절대주의의 부활	304
3.3.6.2 애국과 양지의 결합	305
3.3.6.3 사덕의 복잡성	305
3.3.6.4 대표적 사덕으로서의 양명학	306
3.3.6.5 유학에 대한 재평가의 의의	307
참고문헌	309

일 러 두 기

1. 林志鈞이 편집해서 출판한 『飲冰室合集』 가운데 『專集』 제3책에 수록되어 있는 『新民說』을 텍스트로 사용했다. 본문 안의 인용문 뒤에 표기된 페이지는 그 책의 페이지이다.

2. 『新民說』은 《新民叢報》라는 반월간 잡지에 연재되었던 글이다. 『新民說』은 책으로 취급하여 『』의 괄호로 표기하고, 《新民叢報》를 비롯한 잡지는 《》의 괄호로 표기해서 구분했다.

제 1 부 철학자 및 철학 문헌 해제

1. 양계초의 생애 및 저작

1.1 생애 요약

양계초(梁啓超, 1873~1929)는 중국근대의 대표적인 계몽사상가이다. 타고난 영민함으로 짧은 시간 안에 폭넓은 서양사상을 섭렵했으며, 발군의 순발력과 뛰어난 필력으로 자신이 소화한 것을 중국인들에게 신속하고 명쾌하게 전달했다. 그의 정력적인 활동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이었다. 그는 정치, 역사, 교육, 종교, 학술에서 문학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를 종횡무진하며, 중국인들에게 근대국가의 능력 있는 국민이 될 것을 촉구했다. 그의 글을 읽지 않은 동시대인은 없을 정도로 그의 영향력은 막강한 것이었다. 호적(胡適), 주작인(周作人), 고힐강(顧頡剛), 노신(魯迅), 진독수(陳獨秀), 모택동(毛澤東) 등이 모두 젊었을 때 양계초의 글을 읽고 신사상에 대한 기대를 품고 구국의 염원을 세울 수 있었다고 고백한다. 중국뿐 아니라 신채호나 박은식 등, 한국의 근대 지식인들 역시 양계초의 글을 통해, 진화론, 국가, 국민 등에 대해 눈뜨고 구국의 방법에 대해 고심했다. 서양언어에 능통하지 못했던 중국이나 한국의 지식인들은 양계초의 명쾌한 문체를 통해 서양근대문명을 섭취했으며, 동서고금의 정론에 정통했던 그의 논술은 신교육을 받은 청년들에게뿐 아니라, 전통교육을 받은 인사들에게도 설득력 있는 것으로 다가갈 수 있었다.

1.2 생애 해설

양계초(梁啓超)는 1873년 중국 광둥 성(廣東省) 신회 현(新會縣)의 남단에 있는 섬에서 태어났다. 줄곧 농사를 짓던 집안이었으나 양계초의 조부 대에 비로소 수재(秀才)가 되었으며, 아버지는 향신(鄉紳)이 되었다. 양계초는 6세에 할아버지와 어머니 슬하에서 사서(四書)와 『시경』(詩經)을 배웠으며 8살 전에 오경을 독파했다. 12세에 수재(秀才) 시험에 합격했고 17세에는 거인(舉人)이 되었으니, 신동이라 불릴 만큼 명민한 소년이었다.

양계초가 소년시절을 보낸 중국의 1870~80년대는, 아편전쟁을 겪은 뒤에 서양의 군사력을 인정하고, 중국의 정치 골격을 유지하면서 서양의 군사기술을 배우자는 양무운동(洋務運動)이 전개되던 시기이다. 양계초 역시 그 시기의 여느 중국 청년들처럼 어려서부터 사서오경을 읽으며 과거를 위한 공부를 했다. 그러나 거인이 된 18세의 양계초는 당시 광서제(光緒帝)에게 변법(變法: 제도개혁)에 대한 상소를 올렸다는 강유위(康有爲, 1858~1927)를 찾아가 그의 제자가 되었다. 그때까지 훈고학과 사장학에 몰두했던 양계초에게 강유위는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청산하라고 호통 치며, 양명학과 함께 개략적인 서양학문을 가르쳤다. 양계초는 비로소 ‘생애 처음으로 세상에 학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강유위는 유가경전의 권위를 이용하여 제도개혁을 주장했다. 그는 입헌군주제를 도입하는 것이 당시 중국을 구제할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공자의 『춘추』(春秋)가 과거를 기록한 역사서 형식을 가장해서, 실은 미래의 제도개혁을 위해 쓴 책이라고 주장했다. 강유위의 주장에 의하면, 공자는 세상이 거란세(據亂世)에서 승평세(升平世)로 진화하고 승평세에서 대동세(大同世)로 진화한다고 예언했으며, 사람은 그 시대의 변화를 알아채고 각각의 세상에 맞는 제도로 개혁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 삼세설(三世說)에 의하면, 거란세는 군주제의 시대이며 승평세는 입헌군주제, 대동세는 민주제의 시대이다. 강유위는 당시 중국을 승평세라고 판단했으며, 따라서 중국은 군주제를 청산하고 입헌군주제를 채택해야 했다.

강유위는 이와 같은 골자의 주장을, 북경에 회시를 보러 모인 거인들의 서명을 받아 광서제에게 상소로 올렸으며, 결국 광서제가 강유위와 함께 도모한 개혁이 1898년의 무술변법운동(戊戌變法運動)이다.

1895년 청일전쟁에서의 중국의 패배는 양무운동의 파산을 선고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제 중국은 새로운 자구책을 모색해야 했으며, 그 시대적 임무를 떠안고 등장한 것이 강유위가 주도하는 변법파였다. 양계초는 강유위를 도와 변법운동의 중앙에 서서, 1895년부터 변법을 추진하는 거인들의 모임인 강학회(強學會)의 서기가 되어 활동했으며, 1896년에는 《時務報》라는 잡지의 주필을 담당하면서 변법을 설명하고 선전하는 글인 『변법통의』(變法通議)를 연재했다. 그러나 1898년 광서제의 결단에 의해 탄생한 변법정부는 서태후를 필두로 하는 보수파의 반격으로 100일 만에 무너졌다. 강유위와 양계초는 일본으로의 망명길에 올랐지만 동지였던 담사동(譚嗣同, 1865~1898)은 망명을 거부하고 “중국 개혁을 위해 피를 흘리는 자, 나로 시작하리라.”는 말을 남기고 기꺼이 수구파에게 잡혀 죽임을 당했다.

일본에 망명한 양계초는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청의보》(淸議報)를 창간하여 왕성한 계몽활동을 전개했다. 1896년의 《시무보》부터, 1898년의 《청의보》, 1902년에 창간해서 1907년까지 계속된 《신민총보》(新民叢報)시절이, 중국인에 대한 양계초의 영향력이 가장 극대화된 시기였을 것이다. 그 잡지들을 통해, 양계초의 입을 통해, 헌법, 정당, 화폐제도, 학교제도, 인재선발제도 등의 근대적 정치제도를 비롯해, 데카르트, 루소, 칸트 등의 근대 철학자까지, 이른바 모든 신사상이 중국에 전해졌다. 새로운 중국을 건설할 중국의 소년과 청년들, 즉 호적(胡適), 주작인(周作人), 고힐강(顧頡剛), 노신(魯迅), 진독수(陳獨秀), 모택동(毛澤東)등이 모두 양계초의 글을 읽고 구국의 꿈을 키우고 신사상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었다고 한다.

서구유럽이 이삼백 년 동안 성취한 다방면의 근대, 그것을 일본은 왕성한 번역작업과 위로부터의 정치적 개혁을 통해 이삼십 년 안에 소화하여 일본식 근대를 선보였다. 일본에 망명한 양계초는 식지 않는 구국열

과 타고난 영민함,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순발력으로 몇 년 안에 광범위한 사상들을 편력하며 그것을 중국인들에게 전달했다. 그의 정치적 입장은 그 자신의 표현에 의하면 “국체(國體)문제에서는 현상을 유지하면서 정체(政體) 방면에서 이상의 실현을 추구한다.”는 것이었다. 현존의 국체를 유지한다는 것은 혁명은 자신의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며, 정체 방면에서 이상의 실현을 추구한다는 것은, 이상은 공화제로 두더라도 반드시 그 상태에서 공화정을 추구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무술변법시기의 그의 정치적 주장은 스승 강유위와 공유하는 것으로서 입헌군주제의 수립이었다. 일본에 망명 후 『신민설』을 통해 전개된 그의 입장은 공화제에 가까운 것이었다. 실제로 민주공화제의 수립을 추구하는 혁명파와 접근했던 시절도 있었으나 곧 그는 다시 입헌군주제의 입장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발 더 후퇴해 중국인들이 공화국의 국민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기 때까지 개명된 군주에 의한 전제를 채택하자고까지 주장했다.

역시 일본에 근거지를 두고 중국동맹회(中國同盟會)를 발족시킨 혁명파와 대결할 시기, 즉 1905년을 전후해서 양계초의 계몽가로서의 주도권은 혁명파에게 넘겨주었다고 할 수 있다. 양계초는 개명군주제를 주장하는 보수로 전락했으며, 실제로 중국은 신해혁명을 거쳐 민주공화국을 건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국체를 인정하겠다는 양계초는 중화민국의 정부에 가담했다. 그는 차례로 원세개(袁世凱) 정부(1913년)와 단기서(段祺瑞) 정부(1917년)에 입각했지만, 원세개와 단기서 모두 공화국의 정착이 아니라 개인의 영달을 꿈꾸는 봉건 군벌이었다. 군벌들의 난립과 권력투쟁이 전개되는 난장판 속에서 정치적 활동의 전망을 상실한 양계초는 1917년 정치계에서 완전히 은퇴했다. 그 직후 일 년 동안의 유럽여행을 경험한 뒤, 1929년 신장병으로 죽을 때까지 오로지 학술사업에 몰두했다.

세계제일차대전 뒤에 폐허가 된 유럽을 방문한 경험은, 양계초의 후기 학술작업의 성격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세계제일차대전의 참화와 국가주의의 대표주자 독일의 패배는, 양계초로 하여금 동양과 서양을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으로 양분하게 했으며, 동양의 정신을 앞으로의

세계를 지도해 갈 세계정신으로서 전면에 내세우게 했다. 미국에서 실용주의를 공부하고 돌아와, 중국의 과거 학술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존경과 추종은 접어두고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젊은 호적(胡適)의 『중국철학사대강』(中國哲學史大綱)과 대결하면서(1919), 양계초는 유가가 정신적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미래를 꿈꾸며 『선진정치철학사』(先秦政治哲學史)를 완성했다.(1923)

그러나 세계는, 그리고 중국은 그가 예견한 대로 유가가 지도하는 ‘정신적’인 방향으로 흐르지 않았다. 특히 중국에서는 호적을 능가하는 더욱 ‘물질적’인 마르크스주의가 점점 중국을 매료시키고 있었다. 중국공산당의 성립(1921년), 군벌타도를 공동목표로 한 국민당과 공산당의 연합(1924~1927), 손문의 후임 장개석의 공산당 배신(1927년), 모택동의 홍군(紅軍) 창설(1928년) 등, 그의 말년에 그가 눈에 본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앞날을 짐작할 수 없는 혼돈이었다.

1.3 생애 연보

1873년(1세): 1월 26일, 중국 광둥 성(廣東省) 신회 현(新會縣)에서 출생.

1877년(5세): 조부와 부모 밑에서 사서오경, 중국역사 등을 수학.

1884년(12세): 수재(秀才) 시험에 합격, 박사제자원(博士弟子員)이 됨.

1888년(16세): 광주(廣州)에 있는 학해당(學海堂)에 들어가, 경학·훈고학·사장학 등을 수학.

1889년(17세): 거인(舉人) 시험에 합격.

1890년(18세): 강유위(康有爲)의 문하에 들어감. 강유위에게서 육왕심학, 경세치용의 공양학, 국제정세, 구국에 대한 강론을 듣고 감동. 『영환지략』(瀛環志略)이라는 세계지리책과 서학(西學)에 관한 번역서를 읽음.

- 1991년(19세): 거인 시험 당시 주임시험관이었던 이단분(李端綦)의 누이동생 혜선(惠仙)과 결혼.
- 1895년(23세): 강유위가 각 성의 거인(舉人) 천여 명을 규합하여 창립한 강학회(强學會)의 서기가 됨.
- 1896년(24세): 상해에서 《時務報》의 주필을 담당하면서 『변법통의』(變法通議)연재.
- 1897년(25세): 호남 순무인 진보잠(陳寶箴)의 초청으로 시무학당(時務學堂)에서 변법에 대해 강의. 황준헌(黃遵憲), 담사동(譚嗣同), 옹희령(熊希齡), 피석서(皮錫瑞) 등과 보위국(保衛局)을 설립하고 남학회(南學會)를 조직.
- 1898년(26세): 강유위와 함께 무술(戊戌)변법운동을 주도. 100일 만에 실패하고 일본으로 망명. 곧바로 요코하마(橫濱)에서 《청의보》(淸議報)를 발간.
- 1902년(30세): 《신민총보》(新民叢報)창간. 『신민설』(新民說) 연재.
- 1903년(31세): 미국여행 후 『신대륙유기』(新大陸遊記) 발표.
- 1906년(34세): 『개명전제론』(開明專制論) 발표.
- 1907년(35세): 《신민총보》 정간.
- 1910년(38세): 《국풍보》(國風報)창간.
- 1912년(40세): 망명 14년 만에 ‘중화민국’으로 귀국. 공화당의 영수가 됨. 천진에서 《용언보》(庸言報)창간.
- 1913년(41세): 공화, 민주, 통일당을 통합하여 진보당(進步黨)을 조직. 원세개(袁世凱)와 결탁, 사법총장(司法總長)에 취임.
- 1915년(43세): 원세개가 주안회(籌安會)를 조직하고 황제가 되려고 하자 이에 반대선언을 함.
- 1916년(44세): 원세개를 비판하는 각종 문건을 모아 『순비집』(盾鼻集) 간행.
- 1917년(45세): 단기서(段祺瑞)정부에 입각, 재정총장(財政總長)에 취임. 4개월 후 정계에서 은퇴. 이후 문화사업에 전념.

1918년(46세): 정부원조로 유럽여행.

1919년(47세): 유럽여행기인 『구유심영록』(歐遊心影錄) 발표.

1920년(48세): 『청대학술개론』(清代學術概論) 출간.

1923년(51세): 『선진정치사상사』(先秦政治思想史) 출간.

1929년(57세): 1월 19일, 북경의 병원에서 신장병으로 사망.

1.4 저작

1.4.1 신민설

한국어 표준본 :

영어 표준본 :

원어 표준본 : 『新民說』(林志鈞 편, 『飲冰室合集』 가운데 『專集』 제3책에 수록)

1.4.2 변법통의

한국어 표준본 :

영어 표준본 :

원어 표준본 : 『變法通議』(林志鈞) 편, 『飲冰室合集』 가운데 『文集』 제1책에 수록)

2. 『신민설』 해제

2.1 『신민설』 요약

『신민설』은 1902년 2월에서 1906년 1월에 걸쳐 반월간잡지인 《신민총보》에 연재되었던 글이다. 지은이 양계초는 1898년의 무술변법운동에 실패하고 일본에 망명해 있는 상태였다. 그는 동시대의 여느 지식인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진화론을 개혁이론으로 받아들였고, 민족주의와 제국주의는 진화의 필연적 결과라고 생각했다. 경쟁은 진화의 동력이며, 민족국가는 경쟁주체가 진화할 수 있는 최고의 단계였다. 그리하여 중국의 과제는 민족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망명정치가로서 양계초가 실제로 할 수 있었던 일은 근대적 민족국가를 이룩할 국민이 되라고 중국인 개개인들에게 호소하는 일이었다. 자유와 평등으로 상징되는 근대적 시민의 이념과, 강자의 권리로 표상되는 제국주의적 힘의 원리, 양계초의 머리에서 이 둘은 구분되지 않고 강자가 갖추고 있는 우성(優性)으로 파악되었다. 그에게 도덕적 원리와 힘의 원리는 구분되지 않고 문명, 진화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중국은 문명국가가 되기 위해,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유럽의 근대국가처럼 자유와 평등, 강자의 권리, 민족제국주의의 팽창력, 그 모든 것들을 갖춰야만 했다.

문명화를 위한 계몽, 근대국가의 국민 창출을 위한 계몽, 그것이 『신민설』을 통해 양계초가 도모했던 일이다. 『신민설』은 근대적 민족국가의 국민을 창출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양계초는 자유·권리·의무·자치에서 경제·상무에 이르기까지 민족국가를 성립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덕’(公德)이라는 이름의 개인의 ‘덕’(德)으로서 요구했다. 공덕은 “사회를 이롭게 하는 것을 선”으로 규정하는 가치체계로서, 공덕을 내면화하게 되면 중국인들은 자율적으로 민족국가의 이익에 봉사하는 도덕적인 인간이 될 것이었다. 나아가 양계초는 모든 이기심을 배제한 순수한 양심이라는 ‘사덕’(私德)을 공덕의 기반으로서 요청한다. 이리하여 공덕의 임무, 즉 근대국가 건설을 위한 모든 노력은, 개인의 이기심을 배제한

순수한 양심에서 우리나라는 도덕적 행위라고 주장된다. 옛날의 유학자들이 가정의 평화, 나라의 평화, 세계의 평화를 위해 수신하라고 요구했듯이, 양계초는 강력한 근대국가를 성립시킬 자격 있는 국민이 되기 위해 수신하여 공덕과 사덕을 갖추라고 요구했다.

2.2 『신민설』 해설

『신민설』은 양계초가 일본의 요코하마(橫濱)에서 발행한 반월간 잡지 《신민총보》(新民叢報)에, 1902년 2월 창간호부터 1906년 1월까지 연재했던 글을 묶은 것이다. 전체 20절로 구성되었다.

1898년 양계초는 무술변법운동에 실패하고 일본에 망명했으며,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당시 일본을 풍미하고 있던 국가주의에 경도되었다. 그 전까지 강유위의 영향 하에서, 실질적으로는 제도개혁을 주장하며 경쟁주체로서의 강력한 중국을 만드는 일에 종사하면서도 이념적으로는 대동을 이상으로 두는 세계주의 사이에서 흔들리던 입장을 정리하고, 세계주의를 부정하고 자각적으로 국가주의 노선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양계초는 당시의 제국주의적 팽창을 민족국가 사이의 경쟁의 결과라고 이해했다. 양계초가 이해하기에, 민족주의와 제국주의는 진화의 필연적 결과이고 민족국가는 그 경쟁의 가장 바람직한 주체였다. 경쟁은 진화의 동력이며, 민족국가는 경쟁주체가 진화할 수 있는 최고의 단계였다. 그러므로 중국의 과제는 민족주의를 채택하여 민족국가를 성립시키는 것이었다. 문화공동체였던 민족이 주권을 가진 정치공동체로 거듭나는 것만이 민족국가 간의 경쟁에 참여하는 길이었고 거기에서 승자가 되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신민설』은 중국의 근대적 민족국가의 건설을 목적으로 한 정치사상서이다. 양계초는 『신민설』을 통해 강한 중국, 근대적 민족국가를 이룩할 초석을 놓고자 했다. 민족국가는 진화와 문명의 표상이었다. 자유와 평등

으로 상징되는 근대적 시민의 이념과, 강자의 권리로 표상되는 제국주의적 힘의 원리, 양계초의 머리에서 이 둘은 구분되지 않고 강자가 갖추고 있는 우성(優性)으로 파악되었다. 강자는 문명과 진화의 상징이었다. 그에게 도덕적 원리와 힘의 원리는 구분되지 않고 문명, 진화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중국은 문명국가가 되기 위해,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유럽의 근대국가처럼 자유와 평등, 강자의 권리, 민족제국주의의 팽창력, 그 모든 것들을 갖춰야만 했다.

그러나 실제로, 망명 정치가의 처지에 있던 양계초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근대적 민족국가를 이룩할 국민이 되자고 중국인들에게 호소하는 일이었다. 즉 그가 했던 일은 근대중국을 건설할 근대적 국민을 창출하는 것이었다. 양계초는 중국인들이 근대 국가의 국민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을 민지(民智)·민덕(民德)·민력(民力), 즉 지·덕·체로 정리했다. 『신민설』은 그 가운데 특히 민덕 부분을 다룬 글이다. 스스로 법에 복종하고 국가에 봉사하는 자율적이고 자유로운 근대국가의 국민, 그 국민의 창출을 위해 양계초는 근대국가의 국민으로 갖춰야 할 자격, 근대국가를 이룩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 ‘근대적 도덕’들을 나열했다. 그 근대적 도덕은 공덕(公德)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며, 공덕은 과거의 구도덕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그러나 권리, 의무, 자유, 자치, 경제 등, 공덕의 이름으로 요구되었던 것은 사실상 근대적 국가의 정치·경제적 근간이 될 장치들이었다. 즉 공적인 영역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들이었다. 그것들을 양계초는 국가사상, 권리사상, 의무사상, 자유정신, 자치정신, 경제정신 등의 사상 또는 정신이라는 단어를 덧붙여 공덕이라는 이름의 덕으로서 개개인에게 사적 영역에서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그 공덕의 본질은 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것이었고, 결국은 당시 양계초가 단체의 최고 단위로 여기고 추구하던 민족국가를 이롭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양계초는 공화국, 또는 입헌군주국에서도 한걸음 후퇴하여, 공화국으로 가는 단계로서 일시적인 개명전제(開明專制)의 실시를 주장한다. 그러한 입장의 변화는 손문(孫文)을 필두로 하는 혁명파와의 대결과 맞물려 있다. 양계초는 공덕의 신장을 위해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를 볼 수 없었던 것은 사덕(私德)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그러면서 특히 지도자들의 사덕을 문제로 삼는다. 동시에 이전에는 공덕체계와 별개의 체계로 간주하던 사덕체계를 공덕체계와 접합하여, 사덕이 공덕의 근본이라고 말한다. 즉 사덕이 갖춰져야 그것이 공덕으로 확충된다고 말한다. 사덕은 개인과 타인과 교제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도덕, 또는 한 개인하고만 교제할 때의 도덕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가 공덕을 강조하던 시기에는 중국인들에게는 너무나 발달한 나머지 오히려 공덕의 발달을 저해한, 한쪽으로 치워두고 잊어도 되는 그러한 것이었다. 즉 사덕은 실질적으로는 중국의 구도덕, 특히 유가도덕을 의미했다. 사덕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 그는 유가도덕을 다시 무대 전면에 등장시킨다.

사덕은 개명전제를 주도할 정치엘리트들에게 요구되는 도덕으로서, 양명학적 발본색원(拔本塞源)을 요구하는 순수한 양심의 도덕이었다. 그러나 애국심이 순수한 양심의 발로라고 주장되고, 그 사덕의 확충이 공덕의 성취가 되는 한, 그것은 양명이 주장한 그대로의 양심의 덕일 수는 없었다. 양계초가 사덕을 강조한 정치적 이유는, 그가 혁명파의 애국을 인정할 수 없었고, 그들의 가장 큰 결함이 개인적인 도덕, 즉 사덕의 결여라고 비판하기 위해서였다. 즉 애국심은 결국 ‘애국이 아니라면 나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익추구의 관점에서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이기심이 개입되지 않은 발본색원의 양심에서 비롯한 것임을 주장하려는 것이었다. 목적에 유도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 지닌 선의지에 의해 유도되는 행위만이 도덕적인 행위라고 주장하려는 것이었다. 정치적으로는 애국이라는 목적을 위한 운동이라 인정하더라도 개인의 도덕에 문제가 있는 혁명파의 애국운동은 오히려 득보다 해가 많을 것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의 표명이었지만, 그 와중에서 그는 도덕이란 오로지 비이기적인 선의지에서만 비롯한다는 자신의 윤리적 신념을 드러냈다. 그는 애국조차도 그러한 것이며 애국을 최고목적으로 하는 공덕조차도 그러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공덕체계와 사덕체계를 별개의 가치체계로 분리했다가 다시 연결했다. 공덕의 학습만을 주장했을 때의 사덕은 공덕과는 다른 체계의 가

치체계였으나, 뒤에는 사덕이 기초가 되어야 공덕이 진정한 것이 된다는 논리로 바뀌었다. 이때 양계초가 다시 불러들인 사덕은 표면적으로는 양명학이라는 옛 시대의 유학이었지만, 애국을 정점으로 하는 공덕의 기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옛날 그대로의 양명학일 수는 없었다. 공덕만을 필요로 했을 때 양계초가 유학을 치지도외했던 것은 유학으로부터는 강력한 국가의 건설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유학은 애국, 민족, 국가라는 존재 일부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추구할 수 없는 사상체계이다. 유학은 개인의 주체를 존재 전체의 본질과 동일한 것으로 설정하고 인간의 도덕적 능력에 의해 그 주체를 극대화하여 우주를 내 몸처럼 여기고 사랑하자는 사상이다. 그 안의 개인은 자신의 본성에 따라 모든 존재를 내 가족처럼 사랑할 뿐이다. 그 안에서 경쟁을 미덕으로 하며 배타적 단체의 이익 추구를 정당화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다. 양계초가 유학으로부터 단체의 이익 추구를 본질로 한다는 공덕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옳았다. 그런데 양계초는 그러한 처음의 생각을 철회하고 유학을 공덕의 기초로 앉힌 것이다.

양계초는 유학의 무엇을 새롭게 평가한 것일까? 그는 유학의 ‘수기-치인’의 구조를 불러냈다. 도덕과 정치를 분리하지 않는 유학의 틀을 다시 살려냈다. 공적세계의 효과를 사적 세계에서 노력에 요구하는 유학의 구조를 다시 평가한 것이다. 그러나 양심과 우주가 아니라, 양심과 민족 국가를 연결시켰다. 즉 옛날의 천하 자리에 민족국가를 앉힌 것이다. 이것은 물론 모순이다. 양명학의 양심은 모든 이기심, 모든 배타적 사랑을 발본색원한 것이다. 애국 역시 발본색원의 대상이다. 그러한 발본색원만이 양심을 양심하게 한다. 양계초는 이미 존재의 일부분에 불과할 뿐인 중국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양심을 발휘하여 하라고 요구했다. 그에게는 그 모순이 인식되지 않았다. 그는 민족의 위기를 예민하게 느끼고 그 책임을 함께 짊어져가는 것이, 공화국의 국민 될 자격, 민주를 향유할 자격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민주를 향유하기 전에 그 자격을 갖추라고 요구했다. 그것이 사덕의 부활이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자신이 구상하는 사회에 바람직한 인간상을 그대로 본성의 이름으로, 도덕의 이름으로

로 요구하는 유학의 모습이다. 중국 중심의 천하가 무너진 사실, 천하주의, 세계주의는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국가주의를 내걸었던 양계초에게 ‘수기-치인’의 논리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이념은 ‘평천하’ 대신에 ‘민주’나 ‘문명’이니 하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수기’는 민주와 문명에 능동적으로 참가하는 전제 조건으로서 또다시 요구되었다.

양계초가 무술변법시기부터 『신민설』 시기까지 전개했던 계몽사업의 역사적 의의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 시기의 역할 말고 그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다른 중요한 의의도 있다. 『신민설』을 통해 그가 구상한 근대국가와 국민의 모습은, 실제로 일본을 비롯해 타이완과 한국에서 채택되었던 근대국가와 그 국민의 전형을 보여준다. 서양의 제국주의적 진출에 촉발되어 주목하게 된 근대, 아시아에서 그 근대의 학습은 제국주의의 두 지지대인 사회진화론과 민족주의를 수입하고 그것을 내면화하는 것을 의미했다. 생존경쟁, 적자생존의 표어로 받아들여진 사회진화론은 제국주의의 식민지 확장을 정당화하는 침략자의 이념이었으며 민족주의 역시 국민적 통합을 위해 자국 내에서 포기한 예속노동을 해외에서 찾기 위한 식민지 정벌을 촉진하는 것이었다. 사회진화론과 민족주의에 의지하는 양계초의 개혁은 “민족국가를 건설하여 생존경쟁에서 살아남는 적자가 되자.”는 표어로 정리된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국주의의 최대 성공자인 앵글로색슨 종족을 본받는 것이었다. 제국주의의 먹이였던 아시아인들은 침략자의 이념을 자신들의 이념으로 삼아 그들의 눈으로 자신들의 열악함을 죄악시하며 자책했고, 그 열악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망 없는 분투에 몸을 던졌다. 사회진화론을 개혁 논리로 삼고 저들과 같은 근대적 민족국가를 건설하려는 양계초의 자기반성과 자기 분투는 저들의 오리엔탈리즘을 그대로 자신의 눈으로 삼은 것이었다. 그 분투는 민족국가의 이익을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국가주의로 나타나고 개발독재(개명전제)의 옹호로 나타난다.

그러나 『신민설』도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양계초의 일생 역시 국가주의와 개명전제를 통한 근대서구문명 수입상으로 일관하지 않는다. 『신민설』안에서는 중국 구도덕의 효용성을 다시 평가하며, 그의 인생 후반기

에 그는 동양문명의 우수성에 대해 다시 평가한다. 그래서 『신민설』도 전체로 보면 양립할 수 없는 여러 요소들이 같이 섞여 있으며, 그의 일생을 두고도 그가 자신의 입장을 너무나 자주 쉽게 바꾼 사람이라는 평을 듣는다. 『신민설』 안의 모순과 그의 정치적 입장의 변화는 각각 구체적인 정치적 배경을 갖지만,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러한 모순되는 것의 공존은 그대로 아시아 근대화의 모순된 성격을 그대로 폭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적이다. 국가주의와 개명전제를 옹호하면서 목말라했던 근대식 민족국가의 건설이 성공한다 해도, 그것으로 중국인의 행복은 보장되지 않을 것이었다. 국가라는 단체를 이롭게 하는 공덕(公德)을 몸에 갖추도 그것만으로는 도덕적 인간이 되어 예전과 같은 자존감을 찾기는 어려웠을 것이었다. 양계초가 그것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 해법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도덕과 자율성의 왜소화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고, 그 불안의 해소방법으로 과거의 유가도덕을 다시 들고 나왔다는 점은 시사적이다. 그것은 오리엔탈리즘의 내면화로 인해, 과거 우주의 주인까지 확대되었던 자신의 주체를 상실한 데서 오는 막연한 불안과 허무감 속에서 본능적으로 붙잡은 자신의 것, 자신을 자신으로 만들어 주는 것으로서 움켜쥐었던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중국의 근대화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근대화에 상징적인 역할을 한 양계초의 존재 의미, 그리고 『신민설』의 의미는, 그의 근대화이론이 모순에 찬 것이라는 점 때문에 우리가 되새겨볼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2.3 『신민설』 상세 목차

제1절 서론

제2절 오늘날 중국의 제일 급무인 신민(新民)

제3절 신민(新民)의 뜻

제4절 우승열패의 원리로 논증한 신민의 결과, 신민을 채택해야 하는 당위

제5절 공덕(公德)
제6절 국가사상
제7절 진취와 모험
제8절 권리사상
제9절 자유
제10절 자치
제11절 진보(일명 중국정치가 부진한 이유)
제12절 자존
제13절 사회통합
제14절 생산과 소비(생산노동자와 비생산노동자)
제15절 의력(毅力)
제16절 의무사상
제17절 상무(尙武)
제18절 사덕(私德)
제19절 민기(民氣)
제20절 정치능력

2.4 주요 용어

2.4.1 민족국가

양계초는 사회진화론이 인류 역사를 지배하는 법칙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인류는 생존경쟁의 세계에서 적자생존 법칙의 지배를 받으며, 인류는 그러한 경쟁을 통해 문명을 향해 발전해간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 경쟁 세계에서 그 경쟁의 주체 단위 역시 진화한다고 생각했는데, 그에 게 국가는 그 경쟁 단위의 최고 상태였다. 즉 국가는 가장 발전된 형태의 경쟁 주체이다. 나아가 양계초는 유럽근대국가의 탄생은 민족주의의

발달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판단하기에 근대 유럽을 탄생시킨 민족은 단순히 혈연, 지연, 문화 공동체가 아니다. 동일한 지역의 동일한 종족, 동일한 언어, 동일한 종교와 습속을 가진 혈연, 지연, 문화 공동체는 또한 “서로를 동포로 여기고 독립과 자치를 위해 노력하여 완비된 정부를 조직하여 공익을 도모하고 이민족을 막으려”고 한다. 그러한 정치적 지향이 민족주의이다. 즉 민족주의는 지역과 혈연, 문화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민족이, 스스로 단일한 정치 공동체를 구성해서 민족의 이익을 피하고 타민족의 간섭이나 압제에서 스스로를 지키자는 주의·주장이다. 민족이 구성하는 정치공동체, 이것이 경쟁의 최고 상태인 국가 가운데에서도 최종적인 국가의 진화태였다. 즉 민족은 가장 단단하게 결속할 수 있는 최대단위였고, 독자적인 국가를 형성하려는 정치적 행위만이 그 민족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었다. 즉 민족국가는 인위적이지 않기 때문에 강력한 결속력을 보장해주는, 가장 효과적으로 주권을 발휘하도록 구성된 정치공동체이다. 양계초의 판단에 의하면, 적자생존의 세계는 민족주의에서 민족제국주의로 진화해가고 있으며, 중국의 당면 과제는 민족주의를 이룩하는 것, 즉 민족국가를 형성하는 것이었다.

2.4.2 신민

근대국가의 국민은 군주제 밑에서 정치에서 소외되었던 과거의 그 인민이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국가 주권의 원천이 될 존재이어야 한다. 중국 근대 민족국가를 이룩하고 그 국가의 주인이 될 국민을 양계초는 ‘신민(新民)’이라고 불렀다. 중국인들 하나하나가 신민이 되면 중국은 자연히 근대적 민족국가가 될 것이었다. 양계초에 의하면, 신민(新民)의 ‘新’은 두 가지 뜻을 갖는다. 하나는,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을 다시 새롭게 살려내는 것이다. 또 하나는 예전에는 없던 것을 밖에서 새로 들여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한 가지가 결여되어도 신민은 창출되지 않는다고 한다. 양계초가 예전부터 있던 것 가운데 새롭게 복돋아야 할

것으로 꼽은 것은 중국 민족주의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민족 정신이다. 공통된 언어와 경제생활, 공통된 정신적 기질 등으로 확인되는 공동체 의식이다. 그것은 내가 소속될 ‘우리’를 결정해 주는 요소로서, 그러한 사실을 새롭게 자각함으로써 우리는 오랜 역사를 통해 많은 것들을 공유해 온 운명공동체라는 의식이 강화될 것이다. 예전에 없던 것으로 새롭게 도입해야 할 것으로 꼽은 것은 근대국가의 국민으로 갖춰야 할 자질, 국가의 주인이 될 자질이다. 양계초는 그것을 지·덕·체(民智·民德·民力)라고 요약했다. 그것은 유럽의 근대국가 국민들이 갖추고 있는 자질들로 과거의 중국인은 갖추지 못한 것이었다. 지식은 통상과 기술을 포함한 근대의 경험적 지식들이며, 체력은 학교의 체육시간을 통해 체계적으로 신장되어 뒤에는 병력이 될 건강한 육체가 갖는 힘이다. 덕은 개인이 단체의 이익과 안녕을 염려하고 그를 위해 봉사하는 개인과 단체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덕이다.

2.4.3 공덕

공덕은 단체의 결속력을 강화시킬 개인의 덕이다. 국가를 위시한 모든 단체는 이 덕에 의해 비로소 성립한다고 할 정도이니,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요구되는 덕이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본성적으로 갖춰야 할 덕인 공덕은, 양계초에 의하면, 사회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것을 본분으로 삼는다. 즉 공덕의 정신은 사회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사회를 이롭게 하는 것은 선이고 사회에 무익한 것은 악”이란 명제는 “시공을 초월한 진리”라고 양계초는 단언한다. 사회의 이익을 만 들어내는 덕성인 공덕은, 그러한 기능상 자연히 사회의 진화에 따라 같이 진화한다. 즉 시공을 초월한 절대적인 내용을 담은 공덕은 없다. 사회의 이익에 이바지한다는 정신은 변하지 않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의 조건에 따라 다르다. 민주주의 헌법을 세운 많은 근대국가에서 왕족과 귀족의 계급을 만들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악이지만 전체제도가 선이고

왕족과 귀족의 존재가 선인 시대로 있었다. 그러므로 시대의 진화와 함께 진화하는 공덕은, 가치 상대적인 도덕이다.

2.4.4 사덕

공덕이 공적 세계에서 각 구성원들에게 요구되는 덕이라면 사덕은 사적인 세계에서 개인의 도덕성을 형성하는 덕이다. 양계초에 의하면 사덕이란 “타인과 교류하지 않을 때”, 또는 “개인이 개인과 교류할 때”에 한정된 덕이다. 즉 사회생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덕이다. 사덕에 대한 양계초의 평가, 혹은 사덕과 공덕과의 관계에 대한 양계초의 규정은 『신민설』 안에서 한 번 바뀐다. 『신민설』을 연재하기 시작한 당초에는, 중국의 과거 도덕은 거의 사덕이었으므로 이미 충분하고 지금은 공덕을 배워야 할 때라고 생각했고, 그 때의 공덕체계와 사덕체계는 전혀 별개의 것이었다. 즉 사덕 상으로는 대단히 도덕적인 사람이라도 공덕 상으로는 부도덕한 사람일 수 있었다.

그러나 『사덕』편을 발표한 시점부터 사덕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다. 이 시기부터 양계초는, 공덕의 장려에도 불구하고 그 결실이 보이지 않는 것은 사덕의 부족 때문이라고 말한다. “한 개인이 한 개인과 교섭하면서 충실하지 못하면서 단체에 충실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하며, 사덕은 공덕의 근본이며 사덕이 확충되어 공덕이 된다고 정정한다. 이렇게 보면 사덕의 중요성이 이전과 달리 강화되고, 공덕보다 그 중요성이 평가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공덕만을 중요시하던 때의 사덕은 ‘타인과 교섭하기 이전의 개인의 도덕’과 ‘개인이 개인과 교섭할 때의 도덕’으로 규정되었는데, 사덕의 중요성이 재평가되었을 때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도덕이라는 것은 모두 공공의 안녕과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며, 부덕이라는 것은 모두 공공의 안녕과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다.”고 하여 공덕과 구별되는 사덕의 특징은 공덕에 매몰되어 버린다. 양계초는 사덕이란 조금의 이기심도 배제된 순수한 양심이라고 강조하지만, 애국심이

그러한 순수한 양심의 대표로 꼽힌다. 즉 사덕에 대한 재평가가 의미하는 것은 사덕의 중요성보다 공덕의 중요성을 새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사덕까지도 공덕에 종속시키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공덕이란 ‘공공의 안녕과 이익’에 이바지하는 덕이다. 양계초가 말한 대로 공덕이 사덕의 확충이라면, 이제 사덕교육에서부터 공공의 이익을 염두에 둔 도덕교육이 실시될 것이다.

제 2 부 철학 지식지도

1. 철학자 지식지도

- 토픽명: 양계초
- 토픽 ID: ch_qichao
- 상위 토픽명: 중국철학자
- 상위 토픽 ID: ch_philosopher

내부 어커런스

원어 이름: 梁啓超

영어 이름: Liang qi-chao

생애 요약: 1부 1.1

외부 어커런스

생애 요약: 1부 1.1

생애 해설: 1부 1.2

생애 연보: 1부 1.3

인물 사진:

원어 웹사이트 :

영어 웹사이트 :

한국어 웹사이트 :

연관 관계

관계된 철학자: 강유위(ch_youwei), 손문(ch_wen)

기여한 철학 분야: 유가철학(ch_confucianism),
정치철학(mod_pol_phil)

기여한 철학 학파:

기여한 철학 이론:

주요 저작: 변법통의(ch_liangqichao_bianfa),
신민설(ch_liangqichao_xinmin)

2. 철학 문헌 지식지도

- 토픽명: 신민설
- 토픽 ID: ch_liangqichao_xinmin
- 상위 토픽명: 중국철학문헌
- 상위 토픽 ID: ch_phil_texts

내부 어커런스

원어 제목: 新民說

영어 제목: xinminsuo

원전 요약: 1부 2.1

원전 초판 출판년도: 1902~1906년

외부 어커런스

원전 요약: 1부 2.1

원전 해설: 1부 2.2

상세 목차: 1부 2.3

체크표지 그림:

원어 디지털 텍스트:

영어 디지털 텍스트:

한국어 디지털 텍스트:

철학 문헌 내용 토픽맵: ch_liangqichao_xinmin_km.xml

연관 관계

관계된 철학자: 강유위(ch_youwei)

 손문(ch_wen)

기여한 철학 분야: 유가철학(ch_confucianism)

 정치철학(mod_pol_phil)

기여한 철학 학과:

기여한 철학 이론:

주요 저작: 변법통의(ch_lianqichao_bianfa)

 신민설(ch_liangqichao_xinmin)

3. 철학 용어 지식지도

3.1 민족국가

- 토픽명: 민족국가
- 토픽 ID: t1
- 상위 토픽명: 국가
- 상위 토픽 ID: t_ch_state

내부 어커런스

원어 용어: minzhguojia

영어 용어: national state

한자 표기: 民族國家

용어 설명: 1부 2.4.1

외부 어커런스

용어 설명: 1부 2.4.1

연관 관계

사용한 철학자: 양계초(ch_qichao)

사용한 철학 문헌: 신민설(ch_liangqichao_xinmin)

사용한 내용 토픽: 민족국가(c1.3)

3.2 신민

- 토픽명: 신민
- 토픽 ID: t2
- 상위 토픽명: 국민
- 상위 토픽 ID: t_ch_nation

내부 어커런스

원어 용어: xinmin

영어 용어: xinmin

한자 표기: 新民

용어 설명: 1부의 2.4.2

외부 어커런스

용어 설명: 1부 2.4.2

연관 관계

사용한 철학자: 양계초(ch_qichao)

사용한 철학 문헌: 신민설(ch_liangqichao_xinmin)

사용한 내용 토픽: 근대 중국의 국민- 신민(c2.2)

3.3 공덕

- 토픽명: 공덕
- 토픽 ID: t3
- 상위 토픽명: 도덕
- 상위 토픽 ID: t_ch_moral

내부 어커런스

원어 용어: gongde

영어 용어: public morality

한자 표기: 公德

용어 설명: 1부 2.4.3

외부 어커런스

용어 설명: 1부 2.4.3

연관 관계

사용한 철학자: 양계초(ch_qichao)

사용한 철학 문헌: 신민설(ch_liangqichao_xinmin)

사용한 내용 토픽: 공덕(c3.2)

3.4 사덕

- 토픽명: 사덕
- 토픽 ID: t4
- 상위 토픽명: 도덕
- 상위 토픽 ID: t_ch_moral

내부 어커런스

원어 용어: side

영어 용어: private morality

한자 표기: 私德

용어 설명: 1부 2.4.4

외부 어커런스

용어 설명: 1부 2.4.4

연관 관계

사용한 철학자: 양계초(ch_qichao)

사용한 철학 문헌: 신민설(ch_liangqichao_xinmin)

사용한 내용 토픽: 사덕(c3.3)

4. 철학 문헌 내용 지식지도

1.국가 (e1.1 / q1.2)

1.1 국가와 진화

1.1.1 국가의 성립

1.1.1.1 단체의 필요성 (e1.1.1.1.1 / q1.1.1.1.2)

1.1.1.2 경계로서의 단체 (e1.1.1.2.1 / q1.1.1.2.2)

1.1.1.3 국가의 성립조건 (e1.1.1.3.1 / q1.1.1.3.2)

1.1.1.3.1 국가사상의 유무 (e1.1.1.3.1.1 / q1.1.1.3.1.2)

1.1.1.3.2 국가사상의 내용

1.1.1.3.2.1 개인과 국가의 관계

(e1.1.1.3.2.1.1~2 / q1.1.1.3.2.1.3)

- 1.1.1.3.2.2 정부와 국가의 관계
(e1.1.1.3.2.2.1 / q1.1.1.3.2.2.2)
- 1.1.1.3.2.3 타민족과 국가의 관계
(e1.1.1.3.2.3.1~3 / q1.1.1.3.2.3.4)
- 1.1.1.3.2.4 세계와 국가의 관계
(e1.1.1.3.2.4.1~2 / q1.1.1.3.2.4.3)
- 1.1.1.3.3 경쟁주체로서의 국가 (e1.1.1.3.3.1 / q1.1.1.3.3.2)
- 1.1.2 국가와 문명
 - 1.1.2.1 문명으로서의 국가 (e1.1.2.1.1 / q1.1.2.1.2)
 - 1.1.2.2 절대 가치로서의 국가 (e1.1.2.2.1 / q1.1.2.2.2)
- 1.2 민족주의
 - 1.2.1 민족주의의 정의 (e1.2.1.1 / q1.2.1.2)
 - 1.2.2 민족주의와 진화 (e1.2.2.1 / q1.2.2.2)
 - 1.2.2.1 민족제국주의로의 발전 (e1.2.2.1.1 / q1.2.2.1.2)
 - 1.2.2.2 고대제국주의와 민족제국주의 (e1.2.2.2.1 / q1.2.2.2.2)
 - 1.2.3 민족 진화의 관건 (e1.2.3.1 / q1.2.3.2)
 - 1.2.3.1 백인종의 우월성 (e1.2.3.1.1 / q1.2.3.1.2)
 - 1.2.3.2 튜튼족의 우월성 (e1.2.3.2.1 / q1.2.3.2.2)
 - 1.2.3.3 앵글로색슨족의 우월성 (e1.2.3.3.1 / q1.2.3.3.2)
 - 1.2.3.4 진화에 필요한 특성들 (e1.2.3.4.1)
 - 1.2.4 중국의 민족주의 (e1.2.4.1)
 - 1.2.4.1 중국민족의 가능성 (e1.2.4.1.1 / q1.2.4.1.2)
 - 1.2.4.2 중국민족의 위기 (e1.2.4.2.1 / q1.2.4.2.2)
 - 1.2.4.3 중국민족의 과제 (e1.2.4.3.1 / q1.2.4.3.2)
 - 1.2.4.4 중국민족의 모범 (e1.2.4.4.1 / q1.2.4.4.2)
- 1.3 민족국가 (e1.3.1)
 - 1.3.1 민족국가의 의의 (e1.3.1.1)
 - 1.3.2 민족국가의 원천 (e1.3.2.1 / q1.3.2.2)
 - 1.3.3 민족국가의 요소 (e1.3.3.1)

- 1.3.3.1 권리 (e1.3.3.1.1~2)
 - 1.3.3.1.1 권리사상은 국가의 뿌리
 - (e1.3.3.1.1.1 / q1.3.3.1.1.2)
 - 1.3.3.1.2 권리는 형이상의 생존 능력
 - (e1.3.3.1.2.1 / q1.3.3.1.2.2)
 - 1.3.3.1.3 강자의 권리 (e1.3.3.1.3.1 / q1.3.3.1.3.2)
 - 1.3.3.1.4 권리는 경쟁에서 (e1.3.3.1.4.1 / q1.3.3.1.4.2)
 - 1.3.3.1.5 권리와 법 (e1.3.3.1.5.1 / q1.3.3.1.5.2)
 - 1.3.3.1.6 국권은 모든 개인의 권리의 합 (e1.3.3.1.6.1
 - / q1.3.3.1.6.2 / e1.3.3.1.6.3~4)
- 1.3.3.2 의무 (e1.3.3.2.1 / q1.3.3.2.2)
 - 1.3.3.2.1 개인과 사회의 협조 (e1.3.3.2.1.1 / q1.3.3.2.1.2)
 - 1.3.3.2.2 의무와 권리의 균형 (e1.3.3.2.2.1 / q1.3.3.2.2.2)
 - 1.3.3.2.3 의무는 권리의 원천 (e1.3.3.2.3.1 / q1.3.3.2.3.2)
- 1.3.3.3 자유 (e1.3.3.3.1)
 - 1.3.3.3.1 자유는 천하의 공리 (e1.3.3.3.1.1 / q1.3.3.3.1.2)
 - 1.3.3.3.2 문명의 자유
 - 1.3.3.3.2.1 자유의 황금률
 - (e1.3.3.3.2.1.1 / q1.3.3.3.2.1.2)
 - 1.3.3.3.2.2 법률에의 복종
 - (e1.3.3.3.2.2.1~2 / q1.3.3.3.2.2.3)
 - 1.3.3.3.2.3 단체의 자유 (e1.3.3.3.2.3.1 / q1.3.3.3.2.3.2)
- 1.3.3.4 자치(e1.3.3.4.1 / q1.3.3.4.2)
 - 1.3.3.4.1 자치능력은 인간의 조건
 - (e1.3.3.4.1.1 / q1.3.3.4.1.2)
 - 1.3.3.4.2 자치의 관건은 법률 (e1.3.3.4.2.1 / q1.3.3.4.2.2)
 - 1.3.3.4.2.1 개인적 자치의 극치
 - (e1.3.3.4.2.1.1 / q1.3.3.4.2.1.2)

- 1.3.3.4.2.2 사회적 자치의 극치
(e1.3.3.4.2.2.1 / q1.3.3.4.2.2.2)
- 1.3.3.4.3 자치는 자유·평등·민권의 바탕
(e1.3.3.4.3.1 / q1.3.3.4.3.2)
- 1.3.3.4.4 자치능력의 효용 (e1.3.3.4.4.1 / q1.3.3.4.4.2)
- 1.3.3.5 경제 (e1.3.3.5.1)
 - 1.3.3.5.1 문명의 경제 (e1.3.3.5.1.1 / q1.3.3.5.1.2)
 - 1.3.3.5.1.1 노동의 증식 (e1.3.3.5.1.1.1 / q1.3.3.5.1.1.2)
 - 1.3.3.5.1.2 자본의 증식 (e1.3.3.5.1.2.1 / q1.3.3.5.1.2.2)
 - 1.3.3.5.1.3 자본과 노동력의 증감관계
(e1.3.3.5.1.3.1 / q1.3.3.5.1.3.2)
 - 1.3.3.5.2 부국의 길 (e1.3.3.5.2.1)
 - 1.3.3.5.2.1 소비의 축소와 투자자본의 확대
(e1.3.3.5.2.1.1 / q1.3.3.5.2.1.2)
 - 1.3.3.5.2.2 생산의 증대 (e1.3.3.5.2.2.1 / q1.3.3.5.2.2.2)
- 1.3.3.6 파괴와 진보 (e1.3.3.6.1)
 - 1.3.3.6.1 파괴는 진보의 길 (e1.3.3.6.1.1 / q1.3.3.6.1.2)
 - 1.3.3.6.2 파괴는 불가피한 것 (e1.3.3.6.2.1 / q1.3.3.6.2.2)
 - 1.3.3.6.3 자발적 파괴의 이점 (e1.3.3.6.3.1 / q1.3.3.6.3.2)
 - 1.3.3.6.4 무혈파괴의 이점 (e1.3.3.6.4.1 / q1.3.3.6.4.2)
 - 1.3.3.6.5 계속되어야 할 파괴 (e1.3.3.6.5.1 / q1.3.3.6.5.2)
- 1.3.3.7 상무
 - 1.3.3.7.1 문명의 지지대인 상무 (e1.3.3.7.1.1 / q1.3.3.7.1.2)
 - 1.3.3.7.2 강자만의 평화 (e1.3.3.7.2.1 / q1.3.3.7.2.2)
 - 1.3.3.7.3 무장평화시대의 자구책
(e1.3.3.7.3.1 / q1.3.3.7.3.2)
 - 1.3.3.7.4 상무의 무한한 가능성 (e1.3.3.7.4.1 / q1.3.3.7.4.2)
- 1.3.4 민족국가를 향한 중국의 과제
 - 1.3.4.1 국가사상의 결여 (e1.3.4.1.1~2 / q1.3.4.1.3)

- 1.3.4.1.1 만연한 이기주의 (e1.3.4.1.1.1 / q1.3.4.1.1.2)
- 1.3.4.1.2 충성에 대한 오해 (e1.3.4.1.2.1 / q1.3.4.2.2)
- 1.3.4.1.3 국가에 대한 지조의 결여
(e1.3.4.1.3.1 / q1.3.4.1.3.2)
- 1.3.4.1.4 평천하 의식 (e1.3.4.1.4.1 / q1.3.4.1.4.2)
 - 1.3.4.1.4.1 지리상의 원인 (e1.3.4.1.4.1.1)
 - 1.3.4.1.4.2 학설상의 원인 (e1.3.4.1.4.2.1)
- 1.3.4.1.5 가장 중대한 문제와 그 해결
(e1.3.4.1.5.1 / q1.3.4.1.5.2)
 - 1.3.4.1.5.1 갖가지 이기주의
(e1.3.4.1.5.1.1~2 / q1.3.4.1.5.1.3)
 - 1.3.4.1.5.2 국가는 현명한 이기주의자의 선택
(e1.3.4.1.5.2.1 / q1.3.4.1.5.2.2)
- 1.3.4.2 단결력의 부족 (e1.3.4.2.1 / q1.3.4.2.2)
 - 1.3.4.2.1 공익을 위한 사적인 이익의 희생
(e1.3.4.2.1.1 / q1.3.4.2.1.2)
 - 1.3.4.2.2 공공의 적(公敵)과 사사로운 적(私敵)의 구분
(e1.3.4.2.2.1 / q1.3.4.2.2.2)
 - 1.3.4.2.3 무규율 (e1.3.4.2.3.1 / q1.3.4.2.3.2)
 - 1.3.4.2.4 시기와 질투 (e1.3.4.2.4.1 / q1.3.4.2.4.2)
- 1.3.4.3 권리사상의 결여
 - 1.3.4.3.1 관대함의 위험성 (e1.3.4.3.1.1~2 / q1.3.4.3.1.3)
 - 1.3.4.3.2 양주의 위아주의와 권리사상
(e1.3.4.3.2.1~2 / q1.3.4.3.2.3)
 - 1.3.4.3.3 인(仁)의 덕과 권리사상
(e1.3.4.3.2.1~3 / q1.2.4.3.2.4)
- 1.3.4.4. 의무사상의 박약 (e1.3.4.4.1)
 - 1.3.4.4.1 분업에 기초한 의무와 권리
(e1.3.4.4.1.1~2 / q1.3.4.4.1.3)

- 1.3.4.4.2 의무에 관한 중국인과 서양인의 차이
(e1.3.4.4.2.1 / q1.3.4.4.2.2)
- 1.3.4.4.3 권리와 의무는 애국심의 근거
(e1.3.4.4.3.1~2 / q1.3.4.4.3.3)
- 1.3.4.4.4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잃은 의무의 문제점
(e1.3.4.4.4.1~3 / q1.3.4.4.4.4)
- 1.3.4.5 중국의 복고적 역사관 (e1.3.4.5.1~2 / q1.3.4.5.3)
- 1.3.4.5.1 자연적 이유
 - 1.3.4.5.1.1 경쟁 없는 통일왕국
(e1.3.4.5.1.1.1 / q1.3.4.5.1.1.2)
 - 1.3.4.5.1.2 하등문명의 주위 야만국가
(e1.3.4.5.1.2.1~2 / q1.3.4.5.1.2.3)
- 1.3.4.5.2 인위적 이유
 - 1.3.4.5.2.1 표의문자의 약점
(e1.3.4.5.2.1.1 / q1.3.4.5.2.1.2)
 - 1.3.4.5.2.1.1 새로운 발명품의 표기 문제
(e1.3.4.5.2.1.1.1 / q1.3.4.5.2.1.1.2)
 - 1.3.4.5.2.1.2 문자의 습득에 소비되는 시간과 정력
(e1.3.4.5.2.1.2.1 / q1.3.4.5.2.1.2.2)
 - 1.3.4.5.2.1.3 지식의 대중화 문제
(e1.3.4.5.2.1.3.1 / q1.3.4.5.2.1.3.2)
 - 1.3.4.5.2.1.4 정치의 진보와 사상의 심화
(e1.3.4.5.2.1.4.1 / q1.3.4.5.2.1.4.2)
- 1.3.4.5.2.2 오랜 전제(專制)
(e1.3.4.5.2.2.1~2 / q1.3.4.5.2.2.3)
- 1.3.4.5.2.3 편협한 학설과 사상
(e1.3.4.5.2.3.1 / q1.3.4.5.2.3.2)
- 1.3.4.6 중국의 경제 (e1.3.4.6.1)
- 1.3.4.6.1 중국 경제의 실태 (e1.3.4.6.1.1 / q1.3.4.6.1.2)

- 1.3.4.6.2 과도한 소모자(비생산자)
(e1.3.4.6.2.1 / q1.3.4.6.2.2)
- 1.3.4.6.3 중국 경제의 가능성 (e1.3.4.6.3.1 / q1.3.4.6.3.2)
- 1.3.4.6.4 실천상의 순서 (e1.3.4.6.4.1 / q1.3.4.6.4.2)
- 1.3.4.7 상무정신이 결여된 중국 (e1.3.4.7.1)
 - 1.3.4.7.1 무력에 굴복했던 역사(e1.3.4.7.1.1 / q1.3.4.7.1.2)
 - 1.3.4.7.2 천성처럼 된 문약(文弱)함
(e1.3.4.7.2.1 / q1.3.4.7.2.2)
 - 1.3.4.7.3 문약하게 된 원인 (e1.3.4.7.3.1 / q1.3.4.7.3.2)
 - 1.3.4.7.3.1 국세의 통일 (e1.3.4.7.3.1.1 / q1.3.4.7.3.1.2)
 - 1.3.4.7.3.2 유교의 도덕주의
(e1.3.4.7.3.2.1 / q1.3.4.7.3.2.2)
 - 1.3.4.7.3.3 패도의 영향 (e1.3.4.7.3.3.1 / q1.3.4.7.3.3.2)
 - 1.3.4.7.3.3.1 패도의 정책1 - 족쇄
(e1.3.4.7.3.3.1.1 / q1.3.4.7.3.3.1.2)
 - 1.3.4.7.3.3.2 패도의 정책2 - 회유(懷柔)
(e1.3.4.7.3.3.2.1 / q1.3.4.7.3.3.2.2)
 - 1.3.4.7.3.4 무력을 경시하던 습속
(e1.3.4.7.3.4.1 / q1.3.4.7.3.4.2)
 - 1.3.4.7.4 자주지권을 보장하는 것은 자위권
(e1.3.4.7.4.1 / q1.3.4.7.4.2)
 - 1.3.4.7.5 상무정신을 위해 키워야 할 세 가지
(e1.3.4.7.5.1~3 / q1.3.4.7.5.4)
 - 1.3.4.7.5.1 정신력(心力)
 - 1.3.4.7.5.1.1 불가능을 모르는 정신력
(e1.3.4.7.5.1.1.1 / q1.3.4.7.5.1.1.2)
 - 1.3.4.7.5.1.2 당면의 위기를 돌파할 정신력
(e1.3.4.7.5.1.2.1 / q1.3.4.7.5.1.2.2)
 - 1.3.4.7.5.2 담력

- 1.3.4.7.5.2.1 두려움을 모르는 담력
(e1.3.4.7.5.2.1 / q1.3.4.7.5.2.2)
- 1.3.4.7.5.2.2 담력은 자신감에서
(e1.3.4.7.5.2.2.1 / q1.3.4.7.5.2.2.2)
- 1.3.4.7.5.3 체력
- 1.3.4.7.5.3.1 체력은 군국주의 국민의 자격
(e1.3.4.7.5.3.1.1 / q1.3.4.7.5.3.1.2)
- 1.3.4.7.5.3.2 체력은 국력
(e1.3.4.7.5.3.2.1 / q1.3.4.7.5.3.2.2)

2. 국민

- 2.1 근대국가의 국민
 - 2.1.1 국민은 국가 권위의 근원 (e2.1.1.1)
 - 2.1.2 국가의 역량은 국민의 역량(e2.1.2.1 / q2.1.2.2)
- 2.2. 근대 중국의 국민- 신민 (e2.2.1)
 - 2.2.1 신민의 의미
(e2.2.1.1 / q2.2.1.2 / e2.2.1.3 / q2.2.1.4)
 - 2.2.2 신민의 의미
 - 2.2.2.1 ‘신’(新)의 두 가지 뜻 (e2.2.2.1.1 / q2.2.2.1.2)
 - 2.2.2.2 보수의 중요성
 - 2.2.2.2.1 지켜야 할 것 (e2.2.2.2.1.1 / q2.2.2.2.1.2)
 - 2.2.2.2.2 진정한 수구 (e2.2.2.2.2.1 / q2.2.2.2.2.2)
 - 2.2.2.3 진취의 필요성
 - 2.2.2.3.1 새로 채용해야 할 것 (e2.2.2.3.1.1 / q2.2.2.3.1.2)
 - 2.2.2.3.2 가지가 아닌 뿌리의 이식
(e2.2.2.3.2.1 / q2.2.2.3.2.2)
 - 2.2.2.4 보수와 진취의 조화 (e2.2.2.4.1 / q2.2.2.4.2)
 - 2.2.3 신민창출의 주체 (e2.2.3.1 / q2.2.3.2)
 - 2.2.4 신민창출의 급박함 (e2.2.4.1 / q2.2.4.2)

2.2.4.1 대내적인 관점에서 (e2.2.4.1.1 / q2.2.4.1.2)

2.2.4.2 대외적인 관점에서 (e2.2.4.2.1 / q2.2.4.2.2)

2.2.4.3 열차는 내실 (e2.2.4.3.1 / q2.2.4.3.2)

2.3 신민의 요건 (e2.3.1)

2.3.1 민족정신의 고양 (e2.3.1.1~2 / q2.3.1.3)

2.3.2 민덕, 민지, 민력의 배양 (e2.3.2.1~3 / q2.3.2.4)

3. 도덕

3.1 공덕과 사덕 (e3.1.1 / q3.1.2)

3.2 공덕 (e3.2.1 / q3.2.2)

3.2.1 공덕의 정신 (e3.2.1.1 / q3.2.1.2)

3.2.2 공덕과 진화 (e3.2.2.1 / q3.2.2.2)

3.2.3 중국의 공덕 현황 (e3.2.3.1 / q3.2.3.2)

3.2.3.1 현재에 맞는 공덕을 계발할 필요성
(e3.2.3.1.1~2 / q3.2.3.1.3)

3.2.3.2 중국에 공덕이 발달하지 못한 이유

3.2.3.2.1 도덕의 진화에 대한 무지
(e3.2.3.2.1.1 / q3.2.3.2.1.2)

3.2.3.2.2 사덕의 과도한 발달
(e3.2.3.2.2.1~2 / q3.2.3.2.2.3)

3.2.3.3. 공덕을 창출하지 못할 때의 재난
(e3.2.3.3.1 / q3.2.3.3.2)

3.2.4 공덕의 실질과 기능

3.2.4.1 공덕의 실질은 우수 민족의 장점
(e3.2.4.1.1 / q3.2.4.1.2)

3.2.4.2 공덕은 사회에 대한 의무 (e3.2.4.2.1 / q3.2.4.2.2)

3.2.5 공덕의 종류 (e3.2.5.1~2)

3.2.5.1 국가사상 (e3.2.5.1.1 / q3.2.5.1.2)

3.2.5.1.1 국가사상의 소유는 국가 수립의 관건

- (e3.2.5.1.1.1 / q3.2.5.1.1.2)
- 3.2.5.1.2 국가사상 고취의 장애 (e3.2.5.1.2.1)
 - 3.2.5.1.2.1 객관적 원인 (e3.2.5.1.2.1.1)
 - 3.2.5.1.2.2 도덕적 원인 (e3.2.5.1.2.2.1)
 - 3.2.5.1.2.2.1 비사회적 도덕주의도 결국은 이기심
(e3.2.5.1.2.2.1.1 / q3.2.5.1.2.2.1.2)
 - 3.2.5.1.2.2.2 위선적 도덕주의의 뿌리 역시 이기심
(e3.2.5.1.2.2.2.1 / q3.2.5.1.2.2.2.2
/ e3.2.5.1.2.2.2.3 / q3.2.5.1.2.2.2.4)
 - 3.2.5.1.2.2.3 이기주의에서 국가사상으로
(e3.2.5.1.2.2.3.1 / q3.2.5.1.2.2.3.2)
- 3.2.5.2 권리사상 (e3.2.5.2.1)
 - 3.2.5.2.1 권리사상은 천성
 - 3.2.5.2.1.1 권리사상은 양지양능
(e3.2.5.2.1.1.1 / q3.2.5.2.1.1.2)
 - 3.2.5.2.1.2 무한한 권리의 신장 의욕 역시 천성
(e3.2.5.2.1.2.1 / q3.2.5.2.1.2.2)
 - 3.2.5.2.2 권리사상은 도덕의 문제 (e3.2.5.2.2.1)
 - 3.2.5.2.2.1 권리사상은 인격의 문제
(e3.2.5.2.2.1.1 / q3.2.5.2.2.1.2)
 - 3.2.5.2.2.2 권리는 이익과 상반된 것
(e3.2.5.2.2.2.1~2 / q3.2.5.2.2.2.3)
 - 3.2.5.2.2.3 권리사상의 결여는 마비와 마찬가지로
(e3.2.5.2.2.3.1 / q3.2.5.2.2.3.2)
 - 3.2.5.2.2.4 권리사상이 결여된 부도덕의 상태
 - 3.2.5.2.2.4.1 관대함과 부드러움, 인내
(3.2.5.2.2.4.1.1 / q3.2.5.2.2.4.1.2)
 - 3.2.5.2.2.4.2 소극적 개인주의
(e3.2.5.2.2.4.2.1 / q3.2.5.2.2.4.2.2)

- 3.2.5.2.2.4.3 권리사상을 줌먹는 인(仁)
(e3.2.5.2.2.4.3.1 / q3.2.5.2.2.4.3.2)
- 3.2.5.3 의무사상 (e3.2.5.3.1)
 - 3.2.5.3.1 의무사상은 문명국민의 덕성 (e3.2.5.3.1.1)
 - 3.2.5.3.1.1 권리와 의무의 균형은 문명의 상징
(e3.2.5.3.1.1.1 / q3.2.5.3.1.1.2)
 - 3.2.5.3.1.2 의무사상은 국가의 초석
(e3.2.5.3.1.2.1 / q3.2.5.3.1.2.2)
 - 3.2.5.3.1.3 정부의 기강을 바로잡는 것도 의무사상
(e3.2.5.3.1.3.1 / q3.2.5.3.1.3.2)
 - 3.2.5.3.1.4 의무사상은 우월함의 원천
(e3.2.5.3.1.4.1 / q3.2.5.3.1.4.2)
 - 3.2.5.3.2 의무사상의 부재
 - 3.2.5.3.2.1 의무사상의 박약은 권리사상의 박약으로
(e3.2.5.3.2.1.1 / q3.2.5.3.2.1.2)
 - 3.2.5.3.2.2 의지와 실천의 박약
(e3.2.5.3.2.2.1 / q3.2.5.3.2.2.2)
 - 3.2.5.3.2.3 효제의 문제점
(e3.2.5.3.2.3.1 / q3.2.5.3.2.3.2)
- 3.2.5.4 자유정신 (e3.2.5.4.1)
 - 3.2.5.4.1 자유와 법
 - 3.2.5.4.1.1 개인의 자유는 단체의 질서에서
(e3.2.5.4.1.1.1 / q3.2.5.4.1.1.2)
 - 3.2.5.4.1.2 자신이 제정한 법률에 복종하는 것
(e3.2.5.4.1.2.1 / q3.2.5.4.1.2.2)
 - 3.2.5.4.1.3 법률은 양지와 노력에 의한 것
(e3.2.5.4.1.3.1 / q3.2.5.4.1.3.2)
 - 3.2.5.4.2 마음의 자유 (e3.2.5.4.2.1 / q3.2.5.4.2.2)
 - 3.2.5.4.3 자유의 상실 — 마음속의 노예

- (e3.2.5.4.3.1 / q3.2.5.4.3.2)
- 3.2.5.4.3.1 옛사람의 노예
 - (e3.2.5.4.3.1.1 / q3.2.5.4.3.1.2)
- 3.2.5.4.3.2 세속의 노예 (e3.2.5.4.3.2.1 / q3.2.5.4.3.2.2)
- 3.2.5.4.3.3 상황의 노예 (e3.2.5.4.3.3.1 / q3.2.5.4.3.3.2)
- 3.2.5.4.3.4 정욕의 노예 (e3.2.5.4.3.4.1 / q3.2.5.4.3.4.2)
- 3.2.5.5 진취모험정신 (e3.2.5.5.1)
 - 3.2.5.5.1 진취모험정신의 성격
 - 3.2.5.5.1.1 가장 확실한 생존의 정신
 - (e3.2.5.5.1.1.1 / q3.2.5.5.1.1.2)
 - 3.2.5.5.1.2 용맹불퇴전의 정신
 - (e3.2.5.5.1.2.1 / q3.2.5.5.1.2.2)
 - 3.2.5.5.2 진취모험정신의 근원
 - 3.2.5.5.2.1 호연지기의 성격
 - (e3.2.5.5.2.1.1 / q3.2.5.5.2.1.2)
 - 3.2.5.5.2.2 진취모험정신의 네 가지 근원 (e3.2.5.5.2.2.1)
 - 3.2.5.5.2.2.1 희망 (e3.2.5.5.2.2.1.1 / q3.2.5.5.2.2.1.2)
 - 3.2.5.5.2.2.2 열성 (e3.2.5.5.2.2.2.1 / q3.2.5.5.2.2.2.2)
 - 3.2.5.5.2.2.3 지혜 (e3.2.5.5.2.2.3.1 / q3.2.5.5.2.2.3.2)
 - 3.2.5.5.2.2.4 담력과 기력
 - (e3.2.5.5.2.2.4.1 / q3.2.5.5.2.2.4.2)
- 3.2.5.6 단결정신 (e3.2.5.6.1 / q3.2.5.6.2)
 - 3.2.5.6.1 공화국의 단결은 도덕에
 - (e3.2.5.6.1.1 / q3.2.5.6.1.2)
 - 3.2.5.6.2 단결을 위해 필요한 덕목
 - 3.2.5.6.2.1 공공관념 (e3.2.5.6.2.1.1 / q3.2.5.6.2.1.2)
 - 3.2.5.6.2.2 대아와 소아의 구별
 - (e3.2.5.6.2.2.1 / q3.2.5.6.2.2.2)
 - 3.2.5.6.2.3 규율에 대한 복종

- (e3.2.5.6.2.3.1 / q3.2.5.6.2.3.2)
- 3.2.5.6.2.4 한마음 (e3.2.5.6.2.4.1 / q3.2.5.6.2.4.2)
- 3.2.5.7 경제정신 (e3.2.5.7.1 / q3.2.5.7.2)
- 3.2.5.7.1 경제를 위한 지력
 - 3.2.5.7.1.1 문명인으로서 갖는 지식
 - (e3.2.5.7.1.1.1 / q3.2.5.7.1.1.2)
 - 3.2.5.7.1.2 사군자들과 경제
 - (e3.2.5.7.1.2.1 / q3.2.5.7.1.2.2)
- 3.2.5.7.2 경제를 위한 덕의 힘
 - 3.2.5.7.2.1 자신이 중국 빈곤의 주범이라는 각성
 - (e3.2.5.7.2.1.1 / q3.2.5.7.2.1.2)
 - 3.2.5.7.2.2 경제정신의 실천 순서
 - (e3.2.5.7.2.2.1 / q3.2.5.7.2.2.2)
- 3.2.5.8 의력 (e3.2.5.8.1 / q3.2.5.8.2)
- 3.2.5.8.1 의력이 필요한 이유 (e3.2.5.8.1.1 / q3.2.5.8.1.2)
- 3.2.5.8.2 절망을 방지하는 의력
 - (e3.2.5.8.2.1 / q3.2.5.8.2.2)
- 3.2.5.8.3 의력은 성패의 열쇠 (e3.2.5.8.3.1 / q3.2.5.8.3.2)
- 3.2.5.8.3.1 성공과 실패의 결과는 세대를 넘어서는 것
 - (e3.2.5.8.3.1.1 / q3.2.5.8.3.1.2)
- 3.2.5.8.3.2 성공과 실패는 정신의 문제
 - (e3.2.5.8.3.2.1 / q3.2.5.8.3.2.2)
- 3.2.5.8.3.3 성패와 관련한 두 가지 의력
 - (e3.2.5.8.3.3.1 / q3.2.5.8.3.3.2)
- 3.2.5.8.4 의력의 박약과 극복
 - 3.2.5.8.4.1 마무리하는 힘의 부족
 - (e3.2.5.8.4.1.1 / q3.2.5.8.4.1.2)
 - 3.2.5.8.4.2 책임을 자임하는 자의 각오
 - (e3.2.5.8.4.2.1 / q3.2.5.8.4.2.2)

- 3.2.5.9 자존감 (e3.2.5.9.1)
 - 3.2.5.9.1 자존은 국민을 존중하는 것
 - (e3.2.5.9.1.1 / q3.2.5.9.1.2)
 - 3.2.5.9.2 자존은 위대한 기개 (e3.2.5.9.2.1 / q3.2.5.9.2.2)
 - 3.2.5.9.3 자존감을 해치는 것들
 - 3.2.5.9.3.1 자포자기 (e3.2.5.9.3.1.1 / q3.2.5.9.3.1.2)
 - 3.2.5.9.3.2 겸손 (e3.2.5.9.3.2.1 / q3.2.5.9.3.2.2)
 - 3.2.5.9.3.3 객기 (e3.2.5.9.3.3.1 / q3.2.5.9.3.3.2)
 - 3.2.5.9.4 자존의 길 (e3.2.5.9.4.1 / q3.2.5.9.4.2)
 - 3.2.5.9.4.1 스스로를 사랑함
 - (e3.2.5.9.4.1.1 / q3.2.5.9.4.1.2)
 - 3.2.5.9.4.2 스스로를 규제함
 - (e3.2.5.9.4.2.1 / q3.2.5.9.4.2.2)
 - 3.2.5.9.4.3 경제적·학문적 독립
 - (e3.2.5.9.4.3.1 / q3.2.5.9.4.3.2)
 - 3.2.5.9.4.4 몸을 낮춰 처신함
 - (e3.2.5.9.4.4.1 / q3.2.5.9.4.4.2)
 - 3.2.5.9.4.5 스스로 책임을 맡음
 - (e3.2.5.9.4.5.1 / q3.2.5.9.4.5.2)
- 3.2.5.10 상무정신 (e3.2.5.10.1 / q3.2.5.10.2)
 - 3.2.5.10.1 군사력은 정신력 (e3.2.5.10.1.1 / q3.2.5.10.1.2)
 - 3.2.5.10.2 정신적 군사력을 위해 키워야 할 것
 - (e3.2.5.10.2.1)
 - 3.2.5.10.2.1 정신집중의 힘
 - (e3.2.5.10.2.1.1 / q3.2.5.10.2.1.2)
 - 3.2.5.10.2.2 두려움을 없애줄 담력
 - (e3.2.5.10.2.2.1 / q3.2.5.10.2.2.2)
 - 3.2.5.10.2.3 정신력을 지탱해줄 체력
 - (e3.2.5.10.2.3.1 / q3.2.5.10.2.3.2)

3.2.6 공덕의 약점 (e3.2.6.1~2 / q3.2.6.3)

3.3 사덕 (e3.3.1)

3.3.1 사덕의 중요성

3.3.1.1 사덕의 중요성에 대한 양계초의 평가 변화
(e3.3.1.1.1~2)

3.3.1.1.1 공덕을 중시할 때의 사덕 (e3.3.1.1.1.1)

3.3.1.1.1.1 사덕에 치우친 중국의 구도덕
(e3.3.1.1.1.1.1 / q3.3.1.1.1.1.2)

3.3.1.1.1.2 구도덕은 도덕의 부분일 뿐
(e3.3.1.1.1.2.1~2 / q3.3.1.1.1.2.3)

3.3.1.1.1.3 중국의 소극적 사덕은 공덕의 좀벌레
(e3.3.1.1.1.3.1 / q3.3.1.1.1.3.2)

3.3.1.1.1.4 공덕과 사덕은 별개의 가치체계
(e3.3.1.1.1.4.1~2 / q3.3.1.1.1.4.3)

3.3.1.1.2 재평가된 사덕 (e3.3.1.1.2.1)

3.3.1.1.2.1 공덕과 사덕은 전체와 구성원의 관계
(e3.3.1.1.2.1.1 / q3.3.1.1.2.1.2)

3.3.1.1.2.2 공덕은 사덕의 확충
(e3.3.1.1.2.2.1 / q3.3.1.1.2.2.2)

3.3.1.1.2 공덕의 중요성에 의지하는 사덕의 중요성
(e3.3.1.1.2.1~2)

3.3.1.2 개명전제와 사덕의 중요성 (e3.3.1.2.1)

3.3.2 사덕의 필요성 (e3.3.2.1)

3.3.2.1 도덕의 과도기 (e3.3.2.1.1 / q3.3.2.1.2)

3.3.2.2 사덕이 특히 요구되는 상황 (e3.3.2.2.1 / q3.3.2.2.2)

3.3.2.2.1 파괴주의의 존재 (e3.3.2.2.1.1)

3.3.2.2.1.1 파괴와 건설 (e3.3.2.2.1.1.1 / q3.3.2.2.1.1.2)

3.3.2.2.1.2 파괴와 건설과 도덕
(e3.3.2.2.1.2.1 / q3.3.2.2.1.2.2)

- 3.3.2.2.1.3 일체파괴는 백해무익한 것
(e3.3.2.2.1.3.1 / q3.3.2.2.1.3.2)
- 3.3.2.2.1.4 파괴주의와 도덕은 양립불가능한 것
(e3.3.2.2.1.4.1 / q3.3.2.2.1.4.2)
- 3.3.2.2.2. 마음가짐의 중요성 (e3.3.2.2.2.1)
 - 3.3.2.2.2.1 중요한 것은 주의주장이 아니라 마음가짐
(e3.3.2.2.2.1.1 / q3.3.2.2.2.1.2)
 - 3.3.2.2.2.2 중요한 것은 정치와 군사의 기술이 아니라
마음가짐 (e3.3.2.2.2.2.1 / q3.3.2.2.2.2.2)
 - 3.3.2.2.2.3 도덕은 단체를 만드는 근원
(e3.3.2.2.2.3.1 / q3.3.2.2.2.3.2)
 - 3.3.2.2.2.4 도덕은 협동의 근원
(e3.3.2.2.2.4.1 / q3.3.2.2.2.4.2)
- 3.3.2.2.3 이론과 실천의 간극 (e3.3.2.2.3.1)
 - 3.3.2.2.3.1 실천에서의 갈등을 해결할 것은 오직 도덕
(e3.3.2.2.3.1.1 / q3.3.2.2.3.1.2)
 - 3.3.2.2.3.2 실무에 의한 타락을 방지할 것은 오직 도덕뿐
(e3.3.2.2.3.2.1 / q3.3.2.2.3.2.2)
- 3.3.3 특히 사덕을 갖춰야 할 사람들 (e3.3.3.1)
 - 3.3.3.1 장래의 주인공이 될 선각자들
(e3.3.3.1.1 / q3.3.3.1.2)
 - 3.3.3.2 국민 양성에 종사할 사람들 (e3.3.3.2.1 / q3.3.3.2.2)
 - 3.3.3.3 신학문을 하는 청년들 (e3.3.3.3.1 / q3.3.3.3.2)
- 3.3.4 중국의 사덕 (e3.3.4.1)
 - 3.3.4.1 중국 사덕의 현황 (e3.3.4.1.1)
 - 3.3.4.1.1 서양 도덕의 수입 (e3.3.4.1.1.1)
 - 3.3.4.1.1.1 도덕이 아니라 과학
(e3.3.4.1.1.1.1 / q3.3.4.1.1.1.2)
 - 3.3.4.1.1.2 지식의 도덕 영역 잠식

- (e3.3.4.1.1.2.1 / q3.3.4.1.1.2.2)
- 3.3.4.1.2 사덕의 타락 (e3.3.4.1.2.1)
- 3.3.4.2 중국의 사덕이 타락한 원인 (e3.3.4.2.1 / q3.3.4.2.2)
- 3.3.4.2.1 전제정치의 영향 (e3.3.4.2.1.1)
- 3.3.4.2.1.1 전제정치 하의 일반적 풍기
 - (e3.3.4.2.1.1.1 / q3.3.4.2.1.1.2)
- 3.3.4.2.1.2 중국의 전제정치
 - (e3.3.4.2.1.2.1 / q3.3.4.2.1.2.2)
- 3.3.4.2.2 청조 패권의 영향 (e3.3.4.2.2.1 / q3.3.4.2.2.2)
- 3.3.4.2.3 수차례 패전의 영향 (e3.3.4.2.3.1)
- 3.3.4.2.3.1 정복전쟁의 장점
 - (e3.3.4.2.3.1.1 / q3.3.4.2.3.1.2)
- 3.3.4.2.3.2 내란과 피정복의 역사로 점철된 중국사
 - (e3.3.4.2.3.2.1 / q3.3.4.2.3.2.2)
- 3.3.4.2.4 궁핍한 생계의 영향
- 3.3.4.2.4.1 생계와 민덕의 관계
 - (e3.3.4.3.4.1.1 / q3.3.4.2.4.1.2)
- 3.3.4.2.4.2 중국의 생계와 민덕
 - (e3.3.4.2.4.2.1 / q3.3.4.2.4.2.2)
- 3.3.4.2.5 무능력한 학술
- 3.3.4.2.5.1 학술의 힘 (e3.3.4.2.5.1.1 / q3.3.4.2.5.1.2)
- 3.3.4.2.5.2 청조 학술의 무능
 - (e3.3.4.2.5.2.1 / q3.3.4.2.5.2.2)
- 3.3.4.2.5.3 신사상의 해독
 - (e3.3.4.2.5.3.1 / q3.3.4.2.5.3.2)
- 3.3.5 사덕의 함양
- 3.3.5.1 도덕적 지도자의 모범들
- 3.3.5.1.1 세계의 모범들 (e3.3.5.1.1.1 / q3.3.5.1.1.2)
- 3.3.5.1.2 중국의 모범 - 중국번

- (e3.3.5.1.2.1 / q3.3.5.1.2.2)
- 3.3.5.2 양계초의 사덕 함양 (e3.3.5.2.1 / q3.3.5.2.2)
 - 3.3.5.2.1 근본을 바르게 함(正本) (e3.3.5.2.1.1)
 - 3.3.5.2.1.1 공리주의의 만연
 - (e3.3.5.2.1.1.1 / q3.3.5.2.1.1.2)
 - 3.3.5.2.1.2 애국은 공리가 아닌 순결한 것
 - (e3.3.5.2.1.2.1 / q3.3.5.2.1.2.2)
 - 3.3.5.2.1.3 본원은 마음 (e3.3.5.2.1.3.1 / q3.3.5.2.1.3.2)
 - 3.3.5.2.2 신독 (e3.3.5.2.2.1 / q3.3.5.2.2.2)
 - 3.3.5.2.3 작은 일부터 조심함(謹小)
 - 3.3.5.2.3.1 작은 일은 모든 것의 씨앗
 - (e3.3.5.2.3.1.1 / q3.3.5.2.3.1.2)
 - 3.3.5.2.3.2 작은 현상의 원인은 근원적인 것
 - (e3.3.5.2.3.2.1 / q3.3.5.2.3.2.2)
- 3.3.6 사덕의 등장이 의미하는 것
 - 3.3.6.1 도덕 절대주의의 부활 (e3.3.6.1.1 / q3.3.6.1.2)
 - 3.3.6.2 애국과 양지의 결합 (e3.3.6.2.1)
 - 3.3.6.3 사덕의 복잡성 (e3.3.6.3.1)
 - 3.3.6.4 대표적 사덕으로서의 양명학 (e3.3.6.4.1)
 - 3.3.6.5 유학에 대한 재평가의 의의 (e3.3.6.5.1)

제 3 부 『신민설』 내용 분석 연구

1. 국가

(e1.1) 양계초는 사회진화론이 인류 역사를 지배하는 법칙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인류는 생존경쟁의 세계에서 적자생존 법칙의 지배를 받으며, 인류는 그러한 경쟁을 통해 문명을 향해 발전해간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 경쟁 세계에서 그 경쟁의 주체 단위 역시 진화한다고 생각했는데, 주권을 갖는 정치공동체인 국가가 그 경쟁 단위의 최고 상태라고 받아들였다. 즉 국가는 가장 발전된 형태의 경쟁 주체이다.

(q1.2) 경쟁은 문명의 어머니이다. 하루라도 경쟁을 쉬면 문명의 진보는 그친다. 한 사람의 경쟁으로부터 한 가정이 이루어지고, 한 가정으로부터 한 동네가 이루어지며, 한 동네로부터 한 국가가 이루어진다. 국가는 단체 중에 가장 큰 영역이고 경쟁의 최고점이다.(제6절. 18쪽)

1.1 국가와 진화

1.1.1 국가의 성립

1.1.1.1 단체의 필요성

(e1.1.1.1.1) 양계초에 의하면 단체는 생존경쟁의 세계에 처한 개인의 불완전함 때문에 성립했다. 개인은 이 세상에 혼자서 생존할 수 없다.

원시시대의 인간은 자연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무리를 지었고, 문명시대의 인간은 다른 문명국가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무리를 지어야 한다. 시대와 공간에 따라 위협들은 달라지지만, 어떤 위협들에도 개인이 단독으로 대처하기는 불가능하다. 진화하는 적들 역시 더 큰 경쟁력을 갖기 위해 개인으로 머무르지 않기 때문이다. 양계초는, 단체는 개개인 각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했다. 혼자서는 불가능한 자기보호가 서로 단결함으로써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인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단체의 존속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금 사회의 진화 단계가 국가라는 단체를 필요로 한다면, 개인은 자신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 국가라는 단체를 결성해야만 한다.

(q1.1.1.1.2) 국가의 성립은 부득이한 일이다. 즉 개개인은 자기 일신에만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너와 내가 단결하고, 보조하고, 막아주고, 이익을 구하는 방법을 밖에서 구한다. 그 단결이 영원히 흩어지지 않고, 그 상부상조가 영원히 어그러지지 않고, 도와주는 것이 영원히 이지러지지 않게, 그 막아주는 것이 영원히 잘못되지 않게, 서로에게 주는 이익이 영원히 끝이 없게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자기 일신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제6절, p.16)

1.1.1.2 경계로서의 단체

(e1.1.1.2.1) 생존경쟁 속에서 개개인은 자신의 보호를 위해, 그리고 효과적인 경쟁을 위해 반드시 단체 안에 소속되어야 한다. 인류 초기의 단체는 자연발생적인 것으로 지역적으로 결정되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언어와 풍속, 사상과 법제 등을 공유하게 되고, 그 단체의 그러한 공통성은 다른 단체와의 차별성이 된다. 즉 그 단체 외부에는 그 단체의 특성을 공유하지 않은 다른 단체가 존재한다. 그 다른 단체들 역시 그들만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단체를 이룰 수 있었다. 자신의 고유한 특성을 가진 단체로서 성립한다는 것은, 그 외부에 그 특성을 공유하지 않은, 나아가 그 단체와 대립하는 다른 단체들이 존재한다

는 것을 전제한다. 단체의 발생이 좀 더 나은 경쟁 주체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상기하면, 이는 당연한 일이다.

(q1.1.1.2.2) 인류는 천만년 이전부터 각지에서 번성하고 각자 발달하여, 언어와 풍속에서부터 사상·법제에 이르기까지, 형질이 다르고 정신이 다르므로, 각각의 나라에 소속되지 않을 수 없었다. 생존경쟁, 적자생존의 법칙에 따르면, 사람과 사람은 충돌하지 않을 수 없고, 나라와 나라는 충돌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라는 명칭은 다른 집단에 대응해서 성립한다. (제6절, p.17)

1.1.1.3 국가의 성립조건

(e1.1.1.3.1) 단체는 강력한 경쟁주체로서 진화해 간다. 양계초는 가장 진화한 형태의 단체는 국가라고 생각했다. 국가 이전 단계에 여러 형태의 단체들이 있다는 소리이다. 그러나 국가 단계에 들어서야 비로소 문명의 세계로 진입했다고 평가된다. 그렇다면 그 국가의 단계로 진입했음을 알려주는 지표는 무엇일까? 양계초는 그것을 국가사상의 소유 여부라고 생각했다. 즉 단체를 구성한 구성원들 각자가 ‘국가사상’을 소유함으로써, 그 사상에 의거한 국가를 형성하고 그에 걸 맞는 정치 행위를 할 때, 그들이 결성한 단체는 국가이고, 그렇지 못하면 국가 이전의 단체이다.

(q1.1.1.3.2) 사회의 초기 단계에는 부민(鄙民)만 있었고, 국민은 없었다. 부민에서 국민으로 진전하니, 이것이 문명과 야만이 나뉘는 경계이다. 부민과 국민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모여 살며 자신들의 풍속을 이루는 자들을 부민이라고 한다. 국가사상을 가지고, 스스로 정치를 펼 수 있는 자를 국민이라고 한다. 국민 없이 국가를 이룩할 수는 없다.(제6절, p.16)

1.1.1.3.1 국가사상의 유무

(e1.1.1.3.1.1) 국가와 국가 이전을 가르는 국가사상이란 무엇인가? 양계초가 생각하는 국가사상이란, 개인, 정부, 타민족, 세계에 대해 자신

이 속한 국가의 존재 의의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더욱 직접적으로 말하면 국가가 그들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국가는 나 자신보다 중요하고, 정부와는 차원이 다른 절대적 존재이며, 다른 민족으로 대치할 수 없는 운명적인 것이며, 세계주의라는 망상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현실적인 것이다. 국가사상을 갖는다는 것은 국가의 그러한 위상을 철저히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q1.1.1.3.1.2) 국가사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 개인에 대해 국가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며, 둘째, 조정에 대해 국가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며, 셋째, 다른 민족에 대하여 국가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며, 넷째, 세계에 대해 국가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제6절, p.16)

1.1.1.3.2 국가사상의 내용

1.1.1.3.2.1 개인과 국가의 관계

(e1.1.1.3.2.1.1) 양계초에 의하면, 국가란 개인이 자신의 생존과 안위를 위해 선택한 것이다.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국가가 성립했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국가는 수단이고, 개인이 국가를 가치 있게 하는 원천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갈등을 일으킬 때는 개인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이다.

(e1.1.1.3.2.1.2) 그러나 개인과 국가에 대한 양계초의 주장에서는 그러한 의미는 읽어낼 수 없다. 양계초에 의하면 국가는 개인의 생존과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단체이므로, 개인은 자신의 생존과 안위를 위해 자신보다 먼저 국가의 생존과 안위를 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인은 사고하고 선택하고 행동할 때, 자신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아마도 양계초는 개인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갈등할 수 있다는 상황을 상상하지 못한 듯하다. 그에게 국가란, 개인에게 오로지 이익만을 주는 존재이므로, 그 국가의 존재는 흔들림 없이 영원해야 할 것이었다. 그러므로 양계초는 개인이 국가를 자기 일신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 국가는 성립하지 않으며, 심지어 인도(人道)

를 실현할 길도 차단된다고 말한다. 양계초가 생각하는 국가는, 개개인의 필요 때문에 성립했지만 성립된 후에는 이미 개인을 넘어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진, 개개인 보다 더 중요한 독립체이다. 개인과 국가 사이의 이러한 관계를 납득하고 실천하는 사람만이 국민이 될 자격이 있다. 즉 이것이 국가를 이룰 수 있는 국민의 첫 번째 정신 상태이다.

(q1.1.1.3.2.1.3) 국가의 성립은 부득이한 일이다. 즉 개개인은 자기 일신에만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너와 내가 단결하고, 보조하고, 막아주고, 이익을 구하는 방법을 나의 밖에서 구한다. 그 단결이 영원히 흠어지지 않고, 그 상부상조가 영원히 어그러지지 않고, 도와주는 것이 영원히 이지러지지 않게, 그 막아주는 것이 영원히 잘못되지 않게, 서로에게 주는 이익이 영원히 끝이 없게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자기 일신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매번 생각할 때, 말할 때, 일 처리할 때, 반드시 항상 자기 일신 이상의 것에 주의해야 한다.(원주: 이는 ‘겸애주의’이다. 그러나 또한 ‘위아주의’라고 해도 안 될 것이 없다. 사회를 이롭게 하지 않으면 자신도 이롭게 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다.) 이와 같지 않으면 단체는 끝내 성립될 수 없으니, 인도(人道)는 거의 멈춰버릴 것이다. 이것이 국가사상의 첫 번째 뜻이다.(제6절. p.16)

1.1.1.3.2.2 정부와 국가의 관계

(e1.1.1.3.2.2.1) 국가는 국민에게 이익을 주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성립된 것으로서, 양계초는 그러한 국가의 성격은 언제까지나 변함없이 유지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즉 국가는 영원히 선인 존재이다. 영원히 선인 국가가 있고, 현실에는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가 있다. 양계초는 국가와 정부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분명하게 구분한다. 국가와 정부의 관계를 양계초는 마을과 마을회관, 회사와 사무실의 관계에 비유한다. 국가는 가치이고 정부는 그를 위한 수단이다. 수단이 그 목적에 충실한 한에서 그 수단은 의미가 있다. 의미가 인정되는 정부란 정식의 절차를 거쳐 성립된 정부이며, 국가의 존재 의의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정부이다. 그렇지 않은 정부라면 국민은 정부로 인정할 이유가 없으며, 나아가 그

정부를 바로잡아 올바른 정부를 세우는 것이 국민으로서 국가를 위해 할 일이다. 이것이 국가를 가질 수 있는 국민의 둘째 자격이 된다. 즉 국가 사상의 둘째는, 국가란 현실적인 정부와는 차원이 다른 절대적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q1.1.1.3.2.2.2) 이른바 조정(朝廷)에 대해 국가가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국가가 하나의 회사와 같다면, 조정은 회사의 사무소이다. 조정에서 권력을 가진 자는 사무소의 사장과 같다. 국가가 하나의 마을과 같다면, 조정은 그 마을의 회관이고, 조정의 권력자는 회관의 회장이다. 사무소가 회사를 위해서 세워지는가? 아니면 회사가 사무소를 위해서 세워지는가? 회관이 마을을 위해 설립된 것인가? 아니면 마을이 회관을 위해 갖추어진 것인가? 변론할 것도 없이 알 수 있는 일이다. 양자의 성질이 같지 않으니, 그 대소와 경중에 저절로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있다. [...] 그러므로 국가사상이 있는 자는 또한 항상 조정을 사랑하지만, 조정을 사랑하는 자가 반드시 국가사상을 가진 것은 아니다. 조정이 정식으로 성립된 것이라면 조정이 국가의 대표가 되며, 이 때 조정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국가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정이 정식으로 성립한 것이 아니라면, 조정은 국가의 도적이다. 이때는 조정을 바로 잡는 것이 국가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이것이 국가사상의 둘째 뜻이다. (제6절, p.16~17)

1.1.1.3.2.3타민족과 국가의 관계

(e1.1.1.3.2.3.1) 양계초에 의하면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성립되었다. 만약 이해로만 맺어진 관계라면, 국민은 언제든지 자신을 더 잘 보호해 주고 자신에게 더 이익을 줄 수 있는 국가를 찾아 옮겨 다닐 것이다. 더구나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는 기능을 항상 완전하게 달성하는 것도 아니다. 때로는 다른 국가에게 주권을 위협받아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할 수도 있다.

(e1.1.1.3.2.3.2) 그러나 국민과 국가는 그렇게 이익으로만 연결된 단순한 관계가 아니다. 사람들은 오랜 세월을 두고 한 곳에서 무리를 이

루고 살면서 같은 언어와 같은 풍속에서부터 나아가 같은 사상, 같은 법제를 공유하면서 국가를 건설해 왔다. 그러므로 다른 국가 역시 그러한 역사와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이 모여 만들었을 것이다. 지역, 언어, 문화적인 공동체로서의 국가는, 개인에게는 거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운명으로 다가온다. 국가는 개인과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운명공동체로서, 단순한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국민이 될 수 있는 자격의 세 번째 내용이다.

(e1.1.1.3.2.3.3) 생존경쟁·적자생존이라는 역사 진행의 법칙에 의해 각 나라들은 필연적으로 경쟁 상대일 수밖에 없다. 국가사상에 투철한 사람은 국가의 운명과 자신의 운명을 동일시한다. 그리하여 피를 흘리고 몸을 바쳐 타민족에게 대항하는 일은 있어도, 타민족에 기꺼이 복종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더할 나위 없이 강하고 훌륭해서 국민을 최상으로 보호하는 나라라고 해도, 또 아무리 위대한 위인을 많이 배출하는 자랑스러운 나라라고 해도, 나는 내 나라를 버리고 그 나라의 국민이 될 수는 없다. 나의 나라는 내가 출생하면서 운명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다.

(q1.1.1.3.2.3.4) 인류는 천만 년 이전부터 각지에서 번성하고 각자 발달하여, 언어와 풍속에서부터 사상·법제에 이르기까지, 형질이 다르고 정신이 다르므로, 각각의 나라에 소속되지 않을 수 없었다. 생존경쟁·적자생존의 법칙에 따르면, 사람과 사람은 부딪히지 않을 수 없고, 나라와 나라는 충돌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라는 명칭은 다른 집단에 대응해서 성립한다. 그러므로 진정한 애국자는, 비록 외국에 위대한 성인과 철학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나라의 주권아래 복종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차라리 온 나라의 사람이 피를 흘리고 몸을 부셔서 남아나는 사람이 없을지언정 조금의 권리도 다른 민족에게 양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제6절, p.17)

1.1.1.3.2.4 세계와 국가의 관계

(e1.1.1.3.2.4.1) 양계초에 의하면, 역사는 경쟁에 의해 발전하고, 가장 진화한 경쟁주체는 국가이다. 즉 국가보다 더 진화한 경쟁주체는 있을 수 없다. 종교가들이 선전하는 천국이나, 박애주의, 세계주의, 혹은

과거 중국사상이 이상으로 여겨왔던 대동사상 등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몽상일 뿐이다. 국가의 경계를 허물고 세계가 하나가 된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더 이상의 경쟁은 없을 것이고, 경쟁에 의해 진보하는 문명 역시 진보를 멈출 것이다. 아니, 진보를 멈추는 데에서 그치지 않는다. 세계주의, 대동세는 실현될 수 없는 이상이지만, 설사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문명의 후퇴를 가져오고 경쟁의 후퇴를 가져올 뿐이라고 양계초는 주장한다.

(e1.1.1.3.2.4.2) 경쟁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대동세가 되더라도 경쟁은 없어지지 않는다. 인간의 본성에 따라 다른 형태의 경쟁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이미 문명의 경쟁이 아니라 국가 이전의 경쟁으로 후퇴하는 것이다. 양계초가 생각하기에 국가 간의 경쟁이 가장 진화된 경쟁이기 때문이다. 헛되이 세계주의를 꿈꾸지 않는 것, 국가보다 더 큰 단체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양계초가 주장하는 넷째 국가사상이다. 이러한 생각을 확고히 갖고 있어야 비로소 국가의 국민이 될 자격이 있다.

(q1.1.1.3.2.4.3) 경쟁은 문명의 어머니이다. 하루라도 경쟁을 쉬면 문명의 진보는 그친다. 한 사람의 경쟁으로부터 한 가정이 이루어지고, 한 가정으로부터 한 동네가 이루어지며, 한 동네로부터 한 국가가 이루어진다. 국가는 단체 중에 가장 큰 영역이고 경쟁의 최고점이다. 만약 국가를 합하기 위해 국가 간의 경계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그런 일이 성립할 수 없는 건 차치하고라도, 그런 일이 있더라도 경쟁이 절멸할 것이니, 문명 또한 절멸하고 말 것이다. 더구나 사람의 본성은 결코 경쟁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대동 이후에는 순식간에 다시 천국 안에서 다른 일로 경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때에는 이미 부민(鄙民)의 경쟁 상태로 후퇴하는 것으로 국민의 경쟁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는 천하사람들을 이끌고 야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 그러니 국가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야만이고 국가를 넘어서는 것도 야만이다. 왜 그런가? 그것은 부민은 될 수 있어도 국민의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이 국가사상의 네 번째 뜻이다.(제6절, p.18)

1.1.1.3.3 경쟁주체로서의 국가

(e1.1.1.3.3.1) 국가사상이라는 명목으로 양계초는, 국가는 개인, 정부, 타 민족, 세계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존재라고 주장했다. 서구 근대문명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조국을 보면서 양계초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생각해낸 방법은 중국을 무너뜨린 서양의 근대문명을 본받는 것이었으며, 그에게 그 근대문명은 전적으로 경쟁을 통해 창출되는 것이었다. 중국의 생존을 위해 중국이 무엇보다도 서둘러야 할 일은 그 생존경쟁에 돌입하여 승자가 되는 것이었다. 그가 보기에 그 경쟁은 국가 단위로 벌어지고 있었다. 중국을 서양 근대국가처럼 강한 경쟁 주체로 만드는 것, 그것이 양계초가 스스로에게 부여한 임무였다.

(e1.1.1.3.3.2) 중국을 강한 국가로 만들 수 있는 것은 결국 중국 국민이다. 양계초는 중국을 강력한 경쟁 주체로 만들기 위해 국민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정신을 국가사상이라는 이름으로 요구했다. 국민의 행동 하나하나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로 집결될 때 국가는 다른 국가를 상대로 최강의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었다. 정치의 차원에서 이룩될 국가의 탄생은, 양계초에게선 먼저 국민의 정신에서 탄생되어야 할 것이었다.

1.1.2 국가와 문명

1.1.2.1 문명으로서의 국가

(e1.1.2.1.1) 강력한 경쟁주체로서 국가는 또한 문명의 표상이기도 했다. 우승열패의 경쟁이 그대로 문명의 진보라고 생각한 양계초는, 그 경쟁의 최고주체인 국가의 성취를 문명의 성취와 동일시했다. 생존경쟁에서 적자로서 살아남는 것이 문명의 지표였으므로, 문명은 그대로 강한

국가의 건설을 의미했다. 경쟁이 다원화됨에 따라 그 강한 국가의 의미 또한 다양할 것이지만,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은 문명으로서 찬양되었다.

(q1.1.2.1.2) 경쟁은 문명의 어머니이다. 하루라도 경쟁을 쉬면 문명의 진보는 그친다. 한 사람의 경쟁으로부터 한 가정이 이루어지고, 한 가정으로부터 한 동네가 이루어지며, 한 동네로부터 한 국가가 이루어진다. 국가는 단체 중에 가장 큰 영역이고 경쟁의 최고점이다. 만약 국가의 경계를 합해서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그런 일이 성립할 수 없는 건 차치하고라도, 그런 일이 있더라도 경쟁이 절멸할 것이니, 문명 또한 절멸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사람의 본성은 결코 경쟁을 벗어날 수 없다. (제6절, p.18)

1.1.2.2 절대 가치로서의 국가

(e1.1.2.2.1) “국가라는 것은 개인에게 사랑의 중심이고 박애의 극치”라고 양계초는 말한다. 국가는 개인이 사랑하는 대상 중에 가장 중요한 존재이며, 박애의 마음을 갖더라도 그 마음이 국가를 넘어 확대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국민국가 체제의 진화론적, 제국주의적 측면을 꿰뚫고 있었던 양계초는 중국을 구원하고 통합할 수 있는 강력한 국가를 요구했다. 그 작업을 그는 근대 중국인들이 가져야 할 ‘정신’을 요구하는 일로 시작했다. 그는 자기가 속한 국가를 가장 가치 있는 것, 절대적으로 순수한 것으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배타적 애착을 국가사상이라고 불렀다. 내가 속한 국가는 지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이며, 나 개인의 존재를 의미 있게 하는 존재는 국가가 될 것이다. 인간의 모든 가치 있는 노력은 최우선적으로 국가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 될 것이다.

(q1.1.2.2.2) 박애를 주장한다면, 일신의 사사로움을 죽이고 한 집안을 사랑하라고 하면 문제가 없으며, 일가의 사사로움을 죽이고 일향족(一鄕族)을 사랑하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으며, 일신, 일가, 일향족의 사사로움을 죽이고 한 나라를 사랑하라고 하면 문제가 없다. 국가라는 것은 개인에게 사랑의 중심이고 박애의 극치이다.(제6절, p.18)

1.2 민족주의

1.2.1 민족주의의 정의

(e1.2.1.1) 양계초는 유럽근대국가의 탄생이 민족주의의 발달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근대 유럽을 탄생시켰다는 민족을 “각지의 동일한 종족으로서,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동일한 종교와 동일한 습속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규정하는데서 멈추지 않는다. 동일한 지역의 동일한 종족, 동일한 언어, 동일한 종교와 습속을 가진 사람들은 또한 “서로를 동포로 여기고 독립과 자치를 위해 노력하여 완비된 정부를 조직하여 공익을 도모하고 이민족을 막으려”고 한다. 그러한 지향이 민족주의이다. 즉 민족주의는 지역과 혈연, 문화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민족이, 스스로 단일한 정치 공동체를 형성해서 대내적 단결을 이룩하고 이를 통해 대외적으로 독립을 성취해야 한다는 주의·주장이다.

(q1.2.1.2) 16세기 이래(약 300년 전) 유럽이 발달한 이유, 세계가 진보한 이유는 모두 민족주의(nationalism)가 왕성하게 발달했기 때문이다. 민족주의는 무엇인가? 각지의 동일한 종족으로서,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동일한 종교와 동일한 습속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동포로 여기고 독립과 자치를 위해 노력하여 완비된 정부를 조직하여 공익을 도모하고 이민족을 막으려는 것이다.(제2절, p.3~4)

1.2.2 민족주의와 진화

(e1.2.2.1) 양계초가 생각하는 역사는 경쟁을 통해 발전한다. 지구상의 모든 존재는 경쟁을 피할 수 없다. 민족이라는 단체 역시 타민족과 경쟁해야 한다. 각 민족이 서로 교통하지 않았던 초기 역사 시대에는 서로 경쟁하지 않고 각자 평화롭게 산 때도 있었다. 그러나 경쟁은 역사발전의 필연적 법칙이다.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경쟁은 더 치열해진다. 경쟁은 승자와 패자를 가른다. 그리고 패자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 양계초

에 의하면 동물의 세계처럼 인간사회도 그러한 적자생존의 법칙에 지배된다. 단일한 민족 정치 공동체를 기치로 하는 민족주의 역시 다른 민족주의와 경쟁하면서 진화해간다고 양계초는 생각했다. 즉 강한 민족은 점점 더 강해지고 그리하여 그들의 정치공동체는 점점 더 강력해질 것이다. 반대로 약한 민족은 도태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

(q1.2.2.2) 각 민족이 처음에 각자의 구역에서 살았을 때는 서로 섞이지 않았으므로 어느 민족이든지 모두 각자의 구역 안에서 휴양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진화의 생존경쟁 법칙이 이미 인류로 하여금 부득불 서로 접촉하고 교통하고 경쟁하게 몰아갔다. 일단 접촉하고 교통하고 경쟁하면 일어나고 쓰러지는 운명이 곧 나타난다. 저 귀뚜라미의 싸움을 보지 않았던가! 백 마리의 귀뚜라미를 한 새장 안에 넣어 보라. 각각 용맹을 뽐내지만 한 곳에 넣어두면 하루에 60~70마리가 죽는다. 이틀이 되면 80~90마리가 죽고 사흘째 되면 살아남는 것은 겨우 한두 마리이다. 남은 한두 마리는 분명 가장 강한 놈일 것이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덜 강한 놈은 위태하다.(제4절, p.8)

1.2.2.1 민족제국주의로의 발전

(e1.2.2.1.1) 경쟁을 통해 진화하는 민족은, 양계초에 의하면, 필연적으로 민족제국주의로 이행한다. 즉 진화한다. 사회진화론을 역사의 필연적 진행법칙이자 문명화의 길이라고 받아들인 양계초에게, 중국을 식민지화하려는 제국주의의 등장은 역사의 필연이었고 문명이라는 가치였다. 양계초는 제국주의의 식민지정책이 상공업을 필두로 시작된다는 것, 심지어 선교까지도 식민지정책의 교두보라는 것까지도 간파했지만, 그에게 제국주의를 비판할 논리는 없었다. 오히려 제국주의는 진보였고 문명이었다. 그들의 식민지 개척은 그들 민족의 성장한 힘이 극한까지 도달해 밖으로 넘쳐흐른 결과였다. 그리하여 장차 중국이 진화해서 도달해야 할 앞날이었다. 사회진화론자 양계초는 제국주의의 눈을 통해 식민지를 보았을 뿐, 자신의 입장에서 식민지를 볼 수 없었다.

(q1.2.2.1.2) 이 민족주의는 19세기 말에 이르러(최근 20~30년) 한 걸음 더 나아가 민족제국주의(national imperialism)로 진행했다. 민족제국주의란 무엇인가? 그 국민의 실력이 안으로 충만해서 밖으로 넘칠 수 밖에 없게 되어, 다른 지역으로 권력을 점점 넓혀가는 것을 귀착점으로 삼는 것이다. 처음 시작은 병력이 될 수도 있고 상업이나 혹은 공업이나 혹은 교회가 될 수도 있지만, 한결같이 정책을 써서 그 지역을 지휘하고 제어한다.(제2절, p.4)

1.2.2.2 고대제국주의와 민족제국주의

(e1.2.2.2.1) 민족주의를 거쳐 발전한 민족제국주의는 근대의 산물이고 문명의 산물이다. 고대에도 제국주의가 있었다. 양계초는 고대제국주의와 근대의 민족제국주의를 비교한다. 그에 의하면 고대의 제국주의는 우연적인 영웅에 의해 발생했다. 그러므로 영웅의 권위에 의해 유지되었고, 한 때의 폭풍우처럼 영웅이 사라지면 사라졌다. 그러나 근대의 민족제국주의는 민족의 팽창력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민족 전체의 총체적인 힘의 분출이다. 그것은 인위적으로는 제어하기 어려운 거대한 힘으로서,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강대한 흐름이 되어 나날이 확대되고 심화되리라고 양계초는 예상했다. 양계초가 신봉한 사회진화론의 견지에서 보면, 민족단위의 정치공동체는 경쟁을 거듭할 것이고, 그 경쟁을 통해 강자는 더욱 강해질 것이며, 강한 민족공동체는 민족제국주의로 발전할 것이었다. 게다가 점점 더 강력한 민족제국을 건설할 것이었다.

(q1.2.2.2.2) 이른바 민족제국주의와 고대제국주의는 어떻게 다른가? 옛날에는 알렉산더가 있었고 샤를르가 있었고 장기스칸이 있었고 나폴레옹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웅대한 계획을 품고 원정에 나서 대지를 유린하고 약한 나라들을 병합했다. 그러나 고대의 제국주의는 한사람의 웅대한 마음에 기반을 둔 것이다. 그에 비해 민족제국주의는 민족의 팽창력에 기반을 둔 것이다. 고대제국주의는 권위에 의해 움직이지만 민족제국주의는 추세에 의해 움직인다. 그러므로 고대제국주의의 침략은 한 때에 지나지 않으니 이른바 폭풍·폭우와 같이 날이 밝기도 전에 그친다. 그러나 민족

제국주의의 진행은 오래도록 멀리 가며 나날이 확대되고 나날이 심화된다.
(제2절, p.4)

1.2.3 민족 진화의 관건

(e1.2.3.1) 민족 역시 경쟁을 통해 진화해간다. 양계초는 세계 인종을 흑인종, 홍인종, 갈색인종, 황인종, 백인종의 오색 인종으로 나누고, 그 오색인종 가운데 백인종이, 그 백인종 가운데는 튜튼족이, 또 튜튼족 가운데는 앵글로색슨족이 가장 진화한 민족이라고 평가했다. 20세기 초, 세계에서 제국주의의 선봉에 서있던 영국이나, 신대륙의 새로운 제국주의로 등장한 미국이 모두 앵글로색슨족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앵글로색슨족이 진화의 선두에 설 수 있었던 특성들을 나열한다. 그가 특성으로 꼽는 것들이 생존경쟁에서 강자가 될 자질들이 될 것이다. 지금 현재로는 앵글로색슨족이 우월하지만 만약 그들이 그런 자질들을 잃는다면, 그리고 다른 민족이 그러한 자질들을 갖게 된다면 그 우열의 판도는 바뀔 것이다. 양계초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렇게 되면 약한 민족도 노력 여하에 따라 강한 민족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세계의 패자가 될 수 있을 것이었다.

(q1.2.3.2) 오색 인종을 비교하면 백인종이 가장 우월하다. 백인들끼리 비교하면 튜튼족이 가장 우수하다. 튜튼족 안에서 비교하면 앵글로색슨족이 가장 우수하다. 이것은 내가 현재의 판세에 따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화계의 피할 수 없는 법칙이 이러하다. 노르만인이 새롭게 앵글로색슨 인종보다 더 우월하게 된다면 훗날 앵글로색슨족을 대신해서 흥성할지도 모른다. 슬라브족이나 라틴족이 튜튼족보다 우월해질 수도 있고 황인종이 백인종보다 우월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슬라브족이나 라틴족, 황인종이 튜튼족이나 백인종을 대신해서 흥성할 것이다. 요컨대, 현재의 지위로 말하자면 우열의 법칙에 따라 이와 같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민족이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널리 모색하려 한다면, 여러 장점들을 선택하여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한다. 앞의 예에서 본받을 것을 취한다면 백인종이어야 하며, 백인종 가운데의 튜튼족이어야 하며, 튜튼족 가운데의 앵글로색슨족이어야 한다.(제4절, p.9)

1.2.3.1 백인종의 우월성

(e1.2.3.1.1) 양계초가 보기에 백인종은, 흑인종·홍인종·갈색인종·황인종보다 우월하다. 양계초는 백인종과 여타 민족을 양분해서 비교한다. 백인종의 특성은 여타 민족은 갖지 못한 우수성이 된다. 양계초에 의하면 백인종은 움직임을 좋아하고 경쟁을 불사하며 진취적이다. 여타 민족은 고요함을 좋아하고 평화를 좋아하며 보수적이다. 동적이고 진취적인 백인종은 문명을 발생시키는 데서 그치지 않고 문명을 전파한다. 즉 그들은 다른 대륙을 횡단하면서 자신들의 세력과 문화를 확대시킨다. 정적인 여타 민족이 자연에 따라 산다면 백인종들은 인위의 가치를 더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양계초가 백인종의 성격으로 꼽은, 동적이고 진취적이고 경쟁적이고 인위를 존중하는 특징은, 경쟁에서 우월한 점으로 작용하고 결과적으로 강자가 되도록 하는 특징이다. 현실적으로는 제국주의의 민족이 갖는 특징이다.

(q1.2.3.1.2) 백인종이 다른 인종보다 우수한 점은 무엇인가? 다른 인종은 고요함을 좋아하나 백인종은 움직임을 좋아한다. 다른 인종은 평화에 빠져 있지만 백인종은 경쟁을 불사한다. 다른 인종은 보수적이지만 백인종은 진취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인종이 단지 문명을 발생시킬 수 있었다면, 백인종은 문명을 전파할 수 있었다. 문명을 발생시키는 자는 자연에 의지하며, 문명을 전파시키는 자는 인사(人事)에 의지한다.

(제4절, p.10)

1.2.3.2 튜튼족의 우월성

(e1.2.3.2.1) 백인종 안에는 라틴족과 슬라브족과 튜튼족이 있다. 양계초는 그 가운데 튜튼족이 가장 우월하다고 여겼다. 그는 튜튼족의 특징이, 야만인 때부터 가졌던 강건하고 자유로운 기개에 로마문화의 영향이 같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것이라고 진단하고, 그들의 대표적인 장점은 정치능력이라고 꼽았다. 그들은 독일, 영국, 미국 등의 민족국가를 건설했다. 그것이 그들의 정치능력을 단적으로 증명한다. 그들의 민족국가는

대의제도, 인민참정권을 도입하여 국민의 뜻을 정책에 반영하며, 개인과 국가의 관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정부의 관계에 대한 적절한 규정을 통해 민족국가 안의 조화와 통일을 이룩했다고 양계초는 평가했다. 그러한 능력이 의미 있는 것은 그러한 능력이야말로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튜튼족이 가진, 시대에 적응하여 변화를 피하고 적절한 정치형태를 선택하는 능력 역시, 우월한 민족, 강한 민족이 되는 데 필수적인 특성이다.

(q1.2.3.2.2) 튜튼족의 정치능력은 대단히 강해서 다른 민족이 따라갈 수 없다. [...] 튜튼족은, 처음에 노르만의 산림에서 일종의 야만족이었을 때 개개인이 지녔던 강건한 자립심과 자유로운 기개를 잃지 않고 자손들에게 물려주었으며, 또한 로마문화의 혼습과 단련을 거쳤으니, 이 양자가 결합하여 드디어 특수한 민족을 만들어냈으며 민족국가(national state)를 조직하게 되었다. 그들은 대의제도를 만들어 인민들이 모두 참정권을 갖게 했으며, 인민의 뜻을 모아 공의(公意)를 이루고 인민의 권리를 모아 국권을 이루었으며, 또한 단체와 개인의 권한을 제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정부의 권한을 정하여 각각 서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했다. 민족전체가 때의 변화에 적응하여 점점 발달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튜튼족이 오늘날 천하에서 우월한 종족이 된 것은 천행이 아니라 그 민족의 우월함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제4절, p.10~11)

1.2.3.3 앵글로색슨족의 우월성

(e1.2.3.3.1) 뛰어난 정치능력을 가진 튜튼족 안에서도 가장 뛰어난 민족은 영국을 건설하고 나아가 북아메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까지 그 종을 번식시킨 앵글로색슨족이다. 양계초가 꼽은 그 민족의 우수성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어른은 아이들을 아랫사람 부리듯이 부리지 않고 아이들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더 이상 어른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즉 그들은 독립심, 자립심이 강하다. 질서의식과 함께 권리의식 역시 강하다. 게다가 견인불발의 체력까지 갖추고 있다. 허황된 것을 멀리하고 실질적인 것을 중요시하므로 모두 생업을 갖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러므로 무위도

식하는 관리나 정책은 그 나라에서는 발붙일 곳이 없다. 그들은 시세에 따라 적응도 잘 하지만, 보수적 성격 역시 강하다. 그러므로 외부사회에서 배울 점은 받아들이지만 자신들의 본성을 잃는 일 없이 오히려 그 본성을 더욱 발휘하여 외부에까지 확장시킨다. 작은 섬나라 영국이 오스트레일리아와 북아메리카를 그 민족의 영토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보수성과 시의 적응성의 결과이다. 이러한 특징들의 결과 그들이 이론업적은 “해 뜨는 곳 어디에나 그 국기를 휘날리고, 5대주 6대륙 요충지에 그 우방을 공고히 해 놓”은 것이다. 즉 “세계를 제패”한 일이다. 양계초는 이러저러한 우수성들이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일을 한 민족인 앵글로색슨족의 특성을 이러저러하다고 잡아낸 것이리라.

(q1.2.3.3.2) 앵글로색슨족이 다른 튜튼족보다 우월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은 독립자조의 기풍이 가장 강하여, 어려서는 가정과 학교에서 부모와 스승이 아랫사람 부리듯이 대하지 않고 세상일을 단련하게 한다. 조금 크면 그들은 자립하여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는다. 그들이 기율과 질서를 지키는 관념은 가장 두텁다. 그 상식은 가장 풍부하며 늘 무모한 경거망동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들의 권리사상은 가장 강해서 권리를 제2의 생명으로 보아 조금도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 그 체력은 가장 강하여 온갖 모험을 감행한다. 그 성질은 가장 강인하여 백번 꺾여도 굴복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은 실업(實業)을 주로 삼고 허영을 숭상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모두 직업을 갖는데 힘쓰며, 고하를 막론하고 무위도식하는 관리나 정책은 세상에서 존중되지 못한다. 그들은 보수적 성질 역시 가장 강하면서도 늘 시세에 따를 줄 알아, 외부 사회를 거울삼아 본래의 본성을 광대하게 발휘할 줄 안다. 이 때문에 북쪽 끝의 작은 세 개의 섬이 북아메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에 그 종을 번식시킬 수 있었다. 해 뜨는 곳 어디에나 그 국기를 휘날리고, 오대주 육 대륙 요충지에 그 우방을 공고히 해 놓았으니,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다. 앵글로색슨족이 19세기에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것은 천행이 아니라 그 민족의 우월함 때문이다.

(제4절, p.11)

1.2.3.4 진화에 필요한 특성들

(e1.2.3.4.1) 양계초가 백인종, 튜튼족, 앵글로색슨족의 특성으로 꼽은, 동적인 성격, 경쟁적이고 진취적인 성격, 정치능력, 자립심, 권리의식, 보수성 등은 결국 당대 제국주의의 최강자 영국의 특징이다. 양계초는 영국 민족의 특성을 그와 같이 파악하고, 그것이 바로 영국을 못 경쟁에서 승승장구하게 하고 세계에서 가장 넓은 식민지를 보유하도록 한 원인이라고 생각했다. 그 특성들은 바로 강자의 특성이다. 그 강자는 야만시대의 강자가 아니라 문명시대의 강자이다. 양계초는 국민의 정치능력, 자립심, 권리의식 등, 근대 시민사회의 성립과 함께 미덕으로 부상한 것들 역시, 강자의 특성으로서 받아들였다. 즉 근대라는 모자를 쓰고 등장한 모든 미덕은 문명시대 강자의 특성이었다.

1.2.4 중국의 민족주의

(e1.2.4.1) 오늘날의 경쟁세계가 민족공동체 단위의 경쟁으로 진화했다면, 일단 그 경쟁에 참여라도 하기 위해서는 민족 정치공동체를 결성해야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치공동체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다른 공동체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중국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민족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내적인 통합을 이루어 외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다. 그 길밖에 없다.

1.2.4.1 중국민족의 가능성

(e1.2.4.1.1) 중국민족 역시 “동일한 지역의 동일한 종족으로서,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동일한 종교와 동일한 습속을 가진 사람들”(제2절)이다. 특히 중국민족은 몇 천 년 동안 아시아대륙의 맹주였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중국민족이 뛰어난 특질이 있다는 증거라고 양계초는 생각했다. 그러한 특질은, 지역, 혈연, 언어, 문화 공동체인 중국민족이 독립

된 정부를 조직하여 공익을 도모하고 이민족과 대치하는, 이른바 근대의 ‘민족주의’를 지향하는 데 바탕이 될 장점들이다. 그 장점들을 양계초는 “광대하고 고상하고 완미한 점”이라고 다소 애매하게 표현했는데, 어쨌든 중국민족의 그러한 장점들은, 지금 당장은 침체되어 있는 중국민족이 다시 웅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해주는 것이므로 대단히 귀중한 것이었다.

(q1.2.4.1.2) 우리 동포가 아시아대륙에서 수천 년 동안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분명 우리의 특질에 광대하고 고상하고 완미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 특질은 다른 종족들에게는 없는 빛나는 것이므로 우리는 그것들을 보존해서 잃지 말아야한다.(제3절, p.6)

1.2.4.2 중국민족의 위기

(e1.2.4.2.1) 과거 몇 천 년 동안 아시아의 맹주였던 중국은, 지금 부패한 정부와, 민족과 국가에 대한 개념이 결여되어 있는 구성원들로 인해 오합지졸의 형국이다. 러시아, 독일, 영국, 프랑스에서 일본까지, 제국주의 국가들은 이미 아시아의 가장 크고 살진 중국의 살을 뜯기 시작했다. 민족제국주의의 식민지 확장은 역사의 필연적 흐름이라고 생각하는 양계초의 눈으로 보면, 문제는 중국민족의 무능력이다. 중국민족의 무능력이 중국을 민족제국주의 각국이 잘라서 나눠먹으려는 참외 꼴로 만들어버렸다. 더군다나 그들의 팽창은 진화의 필연적 결과로서 멈출 수 없는 것이었다. 중국이 참외 꼴이 되는 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었다.

(q1.2.4.2.2) 지금 아시아에서 가장 큰 나라, 가장 비옥한 땅, 가장 부패한 정부, 가장 뿔뿔이 흩어진 인민이 있다. 저 민족들이 우리의 내부 사정을 엿보아 이른바 민족제국주의를 이곳으로 가지고 들어온다면, 개미떼들이 누린내를 쫓듯이, 못 화살이 과녁을 향하듯이, 꾸역꾸역 이 한 곳으로 몰려들 것이다. 만주의 러시아인, 산동의 독일인, 양자강 유역의 영국인, 양광(兩廣)의 프랑스인, 복건의 일본인은, 모두 이 새로운 주의의 조류로서, 멈출 수 없는 것이다.(제2절, p.4)

1.2.4.3 중국민족의 과제

(e1.2.4.3.1) 민족제국주의의 팽창은 필연적인 역사의 흐름이다. 고대 제국주의처럼 우연적인 영웅에 의해 일어나 한 때 지나가는 폭풍우 같은 것이라면, 당하는 쪽에서도 영웅을 기다려 대적할 수 있다. 그러나 근대의 민족제국주의는 민족 전체의 능력이 합해져서 넘쳐 흘러나오는 것이다. 그것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될 역사 흐름의 방향이다. 더구나 점점 더 강해질 것이다. 그 흐름에 수동적으로 파묻혀 식민지로 전락하지 않는 길은 하나뿐이다. 그것은 중국의 민족주의를 실행하여, 저들의 민족제국주의에 대항하고 나아가 중국의 민족제국주의로 진행하는 것이다. 양계초는 생존경쟁에 의해 점점 더 강한 개체로 진화해가는 것이 인간사회가 문명을 향해 발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중국이 이 생존경쟁 안에서 살아남는 것은 강한 민족이 되는 것이면서 동시에 문명의 민족이 되는 것이었다. 고민할 여지없이 중국의 과제는 중국의 민족주의를 실행하는 것이었다.

(q1.2.4.3.2) 저들이 한두 사람의 공명심 때문에 오는 것이라면 우리도 한두 사람의 영웅에 의지해서 대적할 수 있다. 저들이 멈출 수 없는 민족의 세력 때문에 오는 것이라면 우리 민족 전체의 능력을 합해야만 저지할 수 있다. 저들이 한때의 피 끓는 용맹으로 쳐들어오는 것이라면 우리도 한 때의 혈기를 고무해서 막아낼 수 있지만, 저들이 장기적인 정책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쳐들어오는 것이라면 우리 역시 백년의 크고 긴 계획을 세워야 생존이라도 기대할 수 있다. [...] 그러므로 오늘날 열강의 민족제국주의에 대항하여 그 재난에서 인민을 구제하려 한다면, 오직 우리의 민족주의를 실행한다는 한 가지 방법만이 있을 뿐이다.(제2절, p.4~5)

1.2.4.4 중국민족의 모범

(e1.2.4.4.1) 중국의 민족주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하는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이어서 가장 모범적인 민족주의를 실행하고 있는 민족을 본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 민족은 현재 민족의 힘을 5대주 6대양으로 뻗치고 있는 영국민족 즉 앵글로색슨족이다. 중국민족이 성공적으

로 민족주의를 실행하여 생존경쟁의 강한 민족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앵글로색슨족이 가진 장점을 파악하고 그 장점들을 배워야 한다. 이리하여 구국을 위한 양계초의 노력은, 영국민족의 장점을 파악하고 그 장점을 중국민족 역시 소유하도록 하는 일에 집중된다.

(q1.2.4.4.2) 오색인종을 비교하면 백인종이 가장 우월하다. 백인들끼리 비교하면 튜튼족이 가장 우수하다. 튜튼족 안에서 비교하면 앵글로색슨족이 가장 우수하다. 이것은 내가 현재의 판세에 따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화계의 피할 수 없는 법칙이 이러하다. [...] 요컨대, 현재의 지위로 말하자면 우열의 법칙에 따라 이와 같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민족이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널리 모색하려 한다면, 여러 장점들을 선택하여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한다. 앞의 예에서 본받을 것을 취한다면 백인종이어야 하며, 백인종 가운데의 튜튼족이어야 하며, 튜튼족 가운데의 앵글로색슨족이어야 한다.(제4절, p.9)

1.3 민족국가

1.3.1 민족국가의 의의

(e1.3.1.1) 양계초는 흔들림 없이 사회진화론이 인류역사를 지배하는 법칙이라고 믿었다. 인류는 생존경쟁의 세계에서 적자생존 법칙의 지배를 받으며, 인류는 그러한 경쟁을 통해 문명을 향해 발전해간다고 생각했다. 양계초는 유럽근대국가의 탄생은 민족주의의 발달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근대 유럽을 탄생시킨 민족은 혈연, 지연, 문화를 공유함으로써 내적 결속을 다지고, 나아가 그들의 생존을 위해 경쟁력 있는 대외적 독립체로 거듭난, 정치공동체였다. 민족이 구성하는 정치공동체, 이것이 경쟁의 최고 상태인 국가 가운데에서도 최종적인 국가의 진화태였다. 즉 민족은 가장 단단하게 결속할 수 있는 최대단위였고, 독자적인 국가를 형성하려는

정치적 행위만이 그 민족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었다. 즉 민족국가는 인위적이지 않기 때문에 강력한 결속력을 보장해주는, 가장 효과적으로 주권을 발휘하도록 구성된 정치공동체이다. 적자생존의 세계는 민족주의에서 민족제국주의로 진화해가고 있으며, 중국의 당면 과제는 민족주의를 이룩하는 것, 즉 민족국가를 형성하는 것이었다.

1.3.2 민족국가의 원천

(e1.3.2.1) 민족을 단위로 국가를 세워 민족국가로서 세계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하나의 민족으로 묶어주는 민족 공통의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같은 지역에 거주하면서 동일한 언어를 공유하는 그들은 수많은 세대를 거치면서 그들 공통의 습관과 풍속, 나아가 문학과 미술, 도덕, 규범 등의 문화를 형성해왔다. 그들은 혈연·지연·문화 공동체이다. 혈연, 지연, 문화를 공유하면서 형성된 공동체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의 민족으로 묶이는 것이 가능하다. 그들에게 동일한 민족이라는 의식을 심어주는 그러한 공동의 것들이야말로 민족주의의 원천이다. 그것들은 그 민족 고유의 정신이 되어 그 민족을 다른 민족과 구별해주는 징표가 된다.

(q1.3.2.2) 한 나라가 세계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그 국민 고유의 특질이 있기 때문이다. 위로는 도덕과 법률에서부터 아래로 풍속과 습관, 문학, 미술에 이르기까지 모두 일종의 독립된 정신을 갖는다. 조부가 전해주고 자손이 잇는다. 그런 후예야 그 사회는 뭉치고 나라가 성립한다. 이것이 실로 민족주의의 근저이며 원천이다.(제3절, p.6)

1.3.3 민족국가의 요소

(e1.3.3.1) 민족국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동일한 민족이어야 한다. 그러나 동일한 민족이라는 것만으로 민족국가가 되어 다른 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생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족국가 수립의 의의는 생존경쟁의 시대에 나 개인이 살고 민족이 살 수 있는 강력한 경쟁주체를 창출한다는 것이므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실력 역시 민족국가의 성립에 필수적인 것이다. 실제로 당시 민족국가들이 주체가 되어 치루는 경쟁이란 제국주의의 식민지 쟁탈전이었다. 성공적인 제국주의 국가는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을 거친 이른바 근대국가들이었다. 그들이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성취해낸 자유, 평등, 권리 등의 이념 역시, 양계초는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받아들였다. 양계초는 그러한 이념들을 비롯해 경제적 실력, 군사적 지향 등을 모두 근대의 민족국가를 형성하는데 필수적인 항목들로 등장시켰다. 자유와 평등을 비롯한 모든 가치들은, 그것들이 강한 국가를 형성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에서 정당화되었다.

1.3.3.1 권리

(e1.3.3.1.1) 근대국가의 권리는 국가의 구성원들인 각 개인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리이다. 근대국가가 갖는 권리의 근원은 개인들 각자가 갖는 자연적 권리이다. 즉 권리는 개인의 자연성이다. 그러므로 권리 없는 인간은 인간의 자연성을 침해당한 노예이며, 권리 없는 국가는 국가적 노예상태인 식민지일 뿐이다. 권리가 있어야만 개인이든 국가든 자신의 존엄성을 누리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e1.3.3.1.2) 그런데 양계초에게 권리는 것처럼 자연적 권리이면서 동시에 강자의 권리였다. 그에게 그 두 의미는 아무 모순 없이 공존했다. 근대국가는 강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경쟁에서 이긴 강자만이 권리를 누릴 수 있고 문명인이 될 수 있었다. 양계초에 의하면 국민 개개인이 강자가 되어 성취한 권리는 그대로 국가의 권리가 된다. 민족국가의 권리는 국민 개개인의 권리의 총합이다.

1.3.3.1.1 권리사상은 국가의 뿌리

(e1.3.3.1.1.1)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권리를 찾겠다는 의식을, 양계초는 권리사상이라고 불렀다. 그에 의하면 권리에 대한 의식은 생명체가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자신을 보존하려는 본능이다. 즉 “사람이 태어나 권리사상을 갖는 것은 천부의 양지양능(良知良能)이다.”(제8절) 인간의 생존본능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권리사상은 나무의 뿌리에 해당하는 가장 핵심적인 생존본능이라고 양계초는 말한다. 다른 생존본능들이 아무리 왕성하게 활동해도 권리사상이 없다면 그 국가는 존립할 수 없게 된다. 뿌리 없는 나무가 설사 당장은 줄기와 잎이 무성해 보일 수는 있더라도 결국 머지않아 말라 죽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이다. 국가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권리사상이 있어야 한다.

(q1.3.3.1.1.2) 국가를 나무에 비유한다면 권리사상은 뿌리에 비유할 수 있다. 뿌리가 이미 흔들렸다면 줄기와 잎이 아무리 건강해 보이고 울창해도 결국은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 비바람이 몰아치면 더 빨리 넘어갈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가뭄의 폭염에 순식간에 말라버릴 것이다. 국민이 권리사상이 없이 외환(外患)을 당한다면 이는 나무가 비바람을 만나는 것과 같다. 외환이 없더라도 역시 말라 죽을 것이다.(제8절, p.39)

1.3.3.1.2 권리는 형이상의 생존 능력

(e1.3.3.1.2.1) 동물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숨 쉬고 피를 돌리고 영양을 흡수하고, 또 물건을 쥐고 몸을 이동하는 등의 신체기관이 필요하다. 양계초의 표현대로라면 오장과 사지가 그것들이다. 오장과 사지가 신체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권리는 더 차원 높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즉 권리 역시 생존하기 위한 욕구이다. 양계초는 신체적 생존과 권리를 요구하는 생존을 각각 형이하의 생존과 형이상의 생존이라고 표현했다. 형이하의 생존이 동물로서 갖는 특징이라면 형이상의 생존은 인간만이 갖는 특징이다. 즉 형이상의 생존은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조건

이 된다. 인간은 숨 쉬고 먹고 마시는 일 뿐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에만 비로소 인간으로서 생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어야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 양계초는 인간에게는 그러한 권리를 보존할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즉 신체적 생존과 마찬가지로 권리는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을 필요로 한다.

(q1.3.3.1.2.2) 하늘이 생물을 낳은 뒤 스스로를 지키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천부적 능력을 부여했다. 이는 생명을 가진 존재의 원칙이다. 그런데 사람이 만물 가운데 가장 귀한 이유는 단지 ‘형이하’의 생존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형이상’의 생존을 한다는 것이다. 형이상의 생존을 위한 조건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권리는 가장 중요하다. 그러므로 금수는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자신에 대한 유일무이한 책임이지만 인류라고 불리는 존재들은 생명과 권리를 모두 보존해야 비로소 책임이 다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인간일 수 있는 자격을 잃고 금수와 동등한 자리로 떨어진다.

(제8절, p.31)

1.3.3.1.3 강자의 권리

(e1.3.3.1.3.1) 양계초는, 권리는 인간이 인간다운 생존을 하기 위한 천부의 능력이라고 하면서도, 또 한편에서 권리는 강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즉 그에 의하면 국왕, 귀족, 남자, 다수의 무리가 백성, 평민, 여자, 소수의 무리를 상대로 누릴 수 있는 것이 권리이다. 더구나 그것은 강자들의 포악함 때문이 아니라 약자들의 포기 때문이라고 양계초는 주장한다. 왜 자신의 권리는 타인의 권리의 포기를 필요로 하는가? 인간답게 사는 일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유린해야 가능한 일인가? 양계초는 권리를 신장하려는 욕구는 인간의 천성이라고 말한다. 누구나 가능하면 다른 사람의 권리영역까지 침범해서 자신의 권리영역을 확장시키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누구나 그러한 천성을 가지므로 누군가가 먼저 포기하기 이전에는 타인이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고 말한다. 즉 권리를 빼앗기는 것은 약자의 잘못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인간다운 생존을 하기 위해

해야 할일은 강자가 되는 것이다. 강자가 되는 것만이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이다. 그것은 또한 사회를 개선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둘도 없는 미덕이기도 하다. 사회진화론이 역사의 필연적 법칙이고 그것이 또한 문명이라는 가치를 향한 것이기까지 하다면, 강자는 찬양의 대상일 뿐 비난의 대상일 수 없다. 비난받아야 할 것은 약자들의 게으름과 무능력이다.

(q1.3.3.1.3.2) 권리는 어디에서 생기는가? 강함에서 생긴다. 사자와 호랑이가 못짐승들에 대해, 촌장과 국왕이 백성들에 대해, 귀족이 평민에 대해, 남자가 여자에 대해, 다수의 무리가 소수의 무리에 대해, 힘센 나라가 약한 나라에 대해, 모두 절대적 우월의 권리를 점유하는 것은 사자나 호랑이 촌장 등의 포악 때문이 아니다. 사람들은 모두 싫증내는 일 없이 자신의 권리를 신장시키고 싶어 한다. 이것은 천성이다. 그러므로 권리라는 것은 반드시 갑이라는 사람이 먼저 포기한 뒤에야 을이라는 사람이 침해할 수 있다. 사람들은 모두 스스로 강해져서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힘쓴다. 이는 실로 사회를 단단히 하고 사회를 좋게 하는 둘도 없는 가르침이다.(제8절, p.31~32)

1.3.3.1.4 권리는 경쟁에서

(e1.3.3.1.4.1) 강자의 권리는 경쟁을 통해서 획득된다. 당연하다. 강자는 경쟁에서의 승자이기 때문이다. 양계초는 독일의 정치학자 예링의 저서를 인용하여 권리는 부단한 경쟁과 거기에서의 승리에서 발생한다고 말한다. 예링은 “권리의 생애” 자체가 “경쟁일 뿐”이라고 단언한다. 그러면서도 권리의 목적은 평화라고 말한다. 경쟁에서 늘 이기는 일이 쉽지 않은 만큼, 권리는 얻기도 쉽지 않고 지키는 것도 쉽지 않다. 인생이 부단한 경쟁의 연속이고, 인간다운 인간의 생활을 보장하는 권리는 그 부단한 경쟁을 통해 얻고 지켜야 한다. 인간다운 인간의 생활은 부단한 경쟁에서 늘 강자가 됨으로써만 가능하다. 강자가 되기 위한 부단한 긴장과 노력, 그것은 또한 평화라는 가치를 위한 것이다.

(q1.3.3.1.4.2) 독일의 학자 예링(Jhering)은 그의 저서 『권리경쟁론』(*Der Kampf ums Recht*)에서 “권리의 목적은 평화이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전투이다. 서로 침입하게 되면 반드시 항상 경계한다. 침입은 그치지 않으므로 경계 역시 다할 기약이 없다. 말하자면 권리의 생애는 경쟁일 뿐이다.”고 했다. 또한 “권리란 부단한 노동이다. 노동이 일단 해이해지면 권리는 즉시 사라진다.”라는 말도 했다. 이처럼 권리라는 것은 얻기도 어렵고 보존하기도 어려운 것이다.(제8절, p.32)

1.3.3.1.5 권리와 법

(e1.3.3.1.5.1) 권리는 강자만이 성취할 수 있고 강자란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거듭나야만 한다. 그러한 강자의 자리를 최대한 길고 확실하게 보장하는 최선의 방식은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다. 즉 법률은 강자들의 자기 보호책이다. 소수의 강자들에 의해 권리가 독점되어 있는 사회라면 그 사회의 법률은 그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만들어진다. 그러나 법률로 제정되었다고 해서 언제나 지나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권리의식에 눈뜨고, 그리하여 스스로 강해지지 위해 노력하게 되면, 기존의 법률은 도전을 받고 결국에는 더 많은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개정된다. 그 나라의 국민이 권리사상이 강하면 강할수록 법률은 변화를 거듭하여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가 내의 경쟁은 법률 제정을 둘러싸고 하게 될 것이다.

(q1.3.3.1.5.2) 권리경쟁은 멈추지 않는 것으로, 그것을 확립하고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권리사상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입법권을 쟁취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한 사회에 법률이 있으면 그것이 좋건 나쁜건 그것은 입법권자들의 손에 의해 제정되어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게 된다. 권리사상이 강한 국민의 법률은 반드시 계속적으로 변경되어 날로 선을 향해 간다.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강권(強權)을 발동하여 스스로를 이롭게 하지만 뒤로 갈수록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강권을 발동하여 서로 견제함으로써 스스로의 이익을 꾀한다.

권리사상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강자가 되기 위해 애쓴다. 강자와 강자가 만나고 권리와 권리가 부딪히면 새로운 법률이 탄생한다.(제8절, p.37)

1.3.3.1.6 국권은 모든 개인의 권리의 합

(e1.3.3.1.6.1) “권리사상은 스스로에 대해 다해야 하는 의무일 뿐 아니라 한 개인이 공공사회에 다해야 할 의무이기도 하다.”(제8절) 가령, 군대의 한 병졸이 혼자서만 목숨을 구하겠다고 부대를 이탈해 도망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일이 어떻게 자신의 명예를 손상하는 데서 그치겠는가! 또 군대 전체, 국민 전체에 대해 불충을 저질렀다는 데서 그치겠는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을 태만히 한 결과는, 적이 힘을 증강할 기회를 주게 되고, 결국에는 자기 군대, 나아가 자기 국가를 유린할 수 있는 틈을 주게 된다.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결국 국가의 권리를 포기하는 데까지 이른다. 양계초는 국가의 권리는 각 개인의 권리가 모여서 성립한다고 말한다. 그에 의하면 강국이란 국민이 강한 나라이고, 권리를 가진 나라는 권리를 가진 국민이 모인 나라이다. 국민 개개인이 국가 내부에서의 경쟁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는 그런 국가가, 대외적으로 외국과의 경쟁에서 강자가 되어 나라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 “국민이 협력하여 각각 내부의 경쟁에 참여하는 책임을 다한다면, 외부로부터의 침입과 압박은 일어날 수 없다.”(제8절)

(q1.3.3.1.6.2) 국민은 각 개인들이 모여서 된 것이고, 국권(國權)은 각 개인들의 권리가 모여서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이 권리사상을 갖고 권리에 민감하게 행동하기를 바란다면, 각 개인들의 사상과 민감함에 의하지 않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 국민이 강하면 강국이라고 하고, 그 국민이 약하면 약국이라고 한다. 그 국민이 부자면 부국이라고 하고 그 국민이 가난하면 빈국이라고 한다. 그 국민이 권리가 있으면 유권국(有權國)이라고 하고 그 국민이 부끄러움을 모으면 무치국(無恥國)이라고 한다. 무치국이라는 말을 듣는 지경이라면, 이 세상에 나라를 세우려고 하더라도 세울 도리가 있겠는가!(제8절, p.39)

(e1.3.3.1.6.3) 국가의 권리란 국민 권리의 총합이라고 하는 양계초의 주장에 충실히 따른다면, 국민 개개인은 자신의 권리 신장에 충실하기만 하면 된다. 국가란 실체가 아니라 국민이 모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국가와 국민의 중요성 정도를 따지자면 국민이 더 중요한 존재이다. 국가는 국가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할 명분이 없다. 국민의 이익이 곧 국가의 이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은 자신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개인적인 경쟁에 몰두하기만 하면 된다. 그 힘이 모여 국가의 힘이 될 것이고 경쟁을 통해 상승한 개인의 권리는 곧 국가 권리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e1.3.3.1.6.4) 그러나 양계초의 의도는 그런 것은 아니었다. 즉 그는 국가보다 국민이 더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니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경쟁 주체로서의 강력한 국가였으며, 국민들이 그러한 국가를 만드는데 협력하기를 요구한 것이었다. 그는 국가의 권리와 개인의 권리가 대립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혹시라도 국가의 권리와 개인의 권리가 대립하는 일이 있다면 그는 주저하지 않고 국가 권리의 우월성 편에 설 것이었다. 그가 국민 개개인의 권리의 총합이 국권이라고 말한 것은, 국권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총력으로 매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이는 어느 정도 사실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치영역에서의 활동을 통해 민족국가를 건설하려는 것이 아니라, 계몽을 통해 민족국가를 건설하려는 양계초가 처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1.3.3.2 의무

(e1.3.3.2.1)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로 대별되는 국민의 의무는, 국가를 성립시키는 물질적 토대이다. 국가는 국민이 제공하는 조세와 병역으로 운영되고 지켜진다. 이러한 의무는 근대적 민족국가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근대적 민족국가의 의무가 그 이전의 의무와 구별되는 것이 있다면 국민 개개인이 자신이 이행한 의무의 반대급부를 확실하게 돌

려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국가의 존립을 위해 국민이 의무를 다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자신이 이행한 의무는 이제 권리로서 자신의 생존을 풍부하게 하는 도구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근대의 문명국가에서는 의무 없는 권리는 없고 권리 없는 의무는 없다.

(q1.3.3.2.2) 정치학자들은 국민의 의무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한다. 하나는 납세의 의무이고 하나는 병역의 의무이다. 나라 자체는 생업을 가질 수 없다. 백성이 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정치의 비용이 어디에서 나오겠는가! 한 나라라고 규정이 된다는 것은, 반드시 다른 나라와 대치하고 있다는 뜻이다. 백성이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국방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제16절, p.106)

1.3.3.2.1 개인과 사회의 협조

(e1.3.3.2.1.1) 국민은 국가에게 일방적으로 의무만을 이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탄탄해진 국가라는 울타리는 이제 거꾸로 국민들에게 갖가지 권리를 제공한다. 국민이 납세하여 국가의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여 대외적으로 그 국가를 안정되게 한다면 그 국가의 국민들은 국가의 안정과 부와 영화를 고스란히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결국은 자신이 이행한 의무를 그대로 권리로써 향수하는 것이다. 결국 국민이 국가에 대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그러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이다. 또한 민족국가 간의 경쟁시대에 그런 식이 아니라면 권리를 누릴 길은 없다.

(q1.3.3.2.1.2) 개인이 모여서 한 사회를 이루었을 때 사회가 있는 걸 기뻐하는 것은, 사회가 성립하면 내가 사회의 힘에 의지해서 종종의 권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회가 해체되지 않고 성립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경제학상의 분업이라는 대원칙을 따르기 때문이다. 한 사회의 사람들이 모두 각자 열심히 살면서, 사회에 결핍된 것은 내가 보충하고 사회의 위급한 일에는 내가 달려간다. 그리하여 사회의 안정과 부귀와 존귀와 영화를 내가 스스로 향수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권리 없는 의무는 없다고 한다.(제16절, p.106)

1.3.3.2.2 의무와 권리의 균형

(e1.3.3.2.2.1) 내가 사회에 대해 이행한 의무를 내가 권리로써 향수하게 되므로 의무와 권리는 서로 의지해서 성립한다. 근대의 문명국가에서는 의무 없는 권리는 없고 권리 없는 의무는 없다. 문명시대의 민족국가에서는 국민 개개인이 다한 의무가 국가의 부강을 이루고 그 부강한 국가만이 국민에게 권리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권리는 없이 의무만을 다하거나 의무 이행은 없이 권리만을 누리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그 사회가 야만사회라는 증거이다. 즉 권리 없는 의무는 없다는 의식이 결여되고, 의무 없는 권리는 없다는 의식이 결여된 다수의 약자들이 의무만을 다하고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는 증거이다. 또한 그 한편에는 의무이행은 없이 남의 권리를 가로채는 무리들이 있다는 뜻이다. 즉 야만사회의 모습인 것이다.

(q1.3.3.2.2.2) 의무와 권리는 서로 의지해 성립한다. 사람이 태어나 응당 얻는 권리가 있으면, 또한 태어나서 응당 다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니, 이 둘의 양이 적절하게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야만사회에서는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거나,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옳바르지 않는 것이며, 옳바르지 않은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사회가 점차 문명사회로 옮겨가면 결단코 권리 없는 의무는 없으며, 마찬가지로 의무 없는 권리는 없다. 권리 없는 의무는 없기 때문에 피로하도록 노력하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며, 의무 없는 권리는 없기 때문에 나태하게 놀기만 하는 자들은 기뻐할 것이 없다.(제16절, p.104)

1.3.3.2.3 의무는 권리의 원천

(e1.3.3.2.3.1) 의무 없는 권리나 권리 없는 의무와 같은 야만의 의무와 권리가 문명사회에서는 존속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가의 부유함과 강력함은 국민이 다한 의무로 결정된다. 일부분만의 사람들이 의무를 다한 나라와 국민 전체가 의무를 다한 나라, 어느 쪽이 강자가 되는지는 자명하다. 그러므로 야만 사회의 의무와 권리는 생존경쟁·적자생존의 법

칙에 따라 도태될 수밖에 없다. 강자가 될 수 없다면 그 국민이 누리는 권리도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더 많은 양의, 더 좋은 질의 의무를 다할 수록 그 나라는 더 강한 나라가 되고, 더 강한 나라의 국민만이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 권리는 의무에서 나오는 것이다. 의무야말로 권리의 원천이다. 문명국가의 국민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위해 더 많은 권리를 원한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기꺼이 이행할 것이다.

(q1.3.3.2.3.2) 옳지 못한 권리와 의무가 오래갈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생존경쟁·적자선택의 법칙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권리는 어디에서 유래하는가? 이겨서 선택되는 데서 나온다. 이기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경쟁해서 우월함을 획득하는 데서 온다. 우월함이란 무엇인가? 그 주어진 의무를 다 완수하는 것이 남들보다 뛰어난 것이다.(제16절, p.104)

1.3.3.3 자유

(e1.3.3.3.1) 근대 서양에서 최고의 가치로 등장한 자유는 무엇보다도 개인의 자유이다. 그것이 정치적인 것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외부의 독단적인 권위로부터의 자유이다. 그 외부적 요인에 영향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힘이다. 그러나 양계초에게 모든 가치는 국가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였고 그것이 그대로 근대가 의미하는 것, 문명이 의미하는 것이었다.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다면 그것이 궁극적으로 국가의 자유에 이바지하기 때문이었다. 즉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해도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양계초에게 자유란 무엇보다도 국가의 자유였다. 즉 외부 민족에 대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국가의 힘이었다. 양계초의 생각에는, 국가의 자유는 국가가 강한 경쟁력을 보유할 때에만 향유할 수 있는 것이며, 국가가 자유로워야 개인 역시 타민족의 노예가 되지 않는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 그러므로 개인은 국가의 경쟁력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자기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 양계초는 그것이 바로 문명시대의 자유라고 주장했다.

1.3.3.3.1 자유는 천하의 공리

(e1.3.3.3.1.1) 자유는 구미의 근대국가 건설에 원천이 된 이념이다. 양계초는, 구미 근대국가의 건설에 초석 역할을 한 그 자유 이념은 “천하의 공리이자 인생의 필수품”이라고 그 가치를 인정한다.(제9절) 그는 근대국가가 탄생한 구미 역사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자유를, 정치적 자유, 종교적 자유, 민족적 자유, 경제적 자유 등으로 나눈다. 정치·경제·종교의 자유는 근대 시민이 쟁취한 자유이다. 그러나 민족적 자유는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는 점에서 앞의 세 자유와는 다른 자유이다. 한 민족국가가 다른 나라의 압제를 받지 않는 것 역시 양계초는 자유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에게 가장 중요한 자유는 바로 그것이었다.

(q1.3.3.3.1.2) 자유는 노예의 상대어이다. 구미의 자유 발달사를 살펴보면, 그 쟁점은 네 가지를 벗어나지 않는다. 첫째는 정치상의 자유이며, 둘째는 종교상의 자유이며, 셋째는 민족상의 자유이며, 넷째는 경제상의 자유이다. 정치상의 자유는 인민이 정부에 대해 자유를 갖는 것이고, 종교상의 자유는 신도가 교회에 대해 자유를 갖는 것이고, 민족상의 자유는 본국이 외국에 대해 자유를 갖는 것이며, 경제상의 자유는 자본가와 노동자가 서로의 자유를 갖는 것이다.(제9절, p.40)

1.3.3.3.2 문명의 자유

1.3.3.3.2.1 자유의 황금률

(e1.3.3.3.2.1.1) “개인은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로우나 그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경계가 그어진다.”(Every man is free to do that which he wills, provided he infringes not the equal freedom of any other man: H. Spencer, *Justice*, Williamas and Norgate, 1891) 이는 스펜서가 규정한 정의의 원칙(The Formula of Justice)이다. 양계초는 이를 자유에 대한 황금률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그의 해석은 독특하다. 서구에서 이것이 황금률로 받아들여진 이유는, 자유란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단체의 자유이기 때문이

라고 해석한 것이다. 그는 타인을 단체에서 그 자신을 뺀 나머지라고 해석한 듯하다. 즉 그는 스펜서의 그 규정을 “개인의 자유란 단체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경계가 그어진다.”고 받아들인 것 같다. 나아가 그는 단체의 자유가 개인의 자유보다 비중이 커지게 되는 것이 문명의 지표라고 주장했다.

(q1.3.3.3.2.1.2) 자유의 정의는, 사람들 각자는 자유이며,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경계로 삼는다는 것이다.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그 부자유 역시 심하다. 그런데 이것을 자유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유라는 것은 단체의 자유이지 개인의 자유가 아니다. 야만시대에는 개인의 자유가 승하고 단체의 자유는 없었다. 문명시대에는 단체의 자유가 강하고 개인의 자유는 줄어든다.(제9절, p.44~45)

1.3.3.3.2.2 법률에의 복종

(e1.3.3.3.2.2.1) 양계초에 의하면, 문명의 자유란 법률에 복종하는 것이다. 제한 없는 자유의 행사는 개인의 안전을 위협할 뿐이다. 국가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각 개인이 가장 확실한 자신의 보호를 위해 자신의 자유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직접적으로 그것은 강한 국가를 위한 것이다. 법률에 복종하는 구성원이 모인 국가라면 그 어떤 국가보다 강력한 국력을 확립함으로써 개인은 확실하게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반대로 국가의 권위를 무시하고 법률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한다면, 그 사회는 자립하지 못하고 다른 사회의 노예가 될 것이다.

(e1.3.3.3.2.2.2) 개인은 법률에 복종한다고 하지만, 문명시대 민족 국가의 그 법률은 개인이 자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고 또한 자발적으로 거기에 복종하는 것이므로, 개인은 스스로에게 복종하는 것일 뿐이다. 주권재민과 사회계약의 이념 위에 세워진 근대 국가에서 법률은 개개인의 권리를 양도받은 대의원들이 만든 것이므로 결국은 개개인 스스로가 제정한 것이다. 법률에 복종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복종하는

것이므로, 법률에 복종하는 것은 자발적인 자기 제한이다. 문명의 자유란 그렇게 스스로를 통제하고 스스로가 만든 규칙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q1.3.3.2.2.3) 문명의 자유란, 법률 밑에서 자유로운 것이다. 그 일거 일동이 기계의 움직임과 같고, 그 일진일퇴는 군대의 도보와 같다. 야만인이 보면 세상에 그보다 더 심한 부자유는 없을 것이다. 이런 것이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세상에, 내적으로 정돈되지 않은 채 외부와 경쟁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 외부와의 경쟁은 그칠 때가 없으므로 내부가 경쟁의 채비를 갖추어야 할 때도 그칠 때가 없다. 만약 자유를 남용하여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단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사회는 자립할 수 없을 것이며 나아가 다른 사회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어떤 자유를 바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참된 자유는 반드시 복종할 줄 안다. 복종이란 무엇인가? 법률에 복종하는 것이다. 법률이란 내가 제정함으로써 나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며 또한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제9절, p.45)

1.3.3.3.2.3 단체의 자유

(e1.3.3.3.2.3.1) 근대국가가 갖춰야할 가장 중요한 자질은 경쟁에서 승자가 될 수 있는 강함이다. 자유가 근대국가를 성립시키는 원천으로서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국가의 경쟁력에 종속되는 것이다. 양계초는 문명시대의 자유란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단체의 자유라고 말한다. 다른 나라와 대치해야 하는 국가 차원의 경쟁력에 개인의 자유가 장애로 작용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를 상대로 자국의 자유가 확보되지 못한다면 개인의 자유도 없다. 그러므로 근대국가의 국민이라면 자신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자기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 양계초의 민족국가는 유럽의 민족국가를 모델로 할 작정이었지만, 권리와 마찬가지로 자유가 사회와 국가에 대해 개인이 누리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거나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다.

(q1.3.3.3.2.3.2) 사람은 단체를 떠나 생존할 수 없다. 단체가 자유를 보존

하지 못하면 다른 단체가 외부에서 침입해 와서 압박하고 강탈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개인의 자유가 어떻게 가능하겠는가!(제9절, p.46)

1.3.3.4 자치

(e1.3.3.4.1) 자치란 자신에게 적용될 법을 스스로 부과하는 것이다. 즉 자유인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다스림(治)은 어지러움(亂)의 상대어이다. 어지러운 상태는 오래갈 수 없기 때문에 어지러움 뒤에는 어떤 식으로든 다스림의 형태가 자리 잡는다. 다스림은 스스로 다스리는 자치와 타인에 의해 다스림을 당하는 타율로 나눌 수 있다. 자치할 능력이 없으면 필연적으로 타인에게 다스림을 받는다. 자치의 능력은 인간, 성인, 문명인의 특징이다. 금수나 어린아이 또는 야만인은 자치의 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잠시 어지러운 상태로 있거나 타인에게 다스림을 받는다. 스스로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은 근대 문명 시대의 성인이라는 징표이다. 이러한 양계초의 논리에 의하면, 짐승이나 어린이가 인간이나 성인에게 지배를 받는 것이 당연하듯이 야만인이 문명인의 지배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다른 문명국의 지배를 받게 된다면 그것은 이쪽이 자치할 능력이 없는 야만국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잘못된 자치할 능력이 없는 야만인에게 있으며 그 모든 것들은 자업자득일 뿐이다. 타인의 지배가 싫거든 자치의 능력을 키우는 길이 있을 뿐이다.

(q1.3.3.4.2) 세상에서 어지러운 일은 오래갈 수 없다. 이미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다른 힘이 일어나 대신 다스린다.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면 타인에게 다스림을 당하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추세이다. 사람은 금수를 다스릴 수 있고 성인은 어린이를 다스릴 수 있고 문명인은 야만인을 다스릴 수 있다. 이는 모두 그들이 자치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자치능력이 없으면 금수나 마찬가지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설사 사람이라 해도 어린이로서 성인이 아니다. 설사 성인이라도 야만의 성인으로 문명의 성인이 아니다.(제10절, p.51)

1.3.3.4.1 자치능력은 인간의 조건

(e1.3.3.4.1.1) 자치능력이 있다면 타인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는다. 타인이 들어올 틈이 없다. 그러나 자치할 능력이 없으면 피할 수 없이 타인의 지배를 받게 된다. 타인의 지배를 받게 되면, 이미 그에게는 자기 인생의 방식을 선택할 기회도 없고 자격도 없다. 지배자가 그를 짐승으로 취급하면 짐승이 되고 노예로 취급하면 노예가 되고 인간으로 취급하면 인간이 될 뿐이다. 그러므로 자치능력을 잃으면 자신의 인간다움을 지킬 수도 없게 된다. 자치능력은 인간다움의 조건이다.

(q1.3.3.4.1.2) 타인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타인이 나를 어루만져도 그대로 순응하고 타인이 나를 학대해도 그대로 순응한다. 강한 동족이 전횡을 해도 그대로 따르게 되고 난폭한 이족이 약탈을 해도 그대로 따르게 된다. 이와 같으면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도구는 땅에 떨어진다. 그렇다면 서양인들이 이것을 얻는 방법은 무엇인가? 제제가 있고 질서가 있고 법률이 있는 것이 자치의 정신이다. 진정으로 자치할 수 있으면 타인이 간섭하려 해도 할 수가 없다. 자치할 수 없으면 타인이 간섭하지 않으려 해도 역시 간섭하지 않을 수 없다.(제10절, p.54)

1.3.3.4.2 자치의 관건은 법률

(e1.3.3.4.2.1) 국민이 스스로의 국가를 다스리는 자치국은 국민이 정한 헌법과 국민에 의해 구성된 의회가 있다. 자치란 일개인에서 한 가정, 한 도시, 한 국가에 이르기까지 적용할 수 있는 일이다. 그 자치 대상의 범위는 다르지만 자치를 한다는 것은 일정한 규칙에 의거한다는 것이다. 양계초는 다스림이란 일관된 규칙 내지는 질서에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그래서 스스로 다스린다는 것은 스스로 만든 법률, 규범, 질서에 따르는 것이 된다. 그런 생각으로 그는 자치의 정신은 ‘법률’이라고 말한다.

(q1.3.3.4.2.2) 나라에 헌법이 있다는 것은 국민이 자치한다는 것이며, 지방에 의회가 있다는 것은 지방이 자치한다는 것이다. 선량한 정치는 늘

자치를 선택한다. 한 사람은 스스로를 자치하며 수 명 또는 수십 명은 그 집안을 자치한다. 수백 명 또는 수천 명은 그 마을, 그 도시를 자치한다. 수만 명 내지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억만 명은 그 나라를 자치한다. 그 자치의 범위가 넓고 좁은 차이는 있지만 그 정신은 하나이다. 하나는 무엇인가? 법률이다.(제10절, p.53~54)

1.3.3.4.2.1 개인적 자치의 극치

(e1.3.3.4.2.1.1) 일관된 질서에 의거하는 것이 다스림이라고 한다면, 그 다스림의 결과는 규칙적인 행위로 나타날 것이다. 양계초는 일개인이 자치를 하면 그 궁극의 상태는 마치 기계와 같은 움직임을 보인다고 생각했다. 일거일동이 모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계획대로 행해진다는 뜻이리라. 또한 스스로를 다스리는 사람은, 자신의 결함을 발견하면 냉정하게 교정할 줄 알며, 감정을 발산할 때에도 일정한 규범에 맞춘다. 양계초는 국민 개개인이 절도 있는 군인과 같아서 국가 전체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군대와 같이 되는 것이 최상이라고 생각한 듯하다. 사사로운 감정은 억제하고 일거일동을 규율에 복종시키는 군인 같은 개인이 양계초에게는 자치의 개인이었다. 물론 스스로 정한 규율이라는 점이 군인과 다른 점일 것이다.

(q1.3.3.4.2.1.2) 자치의 극치는 한 몸이 마치 기계처럼 움직인다. 평생 뜻한 바의 사업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시작하며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를 모두 스스로 정한다. 하루의 일정, 언제 작업을 하고 언제 일처리를 하고 언제 사람을 접대하고 언제 식사를 하고 언제 휴식을 하고 언제 놀 것인지를 모두 스스로 정한다. 몸에 배인 습관, 욕구에 절은 성향 등이 내 사업과 내 덕성을 해친다는 것을 자각하면 조금의 가차도 없이 이겨내어 다스린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찡그리고 웃는 것 모두 마치 금과옥조가 있는 것처럼 일정한 규범이 있다. 한 사람이 그렇고 사람마다 모두 그러면 이제 한 사회의 자치가 이룩되는 것이다.(제10절, p.52)

1.3.3.4.2.2 사회적 자치의 극치

(e1.3.3.4.2.2.1) 스스로에 대해 자치능력이 있는 개인들이 모여 만든 사회이어야 자치할 수 있는 사회가 된다. 양계초가 상상한 자치능력이 있는 개인이란, 일거수일투족, 회로애락의 표현, 그 모든 것을 정해진 규칙에 따라 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의 감정, 사고, 행동, 모든 것들은 정해진 규칙에 따르며 어떤 돌발적인 행동도 용납되지 않는다. 즉 양계초에게 자치 능력 있는 개인이란, 양계초 스스로도 표현했듯이, 로봇이나 군인 같은 사람이다. 일말의 예측불가능한 행동도 있어서는 안 된다. 스스로의 통제에 의해 규율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모두를 예측 가능한 행동범위 안에 두는 것, 그것이 양계초가 생각한 자치의 극치였다. 그러므로 그가 그리는 자치 능력 있는 사회는 단적으로 군대와 같다. 사회 구성원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되어 움직인다는 뜻이다. 모두 한사람처럼 법률을 지키고 한사람처럼 사회의 공익을 추구하며 한사람처럼 공공책임을 다한다. 거기에서의 이탈은 자치 능력 없는 사람의 표시가 되어, 짐승, 어린아이, 야만인의 범주에 떨어져 통제의 대상이 될 것이다.

(q1.3.3.4.2.2.2) 사회의 자치의 극치는 사회 전체가 군대와 같아지는 것이다. 나아가면 모두 나아가고 멈추면 모두 멈춘다. 한 사회의 공공법률은 모두 지키며 한 사회의 공익은 모두 추구하며, 한 사회의 공공책임을 모두 다한다. 이와 같은 개인, 이와 같은 사회이면서 세계에 강한 국가로 서지 못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제10절, p.52)

1.3.3.4.3 자치는 자유·평등·민권의 바탕

(e1.3.3.4.3.1) 양계초가 ‘자치’라는 용어에 정치적인 의미를 전혀 담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양계초의 자치는 무엇보다도 개인 ‘스스로가 정한 규율에 따르는 생활’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그러므로 민권, 평등, 입헌 등의 정치적 이념보다는 사소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는 자치를 사소하고 우월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그것이야말로 민권, 자유, 평등, 입헌 등의 바탕이 된다는 것을 알라고 강조한다.

사적인 감정이나 행동이 용납되지 않는, 군대와 같이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의미하는 양계초의 자치가 어떻게 민권, 자유, 평등, 입헌의 바탕이 될까? 국가 전체가 일사불란한 군대와 같을 때 대외적인 국가의 힘은 어느 때보다도 증대될 것이다. 국가 간의 경쟁에서 지지 않는 국가라야 비로소 자유국, 평등국, 자주국이 될 것이다. 그런 국가라야 국민에게 민권을 주고, 자유를 주고, 평등을 줄 것이다.

(q1.3.3.4.3.2) 지금 사대부 가운데, 민권, 자유, 평등, 입헌, 의회, 분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백성이 장차 민권·자유·평등의 복을 향유할 수 있는지 여부, 입헌·의회·분권의 제도를 실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한결같이 자치능력의 대소·강약·안정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 백성들이여! 자치능력을 사소한 것이라고 하지 말라! 우월한 것이라고 하지 말라! 단체에게만 책임을 돌리지 말고 먼저 개인에게 책임을 물어라! 먼저 스스로를 다스려보라. 그 다음에 개인과 개인이 모인 작은 단체를 스스로 다스리라. 다시 단체와 단체가 모인 큰 단체를 스스로 다스리라. 나아가 큰 단체와 큰 단체가 모인 더 큰 단체를 다스리라. 그리하면 완전하고 고상한 자유국, 평등국, 독립국, 자주국이 출현할 것이다.(제10절, p.54)

1.3.3.4.4 자치능력의 효용

(e1.3.3.4.4.1) 국민의 자치능력은 일사불란한 행동력이다. 게다가 양계초가 생각하는 민족국가의 국민이라면 그 일사불란함은 흔들림 없이 국익의 증대, 국력의 신장이라는 방향을 향해 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자치능력이 가장 강한 국민은 분명 가장 강한 국가를 이루었을 것이다. 현재 그 국민은 영국의 국민이다. 영국이 가장 강한 민족국가를 형성한 덕으로 가장 넓은 식민지를 개척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자치능력 없는 민족은 저절로 남에게 지배를 받고 자치능력 있는 민족은 싫어도 남을 지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양계초의 주장이다. 현재 영국의 식민지는 그들이 자치능력이 없음을 웅변하는 것이며, 영국이 그렇게 세계에 식민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자치능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웅변하는 것이다.

(q1.3.3.4.4.2) 지금 세상에서 가장 웅대하고 가장 왕성한 민족은 앵글로색슨족이다. 그들은 자랑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 영국 국민 백 명을 다른 국민 백 명과 한 곳에 살게 하면 십 년 안에 영국인 백 명은 찬란한 독립국을 이룰 것이나 다른 나라의 백 명은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다가 영국인의 통치를 받을 것이다.”고. 또 다음과 같은 말도 한다. “반썬야 만인과 야만인의 국토에 토착민 수천만이 있어도 우리 영국 민족 한두 명이 그 땅을 밟으면 10년 안에 그 땅은 영국의 관할이 될 것이다.”라고. 내가 사실에 비춰보면 그것은 과장된 거짓말이 아니다. 북미와 남양 군도를 보더라도 그렇다. 처음에는 스페인과 네덜란드 사람들이 개척한 땅인데, 지금 그 이익을 누리는 자들은 모두 앵글로색슨족이 아닌가! 지금 인도는 어떠한가! 그 땅에 사는 영국인은 만 명이 안 되는데, 2억의 인도인들이 모두 양떼처럼 순순히 따른다. 중국의 18성(省)은 어떠한가! 영국인 관리와 상인과 선교사는 사천 명을 넘지 않는데 중요한 곳에 두루 퍼져있다. 엄연히 적국인데 이럴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세계에서 앵글로색슨인 보다 더 자치능력이 풍부한 민족은 없기 때문이다.(제10절, p.51)

1.3.3.5 경제

(e1.3.3.5.1) 양계초는 제국주의의 식민지 개척이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유럽 제국주의 군대가 북경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상권을 확장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양계초는 “오늘날은 경제 경쟁의 세계이다. 한 나라의 영토 성쇠는 여기에 달려 있다.”(이상 제14절)고 말한다. 실제로도 그렇고 양계초도 간파하고 있었듯이, 경제는 민족주의시대, 민족제국주의시대의 패권을 좌지우지하는 것이다.

1.3.3.5.1 문명의 경제

(e1.3.3.5.1.1) 재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경제활동은 인간의 사회생활과 함께 시작되었다. 양계초는 문명시대의 경제는 자본과 노동력을 계속 확대해나간다는 점에서 야만시대의 경제와 다르다고 설명한다. 재화

를 만들어내는 세 가지 요소 중 하나인 토지 자체는 야만과 문명 시대의 차이가 없겠지만, 나머지 두 요소인 자본과 노동력에서는 문명과 야만이 확연히 달라진다는 것이다. 즉 문명시대에는 자본과 노동력은 계속 그 가치가 증식된다. 바꿔 말하면 자본을 불리고 노동력의 가치를 계속 증식시킬 수 있는 자들만이 문명국가를 이룰 수 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전체자본과 전체노동력이 증식되는가 여부에 달려있다.”(제14절)

(q1.3.3.5.1.2) 경제가들은 재화를 만드는 세 가지 요소를 토지, 자본, 노동력이라고 말한다. 이 세 가지가 합해져서 재화가 성립한다. 같은 토지라도 야만 민족의 손에 있으면 돌밭이지만 문명 민족의 손에 있으면 진귀한 물건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문명인은 자본과 노동력을 이용하여 자산을 넓혀나갈 줄 알지만 야만인은 못하기 때문이다.(제14절, p.81)

1.3.3.5.1.1 노동의 증식

(e1.3.3.5.1.1.1) 국가의 부를 증대하는 것을 목표도 한다면, 노동과정은 상품의 생산과정이며, 노동이 가치로 변화하는 과정이다. 생산물이 다시 자본이 되어 투자를 증대시키고 생산을 증대시킨다고 말할 수 있다면, 생산물의 구성요소인 노동은 역시 점점 그 가치가 증대되어 간다고 말할 수 있다. 노동은 상품이 되고 그 상품은 다시 자본이 되어 가치를 증대시킨다. 양계초는 그 과정을 자본과 마찬가지로 노동의 가치가 증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그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이 문명시대 경제의 특징이라고 보았다.

(q1.3.3.5.1.1.2) 자본과 노동력을 이용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사용하여 증식시킨다는 것이다. 무엇을 증식이라고 하는가? 나의 힘을 나의 발에 사용하여 물건을 생산해 내면 그 효과는 생산물로 나타나고 그것이 완성된 뒤의 가치는 증가한다. 완성된 물건은 얼마간의 시간을 거치면 사람들 사이에서 교역이 된다. 처음에 노동력을 바탕으로 생산물이 완성되었다면 뒤에는 그 생산물이 다시 교역의 바탕으로 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노동의 가치가 증식된다.(제14절, p.81)

1.3.3.5.1.2 자본의 증식

(e1.3.3.5.1.2.1)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상품이 생산되면 그 상품의 가치는 재료와 노동력을 합한 가치 이상이 된다. 초과된 그 가치는 다시 자본이 되어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낸다. 양계초의 관심사는 개인의 치부나 한 자본가의 치부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치부였다. 국가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 국가의 부를 위해서는 계속 자본을 증식시켜나가야 한다.

(q1.3.3.5.1.2.2) 나의 자본으로 재료를 준비하고 노동력을 고용했다면, 재료는 낱것의 재화에서 가공된 재화가 된다. 인력을 고용하여 물건을 만들어내면 가공된 재화와 축적된 물건의 가치는 반드시 처음 투자한 자본보다 늘어난다. 나의 원래 종자돈이 손해나지 않은 데다, 또 남은 것이 있다. 이것이 자본의 증식이다. 증식이 한번 일어나면 가치 또한 한 등급 높아진다. 왜 그런가? 증식은 반드시 한번에서 끝나지 않고, 다른 이윤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부유해 지는 방법이다. 한 사람도 이와 같고 한 나라도 이와 같다.(제14절, p.81)

1.3.3.5.1.3 자본과 노동력의 증감관계

(e1.3.3.5.1.3.1) 재화를 만들어내는 세 가지 요소는 모두 필수적이지만, 그 경제활동이 막강한 국가경쟁력을 목표로 한다면, 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이다. 국가의 이익 추구를 절대적인 것으로 여겼던 국가주의자 양계초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는 곧 거대자본가이다. 최대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자본가의 입장에서 보면 자본이 있어야 노동력도 활용된다. 자본은 노동자의 생계를 가능하게 하고, 또한 노동력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노동력이 도태되지 않도록 도와준다. 그에 의하면, 투자와 생산 활동을 통해 자본가가 점점 더 자산을 불리고 투자를 증대할수록 노동자의 생계보장도 탄탄해질 것이고, 그들의 노동력도 진화를 거듭해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

(q1.3.3.5.1.3.2) 노동력의 증감 역시 자본과 관련이 있다. 자본의 사용을 보면, 재료비용이 반을 차지하고 임금 지불이 반을 차지한다. 지불되는 임

금은 노동자를 키우게 된다. 자본이 풍부해야만 모든 산업이 일어나며, 모든 산업이 일어나야 많은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할 수 있다. 많은 노동자에게 임금이 지불되어야 노동자가 생계를 꾸릴 수 있으며 그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노동력이 재료와 만나면 다시 자본을 만들어내고 또한 점점 증진시키며 노동력은 자기 쓰임을 다할 수 있다. 만약 자본을 다 소모하고 남기지 않는다면, 백성은 노동력이 있으면서도 쓰일 데를 찾지 못해 그 노동력은 점차 쇠퇴할 것이다.(원주: 생물학의 법칙에, 어떤 능력을 오랫동안 쓰지 않으면 그 능력은 반드시 도태된다는 것이 있다.) (제14절, p.82)

1.3.3.5.2 부국의 길

(e1.3.3.5.2.1) 근대국가를 위한 양계초의 구상에 일관된 특징은, 제도적 차원에서 도모되어야 할 일들을 개인의 노력에 달려 있는 일로 주장해 개인의 분발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당시와 같은 시대에 국가적 부의 모범 역시 영국이다. 근대적 산업을 일으켜 공장에서 물건을 대량생산하고 그것을 팔아 더 큰 자본을 만들어 재투자를 거듭하는 것이다. 그러나 양계초가 제시하는 부국의 길은, 소비를 줄여 투자 자본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 생산을 최대화하기 위해 놀고먹는 사람을 없애는 것으로 요약된다.

1.3.3.5.2.1 소비의 축소와 투자자본의 확대

(e1.3.3.5.2.1.1) 경제의 기본 축은 생산과 소비이다. 양계초에게 민족국가라는 이윤을 목표로 하는 회사와 같은 성격의 단체이다. 최대이윤을 추구하고, 그리하여 투자 자본을 늘리고, 그것이 생산을 증대하고, 다시 투자 자본을 확대하기를 바란다. 그래야만 경제 경쟁의 시대에서 강한 국가로 생존할 수 있다. 요는 투자 자본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다. 양계초는 그러기 위해 소비는 줄이고 투자 자본을 최대한 확보해서 재생산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q1.3.3.5.2.1.2) 한해의 총생산이 사용되는 길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사용하고 소모해서 남길 것이 없는 경우로 ‘소비’라고 불린다. 하나는 다

른 이윤을 노리고 재투자하는 것으로 ‘자본’이라고 불린다. [...] (경제에 관한 수치계산은) 사군자들은 말하기 수치스러워하지만 그 의의는 나라를 다스리는데 실제적으로 관련되는 것이다. 한 나라의 산업이 소비에 의지해 커간다면 그 나라는 번영할 수 없으며, 한 나라의 산업이 자본에 의지해 커간다면 그 나라는 쇠퇴할 수 없다.(제14절, p.82)

1.3.3.5.2.2 생산의 증대

(e1.3.3.5.2.2.1) 부유한 국가가 되기 위해 소비를 줄이고 투자 자본을 극대화하는 방법 외에, 생산을 증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양계초가 제시한 것은,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최대화하는 것이었다. 양계초는 국민들을 생산에 참여하는 자와 생산하는 것은 없이 소비만 하는 자를 나누었다. 그가 소모자로 꼽은 인간군은 다양하다. 거지와 도적, 승려, 고관 대작의 자제들, 유량자 들은 물론이지만, 이밖에도 관리들의 태반, 관리들이 부리는 아전들, 토호향신, 부녀자의 태반, 죄인, 병자, 노비, 배우와 기녀, 독서인, 교사 등까지 포함되었다. 노동력과 자본의 증식만이 부를 부른다는 입장에서 보면, 상품가치를 지닌 물건을 생산하지 못하는 인간들은 소모자일 뿐이다. 그러한 사람들을 교육하거나 계도해서 생산적인 직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 또한 생산을 증대시키는 길이다.

(q1.3.3.5.2.2.2)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나라 안의 생산자(生利者)를 늘리고 소모자(分利者)를 적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 실천상의 순서는, 먼저 나 자신이 소모자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학문의 이치를 밝혀서 전국민들에게 소모자가 되는 것의 부끄러움을 알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정책을 강구하여 이전의 소모자에게 스스로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을 찾게 하여 생산자로 바뀌게 하는 것이다.(제14절, p.96)

1.3.3.6 파괴와 진보

(e1.3.3.6.1) 파괴란, 낡아서 더 이상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뿐 아니라 나아가 진보를 방해하는 것들을 청산하는 것을 말한다. 부분적인 제도의 개혁에서부터 혁명까지 아우르는 양계초의 용어이다. 고여 있는

물은 필연적으로 썩는 것처럼, 사회 역시 어느 순간부터 필연적으로 부패해 간다. 그러므로 파괴란 역사의 진행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자신의 사회를 주도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주체라면 너무 많이 썩기 전에 스스로의 결단으로 파괴를 단행한다. 파괴는 진보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일이다.

1.3.3.6.1 파괴는 진보의 길

(e1.3.3.6.1.1) 진보하는 역사에는 늘 새로운 것과 낡은 것의 충돌이 일어난다. 새로운 것은 낡은 것과 부딪히고 결국은 낡은 것을 이기고 그 자리에 들어선다. 사회진화론의 관점에서 보면 부딪혀 이기는 것 자체가 진보이다. 낡은 것은 새로 등장한 강자에게 자리를 내주고 사라진다. 그것이 제도이든 문화이든 그렇다. 그 제도의 주인이 자발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수동적으로라도 바뀔 수밖에 없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역사진화의 법칙이다. 파괴는 강자로 진화하는 길목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고금 만국이 진보하기 위한 유일무이한, 그래서 피할 수 없는 법칙”은 “파괴”일 뿐이다.

(q1.3.3.6.1.2) 인간 사회의 모든 일들, 크게는 종교, 학술, 사상, 인심, 풍속에서부터 작게는 문예, 기술, 명물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파괴의 단계를 거쳐서 진보의 길에 오르지 않는 것이 없다.(제11절, p.62)

1.3.3.6.2 파괴는 불가피한 것

(e1.3.3.6.2.1) 파괴는 역사의 흐름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므로 어떻게 해도 피할 수 없다. 그 흐름을 읽고 자발적으로 파괴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발적인 파괴를 늦출 수 있을 때까지 늦춘다면, 끝내는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썩어버려 폐기해야 할 지경에 이를 것이다. 과일이 썩듯이 사회를 포함하여 살아있는 것들은 모두 썩는다. 그러므로 어떤 식이든지 파괴는 피할 수 없다. 부패의 조짐이 보일 때 부패한 곳을 도려낸다면 변화는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그

만큼 충격은 적을 것이다. 그 사회는 지속적이고 완만한 변화를 겪을 것이다. 그러나 썩는 것을 바라만 보거나 혹은 외면하면서 끝까지 간다면 결국 소생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를 것이다. 사는 것을 원한다면 자발적 파괴는 불가피하다.

(q1.3.3.6.2.2) 파괴의 기운이 닳았을 때는 자발적으로 파괴해도 파괴되고 자발적으로 파괴하지 않아도 역시 파괴된다. 파괴가 끝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하루 분의 복을 더 받게 되고 하루라도 늦으면 그 하루의 해가 늘어난다. 빨리 파괴하게 되면 파괴되는 것은 비교적 적고 보존되는 것이 많다. 늦게 파괴하면 파괴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더 많아지고 보존되는 것은 점점 적다.(제11절, p.60)

1.3.3.6.3 자발적 파괴의 이점

(e1.3.3.6.3.1) 역사의 흐름을 읽고 자발적으로 파괴할 수 있을 때 얻는 가장 큰 이점은, 피의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 외에도, 파괴의 열쇠를 자신이 쥐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역사의 주인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재빨리 파괴를 단행하지 못한다면, 프랑스처럼 대규모로 피의 대가를 치루거나 조선처럼 뒤쳐진 나라가 되어 외세의 질곡에서 헤어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양계초는 말한다. 양계초의 눈에는, 영국과 일본이 바람직한 파괴를 단행한 나라였다. 영국은 일찍이 의회개혁을 단행하여 내부의 마찰을 최소화함으로써 세계의 패자로 군림할 수 있었다. 일본은 서양의 근대문명에 자극받아 재빨리 중앙집권적인 국가를 이룩하기 위해 과거의 봉건제를 청산함으로써 아시아의 맹주로 떠오를 수 있었다. 자발적으로 파괴해도 파괴될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파괴될 것인데, 그 결과는 천양지차이다. 현명한 국민이라면 어느 것을 선택하겠는가!

(q1.3.3.6.3.2) 영국은 근세 문명선진국이라고 불린다. 1660년 이후 지금까지 200여 년 동안 파괴가 없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장기적으로 국회가 한 번의 대 파괴를 겪었기 때문이다. 파괴를 꺼렸다면 어떻게 그 이후의 영국이 18세기 말의 프랑스처럼 안 되었겠는가! [...] 일본은 메이지 원년

이후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파괴가 없었다. 그 이유는 왕을 받들고 막부를 토벌하고 번을 폐지하고 현을 두는 일대 파괴를 단행했기 때문이다. 만약 파괴를 꺼렸다면 어떻게 오늘날의 일본이 조선처럼 안 되었겠는가! (제11절, p.60~61)

1.3.3.6.4 무혈파괴의 이점

(e1.3.3.6.4.1) 자발적인 파괴는 피를 흘리지 않고 이룰 수 있다. 피 없이 이룰 수 있는 파괴의 시기를 놓치면 피를 부르는 파괴를 맞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사회의 주도세력이 대대적으로 바뀐다. 유혈파괴의 단점은 무엇일까? 양계초에 의하면 유혈파괴는 사회 원기의 손실이 너무 크다. 파괴는 진보의 과정이고 진보는 멈추지 않는 것이므로 파괴는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혈파괴는 한 번의 파괴로 너무 많은 원기를 손실하기 때문에 그 뒤의 파괴를 어렵게 만든다. 무혈파괴의 이점은 무궁한 파괴를 할 수 있다는 점이고, 그리하여 무궁한 진보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자발적인 파괴는 철과 피로써 하지 않고 뇌와 혀로써 할 수 있다. 자발적 파괴는 원기를 잃지 않고 오히려 그 역량을 증강시키면서 계속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러므로 파괴도 무궁하고 진보 역시 무궁하다.”

(q1.3.3.6.4.2) 철과 피로써 파괴를 단행하는 자는 한차례 파괴하면 한차례 원기를 손상시킨다. 그러므로 한 번의 파괴 뒤에 다시 파괴의 일을 못한다. 뇌와 혀로써 파괴를 단행하면 여러 차례 옛 관념과 사상을 파괴하더라도, 그 이익만을 볼 뿐, 해를 입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파괴도 무궁하고 진보 역시 무궁하다.(제11절, p.62)

1.3.3.6.5 계속되어야 할 파괴

(e1.3.3.6.5.1) 파괴는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역사는 계속 진보한다. 그러므로 파괴도 계속되어야 한다. 루터가 구 종교를 개혁했듯이 언젠가는 또 루터의 종교를 개혁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아담 스미스가

구 경제학을 파괴했듯이 또 아담 스미스의 경제학을 파괴할 자가 나타날 것이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파괴는 그 분야의 역량을 고양시키는 작용을 하고, 그럼으로써 진보를 촉진할 것이다. 즉 더 큰 규모의 더 빠른 속도의 파괴를 부른다. 파괴는 할수록 촉진된다. 진보는 진보하는 곳에서 더욱 촉진된다. 파괴가 파괴를 부르고 진보가 진보를 부르기 때문이다.

(q1.3.3.6.5.2) 루터가 구 종교를 파괴하자 신종교가 일어났으며, 베이컨이 구철학을 파괴하자 신 철학이 일어났다. 스미스가 구 경제학을 파괴하자 신 경제학이 일어났으며 루소가 구 정치학을 파괴하자 신 정치학이 일어났다. 몽테스키외가 구 법률학을 파괴하자 신 법률학이 일어났으며 코페르니쿠스가 구 역학을 파괴하자 신 역학이 일어났다. 모든 학문을 미루어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니 루터, 베이컨, 스미스, 루소, 몽테스키외, 코페르니쿠스의 뒤에는 또 루터, 베이컨, 스미스, 루소, 몽테스키외, 코페르니쿠스를 파괴하는 자가 있으며, 그 파괴자들을 뒤이어 또 그것들을 파괴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파괴하면 할수록 더욱더 건설되며 진화의 기운은 무궁하게 전개된다.(제11절, p.62)

1.3.3.7 상무

1.3.3.7.1 문명의 지지대인 상무

(e1.3.3.7.1.1) 문명은 야만의 상대어이다. 양계초에 의하면, 야만시대에는 완력으로 승부하고 문명시대에는 지식으로 승부한다는 말은 세상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이다. 공공의 법을 갖춘 문명국가라도, 거기에다 넓은 영토와 풍부한 지식을 가진 국민이 있더라도, 그 나라가 무력을 소홀히 해서 군사력을 갖추지 못하면, 법도 없고 문명도 없고 지식도 없는 야만의 무리들에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유약한 문명은 야만의 무력을 당해낼 수 없다.” 문명국가가 이 경쟁의 무대에서 자립하기 위해서는 무력이라는 지지대가 필요하다. 문명은 야만의 상대어이지만, 무력의 상대어는 아니다. 나아가 양계초는, “이 세상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공법公法이 아니라 검은 철과 붉은 피뿐”이라는 비스마르크의 말을 인용하며 무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문명이 국가 간의 경쟁이라면

군사력이 핵심으로 떠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q1.3.3.7.1.2) 세상 사람들은 항상 말한다. 야만인은 힘을 숭상하고 문명인은 지식을 숭상한다고. 아아! 이는 2×5 가 10이라는 것은 알면서 1×10 이 10이라는 것은 모르는 소리이다. 세상의 추이에 대해 대략만 알고 자세하게는 모르는 것이다. [...] 유약한 문명은 결국 야만의 무력을 당해낼 수 없다. 그렇다면 상무라는 것은 국민의 원기이고 국가가 의지해서 성립할 수 있는 기반이며 문명이 의지해서 유지될 수 있는 근거이다. 비스마르크는 세상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공법公法이 아니라 검은 철과 붉은 피뿐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공법은 믿을 수 없다. 그러나 나라를 세우는데 상무의 국민과 철혈주의가 없으면, 문명이 있고 지식이 있고 많은 백성이 있고 넓은 영토가 있더라도, 분명 이 극렬한 경쟁의 무대에서 자립할 수 없다.(제17절, p.108)

1.3.3.7.2 강자만의 평화

(e1.3.3.7.2.1) 양계초는 권리란 경쟁에서 이긴 강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평화 역시 강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었다. 노도와 같은 제국주의 세력 앞에서 무력하게 먹이로 전락한 중국을 보라! 세계열강들이 평화를 내세우면서 무장해제를 주장하는 것이 어떻게 약소민족을 위한 것이겠는가! 그들은 상대 열강의 힘을 가늠하고는 손해나는 싸움을 하려하지 않을 뿐이다. 그들은 한쪽에서 강화수호조약에 조인하면서 한쪽에서는 군비확장을 획책한다. 상대 이상의 무력을 갖추고 있어 상대를 견제할 수 있고, 언제든지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비로소 평화를 운운할 수 있다. 평화라는 아름다운 말도 무력이라는 실력이 있어 야만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다.

(q1.3.3.7.2.2) 아아! 오늘날의 세계는 이른바 ‘무장평화’의 세계이다. 열강은 회의를 하면서 날마다 무장 해제를 주장한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강화수호조약에 조인하면서 한쪽에서는 군비를 확장시킬 안을 모색한다. 강권의 세상에서는 오직 싸울 수 있는 자만이 평화로울 수 있다.(제17절, p.117)

1.3.3.7.3 무장평화시대의 자구책

(e1.3.3.7.3.1) 무장평화란 강자들만의 평화이다. 균등한 힘을 가진 자들의 싸움은 싸움에 가담한 자 모두에게 손해만 가져온다. 영리한 자라면 그러한 싸움은 하지 않는다. 유럽 열강들이 그렇다. 끊임없이 국력신장에 매진해온 그들은 서로 세력이 비슷해지자 더 이상 백해무익한 싸움은 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그 힘은 팽창일로이다. 다른 곳으로 뻗어나가지 않을 수 없다. 당연히 약한 곳으로 뻗어간다. 아메리카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뻗어갔다. 그러나 북아메리카는 그 세력의 흐름에 적절하게 대처했다. 힘에는 동등한 크기 이상의 힘으로 대처하는 방법 밖에 없다. 미국은 넘치는 유럽의 힘이 아메리카로 미치는 것에 대해 자신들의 제국주의를 강화했다. 그것이 무장평화시대에 자신을 지키고 평화를 쟁취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q1.3.3.7.3.2) 미국이 다른 주를 독립 독립시킬 때는 원하지 않는 주들은 배제했다. 그러나 최근에 날로 군비를 증강시키고 또 먼로주의로 바꾸더니 그것이 제국주의로 일변했다. 유럽의 패기는 사방으로 넘쳐나서 대서양을 넘어 서쪽으로 흘러 미국이 평화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먼저 그 내부를 단단히 함으로써 국외의 위협을 대비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유럽 여러 나라들은 세력이 서로 균형을 이뤄 그 내부에서는 이미 무력이 무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내부의 힘이 팽창하면 그 넘쳐나는 힘이 새어나갈 데를 찾기 마련이다. 민족제국주의를 끼고 날로 다른 대륙으로 흐름 곳을 찾는다.(제17절, p.117~118)

1.3.3.7.4 상무의 무한한 가능성

(e1.3.3.7.4.1) 야만적 힘과 강인한 인내력, 전 세계를 유린하겠다는 영웅심, 썩씩하고 소박한 기풍, 이것들은 양계초가 슬라브 민족의 러시아인들을 형용한 말이다. 이 특성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상무의 기풍이다. 양계초는 현재 반(半) 개화 상태인 러시아가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세력이 날로 융성해져 현재의 패자인 유럽을 제치고 차기의 패자로 부상할 지도 모른다고 예상한다. 문화로 따지면 유럽

수준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러시아는, 상무의 기풍 때문에 장족의 발전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다. 계속되는 경쟁을 통해 문명을 성취해가는 시대에, 어쩌면 문화보다도 군사력이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러시아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존재였다. 문화상으로는 뒤쳐져 있으면서도 유럽과 아시아에 걸친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계초는 그것이 그 민족이 갖는 상무의 기풍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문화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뒤떨어졌다고 해도 국민들이 상무의 기풍을 갖는다면 문화적 열등을 만회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q1.3.3.7.4.2) 러시아를 보라. 러시아는 북쪽의 한대지방에 떨어져 있어 광막한 평원에서 농사를 주로 하는 나라였다. 힘든 노동에 습관이 되어서 국민들이 어려움에 견디는 강인함이 있고, 야만적 힘이 풍부하며 비바람과 추위, 더위를 잘 견딘다. 고난에 견디는 참을성이 뛰어난데다가 소박하고 씩씩한 습관이 풍기가 되어, 국민이 하나로 뭉쳐 명령에 복종한다. 그 성질은 군대에 가장 적합하고, 또 전 황제인 피터의 유훈인 침략을 종지로 삼아 그 사상이 국민들 뇌리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러시아 사람들은 모두 전 지구의 땅을 밟고 유럽과 아시아를 유린하겠다는 영웅심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완고한 야만적 힘과 천성적으로 강인한 인내력은, 수만 명을 앞에 해도 그 기개가 수그러들지 않는다. 러시아는 반개화국(半開化國)이다. 문화의 정도는 구미의 반에도 못 미친다. 그러나 동과 서로 달리고 부딪히면서 유럽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다. 슬라브족의 세력이 날로 융성해서 앞으로 튜튼족의 패권을 대신하여 세계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도 있다. 이와 같은 것은 모두 상무 때문이다. (제17절, p.109)

1.3.4 민족국가를 향한 중국의 과제

1.3.4.1 국가사상의 결여

(e1.3.4.1.1) 양계초는 어떤 단체가 국가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것은 그

단체의 구성원이 국가사상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라고 생각했다. 그가 생각한 국가사상이란, 개인에 대한 국가의 우위, 실정(失政) 가능성이 있는 현실의 정부와 차별되는 절대적 의미의 국가, 자의로 선택할 수 없는 지연·혈연·문화 공동체인 운명적 국가, 세계주의라는 망상에 흔들리지 않고 지켜야할 현실적 의지체인 국가, 이처럼 절대적 의미를 갖는 국가의 위상을 명확히 인식하고 개인의 모든 사고와 행위에서 국가의 이익이라는 가치를 가장 우위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e1.3.4.1.2) 양계초가 진단하기에 중국이 근대국가를 이룩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중국민족이 국가사상을 결여했다는 점이다. 중국민족은 일신의 영달에만 관심을 두거나, 아니면 세계주의라는 형이상학에 빠져 있었다. 임금이 국가와 다르다는 것을 모르는 채, 그 임금이 백성을 수탈하기만 하는 도적과 다름없어도 하늘처럼 섬기고, 외적이 나라를 빼앗아 대신 임금노릇을 해도 뻔뻔하게 그 새 임금을 섬겼다. 이런 식이어서는 국가를 이룩할 수 없다. 국가를 이룩할 수 없다면, 이 생존경쟁의 시기에 자기 일신의 생존조차도 바랄 수 없다.

(q1.3.4.1.3) 슬프구나! 우리 중국인은 국가사상이 없다! 하급의 사람들은 오로지 일신과 일가의 영달만을 문제 삼고, 상급의 사람들은 철리를 고담함으로써 실용과 어그러진다. 어리석은 자들은 다른 민족을 호랑이로 여기고 스스로는 그 호랑이의 앞잡이가 된다. 현자들 역시 요순과 도적을 주인으로 여기고 스스로는 그들의 개가 된다.(제6절, p.18)

1.3.4.1.1 만연한 이기주의

(e1.3.4.1.1.1) 자기 일신의 이익 추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기주의는, 자기 일신보다 더 중요한 국가를 무시한다는 점에서 국가사상에 위배된다.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자기 동포를 파는 일도 가능할 것이다. 양계초는 이러한 단순한 이기주의 뿐 아니라, 세상이 어지러울 때 세상에서 물러나 자신의 도덕성을 닦는 일에 힘쓰는, 중국 전통의 선비사상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자기 한 몸의 도덕성을 지키자고 사회에 대한 책임을

도외시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그러하다면 문제는 더 크다. 그들 역시 이기주의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경쟁력을 지닌 민족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한 이기주의는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

(q1.3.4.1.1.2) 첫째 문제에 대해 말하자면, 지금 사역의 인민 가운데, 그 눈이 자기 한 몸 너머를 보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리저리 일신의 이익을 따라 움직일 뿐이다. 눈앞에 있는 손톱만큼의 이익을 쫓는 자들은, 온 나라의 동포를 팔아치우는 일이라도 사양하지 않는다. 이른바 일등급의 사람들은 ‘자기 한 몸 깨끗이 하면서 시골에서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獨善其身 鄉黨自好者)’이다. 이는 내가 앞에서 말했듯이, 사회에 빛을 지고 갚지 않는 자이다. 자기 한 몸 깨끗이 하겠다는 것(獨善)과 이기적인 악행(私惡)은, 이른바 개인적 도덕성 여부에서 볼 때는 다르지만, 요컨대 국가의 쇠망을 부르기에 충분하다는 점에서는 한가지이다.(제6절, p.18)

1.3.4.1.2 충성에 대한 오해

(e1.3.4.1.2.1) 중국인은 오랫동안 임금에 대한 충성과 부모에 대한 효도를 시공을 초월한 가치로 여겨왔다. 인격자라면 당연히 그 두 덕을 갖춰야 한다고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어왔다. 그러나 정말로 충성과 효도가 인격에 필수적인 것이라면 온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근대 민족 국가의 국민들은 인격자가 될 수 없단 말인가? 근대국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군주 국가의 군주 역시 인격자가 될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닌가? 충성이 군주에 대한 것이라면 군주 자신은 충성의 덕을 발휘할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양계초는 중국인들은 충성에 대해 오랫동안 오해해 왔다고 말한다. 그에 의하면, 충성의 대상은 군주가 아니라 국가이어야 한다. 군주는 정부와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존재일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의 존재 의의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한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군주 역시 정부와 마찬가지로 조건적으로 그 의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나 군주가 국가의 존재 의의를 충

실하게 수행하여 국민을 보호하는 책임을 다한다면 국민은 그 정부나 군주에게 충성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때 정부나 군주에게 충성하는 것은 그것이 국가에 충성하는 길이기 때문이지, 정부나 군주가 그 직접적인 충성의 대상은 아니다. 중국인들은 온전한 국가사상을 갖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충성을 다해야 할 군주 이상의 존재, 즉 국가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q1.3.4.1.2.2) 둘째 문제에 대해 말하자면, 중국인들이 대대로 전해온 천경지의(天經地義)는 충과 효이다. 그것은 좋다. 그러나 나라에 충성한다고 하면 그 뜻이 완전하지만 임금에게 충성한다고 하면 그 뜻은 편협하다. 왜 그런가? 충과 효 두 가지 덕은 인격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둘 중에 하나라도 결여된다면 때론 인간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충성이 단지 임금에게만 향한다면 세상의 임금들에게는 충성을 다할 길이 끊어진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격을 완전하게 갖출 수 없다는 상실감을 갖지 않겠는가! [...] 내가 보기에 군주와 민주국의 국민은 충성의 덕을 발휘할, 군주 이상의 존재가 있다. 사람은 부모 없이 태어날 수 없고 국가 없이 자립할 수 없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국가에 충성하는 것은 은혜를 갚는 대의(大義)이다. 이것은 한 집안의 종복이나 주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 중국인들이 충성이라는 글자를 주인과 종복의 관계에만 쓰는 이름으로 여겨온 것은 얼마나 큰 전도인가! (제6절, p.18~19)

1.3.4.1.3 국가에 대한 지조의 결여

(e1.3.4.1.3.1) 중국역사를 보면 드물지 않게 이민족의 침입을 받았다. 중원을 점령당해 중국 전체가 이민족의 지배하에 들어간 적도 있었다. 이민족의 야욕 앞에 그대로 무너져 내린 것도 문제이지만, 이민족으로는 대치할 수 없는 내 나라가 있다는 생각을 갖지 못한 채, 그대로 그 이민족의 권력에 아부한 작태는 얼마나 한심한가! 우리 땅에 들어와 임금 노릇을 한다고 그것이 우리의 나라, 우리의 임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이라는 국가는, 오랜 기간에 걸쳐 만들어진 같은 언어, 같은 문화를 사용해온 동일 민족이 형성해온 것으로서, 그 어떤 이민족 국가로도 대

치할 수 없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중국이 근대의 민족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q1.3.4.1.3.2) 셋째 문제에 대해 말하자면, 중국의 역사는 하늘을 채우는 오욕의 역사로서 차마 입에 올릴 수조차 없다. 한나라 이래 지금까지 1700여 년 동안 우리 중국의 전토가 이민족에게 점령당한 것이 358년이며, 황하이북이 점령당한 것은 759년에 이른다. 아아! 황제의 신명한 중화의 후예들이 세습한 공산업(公産業)이 남에게 짓밟히고 빼앗기는 일이 한 번도 아니고 자주 있었는데, 이른바 황제의 자손들은 도시락을 싸들고 머리를 조아렸다. 또한 높은 관리를 지내며 자신과 동족을 착취하는데 힘쓴 인간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제6절, p.19~20)

1.3.4.1.4 평천하 의식

(e1.3.4.1.4.1) 중국인들, 그 가운데에서도 정치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해왔던 유자(儒者)들은, 천하를 평화롭게 한다는 이상을 품어왔다. 특히 성리학자들은 만물을 자기 한 몸으로 여겨 온 천하를 감싸 안는 것을 인격의 완성으로 여겼다. 그러나 양계초는 묻는다. 그들의 그 허망한 이상이 실현된 일이 있는가? 단지 그들의 허황된 이상은 국가에 대한 관념을 약화시킴으로써 국가를 이룩하는데 방해만 되어왔다. 이러한 평천하 의식의 만연이 중국인이 국가사상을 키워 근대국가를 이룩하는데 장애로 작용해왔다. 양계초는 중국인의 평천하 의식을 조성한 원인을 다시, 지리상의 원인과 학설상의 원인,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q1.3.4.1.4.2) 넷째 문제에 대해 말하면, 중국의 유자들은 걸핏하면 천하를 평화롭게 하고 천하를 다스린다고 한다. 동중서의 『춘추번로』나 장형거의 『서명』 같은 더 고상한 사상들도 있다. 그들은 국가를 아주 작은 것으로 여겨 어떤 의미도 두지 않았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러한 미묘하고 공허한 말로 이른바 국가 이상의 큰 단체 역시 현실적으로 이룩된 일은 없이, 국가만 점점 더 쇠미해졌을 뿐이다.(제6절, p.20)

1.3.4.1.4.1 지리상의 원인

(e1.3.4.1.4.1.1) 이 세상에 다른 나라는 없이 오직 중국이 세상의 전체, 즉 천하라고 중국인들이 오해했던 데는 무엇보다도 지리상의 원인이 있다고 양계초는 진단했다. 즉 유럽은 산과 하천이 동서로 가로막고 있어 각 나라들이 분립할 수밖에 없는 지형이지만, 중국은 넓디넓은 평원이어서 자연히 하나로 통일되었다. 중국 주위에는 크고 작은 야만족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들 야만족의 문화는 중국 문화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으므로 중국을 자국할만하지 않았다. 그래서 중국은 자연적으로 통일되어 있었고 중국인들은 그것을 세상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왔던 것이다.

1.3.4.1.4.2 학설상의 원인

(e1.3.4.1.4.2.1) 중국이 천하만을 알고 국가에 대한 관념이 희박했던 또 다른 이유는, 중국에서 융성했던 사상이 모두 통일을 가치로 여겼기 때문이다. 전국시대 이전에는 중국에도 여러 나라들이 난립해 있어서 국가주의 역시 융성했다. 그러나 그 폐단은 “땅을 다투고 성을 다투느라 죽은 사람이 들판에 가득 차는”(제6절) 참담한 현실이었다. 공자와 맹자 등의 유자뿐만 아니라, 묵자, 송경, 노자 등 거의 모든 사상가들은 그러한 전쟁상태를 종식시킬 방법에 대해 고심했고, 그들은 여러 나라를 통일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삼았다.

1.3.4.1.5 가장 중대한 문제와 그 해결

(e1.3.4.1.5.1) 중국에서 국가사상이 발달하지 않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이기심이고 다른 하나는 천하관념 때문이다. 양계초는 중국에 국가관념 대신에 천하관념이 발달한 원인을 다시 두 가지로 보았다. 하나는 지리상의 이유이고 하나는 학설상의 이유였다. 그런데 양계초에 의하면 지리상의 원인과 학설상의 원인으로 두터워진 천하관념의 문제는 그리 심각하지 않다. 지금 세계는 서로 교통되지 않는 곳이 없으므로, 지리상의 특성 때문에 국가에 대한 관념이 희박했던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 학설 역시 새로운 학설이 수입되어 옛 학설에 대한 반성을 낳고 있다. 그러므로 학설상의 걸림돌 역시 조만간 해결될 것이다. 즉 천하관념은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으로 제약받은 상황에서 태어난 것이므로, 상황이 변하면 자연스럽게 극복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다. 그러므로 그다지 심각하지 않는 걸림돌이다.

(e1.3.4.1.5.2) 양계초가 진단하기에 국가사상을 수립하는 문제에서 정말 큰 문제는 이기심이었다. 이기심에도 갖가지 종류의 이기심이 있는데, 오랫동안 유가문화의 영향 아래 있었던 중국에서는 이기심은 명백히 반반도덕이었다. 그러므로 노골적으로 이기심을 드러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문제는 여러 가지 명분과 도덕으로 위장한 이기주의였다.

1.3.4.1.5.1 갖가지 이기주의

(e1.3.4.1.5.1.1) 노골적인 이기주의는 오히려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다. 노골적인 이기주의가 아니라 도덕이라는 간판 뒤에 숨은 이기주의가 심각한 문제이다. 도덕으로 위장한 그 이기주의는 다시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비사회적 도덕주의이고, 하나는 위선적 도덕주의이다. 비사회적인 도덕주의자들은, 세상이 어지러울 때는 세상에서 물러나서 자신의 도덕을 닦는다는 오랜 유가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개인적인 도덕성 문제에서는 비난받을 여지가 없겠지만, 국가사상, 강한 국가를 이룩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국민이어야 한다는 견지에서 보면 이기주의자들이다.

(e1.3.4.1.5.1.2) 다른 하나는 실제로는 일신의 부귀영화를 위해 움직이면 서도 겉으로는 충성이니 도덕이니 하는 덕목들로 자신의 이기심을 수식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국가라는 존재에 대한 관념이 없으므로 어떤 정부, 어떤 왕조가 들어서든 개의치 않고 그들의 종노릇을 하면서 인간의 도리를 다하고 있다고 오해한다. 정말로 그들이 자신들이 표방하듯이 도덕심과 충성심에서 나라에 봉사하고 있다면, 어떻게 국가라는 존재를 그토록 모를 수 있겠는가! 역사적으로 중국보다 우월한 문명을 가진 이민족

은 없었더라도 끊임없이 중국 주위에서 중국을 위협하는 이민족은 있었다. 그들이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이상의 소중한 국가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었더라면, 그들은 것처럼 갈등 없이 여러 왕조를 섬기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 이민족의 왕조들이 세운 나라는 중국민족의 나라들과 다른 문화를 가졌다. 그 나라들은 중국민족의 국가일 수 없었다. 그들은 겉으로는 자신들을 도덕적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 그들을 움직인 것은 일신의 영달이라는 이기심뿐이었던 것이다.

(q1.3.4.1.5.1.3) 가장 변하기 어려운 것은 자기 한 몸이 있다는 것은 알면서 국가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폐단이 마음 속 깊이 스며들어 있는 자들이다. ‘자기 한 몸 깨끗이 하면서 시골에서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獨善其身 鄉黨自好者)은, 나라 일이 자기에게 누가 될까봐 도피하는 자들이다. 한 집안의 중복이며 주구인 주제에 스스로는 충성한다고 오해하고 있는 자들은, 실상은 자신의 작록을 위한 자들이다. 그들은 세력과 이익이 있는 곳으로 개미떼처럼 몰려들면서 한 술 더 떠 일종의 도덕이라는 미명으로 자신의 추함을 수식한다. 그런 자들이 아니라면, 이천년 동안 중국과 교통한 나라들이, 설사 문명대국이 아니라 사방이 모두 야만이라도, 역시 나라는 나라인데 자기 나라와 상대해 있는 나라의 존재를 어떻게 전혀 몰랐다고 할 수 있겠는가!(제6절, p.22)

1.3.4.1.5.2 국가는 현명한 이기주의자의 선택

(e1.3.4.1.5.2.1) 이기적인 인간에게 자기 일신보다 국가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라고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양계초는 참된 이기주의를 실천하라고 말한다. 이 생존경쟁의 세계에서 자신의 생존을 보장하고 자신의 이익을 확실하게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국가라는 강력한 울타리를 갖는 일이다. 이러한 계산을 분명하게 할 수 있다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엇보다도 국가가 우선이라는 국가사상에 동의할 것이다. 국가사상은 강한 국가를 만드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 넓은 영토, 많은 국민, 하물며 문명보다도 중요하다. 국가는 부모와 같다. 부모가 없다면 그 다른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q1.3.4.1.5.2.2) 나는 우리 동포가 품고 있는 이기주의를 모두 없애 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단지 이 주의를 확충하고 공고히 하기를 바랄 뿐이다. 어떻게 해야 참으로 자신을 이롭게 하고, 어떻게 해야 자신을 보존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 영원히 잃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그렇다면 국가사상을 기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동포여, 동포여! 넓은 영토를 믿을 수 있다고 하지 말라. 로마제국의 전성기 때 그 넓이는 오늘날의 우리만 못하지 않았다. 백성이 많다는 것에 의지하지 말라. 인도 원주민은 이백 여 조에 이른다. 문명을 믿을 수 있다고 하지 말라. 옛날 희랍의 전장제도는 독립국에 어울리는 것이었고 그 명성과 문물은 천하를 뒤덮었지만, 다른 민족에 복종하게 되고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고 멸망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중국은 이민족인 원나라 때, 사대부들은 모두 몽고문자를 배웠지만 문화는 거의 끊어지게 되었다. 그러니 오직 이 국가만이 우리의 부모이다. 아버지가 없다면 누구에게 의지하고 어머니가 없다면 누구를 믿을 것인가!(제6절, p.22~23)

1.3.4.2 단결력의 부족

(e1.3.4.2.1) 양계초가 판단하건대, 중국민족은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있다. 그런 상태라면 당연히 민족국가를 이룰 수 없다. 양계초는 중국인이 단결력이 부족한 원인을 진단한 뒤, 단결만이 이 생존경쟁의 세계에서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외친다.

(q1.3.4.2.2) 단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지식 있는 사람이 라면 모두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결의 실상이 보이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다. 국민전체가 단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일부분의 작은 단체도 단결하지 못한다. 완고하고 우둔한 사람만 단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현명하고 달통하고 뜻이 있는 사람도 역시 그러하다. 아아! 단결하지 못하는 나쁜 성질이 끝내 변하지 않는다면 뿔뿔이 흩어진 사역의 중국인은 열등한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이미 위축되어 소멸된 자들과 동일한 운명을 뱉을 것이다. 얼마나 통탄스러운 일인가!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단결하지 못하는 네 가지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다.(제13절, p.76)

1.3.4.2.1 공익을 위한 사적인 이익의 희생

(e1.3.4.2.1.1) 이 세상에 홀로 고립해서는 자신의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무리를 짓는 것은 선천적인 본능이라고 양계초는 말한다. 그 선천적이라는 본능을 양계초는 ‘공공관념(公共觀念)’이라고 부르면서 이 관념의 강약이 경쟁 개체의 우열을 나눈다고 말한다. 인간은 이 공공관념 말고도 사적(私的)인 관념을 갖는다. 공공관념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단체의 생존, 단체의 공고화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것이라면, 사적인 관념은 그런 계산 없이 근시안적으로 개인의 이익에 집착하는 마음이다. 공공관념이 본능인데, 그 본능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발휘되지 않고 경쟁세계에서 우열이 갈라지게 되는 것은 이 사적 관념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사적 관념이 클수록 열등하게 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적인 이익의 일부분, 나아가서 전부를 희생하는 일을 감수해야 한다고 양계초는 주장한다. 그것이 양계초가 의미하는 진정한 공공관념이다. 강한 국가, 단결된 민족국가를 위해 중국인은 사적인 관념을 청산하고 공공관념을 확충해야 한다.

(q1.3.4.2.1.2) 사람이 단체를 이루어야만 하는 것은 일신이 요구하는 욕망에 혼자 힘으로는 응답할 수 없으며, 일신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을 혼자 힘으로는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반드시 서로 필요로 하고 의지해야 자존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을 공공관념(公共觀念)이라 한다. 공공관념은 배우지 않아도 알고 생각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진화세계의 우열은 이 관념의 강약에 의해 갈라진다. 배우지 않아도 알고 생각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또 그 사이에 강약의 차가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공적인 관념과 사적인 관념이 늘 서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작고 비근한 사적인 이익은 자주 크고 먼 공적인 이익의 쯤벌레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공공관념이 있다면 사적인 이익의 일부분을 희생하여 공적인 이익을 보호하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더한 경우는 자신이 가진 사적인 이익 전부를 희생해서 미래의 공익에 이바지하기도 한다. 불성(佛性)때문이 아니다. 이 생존경쟁, 적자생존의 진화세계에 처해서 인간의 노력으로 자연의 법칙을 이기려 한다면, 이러한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제13절, p.76~77)

1.3.4.2.2 공공의 적(公敵)과 사사로운 적(私敵)의 구분

(e1.2.4.2.2.1) 인간이 이기적이라는 것은 양계초 역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를 우선시하라고 요구하는 논리 역시, 그것만이 자신의 생존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른 국가를 경쟁자, 나아가 적대자로 인식하는 것은 양계초가 주장하는 국가 성립의 기본 전제이다. 양계초는 공공의 적(公敵)과 사사로운 적(私敵)을 구분해서 인간이 가진 이기심을 자신이 주장하는 국가주의의 테두리 안에 넣고자 했다. 양계초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자기 일신으로서의 소아(小我)가 있고, 자신이 속한 단체를 나로 여기는 대아(大我)가 있다. 역사는 개체간의 경쟁에 의해 발전하므로 개인은 타인을 경쟁상대로 인식하고 자기개발에 힘써야 한다. 이때의 나는 소아로서 나의 경쟁자인 나 이외의 인간은 사사로운 적이다. 그러나 단체를 이루게 되면 단체 밖은 공공의 적이 되지만 단체 내부는 모두 벗이다. 단체의 의의에 대해 잘 아는 자들은 그렇게 여긴다. 어느 한 마을이 다른 마을과 경쟁관계에 있다면 한 마을 안의 주민은 모두 벗이고 이웃마을은 공공의 적이다. 그러나 이 두 마을 주민들은 국가라는 단체 안에 모였을 때 모두 벗이다. 이때의 공공의 적은 국가 밖에 있다. 국가는 벗으로 인정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이다. 개인이 다른 개인, 자신이 속한 단체, 그 단체가 속한 더 큰 단체로 자신의 벗을 확대해 나가지만, 그 확대는 국가의 경계에서 멈춰야 한다. 단체와 국가의 의미에 대해 잘 알고 바람직한 단체와 국가를 이룩하려 한다면, 누가 공공의 적이고 누가 벗인지를 분명히 해서 그 연대감과 적대감에 올바른 방향을 잡아 주어야 한다.

(q1.3.4.2.2.2) 한 단체가 성립한다는 것은 반드시 이 단체와 상대하고 있는 다른 단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외적으로 경쟁이 없으면 그 단체의 정신과 형식은 드러날 길이 없다. 이는 인류의 일반적인 실정으로서 피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단체란 실제로는 위아(爲我)와 겸애(兼愛)의 양면성이 있다. 서로 모여서 단결하면 나의 고집이 있고 자기 이익을 꾀해도 꼭 단체에 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과 개인이 교섭하게 되면 안으로는 내 몸이 있고 밖으로는 타인이 있다. 이때의 나는 일신의 나

이다. 이 단체가 다른 단체와 교섭을 하게 되면, 안으로는 나의 단체가 있고 밖으로는 다른 단체가 있다. 이때의 나는 단체의 나이다. 모두 나이지만 대아(大我)와 소아(小我)의 구별이 있다. 내가 있으면 반드시 나의 벗과 나의 적이 있다. 이미 단체를 이루었으면 단체 안은 모두 나의 벗이다. 그러므로 단체를 잘 운영하는 자는 이 단체 밖은 공적(公敵)으로 여기고 단체 안의 사적(私敵)은 인정하지 않는다. [...] 그러므로 한 단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그 대외적인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나의 단체와 경쟁하는 공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제13절, p.77)

1.3.4.2.3 무규율

(e1.3.4.2.3.1) 민주국이든 군주국이든 다수의 국민을 질서지우는 법률이 있다. 민주국에서는 주권을 가진 개개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인민의 대표를 뽑고 자신의 주권을 대표에게 양도한다. 즉 유럽의 근대국가 성립의 토대가 된 사회계약의 이념에 의해 법률이 성립하고 국민은 법률에 복종하지만, 이는 스스로가 만든 법률이므로 결국에는 스스로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양계초는 계약에 의한 법률이 최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군주의 명령에 의해 만들어진 법률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한다. 만약 그 나라에 법률이 없다면 그 나라의 힘은 하나로 결집될 수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민의 결집된 힘으로 강한 힘을 가진 다른 나라에게 주권을 빼앗길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양계초는 중국인에게 법에 복종하라고 촉구한다. 그것이 민주국의 법이 아니라도 그렇다. 법에 복종해서 국가의 힘을 단일한 지휘 하에 둘 수 있는 것, 이것이 또한 강한 중국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꼽힌다.

(q1.3.4.2.3.2) 한 단체는 적어도 두세 명, 많으면 수 조 명으로 구성되는데, 언제나 법률에 의지해서 유지된다. 그 법률은 명령에 의해 성립하기도 하고 또는 계약에 의해 성립하기도 한다. 이론적으로 말하면 계약에 의한 것이 옳고 선하며, 명령에 의한 것은 옳지 않고 선하지 않다. 일의 추세로 말하자면, 옳고 선한 법률을 갖는 것이 으뜸이지만, 만약 그럴 수 없다면 옳지 않고 선하지 않은 법률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 사람은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단체의 노예가 안 될 수

는 없다. 자기가 속한 단체의 노예가 안 된다면 일의 추세로 보아 반드시 다른 단체의 노예가 될 것이다. 다수에게 복종하고 단체의 대표에게 복종하는 것이 바로 그 단체를 보호해서 열등해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다. (제13절, p.78)

1.3.4.2.4 시기와 질투

(e1.3.4.2.4.1) 지금 중국민족의 목표는 하나이어야 한다. 즉 강한 민족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한 목표를 세웠다면 그 목표에 매진하는 중국인들은 모두 벗이고 동업자이다. 시기하고 질투해야 할 경쟁자가 아니다. 양계초는 중국인 내에서는 시기와 질투를 버리라고 말한다. 모두 강한 국가를 이루겠다는 한 마음이라면, 옆 사람이 성공한 것을 내가 성공했듯이 똑같이 기뻐해야 하는 것 아닌가! 내가 실패했더라도 말이다. 국가의 차원에서 보면, 즉 대아(大我)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적인 나, 즉 소아(小我)는 없기 때문이다. 대아의 입장에서 보면 나라 안의 사람들이 성취한 것이 곧 나의 성취가 될 것이다. 개인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것 역시 중국인의 단결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양계초는 주장한다. 양계초는 중국인들에게 대아(大我)의 입장에서 중국인 모두를 자신의 분신으로 여기라고 요구한다.

(q1.3.4.2.4.2) 주장이 다르면 이론을 펴서 비판하면 될 것이며, 지위가 다르면 일을 나눠서 하면 될 것이다. 주장도 같고 지위도 같다면 힘을 합해 한마음으로 함께 대업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한마음으로 힘을 합한다는 것은, 갑의 사업을 무리하게 을의 사업에 맞춘다는 것이 아니다. 돌아가는 곳은 같지만 길은 다르다. 이르는 곳은 한 곳이지만 백가지 궁리가 가능하다. 목적이 모두 하나로 모였다면, 훗날 끝내는 반드시 한 곳에서 손을 맞잡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 못하다면, 혹은 갑이 실패하고 을이 성공하며, 혹은 을이 실패하고 갑이 성공한다면, 내가 뜻했던 바는 이미 달성된 것이다. 일이 성사되었다면 성사시킨 사람이 꼭 나일 필요가 있겠는가! 인인군자(仁人君子)의 마음 씀은 이와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제13절, p.79)

1.3.4.3 권리사상의 결여

1.3.4.3.1 관대함의 위험성

(e1.3.4.3.1.1) 중국을 이끌어온 주된 정치이념인 유학(儒學)은 덕에 의한 정치를 표방한다. 지도자는 덕에 의해 백성들을 감화시키며, 감화된 백성들 역시 인륜으로써 인간관계를 맺어간다. 그들은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도덕성을 반성한다. 자신이 더없는 성실성으로 상대를 대한다면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성실성으로 응답할 것이라 믿는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무례함이나 무도함에 더 큰 도덕성으로 응답한다. 이러한 행동양식은, 근본적으로 모든 인간이 선천적으로 나와 같은 도덕성을 내면에 지니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e1.3.4.3.1.2) 그러나 지금 그런 도덕성은 설득력이 없다. 지금은 생존경쟁의 시대이며, 강자만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시대이다. 중국의 그러한 덕의 전통은 지금은 비겁함과 태만함으로 보일 뿐이다. 힘을 갖춘 상태에서 요구하고 얻어야만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고 권리를 얻을 수 있다. 양계초는 관대함과 부드러움을 강조하던 전통, 인내를 숭상하던 풍속을 청산하라고 주장한다. 관대함과 부드러움, 인내로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q1.3.4.3.1.3) 우리 중국 선철의 가르침 가운데 “관대함과 부드러움으로 가르치고 무도함에 무도함으로 보복하지 않는다.”(寬柔以教 不報無道: 『중용』), “남이 내게 잘못해도 따지지 않는다.”(犯而不校: 『논어』), “덕으로 원수를 대하고 곧음으로 원수를 대하라.”(以德報怨, 以直報怨: 『논어』)와 같은 것들이 있다. 이는 앞사람들이 뭔가 의미를 두고 한 말로, 우연히 성덕군자(盛德君子)를 만나면 충분히 사람들에게 존경심을 일으킬 수 있지만, 말류의 유속들은 그 글을 빙자해서 태만하고 비겁하게 행동하니, 그러한 열등한 근성이 온 천하를 망친다. 이른바 백번을 참아 일을 이룬다든지, 누가 얼굴에 침을 뱉어도 닦지 않고 저절로 마를 때를 기다린다는 이야기들이 세속에서 전해지는 좋은 이야기들이다. 그러나 사람이 누군가 자신에게 침을 뱉어도 닦을 줄 모르고 참는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고 둔하고 부끄러움을 모를 수 있는가! 지금 전 중국인에게 이것만을 일

삼게 한다면 이는 전 중국인을 이끌어 빠도 없고 피도 없고 기력도 없는 괴물로 만드는 것이니, 나는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다.(제8절, p.35)

1.3.4.3.2 양주의 위아주의와 권리사상

(e1.3.4.3.2.1) 양주는 중국에서 개인주의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그의 ‘위아爲我주의’는 사회의 모든 제도와 문화를 인위적인 허식이라고 치부하고 자신의 생명을 완전하게 지키며 사는 것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므로 철저한 개인주의와 상호불간섭주의를 천명했다. 그의 개인주의는 인간의 사회성을 천성적인 본성이라고 주장한 유자들에 의해 비판되었다. 양계초 역시 전에는 양주를 싫어했다는데, 민족국가를 이룩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이 시점에서, 양주가 자기 자신의 소중함을 발견하고 그 소중함을 세상에 대항해서 지키려고 한 점은 권리사상과 통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특히 국민 개개인의 권리가 쌓여 국가의 권리가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면, 자기 개인의 권리를 소중히 하고 지키려는 양주의 의지는 대단히 값진 것이다.

(e1.3.4.3.2.2) 그런데 양주는 소극적인 은둔주의자였다. 양주는 사회 자체를 개인의 인생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부정하므로, 양주의 주장을 그대로 따른다면 민족국가 따위는 양주가 지키려는 자신의 자연성을 훼손하는 주범일 터였다. 양계초는, 양주는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쟁취해야만 하는 것이라는 것은 몰랐던 사람이라고 비평한다. 양계초의 입장에서라면, 권리는 양주처럼 개인이 사회를 떠나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권리는 외부의 강적과 싸워 쟁취해야 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외부의 강적과 싸워 이길 강한 국가를 성립시켜야 한다. 양계초는 양주의 사상이 권리사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없지 않았는데도, 그 불완전함 때문에 중국인에게 해독이 되었다고 진단했다.

(q1.3.4.3.2.3) 양주는 사람들이 모두 각자 자신의 털 한 오라기도 손상시키지 않고 모두 각자 천하를 이롭게 하지 않는다면 천하는 다스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전에는 이 말을 가장 싫어하고 증오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역시 일리가 있는 견해이다. [...] 일부분의 권리를 합하면 전체의 권리가 되며 한 개인의 권리사상은 쌓여서 한 국가의 권리사상이 된다. 그러므로 이 사상을 양성하려면 반드시 개인에서 시작해야 한다. 모두들 각자 자신의 털 한 오라기도 손상시키지 않으려 한다면 누가 감히 그 털을 건드려 타인의 창끝을 촉발하려 하겠는가! 그러므로 천하가 다스려진다는 것은 빈말이 아니다. 그런데 양주는 권리사상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지는 못했다. 그는 권리를 지킴으로써 잃지 않는다는 것은 알았지만, 권리는 나아가 쟁취함으로써 비로소 생긴다는 것을 몰랐다. 게으름, 안락을 탐하는 자세, 운에 맡기는 자세, 염세 등이 모두 권리를 죽이는 망나니(創子手)이다. 그런데 양주는 매일 그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권리를 얻으려고 했으니, 독을 마시면서 영생을 얻으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 때문에 중국에 양주학이 성행했으면서도 오직 천하를 이롭게 하지 않는 해독의 습관만 만연하게 하고 털 한 오라기라도 손상시키지 않는 그 이상은 실행하지 못하게 하여, 권리사상을 박약하게 만들었다.(제8절, p.36)

1.3.4.3.3 인仁의 덕과 권리사상

(e1.3.4.3.3.1) 인(仁)은 중국 유학 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의(義) 역시 그렇다. 인이 타인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라면 의는 정의의 마음이다. 양계초는 인과 의라는 한자(漢字)의 구성에 근거하여 인은 타인이고 의는 자기라고 구별했다. 즉 인(仁)이라는 한자는 타인이란 뜻의 ‘인(人)’과 둘을 의미하는 이(二)로 이루어졌으며, 의(義)라는 한자는 양(羊)과 나라는 ‘아(我)’로 이루어졌다. 이를 양계초는 인은 타인에게 중점을 두는 것이며 의는 내게 중점을 두는 것이라고 풀이하고, 중국에서는 인을 중요시했으며 서양에서는 의를 중요시했다고 단정했다.

(e1.3.4.3.3.2) 양계초의 풀이에 의하면, 인은 내가 상대를 이롭게 함으로써 상대 역시 내게 이롭게 하기를 기대하는 것이며, 의는 내가 타인을 해치지 않고 또한 타인으로 하여금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기대할 때, 인은 그 관계의 성립을 수동적으로 기다려야 하고 의는 능동적으로 그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인에 의한

인간관계는 나의 자유를 방기한다는 잘못과 함께, 인한 사람이 많은 사회는 남의 동정심을 구걸하는 사람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남의 인격을 비루하게 할 수 있다는 잘못까지 범하는 것이다. 중국의 최고 덕목이었던 인은, 양계초에 의하면 사실은 자신과 타인 모두의 인격을 타락시키는 것이다.

(e1.3.4.3.3.3) 양계초는 인의 덕으로는 오늘날을 헤쳐갈 수 없다고 말한다. 중국인들은 인정(仁政)을 최고의 정치로 여기고 어진 임금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것은 몇 백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우연을 기대하는 어리석은 짓이다. 권리는 쟁취하는 것이다. 힘을 갖고 요구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양계초는 인을 숭상하던 중국의 전통이 중국인의 권리사상을 약화시킨 중요한 원인이라고 말한다. 강자만이 권리를 쟁취할 수 있는 생존경쟁의 시대에, 중국인은 자신들이 숭상해왔던 인을 폐기해야만 강한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양계초는 주장한다.

(q1.3.4.3.3.4) 중국은 인(仁)에 대해서 많이 논하고 서양은 의(義)에 대해서 많이 논했다. 인(仁)이란 타인(人)이다. 내가 타인을 이롭게 하면 타인 역시 나를 이롭게 한다는 것이므로, 중점은 항상 타인에게 있다. 의란 나(我)이다. 내가 타인을 해치지 않으며 타인이 나를 해치는 것 또한 허용하지 않는 것이므로, 중점은 나에게 있다. 이 두 덕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지극한가? 천만년 후의 대동태평의 세계에서는 어떨지 감히 말 못하겠지만, 오늘날이라면 의가 진실로 시대를 구제할 지덕(至德)이고 요덕(要德)이다. 나의 인을 발휘하여 타인을 인하게 하는 것은, 비록 타인의 자유를 침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자유를 방기하는 것이다. 인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많으면 타인의 인을 기대하는 사람 또한 많다. 그 폐단은 인격을 날로 비루하게 한다는 것이다. 인정(仁政) 같은 것은 지선의 정치(政體)가 아니다. 우리 중국인은 오직 날마다 임금의 인정만을 바랐다. 그러다 우연히 인한 정치를 만나면 갓난아이가 되고, 우연히 불인한 정치를 만나면 어육(魚肉)이 되었다. 예부터 지금까지 인군은 적고 폭군은 많다. 우리 국민이 수천 년 전부터 물려받은 조종(祖宗)의 유전이 바로 남의 어육이 되는 것을 천경지의(天經地義)로 여겨온 것이다. 그러니 권리라는 관념은 우리 뇌 속에서 단절된 지 실로 오래되었다.(제8절, p.35~36)

1.3.4.4 의무사상의 박약

(e1.3.4.4.1) 양계초에 의하면 권리와 의무는 한 쌍으로 성립한다. 양계초는 권리는 의무를 다하는 데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즉 의무가 원인이 되어 권리라는 결과가 나오며, 권리와 의무는 본성상 서로 평등하게 상응한다고 생각했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국민들의 의무가 빈약하여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빈약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이는 자위력을 가져야 할 독립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적으로는 권리 없는 의무가 만연하거나 의무 없는 권리가 횡행하는 상황도 큰 문제이다. 이는 특권계급이 존재하는 불평등한 사회를 반영하는 것이며, 그러한 사회는 국력 창출이라는 경쟁에서 다른 나라에 뒤쳐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진화의 법칙으로 본다면 중국에서도 의무와 권리가 평등하게 상응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었다. 양계초는 중국인들에게 “지금부터 진정 의무를 다한다면 권리가 없을까 봐 두려워하지 말라.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는 헛되이 권리를 바라지 말라.”(제16절)고 말한다.

1.3.4.4.1 분업에 기초한 의무와 권리

(e1.3.4.4.1.1) 양계초가 진단하기에 의무에 관한 중국의 문제는, 의무 없는 권리가 만연했다는 점이다. 양계초는 외적으로부터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고 그럼으로써 국가의 자주 독립권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중국인들에게 권리사상을 고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그것이 의무를 전제로 하는 권리라는 것을 모르는 채, 여전히 의무 없는 권리를 신장하라는 소리로 오해한다. 양계초는 권리는 의무를 다할 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채 권리만을 누리겠다고 하는 것은, 기와를 갈아서 거울을 만들고 모래로 밥을 지으려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한다.

(e1.3.4.4.1.2) 개인이 사회의 보호를 받아 그 안에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개인이 의무를 다해 힘 있는 사회를 이룩했기 때문에 가

능한 것이다. 즉 개인에게 권리를 보장해주는 사회는 개개인이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성립한다. 특히 공장에서 분업을 통해 물건을 만들어내고 이윤을 창출하듯이, 사회 안의 각 개인이 자신의 할 일을 분담해서 사회에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중국인들은 권리를 누리기 이전에 이러한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즉 권리는 의무가 있어야 비로소 생긴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근대국가에서 요구되는 자율적 국민에게 권리에 따르는 의무를 강조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인데, 노골적인 국가주의자 양계초는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의무가 전제되는 권리임을 강조한다.

(q1.3.4.4.1.3) 아, 슬프다! 우리 국민의 의무사상은 박약하구나! 나는 전에 권리사상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 논했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기뻐하며 ‘나의 권리를 쟁취하자, 나의 권리를 쟁취하자’고 일어났다. 그러나 내가 권리사상을 강조한 것은 우리나라가 수 천 년 동안 의무 없는 권리를 옹호해 온 것을 한탄해서 그것에 대항하기 위해 도모하려 한 것이었다. 그런데 내 말을 오해한 사람들은 간혹 스스로 저 의무 없는 권리를 얻으려고 해서 나라 안의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의무 없는 권리를 찾게 한다. 이는 기와를 갈아서 거울을 만들고 모래를 삶아서 밥을 지으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 개인이 모여서 한 사회를 이루었을 때 사회가 있는 걸 기뻐하는 것은, 사회가 성립하면 내가 사회의 힘에 의지해서 종종의 권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회가 와해되지 않고 성립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경제학상의 분업이라는 대원칙을 따르기 때문이다. 한 사회의 사람들이 모두 각자 열심히 살면서, 사회에 결핍된 것은 내가 보충하고 사회의 위급한 일에는 내가 달려간다. 그리하여 사회의 안정과 부귀와 존귀와 영화는 내가 스스로 향수하는 것이다. 이를 권리 없는 의무는 없다고 하는 것이다.(제16절, p.105~106)

1.3.4.4.2 의무에 관한 중국인과 서양인의 차이

(e1.3.4.4.2.1) 국가는 국민이 내는 세금에 의해 경제적으로 지탱되고, 국민이 제공하는 병역의 의무에 의해 대외적인 무력으로부터 방어된다. 양계초는 이 양대 의무에 대한 반응이 서양인과 중국인이 전혀 다르다고

주장한다. 서양인들은 치러야 하는 의무가 중국보다 몇 배나 많지만 기꺼이 그 의무를 다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그 대가로 권리를 누린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국은 어떠한가? 중국은 옛날부터 부세를 가볍게 하고 징병을 면하게 해주는 것을 인정(仁政)이라고 칭송해왔다. 그러나 조세와 병역 없이 어떻게 국가가 자신의 기능을 다할 것인가! 그 기능이란 결국 백성들의 복지에 힘쓰고 백성들에게 안정된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백성들의 의무를 감한다는 것은 국가의 기능을 그만큼 포기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양계초의 비판에 의하면,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의무가 다시 자신들의 권리가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의무를 가볍게 하고 나아가 피할 방법만을 찾은 것이다. 중국이 강한 국가를 이룩하고 그 그늘 아래서 강한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의무란 결국 자신들이 누릴 권리를 낳는 씨앗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q1.3.4.4.2.2) 나는 중국인에게는 의무사상이 없다고 했는데, 그 예를 들어보자. 정치학자들은 국민의 의무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한다. 하나는 납세의 의무이고 하나는 병역의 의무이다. [...] 그런데 우리 국민은 이 두 가지를 가장 두려워했다. 그 두 의무를 면할 수 있으면 큰 행운으로 삼았다. 이는 의지와 실천이 박약하다는 증거이다. 옛날 임금의 덕을 칭송하는 자들은 모두 징병을 면제하고 조세를 감하는 것을 제일의 인정이라고 여겼다. 송조(宋朝)가 징병을 용병으로 바꾸고 본조(本朝) 강희연간에 부(賦)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명령에 대해 백성들은 가장 칭송하고 가장 감격했다. 용병에게서 애국심의 발현을 기대할 수 없고, 내내 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민사를 위해 새로운 일을 도모하려고 해도 비용이 나올 데가 없으니 좋은 제안도 폐기되지 않을 수가 없다. 서양은 그렇지 않다. 성인은 모두 2~3년의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만 회피하려는 국민이 없다. 조세는 'tax'라는 명목으로 매해 내는 액수가 우리나라의 4~5배나 되지만 국민은 원망하는 일이 없다. 그들은 자신의 피와 살을 보배로 여기지 않을지언정 자신들의 피땀은 아끼는데, 이런 일들을 보면 그들이 이 의무를 받아들이는 것은 의무와 서로 의지하고 있는 권리를 그 보상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서구 인민들은 국가에 대한 의무가 무거워도 마다하지 않고 반드시 그에 상당한 권리를 그 보상으로 여겨 구한다. 중국인민은 국가에 대한 권리가 가벼운 것은 걱정하지 않고 오직 이

행해야 할 의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뿐이다.(제16절, p.106~107)

1.3.4.4.3 권리와 의무는 애국심의 근거

(e1.3.4.4.3.1) 아이는 일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 부모의 양육이 없으면 생존하기 어렵다. 부모 역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더 이상 생업에 종사하기 어려워져서 자식의 부양에 기대야 한다. 양계초에 의하면,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부모는 아이를 양육할 의무가 있으며 그 아이에게 부양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 국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싫어서 국가로부터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인민은, 부모의 보살핌 없이는 제대로 살아 갈 수 없는 주제에, ‘나는 부모가 나를 양육하는 것은 바라지 않고 다만 부모가 뒤에 나에게 부양을 기대하지 않기만을 바란다’고 하는 모자란 아이와 다를 것이 없다. 부모의 양육 없이 아이가 생존할 수 없듯이, 국가에서 보장하는 권리 없이 개인은 이 세상에서 생존할 수 없다.

(e1.3.4.4.3.2) 또한 부모와 자식은 그렇게 서로 양육과 부양의 의무와 권리로 주고받으면서 그 관계가 돈독해지고 친밀해진다. 양계초는 국가와 국민의 관계도 이와 같다고 생각했다. 국민이 국가에 대해 의무를 다하고 국가가 국민에게 권리를 보장하는 그 사이에서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돈독해진다는 것이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운명 공동체라고 느끼고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고받으면서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듯이, 국민과 국가 역시 서로 헤어질 수 없는, 같이 있어야만 서로 살 수 있는 관계임을 자각하고 운명적으로 ‘사랑’하게 될 것이었다. 그는 “권리와 의무, 두 사상은 애국심이 나오는 근거”라고 말한다. 의무를 다하고 그 대가로 권리를 누리는 사이에 국민은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돈독해져 애뜻한 마음으로 국가를 자신의 부모처럼 여기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어쨌든 의무가 먼저 있어야 권리가 뒤따른다.

(q1.3.4.4.3.3) 이러니 어리석은 아이와 무엇이 다른가! 가정 안의 가르침에는 따르지 않은 채 “나는 부모가 나를 키우기를 바라지 않고 다만 부모가 나를 수고롭게 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한다. 부모가 키워

주지 않으면 스스로 생존할 수 없으며 이미 키웠다면 부모를 위해 수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피할 수 없는 이치이다. 키우고 부양하는 뒤에야 나와 부모의 관계가 날로 친밀해지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도 일어난다. 그러므로 권리와 의무 두 사상은 애국심이 나오는 근거이다. 사람이 아무리 바보라도 누구나 부모에게 양육받기를 바란다. 어리석은 아이가 이 권리를 버리는 이유는 오로지 뒤의 수고를 싫어하는 한가지뿐이다. 지금 논자는 중국인이 권리사상이 없는 것이 병이라고 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권리사상이 없는 것은 나쁜 결과이고(惡果), 의무사상이 없는 것이 사실은 나쁜 원인이다(惡因).(제16절, p.107)

1.3.4.4.4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잃은 의무의 문제점

(e1.3.4.4.4.1) 권리 이전에 의무가 있으며, 중국인에게 권리사상이 부족한 것은 의무사상이 부족한 것이 그 원인이라고는 하지만, 중국인의 의무사상이 반드시 빈약한 것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권리사상보다는 의무사상이 더 풍부했다고 할 수 있다. 양계초는 효(孝)·제(悌)·충(忠)·절(節)의 덕목을 강조했던 것이 모두 의무에 대한 교육이었다고 해석한다. 즉 중국인에게 의무사상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풍부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불완전한 의무사상이었다는 점에 있다. 양계초는 중국 전통의 의무사상이 불완전한 이유를 두 가지 들었다.

(e1.3.4.4.4.2) 하나는 효·제·충·절의 덕목이 모두 권리를 결여한 의무라는 점이다. 부모에 대한 효도, 형에 대한 공손, 군주에 대한 충성, 지아비에 대한 정절, 모두 상대에 대한 의무는 다하지만, 그 반대급부를 보장받지는 못한다.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의무는 의미가 없다. 이는 근대 이전의 계급사회에서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아랫사람이윗사람에게 복종하는 방식으로 사회의 질서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회는, 근대의 관점에서 보자면 권리 없는 의무가 넘치는 곳이다. 이렇게 되면 의무 수행 의욕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인구가 많다는 소리이므로 자연히 국가 전체의 국력 저하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e1.3.4.4.4.3) 또 하나는 효·제·충·절의 덕목은 모두 개인과 개인 사이

의 관계라는 점이다. 즉 개인이 단체에 대해 치러야 할 의무를 강조한 덕목은 없었다는 점이다. 군주 역시 단체가 아니다. 충성을 얘기하더라도 그것이 단체인 국가에 대한 충성이어야 하는데 군주라는 개인에 대한 것에 그쳤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단체와의 관계에서 개인이 갖춰야할 이른바 ‘공덕’은, 양계초의 판단에 의하면, 과거 중국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었다. 지금 중국인들이 근대적 민족국가의 수립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역시 공덕의 함양이라고 양계초는 생각했다.(‘공덕’ 부분 참조) 국가의 물질적 토대가 될 의무에 대한 국민의 의식은, 공덕 가운데에서도 중국인들이 하루 빨리 갖춰야 할 덕목일 것이다.

(q1.3.4.4.4) 그런데 우리 중국 선철의 가르침 가운데, 서양인들이 말하는 의무교육이 있다. 효니, 제니, 충이니, 절, 어느 하나 의무를 다하라고 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중국인의 의무사상과 권리사상을 비교해 보면, 의무사상이 권리사상보다 훨씬 더 발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불완전한 의무사상이다. 권리가 없는 의무는 보상 없는 노동과 같은 것으로, 불완전한 첫 번째 이유이다. 개인이 개인에 대한 의무는 있어도 개인이 단체에 대한 의무는 없다는 것이 불완전한 두 번째 항목이다. (제16절, p.108)

1.3.4.5 중국의 복고적 역사관

(e1.3.4.5.1) 중국은 과거 사회를 다시 회복해야 할 이상적인 사회로 여기는 복고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양계초에 의하면 “진화는 이 세상의 보편적 법칙이다. 흐르는 물에 비유하면 그 물이 아래로 흐르는 성질을 갖는 것과 같다.” 중국은 “그 진화의 법칙을 거슬렀기 때문에 이러한 정체된 현상을 연출”한 것이다.(이상 제11절) 진화의 법칙을 알고 있었다면 세계에 보편적인 역사의 법칙에 발맞춰 스스로도 진화하고자 노력했을 텐데, 복고적 역사관을 갖다 보니 진화나 진보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살았던 것이다. 양계초는 중국으로 하여금 진화라는 역사법칙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잘못된 복고적 역사관을 갖게 한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원인을 추적한다.

(e1.3.4.5.2) 흔히 사람들은 중국인들이 보수적이어서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럴 수도 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인들이 보수적 성질이 강한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또한 보수적인 것이 반드시 사회의 진보에 나쁘기만 한 것인가? 양계초는 보수적이라고 소문나 있는 영국이 가장 진보한 사회라는 점을 들어 보수적 성질이 정체의 원인은 아닐 것이라고 추측한다. 왜 중국인들은 복고적 역사관을 갖게 되었는가? 혹은 왜 중국인들은 영국처럼 진보를 담보하지 못하는 보수성을 갖게 되었는가? 양계초는 그에 대해 크게 자연적 원인과 인위적 원인으로 나누어 대답한다.

(q1.3.4.5.3) 그 원인에 대해 토론해 보자. 병을 알면 그에 대한 약 또한 알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분명 보수적 성질이 너무 강해서 그렇다고 말할 것이다. 분명 그렇다. 그러나 우리 중국인들은 왜 유독 보수적 성질이 강한가? 이 역시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다. 또 영국인들은 보수적이라고 세상에 소문나 있다. 그런데도 진보의 속도가 영국만한 나라가 없다. 또한 보수성이 반드시 사회에 해가 되는 것인가? 나는 거듭 생각하여 그 원인에 자연적인 것 두 가지와 인위적인 것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11절, p.56)

1.3.4.5.1 자연적 이유

1.3.4.5.1.1 경쟁 없는 통일왕국

(e1.3.4.5.1.1.1) 진화가 보편적 법칙이라고 믿는 양계초는, 또한 그 진화는 경쟁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므로 라이벌, 그것도 만만찮은 라이벌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라이벌이 없이 진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양계초는 중국이 잘못된 역사관을 갖고 정체된 사회를 유지시켜 왔던 첫 번째 원인으로, 중국이 경쟁자 없는 통일왕국을 이루어왔다는 점을 꼽았다. 중국은 자신들이 사는 곳, 즉 중국을 천하天下라고 불렀다. ‘하늘 아래’란 뜻으로 하늘 아래 있는 것 전체, 그러니까 오늘날의 세계라는 의미로 사용했다. 그들은 중국이 세계 전체라고

생각했으며 이 세상에는 자신들의 나라만이 있다고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라는 것을 몰랐으며, 경쟁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진화라는 것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은 진(秦)이 전국시대를 통일한 이후 이천여 년 동안 계속되어 왔다. 즉 중국은 이천여 년 이상을,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켜주고 진화시켜주는 경쟁자의 존재 없이 정체되어 있었던 것이다.

(q1.3.4.5.1.1.2) 경쟁은 진화의 어머니라는 이 말은 이제 거의 철칙이 되었다. 서양의 옛날 희랍시대 때, 여러 나라들이 병존했던 때의 정치학이 가장 융성했었다고 평가된다. 로마가 여러 나라로 분열되어 다시 근세의 정치를 이룩한 뒤 지금까지의 현상은 모두 경쟁의 분명한 효과이다. 여러 나라가 병립해 있는 경우, 경쟁하지 않으면 자존할 길이 없다. 경쟁은 국가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 사이에도 있다. 강한 힘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덕과 지식에 더욱 좌우된다. [...] 중국은 춘추전국시대의 몇 백 년 동안에만 장기간 여러 나라가 분립되어 있었다. 정치의 진보는 실로 이 때 극점을 이뤘다. 진나라 이래로 하나로 통일된 나라가 된 뒤 퇴화의 모습은 천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졌다. 무슨 다른 이유가 있겠는가! 경쟁력의 약화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제11절, p.56)

1.3.4.5.1.2 하등문명의 주위 야만국가

(e1.3.4.5.1.2.1) 중국이 통일국가였다는 것을 양계초는 중국이 정체인 첫 번째 이유로 꼽았지만, 만약 그 통일이 민족 국가들 속의 한 국가로서의 통일이라면 그 통일은 더없이 바람직한 것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그 통일이란 전혀 대등한 상대를 모르는 그러한 통일이었기 때문에 문제였다. 중국 주위에도 이민족들이 있기는 했다. 그러나 그들의 문화는 중국보다 몇 등급은 하급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존재는 오히려 중국의 자만심만을 키워, 중국이 자기발전을 도모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한계만을 짓도록 하는 것이 되어버렸다. 중국과 접촉한 이민족들은 한결같이 중국 문화에 동화되었으므로 중국은 자기 문화 이상의 문화가 존재하리라고 상상할 길조차 차단된 상태였던 것이다.

(e1.3.4.5.1.2.2) 특히 주위 야만국가의 야만적 폭력성은 중국의 문

화를 파괴하기도 했으며, 그 때문에 중국은 자신들의 우수한 문화를 보존해야한다는 의식을 더욱 강화시켰다. 그것이 중국인들의 보수적 성격을 형성하였다. 즉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완전무결한 문화를, 야만의 폭력으로부터 지켜내야 한다는 심정이 바로 보수적 성격으로 굳어진 것이다. 이처럼 중국 주위의 야만 국가들은 중국의 정체성과 보수성을 강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q1.3.4.5.1.2.3) 한 사회와 다른 사회가 서로 접촉하면 반드시 새로운 현상을 만들어 내며 문명은 진일보한다. 고대 회랍의 식민지나 근세의 십자군 정벌 등은 그 좋은 예들이다. 그런데 통일이 반드시 진보의 장애는 아니다. 통일된 단체가 외부와 교통하여 더욱 빠르게 비약할 수도 있다. 중국은 적은 수로 무리를 이룬 오랑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들의 문명 정도는 하나같이 우리보다 몇 등급 아래였다. 그들과 접촉하면 마치 끓는 물을 눈에 붓는 듯했다. 고금사방을 둘러봐도 늘 천상천하에 유아독존임을 느낄 뿐이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갖게 되고 계속해서 자만심을 갖게 되고 결국에는 스스로를 한계 짓게 되었다. 스스로를 한계 짓게 되면 진보의 길은 끊어진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른바 야만족은 늘 소나 양의 힘과 물풀의 성질로 우리 문명을 파괴했다. 그래서 이에 저항하는 자들은 우리 고유의 것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급했다. 중원의 문헌과 한 관위의(漢官威儀)는 실로 우리 황인종이 수천 년 동안 싸워 이겨 전해온 정신이다. 외부로부터는 배우고 본받아서 더하거나 덜 재료가 없었으며, 내부에서는 전전궁궁하며 스스로를 지키는 도구를 갖추지 않을 수 없었다. (제11절, p.56)

1.3.4.5.2 인위적 이유

1.3.4.5.2.1 표의문자의 약점

(e1.3.4.5.2.1.1) 중국문자, 즉 한자는 표음문자가 아니라 표의문자이다. 표의문자는 소리와 문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표음글자는 몇 십 개의 한정된 알파벳이나 자모음을 조합해서 글자를 만든다. 그 글자는 고유의 음가를 가지고 있으며 자음과 모음의 조합을 통해 인간의 입으로 만들어 내는 어떤 소리도 표기할 수가 있다. 그러나 표의문자 즉 뜻글자는 글자 하

나하나가 그 자체의 의미와 고유한 소리를 가지고 있다. 그 글자가 단순한 물건을 지시할 수도 있고 추상적인 개념을 지시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그 숫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건의 숫자에 필적할 정도로 많을 수 있다. 근대문명을 이룩한 유럽 여러 나라들이 모두 표음문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중국은 표의문자를 사용하고 있다. 그것 역시 양계초는 문명정도를 가늠하는 척도라고 생각했으며, 중국이 표의문자를 사용한 것 역시 중국의 진화가 정체된 이유라고 생각했다. 표의문자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양계초는 몇 가지로 분류해서 정리했다.

(q1.3.4.5.2.1.2) 문자는 도구를 발명하는데 필요한 첫째 조건이다. 그것의 복잡과 간단, 어려움과 쉬움은 민족의 문명정도가 높은가 낮은가에 상응한다. 여러 나라의 문자는 처음에는 상형문자였다가 진화하여 표음문자가 된다.(제11절, p.57)

1.3.4.5.2.1.1 새로운 발명품의 표기 문제

(e1.3.4.5.2.1.1.1) 표의문제가 갖는 문제점으로 양계초가 첫 번째 꼽은 것은 새로운 발명품을 표시하는 문자가 없다는 점이다. 당시처럼 예전의 중국에는 없던 새로운 물건들이 서양에서 들어오는데, 이름도 생소하지만 그 생소한 이름을 표기할 문자도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예를 들면 코카콜라라는 물건을 처음 만났을 때, 한글처럼 표음문자는 영어에 가까운 발음을 그대로 한글에서 찾아 ‘코카콜라’라고 표기하면 된다. 그런데 표음문자의 경우에는 코카콜라의 의미를 갖는 문자를 찾아야 하는데 기존에 그런 물건이 없었으므로 새 문자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중국인들은 ‘可口可樂(커커우커리)’라는 글자를 만들어 내서 코카콜라를 표기하고 있다. 맛있고 즐겁다는 뜻이다.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이렇게 적절한 문자를 찾아내기는 하지만, 그것이 표음문자의 경우보다 더 어렵다는 것은 분명하다. 즉 표음문자의 경우 코카콜라라는 이름의 생소한 물건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 한 번에 그것의 이름(소리)과 표기를 알게 되는데, 표기문자의 경우 소리를 인지하는 일과 문자를 인지하는 일의 두 번의

인지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렇다면 새로운 물건, 새로운 문명을 습득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q1.3.4.5.1.1.2) 언어와 문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언어는 날로 늘어나는데 문자는 그렇지 못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더라도 이해할 수가 없다. 혹 이해하더라도 널리 통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의 기계가 있어도 막힐 수밖에 없다.(제11절, p.57)

1.3.4.5.2.1.2 문자의 습득에 소비되는 시간과 정력

(e1.3.4.5.2.1.2.1) 글자 하나하나가 의미를 갖는 표의문자의 숫자는 세상이 복잡한 것에 비례해서 많다. 그러므로 중국인들이 교양인이 되기 위해 투자해야 하는 시간은 상상을 초월한다. 양계초는 근래 수백 년 동안 중국인은 문자 공부에 평생을 소비했다고까지 말한다. 문자를 공부하는 것은 문자로 표기된 지식을 얻고 그 지식을 어떤 식으로든 인생에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이다. 양계초의 말처럼 중국이 자신들의 문자 때문에 그 문자 자체를 습득하는데 평생을 소비한다면 그 문자의 습득은 인생에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는 것이다. 중국의 문자는, 쉽게 문자를 습득했다면 지식의 습득과 실용적인 것의 연구에 사용되었어야 할 시간과 정력을 빼앗기만 한 것이다.

(q1.3.4.5.2.1.2.2) 옛날 책을 많이 읽어 옛날 말뜻에 통달하지 않으면 학문에 대해 논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근래 수백 년 동안의 학자들은 왕왕 평생의 정력을 『설문』(說文)이나 『이아』(爾雅)를 공부하는데 소모했을 뿐, 실용적인 것에 종사할 여유가 없었으니, 이것 또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제11절, p.57)

1.3.4.5.2.1.3 지식의 대중화 문제

(e1.3.4.5.2.1.3.1) 습득하기 어려운 문자가 갖는 문제점 가운데, 가장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는 지식을 대중이 공유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근대적 민족국가의 국민을 창출해야 하는 시대에 처했다면 지식의 대중

화 문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이다. 국민 모두가 문자를 읽고 지식과 정보를 공유해야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제대로 찾고 발휘할 수 있다. 특히 근대에 들어 새롭게 정치적 주체에 편입된 여성과 하층민들이 빠른 시간 안에 정치 주체로서 자신의 자리를 잡아야 하는 시점에서, 습득하기 어렵고 습득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자는 크나큰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10여 년을 학업에 몰두해온 남자들조차 어리석은 자들이 많은데, 가사와 생업에 종사하는 여성이나 하층민들이 어떻게 그 문자를 습득하겠는가!

(q1.3.4.5.2.1.3.2) 23~24자의 자모음을 익히는 것과, 몇 만 자의 글을 읽히는 것, 어느 것이 쉽겠는가! 그래서 서양이나 일본에서는 부인이나 아이도 글자를 쓰고 마부도 신문을 읽는다. 그런데 우리 중국에서는 10년을 배워도 이처럼 아둔한 두뇌들이 많다.(제11절, p.57)

1.3.4.5.2.1.4 정치의 진보와 사상의 심화

(e1.3.4.5.2.1.4.1) 양계초의 믿음에 의하면 역사는 경쟁에 의해 진화한다. 나라 안 1할 정도의 일부 사람이 “서로 격려하고 고무하면서 서로를 이끌어주는” 내부 경쟁을 통해 만들어 내는 나라와, 나라 안 전체 사람이 경쟁해서 만들어 내는 나라는 현격하게 다를 것이다. 양계초는 “특별한 지식을 가진 한두 사람은, 상식을 가진 백·천·만·억의 사람들만 못하다.”고 말한다. 어려운 문자로 인한 높은 문맹률은 분명 정치의 진보를 방해한다. 양계초의 생각처럼, 각자 자신들의 권리를 자각하고 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노력할 때 국가의 권리도 커진다면, 문맹률이 전체 인구의 9할에 달하는 그러한 나라는 발전할 수 없다. 습득하기 어려운 문자는 정치의 진보를 방해하고, 두뇌의 계발을 둔화시킨다.

(q1.3.4.5.2.1.4.2) 정치의 진보는 한 사람에 의해 가능한 일이 아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고무하면서 서로 이끌어주고 서로 성장시켜줘야 한다. 특별한 지식을 가진 한두 사람은, 상식을 가진 백·천·만·억의 사람들만 못하다. 그 힘이 클수록 그 효과는 더욱 드러난다. 우리 국민은 정

력을 소비하며 배우기 어려운 문자를 배웠으므로 학문을 성취한 사람은 1할도 안 된다. 이미 성취해도 당시에 사용될 새로운 사물, 새로운 이론과는 많이 거리가 있다. 이것이 두뇌가 날카롭게 계발되고 발휘되지 않는 이유이고, 사상의 전파가 느린 이유이다.(제11절, p.58)

1.3.4.5.2.2 오랜 전제(專制)

(e1.3.4.5.2.2.1) 양계초는 중국의 정치에 진보가 없었던 인위적 이유로, 습득하기 어려운 문자 이외에 오랜 전제정치를 들었다. 전제란 주권재민을 인정하는 민주주의 정치체도가 아니라 군주 일인이나 그 측근에 의한 독재정치를 의미한다. 양계초에 의하면 중국의 전제군주는 나라를 자신의 사적인 것으로 여겼고, 인민은 자신이 맘대로 부릴 수 있는 노예로 여기거나 아니면 자신의 재산을 탐내는 도적으로 여겨왔다. 그런 상황이라면 인민은 자신과 국가와의 관계에 무지할 수밖에 없다. 전제군주가 다루는 대로 스스로를 노예나 도적의 자리에 두게 되면, 나라를 공공의 것으로 생각하고 나라의 이익을 공익으로 여기는 사고는 나올 수 없다. 그러한 인민은 기회가 있으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기 집안, 자기 나라의 공익을 희생할 수 있다. 즉 스스로 도적이 되는 것이다.

(e1.3.4.5.2.2.2) 설사 나라를 공적인 것으로 여기고 공익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어진 임금, 어진 재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노력해서 이루어낸 공익이 어떻게 인민 전체가 노력해서 이루어낸 공익에 미칠 수 있겠는가! 오랜 전제는 국익에 이바지할 많은 인민들의 노력을 사장시키고 나아가 인민을 국익에 역행하는 노예나 도적의 자리에 밀어 넣었다는 점에서 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치명적인 것이었다.

(q1.3.4.5.2.2.3) 인민을 노예처럼 부리고 도적처럼 막는다면 인민들도 스스로를 노예와 도적의 자리에 둔다. 스스로를 노예와 도적의 자리에 두는 인민은, 자신이 편안할 수 있고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자기 집안, 자기 가계의 공익을 희생하더라도 사양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위축되어 쇠락해가지 않을 방법은 없다. 중국의 정치가 진보하지 않은 것은 인민이 공익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민이 공익을 돌아보지 않은

것은 스스로를 노예나 도적의 위치에 두었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노예나 도적의 위치에 둔 것은 패자들이 천하를 자기 한 집안의 재산으로 여기고 우리 백성을 노예나 도적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 전체의 나라에서는, 설사 한두 사람의 성군이나 현명한 재상이 있어서 공을 위해 사사로움을 죽여서 국민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더라도, 그 나라 전체에까지 그 힘이 미치지 어렵다. 그 은혜가 진정으로 널리 미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제11절, p.58~59)

1.3.4.5.2.3 편협한 학설과 사상

(e1.3.4.5.2.3.1) 중국이 복고적 역사관을 유지했던 이유, 혹은 진보를 담보하지 못한 보수성이 농후했던 이유로 양계초가 마지막으로 꼽은 것은, 진(秦)·한(漢)이래 2천 년에 걸쳐 독보적으로 중국의 정치 이념으로 작용했던 유학의 존재였다. 양계초는 풍속과 정치의 변화를 낳는 모태는 학술과 사상의 변화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진나라의 중원 통일 뒤를 이어 바로 그 대권을 대신한 한나라는 그 통일을 공고화하기 위해 이념의 통일 정책을 추진했다. 그리하여 그 국가이념으로 선택된 유학 이외의 학문은 그 싹이 마르게 되었다. 양계초에 의하면 모든 것은 경쟁에 의해 발전한다. 기존의 권위에 도전하는 새로운 이론들이 그전에는 없었던 장점과 강점을 가지고 등장해 기존의 이론과 경쟁할 때 발전이 있고, 학술과 사상 영역에서의 그러한 발전이 바로 실생활에서의 풍속과 정치의 변화와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국가권위에 의해 그러한 자유로운 사상의 경쟁이 불가능했고, 그것이 중국이 침체되었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양계초는 직접 유학(당시에는 강유위의 영향으로 ‘孔子敎’라고 불렀다.) 자체를 비판하지는 않는다. 유학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유학 일존(一尊)체제를 유지해온 사람들의 문제일 것이다. 양계초는 유학을 이용해 자신의 보수성을 수식하고 스스로와 나라를 망친 사람들의 탓이라고 비판한다.

(q1.3.4.5.2.3.2)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진보는 학술과 사상을 어머니로 하여 풍속과 정치는 거기에서 나오는 자손이다. 중국은 오직 전국시대에만

여러 학파들이 복잡하게 일어나 학술 사상이 가장 폭넓었다. 역사 이래 한족의 명에는 그 때보다 융성한 때가 없었다. 진(秦)·한(漢) 이래 공자교(孔子敎)로 통일되었다. 공자교가 좋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 나라 안 사람들의 사상을 억지로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한다면 진화에 미치는 해는 막대하다. [...] 나는 감히 공자교를 원망하지는 않지만 공자교를 자신의 간판으로 삼고 공자교를 이용하고 공자교를 왜곡하는 자들이 스스로를 해치고 국민을 해치는 데 대해서는 통절히 미워하지 않을 수 없다. (제11절, p.59~60)

1.3.4.6 중국의 경제

(e1.3.4.6.1) 양계초도 간파하고 있었듯이 근대는 “경제 경쟁의 세계”이다. “한 나라의 영고성쇠는 경제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양계초는 “나라의 흥망성쇠는 전체자본과 전체노동력이 증식되는가 여부에 달려있다.”(이상 제14절)고 파악한다. 그러므로 중국이 융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전체의 노동력과 자본을 증식시켜야 한다. 양계초는 현재의 중국 경제에 대해 진단하고 중국의 경제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1.3.4.6.1 중국 경제의 실태

(e1.3.4.6.1.1) 양계초는 경제활동 인구를 생산자와 소모자로 나눈다. 생산자가 농·공·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소모자는 국가 차원에서 봤을 때, 생산하는 것 없이 남이 생산한 물건을 소비만 하는 사람들이다. 거지와 도적, 승려, 고관대작의 자제들, 유랑자 들을 비롯해, 관리들의 태반, 관리들이 부리는 아전들, 토호향신, 부녀자의 태반, 죄인, 병자, 노비, 배우와 기녀, 독서인, 교사 등까지 양계초는 소모자의 부류에 넣었다. 그 결과 양계초는 중국의 “소모자들은 대부분 상등사회와 중등사회의 사람들이다.”이라고 진단한다. 즉 상등사회·중등사회 사람들이 그들이 가진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하층민들이 생산해 낸 것을 강탈하는 형국이었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생산자는 중국인구의 반인 2억이 채 안 된다.

소모자는 2억 이상이라는 소리이다. 그런데 상등·중등 사람의 생활은 보통 하등 계층의 생산자들이 소비하는 것의 네다섯 배는 소비하고 사는 수준이다. 생산하는 사람은 반도 안 되고 소모하는 사람들의 소모가 그처럼 과하다면, 어느 백성이 곤궁하지 않을 것이며 나라가 어떻게 부강해질 수 있을 것인가! 양계초가 진단한 중국 경제의 실패는 이처럼 일 안하고 먹기만 하는 상층부 사람들 때문에 갈수록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q1.3.4.6.1.2) 대략 소모자들은 대부분 상등사회와 중등사회의 사람들이 다. 하등사회의 사람들은 거의 없다. 그들은 강권(強權)으로 타인이 생산한 이익을 앗아서 가로채는 것이다. 앞에서 들었던 소모자들은, 결인, 노비, 죄수, 질환자 등을 제외하면 그 나머지 대부분은 한사람 당 수 명이 거둔 이익을 소모할 것이다. 나의 계산으로는, 네다섯 명의 생산자가 스스로를 부양하고 난 나머지를 합한 분량 정도 되어야 한 사람의 소모를 충당하는데 충분할 것이다. 우리 중국인 사역 가운데 소모자가 벌써 이익 이상이다. 이 이익이 또 나머지 생산자 이익의 생산물을 다 먹어치우는데서 그치지 않고, 그 두 배, 네 배를 먹어치운다. 아야! 이런 식 이라면 어느 백성이 궁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제14절, p.93~94)

1.3.4.6.2 과다한 소모자(비생산자)

(e1.3.4.6.2.1) 양계초의 계산대로라면 중국인의 반 이상은 생산하는 일 없이 소비만 한다. 게다가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중등 이상의 사람이고 보면 그들이 씹씹이는 보통 생산에 종사하는 일반백성들의 네다섯 배가 된다. 그러므로 중국의 전체적 생산을 보면, 중국인의 반이 되는 생산자들은, 자신들이 소비하는 것에 덧붙여 중등 이상의 소모자들이 소비하는 것까지 생산해내는 것이다. 즉 자신들이 스스로를 부양하는 데 필요한 재화의 다섯 배 이상을 생산해 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소모자들이 없다면 중국의 생산량은 당해 소비하고도 그 소비한 양의 몇 배는 남을 것이다. 게다가 소모자들이 생산자로 전환한다면 총 생산량은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너무 많

은 소모자들의 존재이다. 그들이 생산하지 않고 남들이 생산해 낸 것을 아낌없이 소모하기만 한다면 중국이 부유해지는 일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q1.3.4.6.2.2) 지금 2억이 채 안 되는 생산자들은 스스로를 부양하는 것 말고도 또 2억 여 명의 서너 배 되는 소모자들을 먹여 살리는 셈이다. 그 힘을 유지한다면 우리 국민의 생산력은 스스로를 부양하는 분량의 서너 배가 될 것이 분명하다. 만약 저 2억의 소모자들을 먹여 살리는 일이 없어진다면 그들 2억의 생산자들이 산출해 내는 것은 분명 네다섯 배가 될 것이다. 이러면 전국의 총생산량은 오늘날의 네다섯 배가 될 것이다. 또 저 2억의 소모자들을 생산자로 전환시키면 전국의 총생산량은 오늘날의 팔·구·십 배가 될 거라는 것 또한 분명하다.(제14절, p.94)

1.3.4.6.3 중국 경제의 가능성

(e1.3.4.6.3.1) 중국은 세계에서 수위를 다투는 넓은 영토와 많은 국민을 소유하고 있다. 토지·노동·자본의 세 요소 가운데 앞의 두 가지의 여건은 대단히 좋다. 문제는 자본이다. 자본은 생산된 재화가 가치로 바뀌고 그 가치가 축적되어 만들어지는 것이다. 양계초의 계산대로 혼자서 보통 사람의 네다섯 배를 소모하는 소모자들을 생산자로 전환시키면 중국의 총생산량은 여덟아홉 배 증가할 것이고, 증가한 분만큼 자본으로 축적될 것이었다. 즉 나라 안의 소모자만 줄이면 자본의 축적은 문제가 아니라는 전망이 선다. 또한 앞으로는 보다 정밀한 기술과 세밀한 분업이 이루어져 그 생산성은 폭발적으로 커질 것이었다. 그러므로 자본 확보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중국은 경제적으로 무한하게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나라이다.

(q1.3.4.6.3.2) 우리 중국의 토지는 세계 제일이고 노동력도 세계 제일이다. 생산의 세 요소 가운데 두 요소의 우위를 점하고 있으니 부족한 것은 자본뿐이다. 오늘날의 자본보다 팔·구·십 배 더 창출하게 된다면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겠는가! 이것도 아직 분업이 세분화 되어 있지 않고 기계가 정밀하지 않을 때의 일이다. 만약 세분화되고 정밀해진다면 사람들이 노동력을 최대로 발휘하고 땅의 이점을 최선으로 발휘한다면 그 부

의 팽창을 어떻게 계산하겠는가! 나라가 부유한데 백성이 어떻게 가난할 수 있겠는가!(제14절, p.94~95)

1.3.4.6.4 실천상의 순서

(e1.3.4.6.4.1) 토지와 가용 노동력에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이 좋고, 부족한 자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력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 양계초는 중국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은 놀고먹는 상층부의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생산하지는 않으면서 필요 이상 소모하는 자들이 인구의 반 이상인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 해결의 방법은 분명하다. 그 소모자의 수를 줄여나가는 것이다. 양계초는 그 실천상의 방법을 제시한다. 먼저 스스로가 소모자가 되지 말고 생산자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소모자가 되는 일의 부끄러움을 널리 알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정책적으로 소모자들을 생산자로 편입시키는 것이다. 이 순서는 양계초가 정책 결정권이 있고 실행력이 있는 상태였다면 그 반대가 되었을 것이다. 어쨌든 당시의 양계초의 입장에서는 경제력의 향상조차도 일차적으로는 개인의 각성에 의지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라도 소모자가 생산자로 전환하면 중국의 총생산량은 몇 배로 증가할 것이고, 증가된 생산량이 자본으로 축적되어 산업에 투자되면 중국의 경제는 탄탄대로를 달릴 것이었다.

(q1.3.4.6.4.2) 오늘날은 경제 경쟁의 세계이다. 한 나라의 영고성쇠는 여기에 달려 있다. [...]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어떤 것인가? 정부 당국은 본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또 꼭 정부당국의 한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나라 안의 생산자를 늘리고 소모자를 적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 실천상의 순서는, 먼저 나 자신이 소비자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학문의 이치를 밝혀서 전 국민들에게 소모자가 되는 것의 부끄러움을 알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정책을 강구하여 이전의 소모자에게 스스로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을 찾게 하여 생산자로 바뀌게 하는 것이다.(제14절, p.95~96)

1.3.4.7 상무정신이 결여된 중국

(e1.3.4.7.1) 중국의 문화는 중국인들이 몇 천 년 동안 주위 이민족들을 야만인들이라고 무시할 수 있게 해준 그들의 자존심이었다. 그들이 자랑하던 찬란한 문화의 이면에는 상대적으로 무력을 경시하던 풍조가 있었다. 그러나 진화의 법칙에 따라 과거 어느 때보다도 문명과 문화가 발달한 이 때, 무력 또한 과거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생존경쟁의 시대에 문명과 문화는 경쟁력을 의미하고 가장 직접적인 경쟁력은 무력 즉 군사력인 것이다. 중국이 진정으로 문명국가가 되고자 한다면 문약한 풍조를 청산하고 상무정신을 드높여야 할 것이었다.

1.3.4.7.1 무력에 굴복했던 역사

(e1.3.4.7.1.1) 중국은 이천년 이상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민족의 침입을 받았다. 중원을 이민족에게 내준 것도 몇 백 년이 되며 북방 지역을 내준 것은 그보다 더 길다. 양계초가 보기에는, 중국민족이 수시로 이민족들에게 괴롭힘을 받았으면서도 그들을 정벌하러 나서지 않은 것은 허약한 기질 때문이다. 인종적으로 뛰어나고 그들이 넘보지 못할 문화를 가지고 있었지만, 무력이 약했고 또한 기질적으로 무력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민족들이 도발할 때마다 번번이 그들의 말발굽 아래 수모를 겪었다. 만약 중국민족이 이민족에 필적하는 무력을 갖고 있었다면, 아니면 그러한 수모를 겪지 않겠다는 강인한 기상을 갖고 있었다면, 것처럼 매번 앞서서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양계초는 판단했다. 그 전에 그들을 토벌해서 뿌리를 뽑았거나 그들의 무력에 무력으로 맞섰을 것이었다. 그러나 문약한 중국은 그렇게 하지 않고 중국 역사를 수모로 얼룩지게 했다.

(q1.3.4.7.1.2) 아아! 진(秦)나라 이후 지금까지 이천여 년이 지났다. 황제의 자손이 타민족에게 굴복한 햇수는 300여년 되며, 북방의 동포가 타민족에게 굴복한 햇수는 700여년이 된다. 변방에서의 충돌, 봉화를 올렸던 소동까지 합하면 편안한 해는 한해도 없었다. 그런데도 끝내 분노하며 진격

하여 그 오랑캐들을 꺾은 적이 없으며 분노하여 정벌에 나서 그들의 무력을 꺾은 적이 없다. 아아! 신명한 중화의 후예로, 총명하고 뛰어난 인종, 개명된 문화, 어느 것 하나 야만족이 감히 바랄 수 있는 것이었겠는가! 정예 기병의 말발굽 아래 짓밟히면서도 한번을 고개를 들고 눈썹을 치켜뜨며 그들과 대항하지 못했다. 허약한 무력(武力)과 겁 많은 민기(民氣)가 아니라면, 어떻게 그들이 한번 군사를 일으켰다고 바로 그 힘에 굴복하겠는가!(제17절, p.111)

1.3.4.7.2 천성처럼 된 문약(文弱)함

(e1.3.4.7.2.1) 중국을 둘러싼 이민족은 무력으로 중원을 차지한 적도 있고, 또 북쪽에서 터를 잡고 살면서 남쪽으로 밀려난 중국민족을 위협하기도 했다. 것처럼 그들의 무력은 중국을 압도했지만 그들은 결국은 중국의 문화에 압도되었다. 중국 땅에 살게 된 그들 오랑캐들은 결국은 중국문화에 동화되어 중국식의 전장제도를 받아들이고 중국식의 문화에 적응해서 살았다. 그러면서 오랑캐들은 동시에 강인한 전투정신과 돌파력까지도 잃게 되었다. 양계초는 오랑캐들이 중국문화에 동화되었던 역사적 사실을, 오랑캐들이 중국민족의 문약함에 전염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양계초가 볼 때, 중국의 문약함이라는 전염병은 오랑캐들의 상무적 기개까지 좀먹을 정도로 강력하고 뿌리 깊은 것이었다. 그러니 오늘날 중국을 위협하는 백인에게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오늘날의 백인은 문명의 세례를 받아, 발달된 병기, 완비된 훈련, 민족주의로 정신무장한 제국주의 등, 과거의 오랑캐들과는 비교되지 않을 강력한 적이었다. 중국이 이대로 그 문약함을 버리지 못한다면 옛날 오랑캐들에게 당했던 것보다 더 쉽게 백인들에게 굴복할 것이었다.

(q1.3.4.7.2.2) 별 불일 없는 오랑캐에게도 저항하지 못했으니 어떻게 오늘날 우리를 압박해오는 백인들에게 저항하겠는가! 그들은 문명의 이기를 끼고 완비된 훈련을 받아 제국주의를 민족의 운동을 삼고 있다. 그들의 용감함과 강인함은 흉노·돌궐·여진·몽고에 비할 바가 아니니, 한번 패하고 두 번 패하고 끝내 자립하지 못하는 것이 이상할 것도 없다. 중국은

문약하다고 세상에 소문이 나있다. 유약하고 겁 많은 병이 뼈에 스며있다. 심지어는 강인한 성격과 후퇴할 줄 모르고 돌진하는 야만족도 우리에게 동화되어 마찬가지로 이 병에 전염되어 그 근력을 해이하게 해서 강인한 본성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제17절, p.111)

1.3.4.7.3 문약하게 된 원인

(e1.3.4.7.3.1) 천성처럼 되어버린 문약한 국민성을 그대로 지닌 채 백인들의 총탄 앞에서 무력하게 무릎 꿇을 수는 없는 일이다. 양계초는 중국민족의 문약함을 고치기 위해, 중국민족이 문약하게 된 원인부터 추적했다. 그는 중국민족이 문약하게 된 원인으로, 중국이 통일되어 있었다는 점, 문약을 조장한 유교사상의 영향, 패도정치가 오랫동안 이어졌다는 점, 무력을 경시하던 습속 등, 네 가지를 들었다.

(q1.3.4.7.3.2) 아아! 강자는 하루아침에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약자는 하루아침에 약해지는 것이 아니다. 서리가 내리면 얼음 얼 때를 대비해야 하는 법이니 모든 것은 점차로 오는 것이다. 나는 (우리의 상무정신이 약한) 병의 근원을 살펴, 네 가지로 정리했다.(제17절, p.111)

1.3.4.7.3.1 국세의 통일

(e1.3.4.7.3.1.1) 전쟁시대에는 자연히 무(武)를 숭상하고 평화시대에는 또한 자연히 문(文)을 숭상한다. 오랫동안 평화시대가 지속되다 보면 사람들은 무력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무력을 향상시키는 일체의 작업들을 폐기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자연히 정신·기력·체력 모두가 부드러워지고 약해진다. 중국은 오랫동안 통일국가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무력의 중요성에 대해 잊고 살았다. 사방의 이민족이 끊임 없이 도발했지만 그들의 영토나 그 인간들의 질은 변변치 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중국과 대등한 경쟁자가 되지 못했다. 경쟁 없는 통일국가, 넓은 토지에 풍부한 자원, 중국민족들은 이른바 평화 속에서 사는 일에 익숙해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자기 긴장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허약해

졌을 뿐 아니라 나태하고 부패하게까지 되었다. 양계초는 “온 사회와 나라의 사람이 마치 병자처럼 되고 연약한 여자처럼 되고 온화한 보살처럼 되고 순한 양처럼 되었다.”고 묘사했다. 평화는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누구나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평화가 나를 약하게 하고 나에게 독이 되는 것이 이처럼 혹독한지를 모르는가!” 하고, 양계초는 오랫동안 평화를 누려왔던 중국의 역사를 원망한다.

(q1.3.4.7.3.1.2) 통일되어 있는 세상에서는 생존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데도 같이 경쟁할 상대가 없으니, 문을 닫고 배개를 높이 하고 자도 위협할 상대가 없다. 그 전의 용기와 무공을 다시 사용할 일이 없어지니 마음은 점점 해이해지고 기력은 점점 부드러워지며 빠는 점점 물러지고 힘은 점점 약해진다. 전국시대에는 무를 숭상하고 통일시대에는 문을 숭상한다. 일의 추세가 반드시 그러하니 스스로도 그렇게 되는 것을 모른다. 우리 중국은 진 이래로 오랫동안 통일시대를 이루었다. 그 사이에 남과 북으로 나뉜 일도 있었지만 2~3백 년에 불과했고 결국에는 다시 통합되었다. 토지는 넓고 자원은 풍부했다. 그 주위를 이민족이 둘러싸고 있었어도, 그 땅은 군현으로 편입시킬만하지 않았고 그 사람들은 신민(臣民)으로 삼을 만하지 않았으니, 결국은 오랑캐로서 나란히 경쟁하기에는 부족했다. [...] 문(文)을 중시하고 무(武)를 경시하는 습관이 형성되어 무에 관계된 일은 폐기되고 민기(民氣)는 유약해졌으니, 이천 년 동안 부패하고 패배적인 기운과 습관이 국민의 뇌에 깊이 파고들어, 온 사회와 나라의 사람이 마치 병자처럼 되고 연약한 여자처럼 되고 온화한 보살처럼 되고 순한 양처럼 되었다. 아야! 누가 쟁관을 싫어하고 평화를 좋아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평화가 나를 약하게 하고 나에게 독이 되는 것이 이처럼 혹독한지를 모르는가!(제17절, p.111~112)

1.3.4.7.3.2 유교의 도덕주의

(e1.3.4.7.3.2.1) 기독교나 불교, 유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는 대개 어느 한 집단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행복에 대해 가르친다. 그런데 양계초가 보기에 기독교를 믿는 국가의 국민은 호전적이고 강인한 기풍이 있으며, 심지어 불교를 믿는 국민들도 생사에 집착하지 않는 교리 때문에 죽음에

의연한 기풍이 있다. 오직 유교를 믿는 국민들만이 유약하고 겁이 많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유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믿고 그 선한 본성을 발휘하여 스스로 덕 있는 사람이 될 것을 추구한다. 또한 그러한 덕으로 타인을 대하면 선한 본성을 갖고 있는 타인 역시 덕으로 내게 응대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상대가 내게 나쁜 것을 했어도 보복하는 대신 그를 감화시키지 못하는 자신의 도덕성에 대해 반성하며 그에게 더욱 심화된 도덕성으로 대한다. 양계초는, 도덕으로 모든 인간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유교의 도덕주의가 중국인들을 이처럼 허약하게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침단 무기를 들고 민족주의로 무장한 백인 민족 국가들이 중국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데, 그에게 역시 관대함과 부드러움의 도덕으로 응답할 것인가?

(q1.3.4.7.3.2.2) 종교의 이론은 대개 세계주의로 기울어있다. [...] 그러나 예수교의 국민은 모두 강인하고 호전적인 기풍이 있고, 불교를 믿는 국민 역시 생사를 경시하는 성질이 있다. 유독 유교 국가만이 겁 많고 유약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중용』에서는 “관대함과 부드러움을 가르치고 무도함에 보복하지 않는다.”고 하며, 『효경』에서는 “신체와 머리털, 피부는 함부로 훼손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래서 전국시대 때는 “유가는 나약하고 느슨하다.”는 비난을 들었다. [...] 아아! 상대가 내게 무도한 짓을 해도 보복하지 않는다는 것은 옛날에는 현명하고 유덕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 도를 가지고 지금의 생존경쟁·약육강식의 세상에 임한다면, 그 도를 가지고 사납고 날쌔고 호랑이처럼 먹이를 노리는 사람들과 대적한다면, 이는 강도가 집에 들어와 목에 칼을 들이대는데도 그들과 도덕을 고준담론하려는 것과 같다. 생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치욕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겠는가!(제17절, p.112~113)

1.3.4.7.3.3 패도의 영향

(e1.3.4.7.3.3.1) 중국이 문약하게 된 셋째 원인으로 양계초는 패도의 정치가 오랫동안 이어졌다는 사실을 들었다. 패도(霸道)란 무력으로 세상을 얻은 것으로서 덕으로써 세상을 얻는다는 왕도(王道)와 대비되는

말이다. 그들은 무력으로 권력을 얻었으므로 언제든지 타인의 무력에 의해 자신의 권력 역시 탈취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그는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나라 안의 모든 사람들이 무력을 키우지 못하도록 한다. 중국의 왕조 교체의 역사를 보면, 모든 왕조의 시작은 모두 패자들에 의해서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무력을 일으켜 권력을 잡고 그 권력이 정치권력으로서 안정되면 그 다음에는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무력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씨를 말린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쓴다. 당근과 채찍이다.

(q1.3.4.7.3.3.2) 패자가 천하를 얻게 되면 안정된 뒤에는 모두 무를 누르고 문에 주력하는 정책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 패자들이 천하를 얻는 과정은 대개, 초야에서 일어나서 고난의 전투를 통해 강한 완력을 얻고 영웅들을 굴복시켜 그들의 땅을 빼앗는 식이다. 그는 천하가 힘으로 정벌되고 경영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내가 무력으로 타인의 것을 빼앗았으면 타인 역시 무력을 나의 것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리하여 자루 끈을 단단히 매고 금궤에 자물쇠를 굳게 채우는 정책을 채택해서 힘 있는 자들이 부담스러워 떠나도록 하기에 힘쓴다.(제17절, p.113)

1.3.4.7.3.3.1 패도의 정책1 - 족쇄

(e1.3.4.7.3.3.1.1) 자신을 위협하는 무력을 잠재우는 첫 번째 방법은 채찍이다. 패자는 세상을 제패한 후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을 무장해제하려 한다. 거기에 반항하는 사람들은 가차 없이 처형한다. 위험인자를 제거한다는 의미도 있고 본보기의 의미도 있다. 그러므로 혹독하게 처형한다. 그가 세상을 제패하는데 지대한 도움을 주었던 건국공신이라도 예외는 없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욱 위험하다. 그 무력을 키우는 자, 약하게 되기를 거부하는 자의 처형은 자기 “한 사람만 굳세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부드러우며, 한 사람만 강하고 나머지 천하사람 모두 약”해질 때까지 계속된다. 그러므로 패도의 중국 역사 속에서 중국민족의 무력은 살아남을 수 없었다.

(q1.3.4.7.3.3.1.2) (제후의 불리함을) 제거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하나는 ‘족쇄’이다. 한 사람만 굳세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부드러우며, 한 사람만 강하고 나머지 천하사람 모두 약한 것이 패자들이 천하를 차지했을 때의 실정이다. 감히 유약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용서 없이 살해되며 전에는 건국의 공훈자이고 그에 의지해서 성을 지켰더라도 가차 없이 삼족을 멸해 그 자손이 일으킬 소란까지 미리 제거한다. 감히 몰래 소리를 내며 비판하거나 비분강개하여 일터에서 비가(悲歌)를 부르는 사람은 더욱 금기를 어긴 자로서 반드시 엄형을 적용해 목을 베어 다시는 비슷한 사람이 없도록 한다.(제17절, p.113)

1.3.4.7.3.3.2 패도의 정책2 - 회유(懷柔)

(e1.3.4.7.3.3.2.1) 채찍은 이쪽에 힘이 있는 한에서 사용할 수 있다. 만백성을 감시하고 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긴장과 흔들림 없는 위력이 필요하다. 그것을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한 통제방법이 필요한 시기가 있지만 결코 경제적이지 않은 방법이다. 통제에 필요한 힘을 줄일 수 있으면서도 또 효과적이기도 한 방법은 상대를 약하게 하는 것이다. 즉 평화적인 방법으로 상대를 무장해제 시키는 것이다. 법령을 만들어 지키게 하고 여러 가지 회유정책을 써서 포상을 하는 방법을 비롯해, 문학과 예술을 장려하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작은 힘으로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는 사이에 백성들의 재력(材力)도 약해지고 근골도 약해지고 언론도 약해지고 사상도 약해지고 정신도 약해진다. 이렇게 되면 “무기를 들어 베지 않고 칼을 갖고 위협하지 않아도 천하의 영웅이 모두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니 과거에 몰래 비판하거나 비분강개의 비가를 부르는 호기(豪氣)는 이제 없다.” 약해빠진 백성들만 있을 뿐이다. 이것이 중국이 문약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이다.

(q1.3.4.7.3.3.2.2) 족쇄를 사용할 힘이 다하면 이제 ‘회유’의 방법으로 바꾼다. 율령제도로써 회유하고 시부와 사장으로 회유하고 과거제도로써 회유하며, 정치적 시행으로써 회유한다. 재력을 유화(柔化)시키고 근골을 유화시키고 언론을 유화시키고 사상을 유화시키고 정신을 유화시키기에

이른다. 천하의 인사들 가운데 간혹 걸출한 영웅이 있어도 모두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시와 문장을 읊으며 우환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가늠하는 가운데 복잡한 마음으로 노래하고 울게 하니, 재력과 무력에서 다시 경쟁할 정신과 재력이 없다. 무기를 들어 베지 않고 칼을 갖고 위협하지 않아도 천하의 영웅이 모두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니 과거에 몰래 비판하거나 비분강개의 비가를 부르는 호기(豪氣)는 이제 없다.(제17절, p.114)

1.3.4.7.3.4 무력을 경시하던 습속

(e1.3.4.7.3.4.1) 중국민족을 문약하게 만든 네 가지 원인 가운데 마지막 것은 중국의 풍습 또는 습속이다. 유교의 이론이나 패자의 정책과 같은 분명한 의도를 가진 것 말고도, 그 것들의 영향 때문이었지만, 그러한 이론이나 정책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것이 바로 백성들 사이에 뿌리내리고 있는 습속이다. 중국 민간에서 전해오는 “좋은 쇠로는 못을 만들지 않고 좋은 사람은 군인이 되지 않는다.”는 속담은 무력을 경시하는 풍조가 민초들 사이사이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음을 웅변한다. 민간에서 군인이라는 호칭은 무뢰한의 대명사로서, 시골뜨기라는 호칭보다도 더 떨어지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고 하니, 어느 정도로 군인이 천시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부모 밑에서 자란 정상적인 백성이라면 군인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당연히 무력의 신장이라는 것은 기대할 수 없었을 것이다.

(q1.3.4.7.3.4.2) 사람을 움직이는 힘 가운데 습관만큼 큰 것이 없다. [...]풍기와 견문이 혼숙되어 나날이 쌓이고 다달이 쌓여 오래되면 제2의 천성이 된다. 우리 중국이 무를 경시하던 습속은 옛날부터 형성되었다. 속담에 “좋은 쇠로는 못을 만들지 않고 좋은 사람은 군인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그러므로 이른바 군인은 악렬한 무뢰한의 대명사였을 뿐 아니라, 무사라는 호칭은 시골뜨기라는 호칭에도 못 미치는 것이었다. (제17절, p.114)

1.3.4.7.4 자주지권을 보장하는 것은 자위권

(e1.3.4.7.4.1) 개인이든 국가이든 이 세상에서 인간다운 인간 또는 국가다운 국가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의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자주권이 있어야 한다. 그 자주권은 어떻게 얻어지는가? 양계초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무력, 즉 자위권(自衛權)만이 자주권을 가능하게 한다고 역설한다. 자위권이 있어야만 당시와 같은 정글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정글에서의 생존방식은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무력에는 무력으로 응대하는 것일 뿐이다. 공법公法 같은 것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양계초는 모를 수 없었다. 그렇다면 오랫동안 문약했던 중국에게 시급한 일은 그 무엇보다도 무력을 키우는 일이다.

(q1.3.4.7.4.2) 사람이 살 수 있고 나라가 성립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자주지권(自主之權)이다. 그러나 그 자주지권이 보전되는 것은 자위권(自衛權)이 뒤에서 받쳐주기 때문이다. 남이 내게 욕을 하면 나도 욕으로 받아야 하며 힘으로 나를 능멸하면 나도 힘으로 대항해야 한다. 이것이 외부의 모멸을 물리치고 호시탐탐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들 틈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런데 타인에게 욕을 되갚고 강한 힘으로 대항하는 일은 공법(公法)에 의거해서 그들에게 죄를 주는 식으로는 효과를 볼 수 없다. 반드시 내적으로 견인불발의 무력을 가진 후에야 스스로를 지키는 실권을 실행할 수가 있다.(제17절, p.115)

1.3.4.7.5 상무정신을 위해 키워야 할 세 가지

(e1.3.4.7.5.1) 그런데 양계초가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무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하기 훨씬 전부터 청(淸)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군사력을 키우려는 시도를 했었다. 바로 ‘양무운동(洋務運動)’이라고 불리는 개혁운동이었다. 아편전쟁 후에, 서양의 선진적인 문물을 인정한 중국정부는 정부차원에서 서양의 군사적·공업적 방면의 문물을 도입함으로써 부강하게 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이 운동의 주도자들은 “무기와 공업기술은 변할 수 있지

만 도덕적 원리나 제도는 변할 수 없다.”는 믿음을 공유했다. 즉 그들은 중국적 세계관과 가치관은 지키면서 물질적 문명만을 받아들여려고 했다. 그들이 “서양을 배워 부강을 꾀한 것은, 중국을 보존하고 명교(名敎)를 보존하기 위해서”였다.

(e1.3.4.7.5.2) 1895년 청일전쟁에서의 패배는 동시에 양무운동의 실패를 웅변하는 것이기도 했다. 강유위(康有爲)와 그의 제자인 양계초가 주도했던 무술변법운동은 양무운동의 실패를 딛고 정치제도의 개혁, 정신의 계몽을 기치로 내걸었다. 군사력은 강유위·양계초의 변법파에게도 중요했다. 그러나 양무운동의 주도자들이 군사력의 근본이 무기에 있다고 생각했다면, 강유위·양계초는 국력의 근본은 군사력 자체가 아니라 총체적인 정치제도와 교육에 있다고 생각했다. 무술변법운동 당시의 양계초는, 군사력의 증강을 위해서는 군사학을 연구해야 하고, 군사학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세워야 하며,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는 정부체제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論不變法之害』, 『변법통의』)

(e1.3.4.7.5.3) 『신민설』을 발표할 당시의 양계초의 처지는 무술변법운동 시기처럼 정책을 통해 개혁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망명 시기였다. 정부 차원의 정책을 생각할 수 없는 처지의 양계초는 이제는 중국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분발을 촉구할 수밖에 없었다. 양계초는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군사가 될 국민의 자질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자질을 정신력, 담력, 체력의 셋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q1.3.4.7.5.4) 나는 우리나라가 군사력을 키우려고 한다는 것을 수십 년 전에 들었다. 군함을 사들이고 병사를 훈련시키고 공장을 만들어 무기를 제조하고 군대를 정비한데 힘 쓴지 오래 되었다. 그러나 그 효과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들이 키우려한 군사력은 형식이고 내가 키우려 한 군사력은 정신이다. 정신이 없이 다만 형식만 있다면 이는 호랑이 가죽을 뒤집어쓴 양일뿐으로, 그를 맹수와 싸우게 하면 맹수의 먹이가 될 뿐이다. 정말로 상무정신을 키우려 한다면 세 가지 힘을 갖춰야 한다.(제17절, p.115)

1.3.4.7.5.1 정신력(心力)

1.3.4.7.5.1.1 불가능을 모르는 정신력

(e1.3.4.7.5.1.1.1) ‘정신력’이란 말을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육체적인 힘’과 상대어가 될 것이다. 육체적인 힘만을 놓고 본다면 건장한 남자와 신장과 체중에서 열세인 여자가 싸우면 남자가 이길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싸움의 결과가 늘 한가지인 것은 아니다. 여자가 이길 때도 있다. 양계초에 의하면 정신력이란, 그렇게 육체적으로 열세인 여자가 가령 자기 아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발휘하는 것과 같은, 설명하기 어려운 힘이다. 즉 정신력은 육체적인 힘의 열세를 만회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다. 만회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능가하는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고 양계초는 강조한다. 특히 “원수를 갚고, 치욕을 갚고, 어려움을 견디고, 큰 계획을 세우고, 큰일을 맡는 등”의 객관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양계초는 정신력만 있으면 해낼 수 있다고 말한다. 반대로 아무리 우월한 물리력을 갖추고 있더라도 정신이 해이하다면 그 물리력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싸움의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물리력보다도 정신력일 수도 있다.

(q1.3.4.7.5.1.1.2) 서양 학자의 말에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것이 있다. 약한 여자가 홀연 강한 어머니가 되는 것은 그 사랑의 정신이 온통 아들 한 몸으로 모였기 때문이다. 아들에게 급한 일이 있으면 몸을 던져 달려간다. 고통스럽고 험난하고 무서운 곳에도, 건장한 장부도 머뭇거리는 그러한 곳에도 그는 손을 흔들며 앞으로 달려간다. 이전의 겁 많고 나약한 모습이 완전히 바뀐 것이다. 그의 눈, 그의 마음속에 오직 아들만이 있을 뿐이다. 자신의 몸을 돌아보지 않으니 어떻게 고통스러운 것, 험난한 것, 무서운 것이 보이겠는가! 정신력이 흐트러지면 용감한 자도 역시 겁을 먹는다. 정신력이 집중되면 약자라도 강해진다. 그러므로 원수를 갚고, 치욕을 갚고, 어려움을 견디고, 큰 계획을 세우고, 큰 일을 맡는 등의 일을, 현명한 자도 도모하지 못하고 귀신도 알 수 없는 것이라 해도, 지극한 정성을 가진 사람의 정신력에 의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제17절, p.115)

1.3.4.7.5.1.2 당면의 위기를 돌파할 정신력

(e1.3.4.7.5.1.2.1) 그러한 정신력이 있다면, 물리적으로는 서양인들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에 있는 중국인들도 서양인들에게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정신력의 가장 큰 효용은 그러한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었으리라. 즉 정신력이 강조되어야 하는 때는, 객관적으로 육체적인 힘, 즉 물리적인 힘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을 때일 것이다. 자신이 갖고 있는 객관적인 힘 이상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것은 바로 당시 중국의 상황이었다.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겹겹이 둘러싸인 채 고립되어 있는 중국은, 공포에 떨면서 그들이 그 포위망을 점점 좁혀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상식적으로라면 앉아서 죽는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정신력을 발휘한다면 죽음을 무릅쓰고 그 포위망을 돌파할 것이다. 실제로 살 수 있는 방법은 그것 한 가지이다. 정신력을 집중시킨다면 두려움도 느낄 수 없을 것이고 불가능한 일은 없을 것이다.

(q1.3.4.7.5.1.2.2) 지금 외국인이 우리를 압박해 온다. 그 범위는 점점 좁혀 들고 그 세력은 날로 급박하게 압박해 온다. 백만의 무기와 군사들이 우리 고립된 군사들을 겹겹이 싸고 우리를 압박해 온다. 앞으로 돌파해 나가는 일 말고는 살 길이 없다. 뒤에는 호랑이가 쫓아오니 겹쟁이라면 계곡을 넘어 도망갈 만하다. 집에서는 불이 나고 있으니 약한 여자라면 담을 넘어 도망할 것이다. 나는 우리 동포들이 격렬한 열성을 발휘하고 용기를 고무하여 묵묵히 양손을 끼고 죽음을 기다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제17절, p.116)

1.3.4.7.5.2 담력

1.3.4.7.5.2.1 두려움을 모르는 담력

(e1.3.4.7.5.2.1.1) 담력은 두려움을 모르는 용기이다. 어려움이나 두려움을 뒤돌아보지 않는 거친 기운이다. 이런 힘을 가진 사람은 어디에서도 살아남는다. 양계초는 두려움이란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한다. 스스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위축된 마음에 외부환경이

파고들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더욱 키운다는 것이다. 스스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만들지 않는 기운이 바로 담력이다. 담력이 있다면 두려운 것이 없을 것이고, 어떤 험난한 상황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오로지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q1.3.4.7.5.2.1.2) 세상 어디를 가나 어려운 일이 있지만 오직 담력이 있는 자만이 어려운 일이 없다. 세상에 어디를 가나 무서운 길이 있지만 오직 담력을 가진 자만이 무서운 길이 없다. 하늘이 어찌 이 어려운 일과 무서운 길을 그들만을 위해 사사롭게 없앴겠는가! 인간 세상의 모든 일은 사람 마음이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내가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고 무섭다고 여기면 마음이 먼저 굻주리고 기가 먼저 위축되어, 외부환경이 그 허탈하고 빈 곳을 파고들어 막아버린다. 만약에 거칠게 뒤돌아보는 일이 없다면 그 기는 다시 살아나서 사지에 갖다놓아도 살아남으며 망지에 갖다놓아도 살아남는다. [...] 예부터 영웅호걸이 세상에 흔치 않은 공을 세워 건국의 위업을 달성했는데 이는 한결같이 이 담력으로써 큰 위협을 무릅쓰고 큰 어려움을 이겨낸 것이었다.(제17절, p.116)

1.3.4.7.5.2.2 담력은 자신감에서

(e1.3.4.7.5.2.2.1) 담력은 스스로를 믿는 마음에서 생긴다. 맹자의 말처럼 자신이 몇몇하지 못하면 사소한 것이라도 두려울 것이지만 몇몇하다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 담력은 그러한 몇몇함에서 생긴다. 중국에 들어온 한 영국 장교가 “중국인들은 전 세계를 유린할 자격이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양계초는 읊는다. 그러한 잠재력이 있음을 믿고 자신을 가지라고 양계초는 중국인들을 향해 말한다. 두려움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고, 두려움 자체가 외부의 침입을 도발한다고 양계초는 생각했다. 두려움은 타인의 모멸을 부르고 전쟁을 두려워하는 국민은 전화를 입는다. 외부의 능멸이란 스스로 만든 두려움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국인들이 해야 할 일은 두려움 없는 마음 즉 담력을 키우는 것이며, 담력은 자신감을 갖는 데서 생긴다. “중국인들이 전 세계를 유린할 자격이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다면 외국은 이쪽을

감히 넘보지 못한다고 양계초는 주장했다.

(q1.3.4.7.5.2.2.2) 그런데 담력이란 자신감에서 생긴다. 맹자는 “스스로 돌아보아 옳지 않다면 갈옷을 입은 일반 백성이라도 나는 두려워하며, 스스로 돌아보아 옳다면 천만 인을 대적하는 일이라도 나는 하리라.”고 했다. 나라의 흥망 역시 마찬가지이다. 타인을 믿지 말고 자신을 믿으라. 국민이 나라가 흥할 것이라고 자신하면 나라는 흥하고, 국민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자신하면 나라는 망한다. 영국인 장교 웨이슬리는 “중국인들은 전 세계를 유린할 자격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우리는 이러한 자격이 있는데도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용기를 내지 못한다. 이러한 자격을 갖고 있는데도 경쟁의 전쟁터에서 열강과 마주해서는 날마다 외국인이 우리 땅을 분할할까봐 두려워하고 날마다 외국인들이 간섭할까봐 두려워한다. 스스로 분발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다만 겁만 내니, 야수와 같은 저들 이민족들이 어떻게 우리 겁쟁이들을 분할하고 간섭하려 하지 않겠는가! 아아! 겁쟁이는 모욕의 모의를 부르고 전쟁을 두려워하는 자는 반드시 전화를 입는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니, 두렵고 겁 많은 자에게 무슨 행운이 있으랴!(제17절, p.116)

1.3.4.7.5.3 체력

1.3.4.7.5.3.1 체력은 군국주의 국민의 자격

(e1.3.4.7.5.3.1.1) 군사력은 병역의 의무에 종사하는 국민의 힘에 의해 창출된다. 양계초에 의하면 체력이 그 군사력의 기본이다. 유럽의 제국주의 국가는 초등교육과정에서부터 체육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특히 독일의 황제는 노골적으로 체육이 병역을 감당하고 전쟁영웅을 잉태할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양계초 역시 그러한 국민의 양성을 “군민(軍國)의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이해한다. 근대국가란 온 국민이 참여하는 총력전이며 결국은 온 국민의 군인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이해한 것이다. 체육교육은 그를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

(q1.3.4.7.5.3.1.2) 육체는 정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건강하고 강건한 육체가 있어야 견인불발의 정신이 있다. [...] 독일황제 빌헬름2세는

베를린의 초등학교에서 다음과 같이 훈시했다. “우리 독일신민은 모두 체육에 유의해야 한다. 체육을 하지 않으면 남자는 병역을 감당할 수 없고 여자는 우리 위대한 영웅을 잉태할 수 없다. 인종이 강하지 않으면 나라가 어디에 의지할 것인가!” 그러므로 유럽 여러 나라들은 체육에 대단히 열심히 종사한다. 체조 외에도 검도, 승마, 축구, 사격, 수영 등의 운동경기를 한다. 모든 체육을 장려하니 온 국민이 모두 군국민(軍國民)의 자격을 갖추었다.(제17절, p.116~117)

1.3.4.7.5.3.2 체력은 국력

(e1.3.4.7.5.3.2.1) 국민의 체력은 그대로 국력이다. 병든 국민이 모인 나라는 병든 나라이다. 튼튼한 국민들은 강력한 국가를 만든다. 이 세상의 생존경쟁은 피할 수 없다. 우월한 자만이 살아남는 세상이다. 만약 중국인이 단련한 적 없는 허약한 몸으로, 어려서부터 매일 체력을 단련하는 제국주의 국민들과 대적한다면 승패는 불을 보듯 뻔하다. 양계초는 앉아서 망하지 않도록 근골을 단련하고 용기를 길러야 한다고 중국인들에게 촉구했다.

(q1.3.4.7.5.3.2.2) 아아! 나라 안 사람이 모두 병자라면 그 나라가 어떻게 병든 나라가 안 되겠는가! 이런 나라 국민이 맹수와 같은 이족을 만난다면 이는 난장이가 거인을 만나는 것과 같아서, 거인이 손에 아무 무기도 들지 않아도 손 한번 휘두르는 것으로도 난장이는 무너져 내릴 것이다. 아아! 생존경쟁, 우승열패여! 나는 우리 동포는 근골을 단련하고 용기를 길러서, 멍하니 앉아서 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제17절, p.117)

2. 국민

2.1 근대국가의 국민

2.1.1 국민은 국가 권위의 근원

(e2.1.1.1) 민족주의 국가는 지연, 혈연, 문화 공동체인 민족이 결성한 정치 공동체이다. 양계초에 의하면 민족국가는 국가 단위로 경쟁이 이루어지는 근대 생존경쟁의 시대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형태이다. 근대 민족국가의 권위는 전제왕조시대처럼 혈통과 신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근대국가의 권위는 국민에 의해 창출된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그 주권을 대표자에게 양도하는 형식으로 국가의 권위가 창출된다. 그러므로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며 국력의 신장은 국민의 책임이다. 근대국가의 국민은 스스로의 나라를 위해 자발적으로 바람직한 국민이 되어야 한다.

2.1.2 국가의 역량은 국민의 역량

(e2.1.2.1) 근대국가는 국민의 나라이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 책임과 의무에 의해 성립하고 지탱된다. 국민의 역량이 그대로 국가의 역량이 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경쟁력이 모여 국가의 경쟁력이 된다. 양계초는 근대국가의 이상적인 형태에 대한 구상을 갖고, 실제적으로는 그 구상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그 국가의 구성원이 될 이상적인 국민상(國民像)을 제시하고 그것을 중국인에게 요구하는 일을 했다. 그것이 이른바 ‘계몽’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그의 작업이었다. 양계초가 바라는 근대 민족 국가의 가장 중요한 특질이 강한 경쟁력이라면 그 국가를 이룰 국민의 가장 중요한 특질은 그 경쟁력이 될 것이다.

(q2.1.2.2) 나라는 백성이 쌓여서 이루어진다. 나라에 백성이 있는 것은 몸에 사지·오장·혈맥이 있는 것과 같다. 사지가 단절되면 오장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혈맥도 상쳐입고 혈관도 마른다. 그러므로 몸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 나라도 마찬가지이다. 백성이 어리석고 나약하고 비겁하고 뽀뽀이 흩어져 있고 혼탁한데도 나라가 성립할 수는 없다. 불로장생하기를 바라다면 쉼생술을 연구해야 할 것이며, 나라의 평안과 번영을 바라다면 신민(新民)의 도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제1절, p.1)

2.2. 근대 중국의 국민- 신민

(e2.2.1) 중국이 근대적 민족국가를 이룩해야 하는 필연적인 상황에 직면했다면, 중국인들은 그 국가를 성립시킬 근대 국가의 국민이 되어야 한다. 근대적 민족국가를 성립시킬 주체는 중국의 인민이다. 그들은 과거의 군주제 밑에서 정치에서 소외되었던 그 인민이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국가 권력의 정당성의 원천이 될 그러한 존재이어야 한다. 그 근대국가의 국민을 양계초는 ‘새로운 백성’이라는 의미로 ‘신민’(新民)이라고 불렀다. 양계초의 구상으로는, 중국인들이 신민이 되면 중국은 자연히 근대적 민족국가가 될 것이었다.

2.2.1 신민의 의의

(e2.2.1.1)민족국가를 구성해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외부로부터 오는 압력 때문이다. 외부의 민족주의 국가들 때문이다. 그들 민족국가들은 자신들의 넘치는 힘을 주체하지 못해 외부로 그 힘을 분출시켜 어느 땅이든 상륙해서 자신들의 식민지로 만들려고 한다. 대등한 힘 이상으로 대항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식민지로 전락할 일만이 남았다. 그들이 민족 전체의 힘으로 위협해 오는 것이라면, 이쪽도 민족 전체의 힘이 아니고서는

대항하지 못할 것이다. 즉 중국민족 전체의 힘이어야 한다. 그들에게 대항에 당당하게 살아남는 길은 중국민족 전체의 힘에 의해 성립하는 중국 민족주의를 실행하는 것, 즉 근대적 민족국가를 성립시키는 방법뿐이다. 양계초는 “중국의 민족주의를 실행하려 한다면 신민에 의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신민은 중국 민족주의를 책임질 중국의 새로운 주인이다.

(q2.2.1.2) 저들이 한두 사람의 공명심 때문에 오는 거라면 우리도 한두 사람의 영웅에 의지해서 대적할 수 있다. 저들이 멈출 수 없는 민족의 세력 때문에 오는 거라면 우리 민족 전체의 능력을 합해야만 저지할 수 있다. 저들이 한때의 피 끓는 용맹으로 쳐들어오는 거라면 우리도 한 때의 혈기를 고무해서 막아낼 수 있지만, 저들이 장기적인 정책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쳐들어오는 거라면 우리도 백년의 크고 긴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생존조차도 기대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오늘날 열강의 민족제국주의에 대항하여 그 재난에서 인민을 구제하려 한다면, 오직 우리의 민족주의를 실행한다는 한 가지 방법만이 있을 뿐이다. 중국의 민족주의를 실행하려 한다면 신민(新民)에 의지 하지 않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

(제2절, p.4~5)

(e2.2.1.3) 근대적 민족국가의 주인은 국민 개개인이다. 개개인이 갖는 경쟁력이 쌓여 국가의 경쟁력이 된다. 그러므로 국력은 전적으로 개개인에게 달려 있다. 국민의 1할도 안 되는 귀족들이 힘을 합하는 나라와 전체 국민이 힘을 합하는 나라가 싸운다면 그 때의 승패는 불을 보듯 뻔하다. 지금은 동일한 민족국가의 성원이라는 정체성을 공유하며 구성원 하나하나가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 때이다. 국가를 구성하는 인구수가 중요하다면 중국은 세계 제일이다. 그러나 지금 이대로의 중국인으로는 안 된다. 지금 이대로는 근대국가의 국민이라고 할 수 없다. 그들이 근대국가의 국민이 되어 진정으로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자 한다면 몇 번을 거듭해야 한다. 또한 그것만이 중국이 근대의 민족국가가 되어 세계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남는 길이다. 모든 책임은 중국인 개개인에게 있다. 개개인이 참다운 신민이 되는 데에 달려 있다.

(q2.2.1.4) 지금 초야의 우국지사는 왕왕 홀로 깊은 생각에 잠겨 “어떻게 현명한 임금과 재상을 만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고 탄식한다. 나는 이른바 현명한 임금과 재상이 어느 정도이어야 그럴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오늘날의 민덕·민지·민력의 상태대로라면 현명한 임금과 재상이 있어도 또한 뒤가 좋지 않을 것이다. 나폴레옹은 세상의 이름난 장수이다. 그러나 그 군대의 병사가 게을렀다면 흑인종의 야만인들을 대적하지 못했을 것이다. 콜럼버스는 항해의 대가이다. 그러나 썩은 나무로 만든 배였다면 해협을 건너지 못했을 것이다. 저들 임금과 재상도 혼자서는 다스릴 수 없다. [...] 영국과 미국 등 각국의 국민은 항상 현명한 임금과 재상에 기대지 않고서 충분히 정치를 한다. 그들 원수는 요순과 같은 무소위(無所爲)의 정치를 할 수도 있고 성왕과 같은 무소위의 정치를 할 수도 있다. 그들 관리는 조참(曹參)처럼 술 마시며 무소위의 정치를 할 수도 있고 성진(成瑨)처럼 한가하게 앉아 노래 부르며 무소위의 정치를 할 수도 있다. 어떻게 가능한가? 국민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임금과 재상은 국민에게 의지하지만 국민은 임금과 재상에게 의지하지 않는다. 작은 나라도 그러한데 우리 중국처럼 넓은 나라는 말할 것도 없지 않은가! 한두 사람의 긴 채찍으로는 말의 배에까지 닿을 수 없는 법이다. (제2절, p.2~3)

2.2.2 신민의 의미

2.2.2.1 ‘신’(新)의 두 가지 뜻

(e2.2.2.1.1) 종래의 중국인 그대로는 근대 국가의 국민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새로운 존재가 될 수는 없다.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양계초는 중국인에게 근대국가에 걸 맞는 신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신민(新民)의 ‘신’은 두 가지 뜻을 갖는다고 설명한다. 한 가지는, 본래 가지고 있던 것을 다시 새롭게 살려내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예전에는 없던 것을 밖에서 새로 들여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한 가지가 결여되

어도 신민은 창출되지 않는다. 이제 신민이 되기 위해,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것 가운데 새롭게 살려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밖에서 새로 들여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q2.2.2.1.2) 신민이란 우리 백성들이 옛것을 다 버리고 남을 좇으라고 하는 뜻이 아니다. ‘신’(新)의 뜻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본래 가지고 있던 것을 복돋아서 새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는 원래 없던 것을 채용하는 것이다. 두 가지 신의 뜻에서 하나라도 빠질 경우에는 효과가 없다. 선철(先哲)이 세운 가르침은, 가지고 있는 것을 복돋는 것과 기질을 변화시키는 두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는 내가 말한,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을 복돋는 것과 원래 없던 것을 채용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이다. 한사람의 경우도 이렇고 여러 백성들도 마찬가지이다.(제3절, p.5)

2.2.2.2 보수의 중요성

2.2.2.2.1 지켜야 할 것

(e2.2.2.2.1.1)신민은 중국이라는 민족국가의 국민이다. 중국민족을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중국민족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나라가 아니라 중국을 중국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중국민족이 신민이 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것, 잃어서는 안 될 것, 새롭게 복돋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외적으로는 중국민족이 하나의 민족임을 확인시켜주는 특수성이며, 그리하여 내적으로는 중국민족의 내부를 단결시키는데 작용하는 공통성이다. 양계초는 민족은 “위로는 도덕과 법률에서부터 밑으로 풍속과 습관, 문학, 미술에 이르기까지 모두 일종의 독립된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했다. 중국민족이 새롭게 해야 할 것은 지역, 언어, 문화 공동체를 이루면서 역사적으로 형성해온 이른바 ‘민족정신’이다. 양계초는 중국이 아시아대륙에서 오랫동안 훌륭한 국가를 이루고 유지해온 저력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다른 사회에는 없는 “웅대하고 고상하고 완미한” 것이다. 중국민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 게다가 지금까지 훌륭한 능력을 발휘해 온 그 것, 그것은 중국이 새 시대를 살아가도 잃을 수 없는 중국민족주의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q2.2.2.2.1.2) 한 나라가 세계에 존재하면 반드시 그 국민 고유의 특질이 있다. 위로는 도덕과 법률에서부터 밑으로 풍속과 습관, 문학, 미술에 이르기까지 모두 일종의 독립된 정신을 가지고 있다. 조부가 전한 것을 자손이 이어받은 연후에 사회는 단단해지고 나라는 성립한다. 이것이 실로 민족주의의 근저이고 원천이다. 우리 동포는 아시아대륙에 수천 년 동안 나라를 세워왔다. 반드시 특질을 가지고 있다. 웅대하고 고상하고 완미(完美)한 점은 다른 사회에는 없는 빛나는 점으로, 우리들이 보존해서 잃지 말아야 할 것들이다.(제3절, p.6)

2.2.2.2.2 진정한 수구

(e2.2.2.2.2.1) 자신을 자신에게 하는, 자신만의 고유한 것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지킨다는 것은 옛것을 그대로 간직한다는 뜻은 아니다. 양계초는 나무와 샘물의 예를 든다. 살아있는 나무는 해마다 새잎이 돌아나고 흐르는 샘에서는 끊임없이 새 물이 솟아난다. 새잎이 돌아나고 새 물이 솟아난다고 해도 그 잎과 물은 밖에서 온 것은 아닐 것이다. 나무와 샘의 내부인 근원에서 나오는 것이리라. 양계초는 민족정신의 근원에 대해 생각했다. 그 근원은 말 그대로 뿌리이고 원천이다. 끊임없이 새싹을 틔어내고 새 물을 뿜어내는 일이 있어야 살아 있는 나무이고 샘이다. 민족정신 역시, 계속 갈고 닦고 두텁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양계초는 주장한다. 같은 민족이라도 천 년 전의 민족과 지금의 민족은 다를 것이다. 대면해야 하는 환경이 달라졌으므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성을 새 시대에 맞춰 해석해내고 발휘해야 하는 것이리라.

(q2.2.2.2.2.2) 그런데, 보존한다고 하는 것은 저절로 자라도록 내버려 두면서 질편하게 나는 보존하고 있노라고 떠드는 것이 아니다. 나무에 비유하면 해마다 새싹이 나오지 않으면 바로 말라버릴 것이고, 우물에 비유하면 쉬지 않고 새로운 물이 솟아나지 않으면 역시 곧 말라버릴 것이다. 새 싹과 새 샘이 어찌 외부에서 온 것이겠는가! 오래된 것이면서도 새로운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옛것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세탁하여 그 빛을 발휘하게

한다. 단련하여 그 단서를 완성한다. 배양하여 그 본원을 두텁게 한다. 점점 더 길고 높아질 것이며 나날이 매진할 것이다. 국민의 정신은 이렇게 함으로써 보존되며 이렇게 함으로써 발달한다. 세상에는 간혹 수구라는 두 글자를 가장 혐오스러운 명사로 보기도 하는데, 그러나 어찌 그렇겠는가! 내가 걱정하는 것은 수구가 아니라 진정으로 수구할 줄 모르는 것이다. 진정으로 수구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즉 내가 말하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잘 길러나가는 것이다.(제3절, p.6)

2.2.2.3 진취의 필요성

2.2.2.3.1 새로 채용해야 할 것

(e2.2.2.3.1.1) 신민이 되기 위해, 가지고 있던 것을 복돋는 것 외에, 또 하나 필요한 것은 전에는 없었던 것을 새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전에는 없었던 것 가운데, 지금 중국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자격이라고 양계초는 단언한다. 수신(修身)·제가(齊家)하여 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중국인들은 경쟁이라는 것을 몰랐다. 치국을 한다 해도 그것은 다른 나라와 대립하고 경쟁해서 내 나라를 잘 살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평천하로 나아가기 전의, 평천하보다 작은 범위에서 자신의 도덕성을 발휘하는 단계를 의미했다. 그러므로 이웃 나라는 아직 자신의 도덕성이 미숙해서 감싸 안지 못하는 존재로 남은 것이지, 경쟁해서 무너뜨려야 할 존재가 결코 아니었다. 민족국가들이 경쟁하는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개인으로서의 자격도 아니고 천하인으로서의 자격도 아닌 국민으로서의 자격이다. 그러므로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단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약육강식·우승열패의 시대에 적응하고 나아가 강자가 되고 승자가 되는 것이리라. 지금 중국인이 신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 이전에는 없었으므로 외부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바로 민족국가 시대의 강한 경쟁자가 되는 법을 습득하는 것이다.

(q2.2.2.3.1.2) 본래 가지고 있던 것을 독려하면 족한가? 그렇지 않

다. 지금의 세상은 옛날의 세상이 아니고 지금 사람은 옛날 사람이 아니다. 옛날에 우리 중국은 부민(部民)만 있었고 국민(國民)은 없었다. 국민이 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세(勢)가 그랬다. 중국은 우뚝하게 동쪽에 솟아 있었고 주위에는 작은 오랑캐 나라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다른 큰 나라와 교통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므로 우리 백성은 항상 그 나라를 천하로 여겨왔고 이목으로 접하는 것, 뇌가 접하는 것, 성인·철인이 가르치는 것, 조상이 물려준 것, 모든 것이 한사람으로서의 자격이었고 집안의 일원으로서의 자격이었고 한 동네·한 종족으로서의 자격이었으며, 천하인으로서의 자격이었다. 유독 일국의 국민으로서의 자격은 아니었다.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앞의 것들보다 훨씬 우월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열국의 약육강식·우승열패의 시대에 이 자격이 없으면 천지 사이에 자립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나라를 강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만이지만, 우리나라를 강하게 할 작정이라면 각국의 민족을 자립할 수 있게 해 준 도를 연구하여, 그 가운데 장점을 뽑아 모아 우리의 부족한 점을 보충해야 한다.(제3절, p.6)

2.2.2.3.2 가지가 아닌 뿌리의 이식

(e2.2.2.3.2.1) 양무운동이라는 자강운동의 실패를 거쳐 중국인들은 제도 개혁이 자강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양계초가 스승 강유위와 함께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무술변법운동은, 학교제도와 관리선발제도의 제도개혁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서, 서양 부강의 근원이 그들의 정치·학술·기예 등에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양계초는 그들의 정치·학술·기예보다 더 근원적인 것이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민덕(民德), 민지(民智), 민력(民力)이다. 근대 서양인들의 민덕·민지·민력이 바로 그들의 정치·학술·기예를 낳은 뿌리라고 양계초는 말한다. 그러므로 정치·학술·기예를 수입한다면 그것은 나뭇가지를 잘라다 마른 나무 뿌리에 붙이려는 것과 같다고 비유한다. 정치·학술·기예를 들여와 봤자 자신들의 것이 되지 못한다는 소리이다. 뿌리 채 들여와야 키워서 스스로의 것으로 삼을 수 있다. 그 뿌리가 민덕·민지·민력이다. 종래의 중국에는 없었던 것, 그러나 근대 국가의 국민이 되기 위해 외부로부터 들여와야 할 것, 그것은 서양 문명의 뿌리라고 판단한 민덕·민지·민력이다.

(q2.2.2.3.2.2) 지금 정치, 학술, 기예 등에 대해 논하는 사람들은 모두 사람들의 장점을 취해서 우리의 단점을 보충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민덕, 민지, 민력이 바로 정치, 학술, 기예의 근원이라는 것은 모른다. 이것은 배우지 않고 저것만 배우는 것은 근본을 버리고 그 말단을 쥐는 것이다. 이것이 저들의 나무가 울창한 것을 보고 그 가지를 잘라다 우리의 마른 나무에 붙이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들의 우물이 잘 솟아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우리의 마른 우물에 부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러므로 우리에게 본래 없었던 것으로서 우리를 보충해 새롭게 할 것이 무엇인가에 관해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 없다.(제3절, p.6)

2.2.2.4 보수와 진취의 조화

(e2.2.2.4.1) 신민의 ‘신’(新)은, 원래 있던 것을 새롭게 하는 일과, 전에는 없던 것을 새롭게 받아들인다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그리하여 양계초의 신민은 문명화 또는 서양화 일변도를 지향하지 않는다. 그것은 새로운 문명을 지향하면서 동시에 중국의 전통을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기는커녕 오히려 중국 전통을 보존하고 재해석하는 일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중국의 전통을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서양문명만을 지향한다면 근대국가는 이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양계초가 생각하는 근대국가는 민족국가이며, 서양의 문명만을 받아들여서는 서양의 근대국가와 차별성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국가로서 성립하는데 필수적인 자기 정체성을 갖지 못하게 된다. 즉 다른 국가와 대립하면서 내부의 단결을 기대할 수 있는 자신들만의 공통성을 갖지 못하게 된다. 새로운 문명의 수입과 함께 또한 마찬가지로 필수적인 전통의 보존, 그 둘의 공존을 양계초는 보수와 진취의 조화라고 표현했다. 앵글로색슨인처럼 보수와 진취를 잘 조화시키는 자들이 위대한 국민이 된다고 양계초는 말한다.

(q2.2.2.4.2)세상의 만사는 두 가지 주의를 벗어나지 않는다. 하나는 보수이고 하나는 진취이다. 사람들은 이 두 주의를 취하는데, 어떤 사람은 보수에 치우치고 어떤 사람은 진취에 치우치고 어떤 사람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서 갈등을 일으키고 어떤 사람은 두 가지를 잘 조화시킨다.

어느 하나만을 취한 사람이 성공한 적은 없다. 충돌이 있으면 반드시 조화가 있다. 충돌이란 조화의 선구이다. 잘 조화시키는 자들이 위대한 국민이 된다. 앵글로색슨 인종이 그랬다. 걷는 일에 비유한다면 한발로는 딛고 한발로는 앞으로 나간다. 물건을 줌에 비유한다면 한 손으로는 쥐고 한 손으로는 들어올린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신민이란 서양풍에 취한 사람일 필요가 없다. 우리 수천 년의 도덕과 학술과 풍속을 버리고 남에게 몽땅 구한다면, 이는 수천 년 동안 내려온 도덕과 학술과 풍속을 오로지 지키기만 한다면 대지에 발을 딛고 설 수 있다고 말하며 옛것을 묵수하는 사람만도 못하다.(제3절, p.7)

2.2.3 신민창출의 주체

(e2.2.3.1) ‘신민’이라는 말은 『대학』의 중심 개념이다. 『대학』의 신민은 백성을 지도해야 하는 군자의 일로서 “백성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백성을 도덕적으로 교화하여 새롭게 바꾼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양계초의 신민에서 백성(민)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다. 양계초는 “민이란 새로운 자와 새롭게 하는 자가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 백성 각자가 스스로 새로워지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근대국가의 국민은 더 이상 정치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가 정치의 주체로 등장한다. 양계초는 신민이라는 중국의 옛말을 사용하지만 그가 사용하는 신민의 의미는 여기에서 또 독특함을 발휘한다. 양계초의 신민은 근대국가의 국민으로서 더 이상 수동적이지 않으며, 스스로 새로워지려는 자들이다.

(q2.2.3.2) 어진 임금, 현명한 재상을 책망하는 마음이 깊으면 자신을 책망하는 마음은 열은 법이다. 남을 탓하고 자신을 탓하지 않고 남에게 바라고 자신에게 바라지 않는 악습은 중국이 유신(維新)할 수 없었던 큰 원인이다. 내가 남을 탓하면 남도 나를 탓한다. 내가 남에게 바라면 남도 내게 바란다. 이렇게 4억 인이 서로를 탓하고 원망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면 나라는 누구와 세울 것인가? 신민이란 새로운 자와 새롭게 하는 자가 따로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 백성 각자가 스스로 새로워지는 것이다. 맹자는 “그대가 힘써 행하면 그대의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이

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스스로 새로워진다는 의미이며 바로 신민의 의미이다.(제2절, p.3)

2.2.4 신민 창출의 급박함

(e2.2.4.1) 신민을 창출하는 것, 즉 중국인 스스로가 근대국가의 국민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일이, 얼마나 급박한 일인지에 대해, 양계초는 나라 안과 밖의 사정에 비취 설명한다.

(q2.2.4.2) 나는 지금 신민이 당장의 급무라는 것에 대해 얘기하려 한다. 입론의 근거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국내 정치와 관련된 것이고 둘째는 외교와 관련된 것이다.(제2절, p.2)

2.2.4.1 대내적인 관점에서

(e2.2.4.1.1) 중국이 당면한 급무는 서양 제국주의의 팽창에 대처하는 것이다. 사람들을 흔히 그에 대한 정부의 무능을 비난하고 관리들의 무능을 비난한다. 그러나 관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고 정부는 누구로 이루어지는가? 관리가 되고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이제 국민이다. 그래서 양계초는 제대로 된 국민이 되는 일, 즉 신민이 되는 일이 모든 일의 핵심이라고 말한다. 정부를 새로 짜고 새 나라를 이룩하는 것의 근본에 있는 것이 중국 인민이 신민으로 거듭나는 일이라는 얘기이다. 제도를 개혁하는 것보다 더 근본은 신민의 창출이라고 양계초는 말한다. 양계초도 참여했던 제도개혁운동, 즉 무술변법 운동 역시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은, 그보다 더 선결 문제인 신민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반성한다. 그러므로 강한 정부를 원한다면, 강한 국가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중요하고 무엇보다 급한 일은 바로 신민을 창출하는 것이다.

(q2.2.4.1.2) 정부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관리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백성들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관리인 김 씨, 이 씨는 국

민이 아닌가! 눈먼 무리를 모은들 눈 밝은 한사람이 되지 못하고, 귀머거리 무리를 모은들 한사람의 귀 밝은 사람이 되지 못한다. 겁쟁이 무리를 모아도 한사람의 용감한 사람을 얻지 못한다. 이러한 백성으로 이러한 정부, 이러한 관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것과 같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 국민의 문명 정도가 높으면 우연히 폭군오리가 나와도 그때가 지나가면 민력은 스스로 고치고 정돈할 능력이 있다. 몹시 더울 때 온도계를 얼음덩어리 위에 놓으면 잠시 온도계가 내려가지만 곧 얼음은 녹고 온도계는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니 정말로 신민이 있다면 새 제도가 없고 새 정부가 없고 새 국가가 없어도 무슨 걱정이겠는가! 이러지는 않고, 오늘 법 하나를 바꾸고 내일 사람 하나를 갈아 치우고 동쪽을 붙이고 서쪽을 깎아내면서 남을 흉내 내는 것으로 구체되는 것을 본적이 없다. 우리나라가 법을 새롭게 하자고 한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신민의 도에 주의한 자가 없었기 때문이다.(제2절, p.2)

2.2.4.2 대외적인 관점에서

(e2.2.4.2.1) 중국이 대처해야 하는 서양 제국주의의 성격이 또한 신민의 창출을 급박한 과제로 만든다. 서양 제국주의는 16세기 이래 유럽에서 발달하기 시작한 민족주의의 결과라고 양계초는 이해한다. 민족주의의 발전은, 민족을 이루는 구성원 전체 힘의 분출이자 팽창이기 때문에 그 발전의 추세는 건잡을 수 없다. 과거에 우연히 일어났던 한두 명의 영웅에 의한 일시적인 팽창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영웅에 의한 팽창이라면 일시적으로 일어났다가 영웅이 사라지면 동시에 스러질 것이지만, 민족주의의 팽창은 민족 전체의 팽창이기 때문에 강화 일로일 뿐이라고 양계초는 파악했다. 팽창 일로인 그들 민족주의는 민족제국주의로 성장하고 자치력이 떨어지는 민족들을 식민지화하기 위해 나선 것은 이미 현실이다. “동방 대륙에서 가장 큰 나라, 가장 기름진 토양, 가장 부패한 정부, 가장 흩어져서 약한 국민”인 중국이 조만간 그들의 밥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들이 넘보지 못하는 국가, 그 국가의 초석이 될 신민의 창출은 이처럼 급박한 일이다. 시기를 놓치면 중국은 자치능력이 없는 식

민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었다.

(q2.2.4.2.2) 외교에 관계된 것은 어떤 것인가? 16세기이래(약300년 전) 유럽이 발달하고 세계가 진보한 이유는 민족주의(nationalism)가 왕성하게 발달했기 때문이다. 민족주의란 무엇인가? 각지의 동일 종족과 동일 언어, 동일 종교, 동일 습속을 가진 사람이 서로를 동포로 여기고 독립자치에 힘써, 완비된 정부를 조직해서 공익을 꾀하고 타민족을 제어하려는 것이다. 이 주의는 이미 극한으로 발달해 19세기말(최근 20~30년)에는 한걸음 나아가 민족제국주의(national imperialism)가 되었다. 민족제국주의란 무엇인가? 그 국민의 실력이 안으로 충만해서 밖으로 넘쳐나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다른 땅에 그 세력을 확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 지금 동방 대륙에서 가장 큰 나라, 가장 기름진 토양, 가장 부패한 정부, 가장 흠어져서 약한 국민이 있다. 저 족속들이 일단 내부상정을 엿보아, 이른바 민족제국주의를 이리로 이동시킨다면, 개미떼들이 누린내를 쫓듯이, 못 화살들이 과녁을 향하듯이, 정신없이 이 구석으로 모여들 것이다. 러시아인이 만주에, 독일인이 산둥에, 영국인이 양자강 유역에, 프랑스인이 양광(兩廣)에, 일본인이 복건에 있는 것은, 모두 이 새로운 주의의 조류가 그렇게 만들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제2절, p.3~4)

2.2.4.3 열세는 내실

(e2.2.4.3.1) 민족주의의 대세가 아무리 세차고 민족제국주의의 세력이 아무리 위협적이라고 해도 그 세력들은 어디에나 무차별적으로 진출하는 것은 아니다. 왜 유럽의 민족주의는 서로 부딪히지 않는가? 왜 유럽의 각 민족주의는 러시아나 미국으로 그들의 세력을 팽창시킬 생각을 하지 않는가? 그들 민족주의, 민족제국주의는 자신들과 비슷한 힘을 가진 상대와는 부딪히지 않는다. 비슷한 힘이 부딪힐 때는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당연히 손쉽게 그들의 식민지가 될 약한 나라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식민지가 되는 신세를 면하는 길은 단 한가지이다. 그들과 대등한 힘을 갖는 것이다. 그들과 대등한 힘을 갖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다. 그들과 같은 민

족주의를 시행하는 일이며, 그것은 결국 민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경쟁력 있는 개인으로 거듭나서 그들의 경쟁력의 총합이 민족의 경쟁력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신민이 되는 것이다.

(q2.2.4.3.2) 지금 천하는 온통 외환(外患) 때문에 걱정이다. 그러나 외부가 정말로 걱정거리라면 한갓 걱정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저처럼 극렬하게 민족제국주의가 완강히 돌진해오는데 우리는 오히려 외부가 과연 걱정거리인가 아닌가를 연구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나는 걱정의 유무는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 각국이 모두 이 주의를 채용하는데, 러시아는 왜 영국에게는 쓰지 않고 영국은 왜 독일에게는 쓰지 않으며 독일은 왜 미국에게는 쓰지 않는가? 구미 여러 나라는 왜 일본에게는 쓰지 않는가? 틈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점에서 갈라지는 것일 뿐이다. [...] 중국의 오늘날의 계획은, 반드시 한 때의 현군현상(賢君賢相)에 의지해서 난을 제어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며, 또한 초야 한두 사람의 영웅의 쫓기에 의지해서 성공을 꾀하는 것이어서도 안 된다. 반드시 4억 인민의 민덕·민지·민력이 그들과 대적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그러면 외부는 저절로 걱정거리가 될 수 없으니 우리가 왜 걱정을 하겠는가!
(제2절, p.5)

2.3 신민의 요건

(e2.3.1) 신민(新民)의 ‘新’이 이미 있던 것을 새롭새롭 키운다는 뜻과, 예전에는 없던 것을 새로 도입한다는 뜻의, 둘 모두를 갖는 것이므로, 신민이 되기 위해서는 크게 그 두 가지 방면에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양계초가 예전부터 있던 것 가운데 새롭게 복돋아야 할 것으로 꼽은 것은 중국 민족주의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민족정신이며, 예전에 없던 것으로 새롭게 도입해야 할 것으로 꼽은 것은 근대국가의 국민으로 갖춰야 할 자질, 즉 민덕·민지·민력이다.

2.3.1 민족정신의 고양

(e2.3.1.1) 애초에 『신민설』을 연재하면서 양계초가 주력하고자 했던 부분은 ‘신’의 두 의미 가운데 두 번째 의미, 즉 전에는 없던 것을 새로 도입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신민설』의 총 20절 가운데 대부분은 ‘예전에는 없던 새로운 것’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민족의 내부를 단결시켜 줄 민족정신, 즉 “위로는 도덕과 법률에서부터 밑으로 풍속과 습관, 문학, 미술에 이르기까지”의 “일종의 독립된 정신”(이상 제3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민설』안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다. 특히 양계초는 중국이 근대국가로서 거듭나는데 걸림돌이 될 만한 여러 가지 민족적인 특질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있으므로(‘민족국가를 향한 중국의 과제’ 부분 참조) 오히려 긍정적인 민족정신보다는 부정적인 민족정신이 『신민설』 안에서는 더 많이 언급된다.

(e2.3.1.2) 그러나 『신민설』안에 긍정적인, 그래서 끊임없이 새롭게 상기고 발전시켜야 할 중국적인 것이 아주 등장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제 18절「사덕(私德)」편에서 논의되는 ‘사덕’은 99% 중국의 전통적인 것이다.(‘사덕의 함양’참조) 양계초는 중국민족의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자신하고 있었다. 중국민족은 이천 년 이상을 자신들은 하늘아래 뛰어난 문화를 가진 유일한 문화민족이라는 중화사상을 키워왔다. 실제로 그들은 중국에서 그들보다 문화적으로 뒤떨어진 이민족에 둘러싸여 몇 천 년 동안 중원을 지배해왔다. 그러한 자부심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근대문명을 수입해서 근대국가를 이룰 수 있다 해도, 이제는 그 근대문명은 인류의 보편적인 것이 되어버렸으므로 그 안에서 ‘우리’라는 테두리를 만들어줄 것은 지역·언어·문화 공동체를 이루면서 역사적으로 형성해온 ‘민족정신’ 밖에 없었다. 외부의 수많은 ‘문명국가’와 구별되는, 자신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엮어줄 것, ‘우리’라는 의식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계발되고 발양되어야 했다.

(q2.3.1.3) 우리 동포가 아시아대륙에서 수천 년 동안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분명 우리의 특질에 광대하고 고상하고 완미한 점이 있기 때문

이다. 그 특질은 다른 종족들에게는 없는 빛나는 것이므로 우리는 그것들을 보존해서 잃지 말아야한다.(제3절, p.6)

2.3.2 민덕, 민지, 민력의 배양

(e2.3.2.1) 민덕, 민지, 민력은 국민 개개인이 갖추어 덕과 지식과 체력이 다. 이는 스펜서(H. Spencer)의 교육 모토인 지(智), 덕(德), 체(體)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Education Intellectual, Moral And Physical*) 스펜서의 그것 역시 근대국가의 국민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의 내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며, 양계초는 노골적으로 그 의의를 부각시킨 것이다.

(e2.3.2.2.) 그런데 실제로 『신민설』 안에서는 이 세 가지가 같은 비중으로 다루이지 않는다. 『신민설』은 이 세 가지 가운데 특히 ‘덕’에 관한 것이다. 양계초는 실제로 이 세 가지 능력을 같은 정도의 가치로 여기지도 않았다. 특히 ‘사덕’의 중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때를 즈음해서는 덕의 함양에 비해 지식의 신장이나 체력의 신장은 거의 저절로 되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양계초 자신이 개인적으로 어느 것에 더 비중을 두었는지 간에, 일단 중요한 것은 국민 개개인의 능력에 근대국가의 사활이 달려 있다는 것이고, 그 근대국가의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로서 민덕, 민지, 민력이 대두된 것이다.

(e2.3.2.3) 양계초가 근대국가의 국민이 되기 위해 민덕·민지·민력을 요구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민덕을 중요하게 다뤘다는 사실은, 단순히 그가 망명정치가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기에 한정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지식과 체력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분명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만, 덕은 양계초가 했던 것처럼 잡지를 통해 그 함양을 개인에게 호소할 수 있고, 또 독자의 입장에서 도덕의 함양은 지식의 습득과 체력의 습득보다는 훨씬 쉽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순히 그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 사덕을 강조하는 시기의 양계초에게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양계초에게는 유학적 세계관이

완전하게 청산된 것이 아니어서, 정치 영역에서 성취되어야 할 일을 개인의 도덕적 역량으로 요구하는 경향이 분명하게 있었다. 즉 도덕을 모든 것의 근본으로 생각하는 유학적 사고방식이 양계초에게는 여전하게 살아 있었다.

(q2.3.2.4) 지금 정치, 학술, 기예 등에 대해 논하는 사람들은 모두 사람들의 장점을 취해서 우리의 단점을 보충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민덕, 민지, 민력이 바로 정치, 학술, 기예의 근원이라는 것은 모른다. [...] 그러므로 우리에게 본래 없었던 것으로서 우리를 보충해 새롭게 할 것이 무엇인가에 관해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 없다.(제3절, p.6~7)

3. 도덕

3.1 공덕과 사덕

(e3.1.1) 양계초는 개인이 갖추어야 할 덕 혹은 도덕성을 두 영역으로 나눴다. 하나는 공덕이라고 불리는 공적인 영역에서 발휘되는 도덕성이며, 다른 하나는 사덕이라고 불리는 사적인 도덕성이다. 공덕은 사회 안의 존재인 개인이 사회에 대해 바람직한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덕이다. 자기 개인을 넘어 사회에 관심을 갖고 그 사회의 선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도록 하는 덕이다. 사덕은 사회와의 관계 이전에 개인의 인격도야와 관련되는 덕이다. 양계초는 도덕의 완성은 이 두 가지 덕을 모두 갖추어야만 비로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q3.1.2) 도덕의 본체는 하나이다. 그러나 밖으로 드러나면 공(公)과 사(私)의 이름이 생긴다. 사람마다 ‘독선기신(獨善其身: 홀로 자신의 도덕성을 고양하는 일)’하는 것을 사덕(私德)이라고 한다. 개개인이 그 사회를 좋게 하는 것을 공덕(公德)이라고 한다. 이 둘은 모두 사람이 사는데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다. 사덕이 없으면 사람이 바로 설 수가 없다. 비열하고 허위적이고 잔인하고 어리석고 겁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많아도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 공덕이 없으면 단체를 이룰 수 없다. 자기만을 단속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겸손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제5절, p.12)

3.2 공덕

(e3.2.1) 공덕은 개인이 갖추어야 할 덕으로서, 한마디로 하면 개인이 단체의 이익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 또는 태도이다. 국가를 위시한 모든 단체는 이 덕에 의해 비로소 성립할 수 있다고 할 정도이니,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요구되는 덕이다. 더구나 양계초는 “사

람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인용해, 인간이 사회를 이룰 능력을 가졌다는 점을 인간이 금수와 다를 수 있는 인간만의 특징이라고 말한다. 즉 공덕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능력이다.

(q3.2.2) 공덕이란 무엇인가? 사회가 사회일 수 있는 이유, 국가가 국가일 수 있는 이유는 이 덕에 의지하여 성립한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다.(이는 서양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다) 사람이 사회를 이루지 않으면 금수와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공리공담으로 사회에 대해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효력이 있으려면 그 사회를 관통해서 하나로 연결시키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사회의 내실을 말할 수 있다. 그 무엇인가가 바로 공덕(公德)이다.(제5절, p.12)

3.2.1 공덕의 정신

(e3.2.1.1)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본성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인 공덕은, 양계초에 의하면, 사회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것을 본분으로 삼는다. 즉 공덕의 정신은 오로지 사회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사회를 이롭게 하는 것은 선이고 사회에 무익한 것은 악”이란 명제는 “시공을 초월한 진리”라고 양계초는 단언한다. 양계초는 ‘도덕’의 정신이 그런 것이라고 표현했지만, 정확하게 그가 의미하려 했던 것은 ‘공덕’의 정신이었다. 공덕은 사회가 무엇을 원하는가에 따라 그 선악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양계초는 사회의 이익에 “위배되면 지선(至善)이라 할지라도 지악(至惡)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지선’은 과거 유가적 가치관 안에서 인정되던 절대적 선을 의미하는 것이리라. 공덕은 절대적 선을 인정하지 않는 상대주의적 가치체계에서의 덕이다.

(q3.2.1.2) 도덕의 정신은 한결같이 사회의 이익을 이롭게 하기 위해 발생한 것이다. 이 정신에 위배되면 지선(至善)이라 할지라도 지악(至惡)이 될 수도 있다.(원주: 자유제도는 오늘날 지선이다. 그러나 야만미개의 사회라면 지악이다. 전제제도는 고대에는 지선이었으나, 문명개화 사회의 군주는 악이다. 이것이 그 예증이다) 그러므로 공덕이란 국가들이 설 수 있는

뿌리이다. 사회를 이롭게 하는 것은 선이고 사회에 무익한 것은 악이다.
이 이치는 시공을 초월한 이치이다.(제5절, p.15)

3.2.2 공덕과 진화

(e3.2.2.1) 사회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덕성인 공덕은, 그러한 기능상 자연히 사회의 진화에 따라 같이 진화한다. 즉 시공을 초월한 절대적인 내용을 담은 공덕은 없다. 사회의 이익에 이바지한다는 정신은 변하지 않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의 조건에 따라 다르다. 크게 나누면 야만과 문명사회의 공덕이 다르다. 민주주의가 지고의 가치로 평가되는 근대라면 노예제도는 반드시 타파해야 할 악이지만, 노예제도가 그 사회에 이로웠기 때문에 선으로 평가되는 시대도 있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헌법을 세운 많은 근대국가에서 왕족과 귀족의 계급을 만들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악이지만, 전제제도가 선이고 왕족과 귀족의 존재가 선인 시대로 있었다는 것이다. 시대의 진화와 함께 진화하는 공덕은, 이처럼 가치 상대적인 도덕이다.

(q3.2.2.2) 그 사회가 야만인가 문명인가의 차등에 따라 적당한 도덕 역시 다를 수 있다. 요컨대 도덕의 의의는 그 사회를 단단하게 하고 좋게 하고 진보하게 하는 지로 귀결한다. 영국헌법은 군주를 침범하는 것을 반역부도(反逆不道)한 것이라고 정했으며, 프랑스헌법은 군주를 세우려고 모의하는 것을 반역부도(反逆不道)로 정했다. 미국헌법은 함부로 귀족과 작위를 만드는 것을 반역부도라고 정했다.(원주: 헌법을 위반하는 것은 모두 대역부도이다) 그들 도덕의 외형은 이처럼 서로 어긋나는 듯하지만 그 정신은 하나이다. 어떤 하나인가? 즉 그 사회의 공익을 위한다는 것이다. 고대 야만인들은 부녀를 공유하는 것을 도덕으로 여기기도 했고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을 도덕으로 여기기도 했다. 그것을 근세 철학자들이 도덕이 아니라도 할 수는 없다. 당시의 상황에서 사회를 이롭게 하는 것을 옳은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니 도덕의 정신은 한결 같이 사회의 이익을 이롭게 하기 위해 발생한 것이다. 이 정신에 위배되면 지선(至善)이라 할지라도 지악(至惡)이 될 수 있다.(제5절, p.14~15)

3.2.3 중국의 공덕 현황

(e3.2.3.1) 양계초의 파악에 의하면 과거 중국의 공덕은 터무니없이 결여되어 있었다. 『논어』나 『맹자』를 비롯한 많은 중국의 고전들은 모두 9할 이상이 사덕을 다루고 있다고 양계초는 파악했다. 그러므로 사덕의 발달은 빨랐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도덕이 완전하게 발달했다고 할 수는 없다. 사덕은 도덕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가 사회일 수 있는 이유, 국가가 국가일 수 있는 이유는 이 덕(공덕)에 의지하여 성립한다.”고 하니, 공덕이 결여된 과거 중국의 사회와 국가는 그 결속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사회이거나 국가답지 못한 국가였을 것이다.

(q3.2.3.2) 중국에서 도덕의 발달은 빨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덕에만 치우쳐 있었을 뿐 공덕은 거의 결여되어 있다. 『논어』나 『맹자』 같은 책들은 우리 국민의 목탁(木鐸)이며 도덕의 근원이다. 그러나 그 안에서 가르치는 것은, 사덕이 9할이고 공덕은 1할에도 미치지 못한다.

(제5절, p.12)

3.2.3.1 현재에 맞는 공덕을 계발할 필요성

(e3.2.3.1.1) 사회에 유용한 것이 변함없는 공덕의 정신이지만, 어떤 것이 유용한가는 그 사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그 사회의 진보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므로 중국이 현재 중국의 상황에 유용한 공덕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중국 사회의 이익과 발전을 생각할 때 반드시 점검해야 할 일이다. 사회의 진화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을 필요로 하듯이, 도덕의 진보 역시 인간의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사회는 진보했는데 과거의 도덕을 그대로 붙들고 있다면 그 도덕은 사회 진보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사회의 이익에 이바지한다는 도덕 본래의 정신에 어긋나게 되어 더 이상 도덕이라고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과거의 성왕·성인의 도덕을 그대로 묵수해서는 현실의 요구에 응할 수 없게 되고 그것은 그대로 국가와 민족의 파멸로 이어질 것이다. 국가와 민족의 생존을 위해 도덕에 대한 점검은 불가피하다.

(e3.2.3.1.2) 더구나 양계초는 중국의 과거 도덕은 9할 이상이 사덕이며 공덕은 1할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파악하고 있었다. 시대에 뒤쳐진 공덕을 개혁하는 일에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없었던 공덕을 새롭게 만들어 내는 일이 시대의 과제였다. “공덕이 있음을 안다면 새로운 도덕이 출현하고 새로운 국민(신민)이 출현할 것”이라고 말할 정도니, 공덕의 정비가 근대국가 건설의 핵심으로 들린다. 양계초는 근대국가 건설의 관건이 신민의 창출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신민 창출의 관건은 공덕의 존재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q3.2.3.1.3) 그 도덕의 외형은 그 사회의 진보 정도에 비례해서 달라진다. 사회의 문명과 야만 정도가 다르면 이익이 되는 것도 다르고 도덕이 되는 것 역시 저절로 달라진다. 덕이라는 것은 한 번 이루어지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수천 년 전의 옛 사람이 일정한 격식을 세워 천하 만세를 아우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회에서 태어나 이 사회의 현재에 살고 있으니, 세상의 대세를 종적으로 파악하고 우리 종족에게 적절한 것을 조용히 살펴 하나의 새로운 도덕을 발명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우리 사회를 단단하게 하고 선하게 하여 우리 종족이 나아가야 할 길로 나아가야 한다. 과거의 왕이나 선철들이 드물게 말한 것이라고 스스로 한계를 갖고 나아가지 못해서는 안 된다. 공덕이 있음을 안다면 새로운 도덕이 출현하고 새로운 국민(新民)이 출현할 것이다.(제5절, p.15)

3.2.3.2 중국에 공덕이 발달하지 못한 이유

3.2.3.2.1 도덕의 진화에 대한 무지

(e3.2.3.2.1.1) 중국 사람들에게는 옛 성인과 그 성인이 남긴 경전을 영원한 진리로 여기는 전통이 강하다. 이를 양계초는 ‘학계의 노예정신’이라고 표현한다. 만약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진화라는 대 법칙에 의해 변화한다는 진리에 투철하거나, 사회와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는 마음이 절실하다면 그러한 낡은 믿음에 속박되지 않을 것이라고 양계초는 말한다. 그들은 도덕이란 옛 성현이 남긴 보편적인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도덕이 인위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중국에서 이 시대에 필

요한 공덕이 발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진화의 법칙에 대한 무지 때문이라고 양계초는 생각했다. 그리고 그들을 무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학계의 노예근성이라고 생각했다. 양계초는 “옛 철인이 오늘날에 살아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모두 오늘날에 합당한 도덕을 제정할 수 있었겠는가?”고 그들을 향해 말한다. 그들이 영원한 진리의 표상으로 여기는 공자와 맹자라는 성현 역시 오늘날에 태어났으면 옛날과는 다른 도덕을 제시했을 것이었다. 그들이 진정 성현이라면 도덕 역시 진화한다는 ‘진리’를 모를 리 없을 것이다.

(q3.2.3.2.1.2) 지금 유신(維新)을 주장하는 세상의 인사들은 모든 일을 유신하자고 하지만, 도덕을 새롭게 하자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이는 학계의 노예근성이 아직 없어지지 않았으며 사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 정성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도덕이라는 것은 해와 달이 번갈아 뜨고, 강과 시내가 땅위를 흐르는 일처럼 태고 이래로 불어날 일도 줄어든 일도 없다고 생각한다. 옛 성인과 현인들이 그 본질을 모두 밝혀서 후세에 물려준 것이므로 옛것과 새것의 구별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도덕이라는 것이 자연적인 것이 반이고 인위적인 것 역시 반으로서, 발전도 있고 진화도 있는 것, 즉 진화의 대법칙에 따르는 것임을 모른다. 그러나 옛 철인이 오늘날 살아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모두 오늘날에 합당한 도덕을 제정할 수 있었겠는가! 공자와 맹자가 다시 살아와도 달아내고 보태는 일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제5절, p.15)

3.2.2.2.2 사덕의 과도한 발달

(e3.2.2.2.1) 중국에는 자기 개인의 도덕성을 연마하는 사덕이 과도하게 발달했고 그것이 공덕의 발달을 가로막은 또 다른 원인이 되었다고 양계초는 생각했다. 양계초는 『논어』나 『맹자』등에서 설파하는 도덕의 90%이상이 사덕이라고 했지만 직접적으로 공자와 맹자를 비난하지는 않았다. 그는 그들 성인의 학문을 배우는 “말류”가 성인의 말썽을 “편협하게 끌어”와서 공덕의 발달을 저해했다는 식으로 비판했다. 예를 들어 천하를

구제할 사명감으로 바쁘게 천하를 주유했던 공자를 향해 벼슬이 하고 싶어서 아첨하고 다닌다고 비방한 당시의 은둔자 미생묘(微生畝)나, 수많은 학파들이 서로의 이론을 소리 높여 외치던 백가쟁명의 시대에 이단(異端)과 사설(邪說)로부터 천하를 구제하려는 마음으로 그들과 논전하고 다녔던 맹자에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그대로 옮겼던 맹자의 제자 공손추(公孫丑) 등은, 이단이거나 학식이 천박하기 때문에 그런 잘못을 했다. 사회와 국가의 공익을 위해 힘쓰는 사람을 “그 지위에 있지 않거든 그 자리의 정사에 대해 논하지 말라”는 『논어』의 말을 끌어다 비방하는 자는 제대로 학문하지 못한 편협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을 했다. 그러나 어쨌든 과도한 사덕의 발달은 사회와 국가의 일에 주체넘게 나서지 않는다는 분위기를 양성했으며 그 때문에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부도덕이라고 꺼리는 잘못을 때로는 대성(大聖)이나 현철(賢哲)이 저지르는 일도 없지 않았다.

(e3.2.2.2.2.2) 특히 ‘자신을 단속하고 과오를 적게 하려는’(東身寡過主義) 소극적인 도덕이 중국 도덕의 중심이 된 것이 치명적이었다고 양계초는 판단했다. 자기 개인의 결백을 성취하는 것을 도덕으로 삼는다면 당연히 그의 행동범위는 축소될 것이다. 자신을 둘러싼 인간관계, 나아가 사회와 국가의 일에 깊숙이 관여한다는 것은 더 많은 갈등의 가능성을 만드는 것이고 자신의 결백을 지키는데 그만큼 더 많은 장애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과실을 적게 하는 것을 가치로 여긴다면 더 말할 것도 없다. 움직임 자체를 줄이는 것보다 과실을 적게 하는데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양계초는 유학의 사덕이 이처럼 자기 한 몸을 단속하고 과오를 적게 하는 성질의 것이라고 간주하고, 그 사덕의 치우친 발달이 공덕의 발달을 저해했으며, 결과적으로는 도덕의 균형적인 발전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q3.2.2.2.2.3) 사덕과 공덕은 본래 서로 모순되는 일 없이 같이 실행되는 것이다. 그러나 제창된 것에 이미 편파가 있어서, 말쭉에 이르면 서로를 비방하는 일도 있었다. 미생묘(微生畝)가 공자보고 아첨한다고 비방

하고,『논어』 「현문」) 공손추(公孫丑)가 맹자에게 말하기 좋아한다고 의심했으나,『맹자』 「공손추」) 이들 외도(外道)나 천학(淺學)의 무리가 공덕을 모르리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대성이나 현철도 때로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있었다. 나는 지금 옛날 사람들의 단편적인 말들을 끄집어내어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다. 요컨대, 우리 중국은 수천 년 이래로 자신을 단속하고 과오를 적게 하려는 주의(東身寡過主義)가 도덕교육(德育)의 중심이었다. 그래서 도덕의 범위는 날로 축소되었고 사람들의 언행은 이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사회와 국가의 공리와 공익을 위해 힘을 다하는 자가 있으면 저 비틀리고 도움이 안 되는 선비들은 걸핏하면 “그 지위에 있지 않거든 그 자리의 정사에 대해 논하지 말라”(『논어』 「태백」)는 등의 말을 편협하게 끌어와서 비웃고 배척했다. 나쁜 씨앗이 퍼지고 전해져 습관이 되어 진실을 이기지 못했으니, 국민은 더욱 공덕이 어떤 것인지 모르게 되었다.(제5절, p.13)

3.2.3.3 공덕을 창출하지 못할 때의 재난

(e3.2.3.3.1) 중국 밖의 세상은 예전과 다르다. 이른바 민족제국주의 시대이다. 점점 팽창하는 그들의 세력은 전 세계로 넘쳐흐를 것이다. 중국 역시 예외 없이 그 영향 하에 놓일 수밖에 없다. 중국으로 흘러들어오는 서양근대의 힘을 양계초는 특히 ‘지식’, 그리고 ‘물질문명’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물질문명에 상응하는 ‘새로운 도덕’은 중국인들이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었다. 새로운 문명에 상응하는 도덕을 만들어 내지 못할 경우, 중국인들은 도덕 없는 짐승의 상태로 추락하게 될 것이라고 양계초는 경고한다. 양계초는 자신의 시대를 과도시대라고 판단했다. 문명의 단계가 바뀌는데 그것이 부드럽게 연결되기 전의 일시적인 단절의 시대라고 판단한 것이다. 도덕면에서 말한다면, 옛 도덕은 이미 쓸모없어졌는데 새로운 도덕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양계초가 두려워 한 것은, 이미 시대에 무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폐기되기 시작하는 중국의 전통과 함께 도덕 자체까지 폐기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었다. 과거의 도덕은 폐기되더라도 도덕 자체가 폐기되어서는 안 된다.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도덕을 만들어야 한다. 진화된 문명시대에 걸맞

은 새로운 도덕의 창출, 그것은 중국인이 인간으로서 살기 위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야 할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양계초는 인식했다.

(q3.2.3.3.2) 오늘날은 마침 과도기의 시대로, 묵은 곡식은 이미 동이 났는데 햇곡식은 아직 추수되지 않은 그런 시기이다. 이전 철학자들의 깊은 뜻은 혹은 과묵히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세속에서 전해지던 간단한 도덕은 후대 사람들의 마음을 감싸 안을 만한 힘이 없다. 또한 그 진부함을 싫어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진부함을 버리는 것은 오히려 괜찮다. 그러나 만약 도덕까지 다 버린다면 재앙의 확대는 끝도 없이 계속될 것이다. 이미 이런 재앙의 단서가 보인다. 늙은 스승과 명망 높은 유학자들이 이를 걱정하여, 송원(宋元)의 남은 가르침으로 그 흐름을 막으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우승열패의 법칙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겠는가! 한 줌의 썩은 흙으로 항구를 막고, 한 잔의 물로 불타고 있는 뿔나무를 끄는 일은, 내 재주를 다 바쳐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서둘러 중외고금의 것들을 참작하여 새로운 도덕을 만들어 제창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지식교육이 융성해짐에 따라 도덕 교육은 쇠퇴할 것이고, 서양의 물질문명이 중국에 남김없이 수입될 테니, 우리 4억 인의 중국인이 짐승처럼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제5절, p.15)

3.2.4 공덕의 실질과 기능

3.2.4.1 공덕의 실질은 우수 민족의 장점

(e3.2.4.1.1) 『신민설』의 제5절인 「공덕」의 앞 절, 즉 『신민설』 제4절의 제목은「우승열패의 원리로 논증한 신민의 결과, 신민을 채택해야 하는 당위」이다. 이 절은 “지금 우리 국민이 스스로 새롭게 해야 할 대강과 소목들에 대해, 수개의 분절로 나누어 다음절에서부터 상세히 논하겠다.”는 문장으로 끝난다. 즉 그 다음에 이어진「공덕」이라는 제4절의 논의의 결과 얻어진 것을 바탕으로 전개된 것인데, 제4절에서 논의된 것은 당시 세계의 패권자로 군림한 앵글로색슨족의 우수성에 관한 것이었다. 동적인 성

격, 경쟁적이고 진취적인 성격, 정치능력, 자립심, 권리의식, 질서의식, 적당한 보수성과 시의에 대응하는 적응성 등이 앵글로색슨족이 당대의 패자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꼽혔다.('민족 진화의 관건' 부분 참조) 양계초가 중국민족에게 강력하게 요청하는 공덕의 내용은, 실제로는 그 강한 민족이 강할 수 있었던 이유, 우등한 자가 되어 우승열패의 경쟁세계에서 강자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였다. 즉 그것은 진화된 문명시대의 강자들이 갖춰야 할 것이었다. 양계초가 보기에 그것들은 영국을 못 경쟁에서 승승장구하게 하고 세계에서 가장 넓은 식민지를 보유하도록 한 원동력이었다. 변화한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새로운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양계초가 주장한 공덕은, 강한 민족이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미덕, 혹은 능력이었다.

(q3.2.4.1.2) 그렇다면 우리들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는 알 수 있을 것이다. 저 민족들이 쇠약해지고 이 민족들이 강성한 이유를 살펴서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우리 국민의 성질과 저들 민족의 쇠약을 부른 이유는 같은가, 다른가, 어떠한가. 이 민족이 강성한 것과 같은가, 다른가, 어떠한가. 그 큰 구조상의 결함은 어디에 있으며 세부적인 박약함은 어떤 것들인가를 하나하나 조사하고, 하나하나 거울삼고, 하나하나 고치고, 하나하나 보충해야 새로운 국민이 성립할 수 있다. 지금 우리 국민이 스스로 새롭게 해야 할 대강과 소목들에 대해, 몇 개의 분절로 나누어 다음절에서부터 상세히 논하겠다.(제4절, p.11)

3.2.4.2 공덕은 사회에 대한 의무

(e3.2.4.2.1) 강한 사회, 강한 민족, 강한 국가를 만드는데 유용한 개인의 덕 혹은 능력이 공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양계초는 그것을 중국인들에게 의무로서 요구했다. 양계초는 사덕만 갖추고 공덕을 결여한 사람은 사회의 쯔벌레라고 혹독하게 말했다. 양계초는 사덕을 사회와의 관계 없이 자신 혼자만을 위해 혹은 다른 개인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만 작용하는 덕이라고 정의하고, 공덕이어야 비로소 개인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덕이라고 정의한다. 그러한 양계초의 정의에 의하면 공덕은 갖지

못한 채 사덕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사회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양계초는 사회에 대한 공헌 없이 자기 한 몸 깨끗이 하는 것은, 사회가 제공하는 온갖 이익은 누리면서 그 대가는 지불하지 않는 채무자와 같다고 비판한다. 사덕과 함께 도덕의 양 날개를 이루는 공덕은, 도덕이라는 이름을 가진, 개인이 사회에 지불해야 할 채무 같은 것이다. 도덕은 자유와 자율적인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내면의 자발성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양계초는 공덕을 도덕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내면의 자발성이라기보다는 이처럼 의무로서 요구되는 것이다. 강한 국가를 이룩할 숙제를 개인의 도덕성으로 귀결시키고 국가의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라는 양계초의 공덕체계는, 이처럼 개인의 도덕성을 의무로서 요구하는 것이었다.

(q3.2.4.2.2) 사람이 사회 속에서 살면서 그 사회의 권리를 누리려면 그 사회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사회의 좀벌레일 뿐이다. 자신을 단속하고 과오를 적게 하겠다는 자(東身寡過主義者)들은 자신이 비록 사회에 도움은 되지 않지만 해(害)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해라는 것을 그들은 어찌 모르는가? 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해인가? 사회가 나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있는데 나는 사회에 이익을 주는 것이 없다면 이것은 내가 사회에 빚을 지고 갚지 않는 것이다. 한 개인과 다른 개인이 교섭할 때, 갚아야 할 빚을 갚지 않으면 사덕은 반드시 그것을 죄로 삼는다. 이것은 그 해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타인에게 진 빚을 갚지 않았는데 오히려 선인(善人)이라는 이름을 감히 덮어줄 수 있다면 어떻겠는가? 한 사회의 사람 모두가 서로서로 빚을 지고 갚지 않는다면 그 사회의 혈맥은 얼마나 오래갈 수 있을 것인가? 끝없이 많은 이 채무자들이 밤낮으로 갹아먹고 나눠먹는다면, 그래서 소모만 있고 증보는 없다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그 사회 역시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 때문에 개인이 당하는 손해와 마찬가지로의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는 필연적인 이치이다. 오늘날 우리 중국이 날로 쇠락해 가는 이유가 달리 있으랴! 저 '자신을 단속하고 과오를 적게 하려는 주의'(東身寡過主義)를 잘 지키는 선비가 너무 많고, 권리를 누리기만 하고 의무를 다하지는 않으면서도 사회에 진 빚이 없는 듯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제5절, p.13)

3.2.5 공덕의 종류

(e3.2.5.1) 양계초가 근대 민족국가의 일원으로서 몸에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공덕은, 그 근대국가라는 단체에 봉사하는 개인의 자발적 혹은 의무감에서 나오는 일종의 봉사정신이다. 근대 민족국가의 수립만이 중국의 살길이라고 판단한 양계초는 중국 민족국가의 청사진을 그렸다. 그 모델은 서구에서 가장 성공적인 민족국가를 이룩하여 이룩고는 민족제국주의로 발전한 영국이었다. 그 근대국가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것들, 즉 권리와 의무, 자유와 독립, 자치와 경제 등의, 정치·경제 영역의 사항들을, 양계초는 덕의 덕목 즉 공덕의 덕목으로서 중국인들에게 제시했다. 하다 못해 자기 자신이나 세계대동의 이상보다도 국가가 더 중요한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사상’까지도 공덕의 영역으로 요구했다. 그러므로 ‘민족국가의 요소’ 부분에서 다룬 권리를 비롯한 여러 항목들은, 실제로는 양계초가 공덕의 항목으로 다룬 것들이다. 그는 국가, 권리, 의무, 자유, 자치 등에 사상 또는 정신이라는 두 글자를 붙여, 국가사상, 권리사상, 의무사상, 자유정신, 자치정신 등의 개념으로 만들어 이를 도덕의 차원에서 논하였다.

(e3.2.5.2) 자연적 질서에 대한 과학적 추구, 정치적 행위에서의 자기결정, 경제적 행위에서의 자유, 이러한 근대적 해방을 보증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 근대적 제도이어야 했다. 그런데 이렇게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것을 양계초는 덕의 이름으로 개개인에게 요구했다. 이는 당시의 양계초가, 정치적 개혁의 전망을 가졌던 무술변법시기와는 달리 일본에 망명해 있는 처지해서 잡지를 통해 계몽운동을 하던 때였으므로 개 개인의 각성과 분발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근대 자유주의의 근간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 통제가 가능하도록, 지배 없는 지배, 권력 없는 통제의 방식이 창출되었다는 근대비판이론을 상기하게 된다. 즉 근대라는 주어진 질서와 그 속에서 자신의 소명을 위해, 외부에서 가해지는 어떤 권력 없이도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주체로 개인을 만들어 내는 방법은 도덕이라는 이름의

규율을 개인 안에 내면화시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양계초의 공덕은 전형적인 근대의 것이다.

3.2.5.1 국가사상

(e3.2.5.1.1) 국가의 이익은 양계초에게 최고의 가치이다. 국가사상이란 국가를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마음과 태도이다. 양계초는 국가사상을 공덕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중국인들에게 요구했다. 국가사상이라는 미덕을 지닌 중국인이란 일신의 사사로움을 죽이고, 일족의 사사로움을 죽이고 국가의 이익에 봉사할 것이다. 또한 그 봉사는 국가라는 테두리에 멈춰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넘어서 세계를 향해서는 안 된다. “국가라는 것은 개인의 사랑의 중심이고 박애의 극치이다.”

(q3.2.5.1.2) 박애를 주장한다면, 일신의 사사로움을 죽이고 한 집안을 사랑하라고 하면 문제가 없으며, 일가의 사사로움을 죽이고 일향족(一鄕族)을 사랑하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으며, 일신, 일가, 일향족의 사사로움을 죽이고 한 나라를 사랑하라고 하면 문제가 없다. 국가라는 것은 개인의 사랑의 중심이고 박애의 극치이다.(제6절, p.18)

3.2.5.1.1 국가사상의 소유는 국가 수립의 관건

(e3.2.5.1.1.1) 국가라는 단체는 문명의 상징이다. 양계초가 볼 때, 국가는 단체의 최고봉이다. 그 의미는 민족제국주의시대의 경쟁무대에서 국가가 가장 완결된, 즉 가장 강력할 수 있는 경쟁 주체라는 의미이다. 양계초는 그 국가를 이룩하느냐 못하느냐를, 그 구성원들이 국가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국가사상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개인보다도, 정부보다도, 다른 어떤 훌륭한 나라보다도, 세계 전체보다도, 내가 속한 민족국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국가의 이익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 추구하는 태도, 또는 덕성이다. 즉 국가사상은 국가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고 그 이익의 추구를 최고선으로 여기고 그 선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공덕이다.

(q3.2.5.1.1.2) 사회의 초기 단계에는 부민(部民)만 있었고 국민은 없었다. 부민에서 국민으로 진전하니, 이것이 문명과 야만이 나뉘는 경계이다. 부민과 국민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무리가 모여 살며 자신들의 풍속을 이루는 자들을 부민이라고 한다. 국가사상을 가지고 스스로 정치를 펼 수 있는 자를 국민이라고 한다. 국민 없이 국가를 이룩할 수는 없다. 국가사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 개인에 대해 국가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며, 둘째, 조정에 대해 국가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며, 셋째, 다른 민족에 대하여 국가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며, 넷째, 세계에 대해 국가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제6절, p.16)

3.2.5.1.2 국가사상 고취의 장애

(e3.2.5.1.2.1) 대표적인 공덕인 국가사상은 과거의 중국인들은 거의 갖지 못한 덕이다. 양계초는 중국에서 국가사상이 발달하지 않은 이유를 크게 천하관념의 발달과 이기심의 만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천하관념을 발전시킨 세부적인 원인에는 다시 지리적으로 동등한 문화를 소유한 이웃나라가 없었다는 것과, 역사적으로 중국의 학술이 통일을 가지로 여겨왔다는 것으로 나뉘는데, 양계초가 보기에 이들 원인들은 당시처럼 서양 근대국가들의 존재를 확인하게 된 이상 조만간 해결될 것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이기심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사실은 노골적인 이기심보다는 도덕주의를 가장한 이기심이 더 고질적이고 위험한 것이었다.

3.2.5.1.2.1 객관적 원인

(e3.2.5.1.2.1.1) 천하관념이 발달한 원인은 다시 지리상의 이유와 학설상의 이유로 나뉜다. 지리상으로 중국은 산과 하천으로 가로막혀 각각의 국가를 이룩했던 유럽과는 달리 넓은 평원이었고 그 주위에도 문화적으로 자국을 줄만한 이민족이 살지 않았다. 또한 춘추전국시대에 만연했던 전쟁의 참담함을 목도한 중국의 철학자들은 전쟁을 종식시키는 길은 통일이라고 생각하고 한결같이 통일의 추구를 이론의 중심으로 삼았다. 이러한 지리상의 이유와 학설상의 이유 때문에 중국에 국가사상이 발달하지

않았으나, 양계초는 이 두 가지 이유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당시에는 서로 교섭하지 않는 국가가 없었고 동시에 세계 각 나라의 이론들도 수입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리상의 원인이나 학술상의 원인은 조만간 자연히 해결될 것이었다.(1.3.4.1.4 ‘평천하 의식’ 참조.)

3.2.5.1.2.2 도덕적 원인

(e3.2.5.1.2.2.1) 양계초의 판단에 따르면 객관적인 이유들보다 국가사상 저해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이기심이었다. 사회의 이익에 이바지한다는 공덕의 성격, 그 무엇보다도 국가의 이익을 가치의 우위에 둔다는 국가사상의 성격을 생각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이기심은 국가사상의 고취에 가장 큰 장애가 되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다. 그 이기심에도 노골적인 이기심이 있고 다른 얼굴을 한 이기심이 있다. 노골적 이기심은 사덕 면에서도 지탄받는 것이므로 그것은 오히려 큰 문제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도덕주의의 간판을 내건 이기심이다. 도덕주의의 얼굴을 한 이기심은 다시 비사회적 도덕주의와 위선적 도덕주의로 갈라진다.

3.2.5.1.2.2.1 비사회적 도덕주의도 결국은 이기심

(e3.2.5.1.2.2.1.1) 비사회적 도덕주의는 자신의 청렴과 결백을 가장 큰 가치로 여겨 사회참여에 소극적인 사람들을 가리킨다. 도가처럼 노골적인 은둔주의자들이 아니라 사실은 종래의 평범한 유학자들이 이에 해당된다. 양계초는 “자기 한 몸 깨끗이 하면서 시골에서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獨善其身 鄉黨自好者)이나 노골적으로 이기적인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나, 국가의 쇠망을 부르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똑같이 공덕 상의 부도덕자라고 생각했다. 그 행동의 동기는 양쪽 다 자기 일신의 이익만을 생각한다는 점에서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자기 한 몸 깨끗이 하면서 시골에서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은 나라 일이 자기에게 누가 될까봐 도피하는 자들이다.”(제6절) 양계초가 비난하는 “자기 한 몸 깨끗이 하면

서 시골에서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유학적 가르침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시골에서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鄉黨自好者)이나 ‘자기 한 몸 깨끗이 하는’(獨善其身) 사람이나 모두 『맹자』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둘 다 부정적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었다. 특히 ‘자기 한 몸 깨끗이 하는’ 일은 천하가 어지러울 때 현자들이 택하는 행동방식으로, 이 역시 도를 지키는 하나의 방법으로 얘기되던 것이었다. 이를 양계초는 사덕 상으로는 인정될지라도 공덕 상으로는 사회에 해악을 저지르는 범죄행위와 동일한 것으로 취급한다. 이는 유학이 사덕 상으로는 평가될지 모르지만, 공덕 상으로 보면 악이 될 수도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서, 종래의 유학으로는 새로운 도덕을 담당할 수 없음을 강변하는 것이었다.

(q3.2.5.1.2.2.1.2) 지금 사역의 인민 가운데, 그 눈이 자기 한 몸 너머를 보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리저리 일신의 이익을 따라 움직일 뿐이다. 눈앞에 보이는 손톱만큼의 이익을 쫓는 자들은 온 나라 동포를 팔아치우는 일이라도 사양하지 않는다. 이른바 일등급의 사람들은 ‘자기 한 몸 깨끗이 하면서 시골에서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獨善其身 鄉黨自好者)이다. 이는 내가 앞에서 말했듯이, 사회인에게 빛을 지고 갚지 않는 자이다. 자기 한 몸 깨끗이 하겠다는 것(獨善)과 이기적인 악행(私惡)은, 이른바 개인적 도덕성 여부에서 볼 때는 다르지만, 요컨대 국가의 쇠망을 부르기에 충분하다는 점에서는 한가지이다.(제6절, p.18)

3.2.5.1.2.2.2 위선적 도덕주의의 뿌리 역시 이기심

(e3.2.5.1.2.2.2.1) 충성(忠)과 효도(孝)는 역대 중국의 국가이념이었던 유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덕목이다. 양계초는 이 가운데 충성의 덕에 너무 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과거의 유학자들은 왕조에 대한 충성을 했을 뿐이지, 국가에 대한 충성을 몰랐기 때문이다. 양계초의 국가사상에 의하면 왕조는 일시적인 정부일 뿐으로 충성을 바칠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국가사상에 충실한 정부인 한에서만 인정된다.(‘정부와 국가의 관계’ 참고) 국가의 존재와 그 중요성은 모르는 채 일개 집안에 불과한 왕조에 충성을 다하는 것은 덕을 가진 충신이 아니라, 종복이거나 주

구일 뿐이라고 양계초는 과격하게 비난한다. 그러므로 잘못된 충성의 덕이 강조되고 발양되었을수록 국가주의라는 공덕은 싹조차 틔우지 못했을 것이다.

(q3.2.5.1.2.2.2.2) 중국인들이 대대로 전하고 이어온 천경지의(天經地義)는 충성(忠)과 효도(孝)이다. 그것은 좋다. 그러나 나라에 충성한다고 하면 그 뜻이 완전하지만 임금에게 충성한다고 하면 그 뜻은 편협하다. 왜 그런가? 충성과 효도 두 가지 덕은 인격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둘 중에 하나라도 결여된다면 때론 인간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충성이 단지 임금에게만 향한다면 세상의 임금들에게는 충성을 다할 길이 끊어진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격을 완전하게 갖추 수 없다는 상실감을 갖지 않겠는가! [...] 사람은 부모 없이 태어날 수 없고 국가 없이 자립할 수 없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국가에 충성하는 것은 은혜를 갚는 대의(大義)이다. 이것은 한 집안의 종복이나 주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 중국인들이 충성이라는 글자를 주인과 종복의 관계에만 쓰는 이름으로 여겨온 것은 얼마나 큰 전도인가!(제6절, p.18~19)

(e3.2.5.1.2.2.2.3) 나아가 양계초는 한 집안의 종복이고 주구이면서도 스스로는 충성의 도를 다한다고 오해하는 자들은, 실상은 자신의 작록을 추구하는 이기주의자들과 비유했다. 문명국이 아니더라도 이천 년 동안 중국은 끊임없이 주변 나라들과의 교류가 있었다. 그러므로 국가의 존재를 몰랐을 수가 없다는 것이 양계초의 생각이었다. 국가의 존재를 알았다면 한 집안의 종복으로서 살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살았다는 것은 자신의 이기심을 가장 중요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양계초는 이천여 년의 역사 동안 수대의 왕조에게 충성했던 중국인들을 이기주의자로 몰아세우고 그들을 위선적 도덕주의자들과 비난했다. 국가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이 국가사상이라는 덕이라면, 그들은 그 덕이 결여된 사람들이고, 올바른 국가사상 없이는 ‘충성’이라는 덕목도 가짜일 뿐이다. 그들은 결국 ‘충성’이라는 가짜 미덕을 간판으로 자신의 영달을 꾀한 것뿐이다. 애써 국가의 존재를 모른 척 하고 스스로의 이기심을 채웠을 뿐이다.

(q3.2.5.1.2.2.2.4) 한 집안의 종복이며 주구인 주제에 스스로는 충성한다고 오해하고 있는 자들은, 실상은 자신의 작록을 위해 움직이는 자들이다. 그들은 세력과 이익이 있는 곳으로 개미떼처럼 몰려들면서 한 술 더 떠 일종의 도덕이라는 미명으로 자신의 추함을 수식한다. 그런 자들이 아니라면, 이천년 동안 중국과 교통한 나라들이 문명대국이 아니고 사방이 모두 야만이더라도 역시 나라는 나라인데, 자기 나라와 상대해 있는 나라의 존재를 어떻게 전혀 몰랐다고 할 수 있겠는가!(제6절, p.22)

3.2.5.1.2.2.3 이기주의에서 국가사상으로

(e3.2.5.1.2.2.3.1) 국가사상은 인간 내면의 도덕성에서 나오는 덕이 아니다. 유용성을 따지는 체계 안의 덕이다. 국가사상은 국가의 이익을 최고의 선으로 여기라는 덕인데, 앞에서도 보았듯이 그 덕의 최대 장애물은 이기심이다. 왜 이기심이 최대의 장애물일까? 이기심이 인간의 자연이기 때문일 것이다. 자연적으로 자신에게 이로운 것을 쫓는 개인이 어떻게 국가사상이라는 덕을 가질 수 있을까? 양계초에 의하면 그것은 참다운 이기에 대한 지식과 숙고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 생존경쟁의 시대에, 그것도 거대국가 단위로 부딪히는 이 민족제국주의 시대에 무엇이 나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고 무엇이 나의 안락을 보장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고, 그에 대한 올바른 결론을 얻을 수 있다면, 그는 곧바로 국가사상이라는 덕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양계초는 말한다. 즉 자신의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을 앞세우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양계초는 중국인들의 이기심을 모두 없애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판단에 근거해 그 이기주의를 확충하고 공고히 하자고 설득한다.

(q3.2.5.1.2.2.3.2) 나는 우리 동포가 품고 있는 이기주의를 모두 없애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단지 이 주의를 확충하고 공고히 하기를 바랄 뿐이다. 어떻게 해야 참으로 자신을 이롭게 하고, 어떻게 해야 자신을 보존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 영원히 잃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그렇다면 국가사상을 기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동포여, 동포여! 넓은 영토를 믿을 수 있다고 하지 말라. 로마제국의 전성기 때 그 넓이는

오늘날의 우리만 못하지 않았다. 백성이 많다는 것에 의지하지 말라. 인도 원주민은 이백 여 조에 이른다. 문명을 믿을 수 있다고 하지 말라. 옛날 회랍의 전장제도는 독립국에 어울리는 것이었고 그 명성과 문물은 천하를 뒤덮었지만, 다른 민족에 복종하게 되고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고 멸망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중국은 이민족인 원나라 때, 사대부들은 모두 몽고문자를 배웠지만 문학은 거의 끊어지게 되었다. 그러니 오직 이 국가만이 우리의 부모이다. 아버지가 없다면 누구에게 의지하고 어머니가 없다면 누구를 믿을 것인가!(제6절, p.22~23)

3.2.5.2 권리사상

(e3.2.5.2.1) 근대국가의 국민은, 스스로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는 정치적 권리와, 자신의 재산을 소유하고 처분할 수 있는 경제적 권리를 비롯하여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여러 권리를 제도로서 보장받는다. 그러나 그 제도 역시 개개인의 자연권이 양도한 국가의 권리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든 권리의 근원은 개인의 자연권이다. 즉 개인은 인간으로서 천부적으로 권리를 가지며, 이것이 근대국가에서는 제도에 의해 보장된다. 양계초는 이러한 권리에 대해 역시 사상이라는 단어를 붙여 권리사상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공덕으로서 다뤘다. 즉 권리사상을 중국인들에게 근대민족국가의 국민이 되기 위해 몸에 붙여야 할 덕성으로서 요구했다.

3.2.5.2.1 권리사상은 천성

3.2.5.2.1.1 권리사상은 양지양능

(e3.2.5.2.1.1.1) 인간은 천성적으로 생존본능을 갖는다. 식욕과 성욕을 비롯해 이로움을 쫓고 해로움을 피하는 본능은 생명체의 본성으로서, 인간뿐 아니라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들이 공유하는 특성이다. 양계초는 이러한 본능을 ‘형이하’적인 본능이라고 부르고 인간은 동물들은 갖지 못한 ‘형이상’의 본능도 갖는다고 말한다. 양계초가 꼽는 그 형이상적인 본능의 대표적인 것이 권리사상이다. 즉 자신의 권리를 보존하는 능력이 천부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양계초의 표현대로라면 “사람이 태어나 권

리사상을 갖는 것은 천부의 양지양능(良知良能)이다.”(제8절)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권리, 형이상적인 그것은 한마디로 하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일 것이다. 동물적인 생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차원 높은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충족시키려는 의욕이 바로 권리사상일 것이다.

(q3.2.5.2.1.1.2) 하늘은 생물을 낳은 뒤 생물들에게 스스로를 지키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천부적 능력을 부여했다. 이는 생명을 가진 존재의 원칙이다. 그런데 사람이 만물 가운데 가장 귀한 이유는 단지 ‘형이하’의 생존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형이상’의 생존을 한다는 것이다. 형이상의 생존을 위한 조건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권리는 가장 중요하다. 그러므로 금수는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자신에 대한 유일무이한 책임이지만 인류라고 불리는 존재들은 생명과 권리를 모두 보존해야 비로소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다면 인간일 수 있는 자격을 잃고 금수와 동등한 자리로 떨어진다.(제8절, p.31)

3.2.5.2.1.2 무한한 권리의 신장 의욕 역시 천성

(e3.2.5.2.1.2.1) 더 나은 생존을 위해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는 힘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권리를 양계초는 천부적인 것이라고 하는데, 나아가 양계초는 인간은 역시 천성적으로 그 힘을 무한히 확장하고 싶어 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누구나 천성적으로 일반백성보다는 왕이 되고자 하고, 평민보다는 귀족이 되고자 하고, 여자보다는 남자가 되고 싶어 하며, 소수의 무리보다는 다수의 무리가 되고 싶어 할 것이다. 누구나 천성적으로 한계 없이 강한 힘을 얻고 싶어 하므로, 권리는 여러 힘들이 부딪혀서 긴장상태를 이루는 곳에서 성립할 것이다. 일반백성은 왕보다 그 본능의 힘이 약했기 때문에 왕보다 작은 권리를 누리게 되었으며, 평민은 귀족보다 그 본능을 약하게 발휘했기 때문에 귀족보다 작은 권리를 누리게 된 것이다. 즉 양계초가 생각하는 권리는 그 힘에 의해 결정된다. 강한 자들이 불의한 힘을 사용해서 그 권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자신의 천성을 포기하고 그 힘을 신장할 것을 게을리 하기 때문에 그러한 권리의 불평등이 생긴다고 양계초는 생각했다. 결과적으로 작은 권리

밖에 얻지 못한 존재는 자신의 본능에 불충실한 것이고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그들은 비난의 대상이 될지언정 동정 받을 여지는 없다.

(q3.2.5.2.1.2.2) 권리는 어디에서 생기는가? 강함에서 생긴다. 사자와 호랑이가 못짐승들에 대해, 혼장과 국왕이 백성들에 대해, 귀족이 평민에 대해, 남자가 여자에 대해, 다수의 무리가 소수의 무리에 대해, 힘센 나라가 약한 나라에 대해, 모두 절대적 우월의 권리를 점유하는 것은 사자나 호랑이 혼장 등의 포악 때문이 아니다. 사람들은 모두 싫증내는 일 없이 자신의 권리를 신장시키고 싶어 한다. 이것은 천성이다. 그러므로 권리라는 것은 반드시 갑이라는 사람이 먼저 포기한 뒤에야 을이라는 사람이 침해할 수 있다. 사람들은 모두 스스로 강해져서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힘쓴다. 이는 실로 사회를 단단히 하고 사회를 좋게 하는 둘도 없는 가르침이다.(제8절, p.31~32)

3.2.5.2.2 권리사상은 도덕의 문제

(e3.2.5.2.2.1) 양계초는 상대적으로 작은 권리밖에 누리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본능에 불충실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본능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이 바로 권리사상이고 권리사상은 공덕이라는 도덕체계 상의 덕이므로, 권리의 방기는 도덕적으로 나쁜 것이 된다. 양계초는 권리의 수호는 인격의 문제로서 이익을 쫓는 정신과는 상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자신의 본능에 충실해서 스스로의 권리를 찾고 지키는 일은 인격의 고귀함 때문으로 반대급부로서 주어지는 이익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3.2.5.2.2.1 권리사상은 인격의 문제

(e3.2.5.2.2.1.1) 양계초는 “권리사상의 강약”은 “인격”의 문제라고 말한다. 권리사상은 굴욕을 참지 못하는 정신이고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신이다. 굴욕을 태연히 견디고 명예를 잃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인격적으로 비천한 사람이고, 그 반대는 고귀한 사람이다. 인간의 형이상적인 본능은, 자신이 침해를 당하고 압박을 당하고 무고를 당

하는 것에 즉각적이고 예민한 고통을 느낀다. 그러한 고통을 참지 않고 스스로에게 안락한 조건을 만들어 주는 일은,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망설임 없이 실천할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압박당하고 무고를 당해도, 그 권리를 되찾을 줄 모르는 사람은 노예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인권을 포기한 사람이다. 자신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고 남들로부터 그러한 대접을 받기 위해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은 권리사상이 풍부한 사람이다.

(q3.2.5.2.2.1.2) 권리사상의 강약은 사실은 인격과 관계있다. 노비에게는 아무리 굴욕적이고 비천하게 대해도 그는 태연히 받아들인다. 그러나 고상한 무사라면 명예를 설욕하기 위해서는 목을 내놓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도둑에게 극도로 험한 말로 욕을 해도 그는 태연하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순결한 상인은 자신의 신용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만금이라도 아끼지 않는다. 왜 그런가? 침해를 당하고 압박을 당하고 무고를 당할 때 그 정신상의 무형의 고통은 바로 느껴서 스스로 멈출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8절, p.32~33)

3.2.5.2.2.2 권리는 이익과 상반된 것

(e3.2.5.2.2.2.1) 권리는 인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물질상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양계초는 주장한다. 강탈당한 물건을 찾기 위해 법에 호소하는 경우도, 목적은 물건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찾기 위한 것이지만 물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아가 양계초는 물건의 이익 자체 때문에 소송을 한다면 천박한 행동이라고 말한다. 양계초에게 권리사상은 도덕의 문제였고, 그는 도덕의 문제는 이익의 추구하고 양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듯하다.

(e3.2.5.2.2.2.2) 그러나 양계초의 공덕 체계는 국가의 이익을 최고선으로 생각하는 공리주의 체계이다. 공덕은 국가의 이익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 그 이익을 추구하는 덕이다. 즉 공덕과 이익은 분리될 수 없는 관계이다. 양계초는 국가주의에 봉사하는 덕인 공덕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

이 이기심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에게 ‘이익’은 ‘사적인 이기심’ 정도에 불과한 개념이었던 것 같다. 즉 공덕은 사적인 이기심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이익이라는 공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의 추구가 아니라 덕의 발휘라고 여겼던 것 같다. 권리사상은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정정당한 스스로의 주권을 성취하려는 정신이며, 개인의 주권은 결국은 국가의 주권을 쌓는 수역의 벽돌이 될 것이었다.

(q3.2.5.2.2.2.3) 권리의 진상을 오해하는 자들은 권리는 육체상, 물질상의 이익일 뿐이라고 생각해 손익을 계산하는 데 급급하다. 천박하구나, 천장부(賤丈夫)의 말은! 내 물건을 타인에게 강탈당했다고 해보자. 빼앗긴 사람은 법정에서 분연히 싸운다. 그가 싸우는 목적은 이 물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물건의 주권(主權)에 있다.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에 소송으로 얻은 이익은 모두 자선사업에 쓰겠다고 공언한다. 만약 소송의 목적이 이익에 있다면 이런 일을 왜 하겠는가! 그러므로 이러한 소송은 도덕상의 문제라 할 수 있지, 계산상의 문제라고 할 수 없다. 계산상의 문제라면 먼저 손익을 계산해서, 내가 쓸 소송비용이 소송에서 이겨 얻는 돈으로 충당되는지 보고, 충당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겠다고 한다면, 이는 천박한 사람의 행동이다. 이러한 계산은 물질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못에 물건을 빠뜨렸을 때 인부를 불러 찾으려 한다면, 그 물건의 가치와 인부의 임금을 계산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 목적이 물건의 이익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리사상은 그렇지 않다. 그 목적이 물건의 이익에 있지 않다. 그러므로 권리와 이익은 그 성질이 정반대이다. 목전의 안일을 탐해 아주 작은 소비를 계산한다면 그 추세는 반드시 권리를 무용지물로 여기는 데까지 이를 것이다. 이는 인격의 고하, 미추가 갈라지는 곳이다.(제8절, p.33)

3.2.5.2.2.3 권리사상의 결여는 마비와 마찬가지로

(e3.2.5.2.2.3.1) 유자들은, 남의 불행을 함께 느끼는 측은지심(惻隱之心)인 인(仁)의 마음은 인간 누구나 천성적으로 타고 난 것이라고 생각했다. 특히 송대의 성리학자들은 그 측은지심의 마음은 사람의 감각처럼 천부

적이고 즉각적인 것이라는 그 특성을 강조해서, 그러한 마음이 작용하지 않는 불인(不仁)은 의학에서 말하는 마비와 마찬가지로 설명했다. 즉 천성적인 측은지심이 발휘되지 않는 사람은 마비된 사람이 그런 것처럼, 불인한 사람은 온전한 인간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양계초는 성리학자들의 설명방식을 원용해서, 천성적인 권리사상이 발휘되지 않는 사람 역시 마비라고 표현했다. 성리학자들은 물론 ‘불인(不仁)’을 측은지심의 근원인 ‘인(仁)’을 결여했다는 의미로 사용했지만, 양계초는 그러한 인의 의미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다만 천부적인 감각과 마찬가지로 권리사상을 잃었다는 점에서 ‘인’보다는 ‘마비’라는 말을 더 강조하고 싶어한 것 같다. ‘인(仁)의 덕과 권리사상’ 항목에서 설명했듯이, 그에게 권리사상은 ‘인’의 덕이 아니라 ‘의(義)의 덕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양계초는 마비라는 말을 사용해서 그만큼 권리사상은 인간의 천부적인 특성이며 감각처럼 직각적이고 예민한 것이라는 것, 그것을 잃으면 불인이라는 최대의 부도덕이 되는 것처럼 역시 부도덕한 상태에 빠진다는 것을 말하고자 했다.

(q3.2.5.2.2.3.2) 사람의 사지와 오장은 형이하적인 생존의 요건이다. 내적으로는 간이나 폐, 외적으로는 손과 발, 모두 한 곳이라도 온전하지 못하다면 누구라도 고통을 느껴 빨리 치료할 생각을 한다. 사지나 오장의 고통은 신체의 내부 기관이 조화를 잃었다는 증거이며, 그 기관이 침해를 당했다는 증거이다. 치료하는 것은 그 침해를 막아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형이상의 기관에 역시 침해가 있다. 권리사상이 일단 침해되고 압박되면 그 고통을 느끼는 감정은 격렬하고 쓰라리다. 동기가 일단 촉발되면 자제할 수가 없어 그 침해에 저항하여 본래를 회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사지와 오장의 침해에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분명 마비불인(癱痺不仁)의 사람이다. 권리가 침해되었는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어떤 것이겠는가! 그러므로 권리사상이 없는 사람을 마비불인이라고 해도 된다.(제8절, p.32)

3.2.5.2.2.4 권리사상이 결여된 부도덕의 상태

3.2.5.2.2.4.1 관대함과 부드러움, 인내

(e3.2.5.2.2.4.1.1) 권리사상은 천성적으로 타고난 것으로, 그것의 결여는 마비상태와 같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의 발휘는 자연스러우면서 또한 도덕적으로 선이기도 하다. 권리사상을 무한히 신장시키려는 의욕 또한 천성이므로, 필연적으로 그것의 신장을 둘러싸고 사회 안의 다른 구성원 사이에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양계초는 그것의 조화보다는 무조건적인 신장을 주장했다. 아마도 당시 중국의 상황이 약자의 입장이었기 때문이리라. 약자의 입장에서 무조건적인 힘의 신장이 바로 조화를 가져오리라. 권리는 수많은 권리사상이 부딪히는 가운데 더욱 강한 권리사상이 이김으로써 성취된다. 즉 싸워서 이겨야 비로소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실상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는데 인내라는 미명으로 혹은 관대라는 미명으로 혹은 부드러움이라는 미명으로 묵인하고 그대로 당한다면, 그것은 부도덕의 극치일 뿐이다. 어리석고 둔한데다 부끄러움도 모르는 소치이다. 권리가 다른 권리사상과의 투쟁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인내라든지 관대 혹은 부드러움이라는 것은 노비의 비굴함에 필적하는 극치의 부도덕이다. 양계초의 판단으로는, 『논어』나 『중용』이 가르쳤던 관대함이나 부드러움은 권리사상이라는 형이상의 생존본능을 질식시킨, 도덕을 가장한 악으로 기능해 왔던 것이다. 여전히 이러한 것들을 미덕으로 간주한다면 자존심도 없고 기력도 없는 중국인들에게는 망국의 길만이 남아 있으리라.

(q3.2.5.2.2.4.1.2) 우리 중국 선철의 가르침 가운데 “관대함과 부드러움으로 가르치고 무도함에 무도함으로 보복하지 않는다.”(寬柔以教 不報無道: 『중용』), “남이 내게 잘못해도 따지지 않는다.”(犯而不校: 『논어』), “덕으로 원수를 대하고 곧음으로 원수를 대하라.”(以德報怨, 以直報怨: 『논어』) 같은 것들이 있다. 이는 앞사람들이 뭔가 의미를 두고 한 말로, 우연히 성덕군자를 만나면 충분히 사람들에게 존경심을 일으킬 수 있지만, 말류의 유학자 나부랭이들은 그 글에 빙자해서 태만하고 비겁하게 행

동하니, 그러한 열등한 근성이 온 천하를 망친다. 이른바 백번을 참아 일을 이룬다든지, 누가 얼굴에 침을 뱉어도 닦지 않고 저절로 마를 때를 기다린다는 이야기들이 세속에서 전해지는 좋은 이야기들이다. 그러나 사람이 누군가 자신에게 침을 뱉어도 닦을 줄 모르고 참는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고 둔하고 부끄러움을 모를 수 있는가! 지금 전 중국인에게 이것만을 일삼게 한다면 이는 전 중국인을 이끌어 빠도 없고 피도 없고 기력도 없는 괴물로 만드는 것이니, 나는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다.(제8절, p.35)

3.2.5.2.2.4.2 소극적 개인주의

(e3.2.5.2.2.4.2.1) 개인주의가 자기 자신의 권리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권리사상 면에서 나무랄 데가 없다. 그렇게 개인의 권리가 쌓여 국가의 권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리는 쟁취해야 하는 것이다. 가령 중국 고대의 양주(陽朱)는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긴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회를 부정하고 자연 속에 은둔하기를 택했다. 온갖 사회적인 이념들이 오히려 생명을 갉아먹는다고 생각한 것이다. 양계초는 양주의 그러한 태도를 게으름, 운명론, 염세주의 등으로 규정하면서 비판했다. 분명 양계초가 생각하는 권리는 그런 식으로 얻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 양주가 원하듯이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보전하려거든 적극적으로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 그것을 위협하는 것들에 맞서 싸워야 한다. 지금 강력한 민족제국주의에 맞서 생명을 보전하려거든 이쪽 역시 강력한 국가를 조직하여 국가의 주권을 지키는 방법만이 있을 뿐이다. 그것만이 양주가 원했던 권리를 지키는 길이다. 양계초에 의하면 양주의 잘못된 권리사상은 중국의 권리사상이 왜곡되고 박약하게 된 또 하나의 원인이었다.

(q3.2.5.2.2.4.2.2) 양주는 사람들이 모두 각자 자신의 털 한 오라기도 손상시키지 않고 모두 각자 천하를 이롭게 하지 않는다면 천하는 다스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전에는 이 말을 가장 싫어하고 증오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역시 일리가 있는 견해이다. [...] 모두들 각자 자신의 털 한 오라기도 손상시키지 않으려 한다면 누가 감히 그 털을 건드려 타인의 창

끝을 촉발하려 하겠는가! 그러므로 천하가 다스려진다는 것은 빈말이 아니다. 그런데 양주는 권리사상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지는 못했다. 그는 권리를 지킴으로써 잃지 않는다는 것은 알았지만, 권리는 나아가 쟁취함으로써 비로소 생긴다는 것을 몰랐다. 게으름, 안락을 탐하는 자세, 운에 맡기는 자세, 염세 등이 모두 권리를 죽이는 망나니(劊子手)이다. 그런데 양주는 매일 그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권리를 얻으려고 했으니, 독을 마시면서 영생을 얻으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 때문에 중국이 양주학이 성행했으면서도 오직 사람들이 천하를 이롭게 하지 않는 해독의 습관만 만연하게 하고 털 한 오라기라도 손상시키지 않는 이상은 실행하지 못하게 하여, 권리사상을 박약하게 만들었다.(제8절, p.36)

3.2.5.2.2.4.3 권리사상을 쪼먹는 인(仁)

(e3.2.5.2.2.4.3.1) 인은 중국 유가가 꼽는 최고의 덕목이다. 인은 타인에 대한 사랑이다. 남에게 베풀고 남 역시 내게 그렇게 하리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남이 내게 그렇게 하리라는 것은 보장되지 않는다. 즉 내 행위의 결과를 남의 손에 맡겨 놓는 형국이 된다. 그래서 양계초는 인이란 “나의 자유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폄하했다. 또한 인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많으면 주위의 사람들이 남의 그런 행위를 기대하게 만든다. 즉 타인의 동정을 기대하게 만드는 형국이므로 이 역시 타인의 인격을 비루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양계초는 비난한다. 권리는 스스로의 본능에 충실해서 스스로의 능력으로 얻어야 하는 것인데, 인이란 스스로의 권리도 포기하고 또한 타인의 권리사상도 약화시키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중국 전통의 최대의 덕목인 인은 공덕체계에서는 악이다. 특히 그것은 권리사상을 쪼먹는 악이다.

(q3.2.5.2.2.4.3.2) 중국은 인(仁)에 대해서 많이 논하고 서양은 의(義)에 대해서 많이 논했다. 인(仁)이란 타인(人)이다. 내가 타인을 이롭게 하면 타인 역시 나를 이롭게 한다는 것이므로, 중점은 항상 타인에게 있다. 의란 나(我)이다. 내가 타인을 해치지 않으며 타인이 나를 해치는 것 또한 허용하지 않는 것이므로, 중점은 나에게 있다. 이 두 덕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지극한가? 천만년 후의 대동태평의 세계에서는 어떨지 감히 말 못하겠

지만, 오늘날이라면 의가 진실로 시대를 구제할 지덕(至德)이고 요도(要道)이다. 나의 인을 발휘하여 타인을 인하게 하는 것은, 비록 타인의 자유를 침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자유를 방기하는 것이다. 인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많으면 타인의 인을 기대하는 사람 또한 많다. 그 폐단은 인격을 날로 비루하게 한다는 것이다.(제8절, p.35)

3.2.5.3 의무사상

(e3.2.5.3.1) 의무란 국가구성원이 국가라는 단체를 성립시키고 유지되도록 국민이 국가에 제공해야 하는 물적 또는 인적 자원이다. 양계초는 그 의무로서 조세와 병역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들었다. 그 의무에 양계초는 ‘사상’이라는 단어를 붙여 의무사상이라 부르고 이 역시 공덕의 하나로서 다뤘다. 즉 근대국가의 국민은 ‘의무사상’이라는 공덕을 지녀야 한다. 의무사상이란 자신의 의무의 의미에 투철하여 그것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정신일 것이다.

3.2.5.3.1 의무사상은 문명국민의 덕성

(e3.2.5.3.1.1) 의무사상은 국민이 국가에 치러야 하는 의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철저히 수행하고자 하는 정신이다. 의무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근대국가의 성립은 국민들이 있기에 가능하다. 근대국가가 성립하고 운영되는 것은 국민들이 제공하는 물적·인적 자원에 의해서이다. 근대국가에서 국민들이 제공하는 의무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강한 국가를 원하며 강한 국가를 위해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국민은 단지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존경쟁의 싸움터에서 나라 잃은 식민지 백성으로 전락한다. 그러므로 의무를 다하는 것은 스스로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을 아는 의무사상은 근대의 문명국민이 갖춰야 할 덕성인 것이다.

3.2.5.3.1.1 권리와 의무의 균형은 문명의 상징

(e3.2.5.3.1.1.1) 의무가 국가의 구성원이 국가의 성립과 유지를 위해 국가에 제공하는 것이라면 권리는 그 반대급부로서 개인이 국가로부터 제공받는 것이다. 근대국가는 그 성립 자체가 국민이 있음으로써 가능하다. 즉 국민이 의무를 다함으로써 가능하다. 각 구성원이 자신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국가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그 혜택을 권리라는 이름으로 구성원이 누리는 것이므로, 양계초는 의무와 권리가 것처럼 균형을 이루며 상응하는 것은 문명사회의 특징이라고 보았다. 국민국가가 성립되기 이전의 사회에서는 귀족과 노예가 있는 신분사회였으므로 의무 없이 권리만 누리는 귀족도 있었고 권리 없이 의무만 지拂하는 노예도 있었다. 그러나 근대의 문명사회에서는 의무 없는 권리는 없으며, 권리 없는 의무는 없다. 이에 대해 분명히 아는 것이 의무사상을 가질 수 있는 첫 단계일 것이다. 그래야만 자신이 지拂하는 의무가 헛되지 않고 반드시 권리라는 대가로 돌아올 것을 믿고, 기꺼이 의무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q3.2.5.3.1.1.2) 의무와 권리는 서로 의지해 성립하는 것이다. 사람이 태어나면 응당 얻는 권리가 있으며, 또한 태어나서 응당 다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니, 이 둘의 양이 적절하게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야만사회에서는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거나,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이며, 올바르지 않은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사회가 점차 문명사회로 나아가면 결단코 권리 없는 의무는 없으며, 마찬가지로 의무 없는 권리는 없다. 권리 없는 의무는 없기 때문에 피로하도록 노력하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며, 의무 없는 권리는 없기 때문에 나태하게 놀기만 하는 자들은 기뻐할 것이 없다.(제16절, p.104)

3.2.5.3.1.2 의무사상은 국가의 초석

(e3.2.5.3.1.2.1) 양계초가 의무사상에 대해 강조하게 된 것은, 자신이 권리사상에 대해 다룬 뒤, 그 권리가 의무에 의해 뒷받침되는 권리라는 것을 모르는 일부 사람들의 무지를 깨우쳐주기 위해서였다. 당시의 가장

큰 권리인 ‘자유 민권’은, 서구의 근대국가 국민들로서는 피와 땀을 동반한 투쟁에 의해 쟁취한 것이었다. ‘자유 민권’이라는 권리를 위해 피와 땀이라는 의무를 지불한 것이었다. 근대국가의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얻으려면 꼭 그만큼의 의무를 지불해야 한다. 그런데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국민 모두 똑같지는 않다.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능력에 알맞게 지불하면 된다. 그리고 그것을 지불하지 못하면 권리를 누릴 수 없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대국가의 성립 자체를 기대할 수 없다. 근대국가를 성립시킬 수 없다는 것은 예전의 전제국가 아래에서 그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민족제국주의 시대에 근대적 민족국가를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은 식민지로 전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국민은 국민이라 할 수 없고, 국민 없이 근대국가는 성립할 수 없다. 의무는 국가 성립의 초석이다. 의무사상이란, 자신이 제공하는 의무가 바로 국가의 초석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자신의 지위에 걸맞게 능력을 다하여 국가를 위해 의무를 다하려는 정신이다.

(q3.2.5.3.1.2.2) 지금 의무사상을 키우는 것을 서두르지 않는다면 날마다 권리사상에 대해 말해도 역시 불완전한 권리사상일 뿐이다. 이는 사리를 모르는 어린아이가 수고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부모의 양육은 원하는 것과 같다. 이는 게으름피우며 일은 하지 않으면서 주인에게 급여를 받으려는 것과 같다. 오늘날 볼 수 있는 권리의 주장은 이러한 종류의 것들이 많다. 남의 자유 민권(自由民權)은 부러워하면서도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남들은 찾아가서 얻는데 우리는 저절로 올 것을 바란다. 남들은 피와 눈물로써 얻는데 우리는 입과 혀로만 쉽다고 여긴다. 남들은 온 나라 안의 사람들이 대소, 귀천, 부귀, 빈천을 불문하고 모두 자신에게 상응하는 의무를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보라. 어떤 사람은 관리의 의무를, 어떤 사람은 사군자의 의무를, 어떤 사람은 농공상의 의무를, 어떤 사람은 군인의 의무를, 어떤 사람은 보수당의 의무를, 어떤 사람은 유신당의 의무를, 어떤 사람은 온건파의 의무를, 어떤 사람은 급진파의 의무를, 어떤 사람은 청년의 의무를, 어떤 사람은 소년의 의무를, 어떤 사람은 부녀자의 의무를 다하는가?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지위에 비추고 자신의 능력에 맞게 부족함 없이 자신의 의

무를 다했다고 감히 자신할 수 있는가? 없다. 아들을 일곱 둔 어머니를 봉양할 자식은 한 사람도 없으니 자식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역 인의 나라이지만 한 사람도 국가의 의무를 자신의 의무로 삼는 사람이 없으니 국민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 없는 나라가 어떻게 나라일 수 있겠는가!(제16절, p.107)

3.2.5.3.1.3 정부의 기강을 바로잡는 것도 의무사상

(e3.2.5.3.1.3.1) 양계초가 말하는 의무사상은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데서 그치지 않는다. 양계초는 흔들리는 조정을 바로잡고 어지러운 국내사정을 정돈하는 것도 국민의 의무라고 말한다. 조정이 문란하고 국내사정이 어지러우면 외적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온다. 특히 당시처럼 제국주의 국가들이 호시탐탐 틈을 노리고 있는 때라면, 국내의 혼란은 영락없이 망국으로 이어진다. 양계초는 그러한 망국 역시 국민의 의무사상이 천박하기 때문에 초래된 것이라고 말한다. 의무사상이 투철한 국민이라면 국가가 것처럼 허약해지는 것을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납세의 의무나 병역의 의무뿐 아니라, 자신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그 국가를 잘 관리하는 일 역시 국민의 의무이며, 거기까지도 국민의 의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참다운 의무사상이다.

(q3.2.5.3.1.3.2) 국민의 의무사상이 너무 천박하면 사람들(外族)이 그 빈틈을 타고 들어온다. 조정의 기강이 문란하면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국민의 의무이다. 나라 안에 난이 있으면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이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것은 온 나라가 모두 의무를 방기하기 때문이다. 의무를 방기했다면 그 권리는 저절로 회복할 수 없다. 이것이 진화의 대원칙이다. 저 외족이 들어와 오히려 우리를 대신해 안정시키고 정비했다면 그들이 비록 우리를 위해 의무를 다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와 비교해보면 그들이 다한 의무는 우리보다 낫다. 저들 외족이 중하(中夏)에 들어와 조금 길게 세상을 장악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이 때문이다. 저들이 비록 옳지 않지만 우리들은 스스로를 원망할 수 있을 뿐 어떻게 남을 원망하겠는가!(제16절, p.105)

3.2.5.3.1.4 의무사상은 우월함의 원천

(e3.2.5.3.1.4.1) 양계초에게 문명의 나라는 경쟁에서 살아남은 나라, 즉 우승열패의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은, 남보다 우월한 나라이다. 한 나라의 우월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양계초는 의무의 완수에서 온다고 말한다. 국민이 의무를 다 하느냐 못 하느냐가 그 나라의 우열을 결정하고, 우월한 나라는 경쟁에서 열등한 나라를 이기고, 그리하여 적자(適者)로 선택된 그 나라의 국민은 그 결과로 권리라는 보상을 얻는다. 우승열패·적자생존의 진화론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강함은 선이고, 그 강함의 원천인 의무사상은 선의 원천이다.

(q3.2.5.3.1.4.2) 옳지 못한 권리와 의무가 오래갈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생존경쟁·적자선택의 법칙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권리는 어디에서 유래하는가? 이겨서 선택되는 데서 나온다. 이기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경쟁해서 우월함을 획득하는 데서 온다. 우월함이란 무엇인가? 그 주어진 의무를 다 완수하는 것이 남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이다. (제16절, p.104)

3.2.5.3.2 의무사상의 부재

3.2.5.3.2.1 의무사상의 박약은 권리사상의 박약으로

(e3.2.5.3.2.1.1) 군주국에서 오랫동안 억눌려 살아온 중국인들이 근대국가의 국민이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인간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태어나서 이 사회에서 누려야 하는 권리에 대한 의식일 것이다. 민주국가의 국민이 되기 위해 중국인들이 권리사상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것이 당시 중국의 일반적 분위기였을 것이다. 그런데 양계초는 권리사상 보다도 먼저 의무사상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의무사상이 없기 때문에 권리사상도 자랄 수 없다고 말한다. 어리석은 국민은 어리석은 아이처럼 뒷날 져야 할 의무가 싫어서 지금 누릴 수 있는 권리도 포기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식이 어려서는 부모로부터 양육이라는 은혜를 받고 장성해서는 봉양이라는 의무를 다하면서 혈육사이의 친밀함

이 깊어가듯이, 국민은 국가에게 의무를 다하여 국가를 윤택하게 하고 그 윤택함을 권리로서 누리면서 국가에 대한 사랑이 깊어간다고 양계초는 말한다. 그러므로 양계초에 의하면 의무사상과 권리사상은 애국심의 뿌리이며, 의무사상이 없으면 권리사상 역시 자라나지 못한다.

(q3.2.5.3.2.1.2) 이러니 어리석은 아이와 무엇이 다른가! 가정 안의 가르침에는 따르지 않은 채 “나는 부모가 나를 키우기를 바라지 않고 다만 부모가 나를 수고롭게 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한다. 부모가 키워주지 않으면 스스로 생존할 수 없으며 이미 키웠다면 부모를 위해 수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피할 수 없는 이치이다. 키우고 부양하는 뒤에야 나와 부모의 관계가 날로 친밀해지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도 일어난다. 그러므로 권리와 의무 두 사상은 애국심이 나오는 근거이다. 사람이 아무리 바보라도 누구나 부모에게 양육받기를 바란다. 어리석은 아이가 이 권리를 버리는 이유는 오로지 뒤의 수고를 싫어하는 한가지뿐이다. 지금 논자는 중국인이 권리사상이 없는 것이 병이라고 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권리사상이 없는 것은 나쁜 결과이고(惡果), 의무사상이 없는 것이 사실은 나쁜 원인이다(惡因).(제16절, p.107)

3.2.5.3.2.2 의지와 실천의 박약

(e3.2.5.3.2.2.1) 중국에서는 정부가 국민의 양대 의무라고 할 수 있는 납세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를 줄여주면 그것을 최고의 인정(仁政)이라고 여겼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만 따질 줄 아는, 의지와 실천의 박약 때문이라고 양계초는 말한다. 당장은 세금을 많이 내는 것 보다 적게 내는 것이 좋다. 그러나 국가 전체의 경영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어리석은 일인 줄 깨닫게 될 것이다. 국민들이 세금을 적게 내어 국가의 운영비가 줄어든다면 민사를 위한 복지를 도모할 수 없으며, 국민들이 의무로 복무하는 병역대신 용병을 쓴다면 그 용병들에게서는 애국심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국민들의 의무가 줄어드는 것은 절대로 국민들에게 좋은 일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의지와 실천력을 발휘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한다면 그것이 곧바로 국가의 힘이 되고 그 국가의 힘은 곧바로 내가 이 국가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되어 돌아올 것이다.

(q3.2.5.3.2.2.2) 그런데 우리 국민은 이 두 가지(납세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를 가장 두려워했다. 그 두 의무를 면할 수 있으면 큰 행운으로 삼았다. 이는 의지와 실천이 박약하다는 증거이다. 옛날 임금의 덕을 칭송하는 자들은 모두 징병을 면제하고 조세를 감하는 것을 제일의 인정이라고 여겼다. 송조(宋朝)가 징병을 용병으로 바꾸고 본조(本朝) 강희연간에 부(賦)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명령에 대해 백성들은 가장 칭송하고 가장 감격했다. 용병에게는 애국심의 발현을 기대할 수 없고 내내 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민사를 위해 새로운 일을 도모하려고 해도 비용이 나올 데가 없으니 좋은 제안도 폐기되지 않을 수가 없다. [...] 중국인민은 국가에 대한 권리가 가벼운 것은 걱정하지 않고 오직 이행해야 할 의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뿐이다.(제16절, p.106~107)

3.2.5.3.2.3 효제의 문제점

(e3.2.5.3.2.3.1) 중국에 의무사상이 완전히 없었던 것은 아니다. 부모에 대한 효도(孝)나 형에 대한 공손(悌), 임금에 대한 충성(忠), 남편에 대한 절개(節)는 모두 의무에 관한 것이고 그 덕목들은 중국에서 왕성하게 발달했던 것들이다. 그러나 양계초에 의하면 이것은 불완전한 의무사상이다. 왜냐하면 효·제·충·절은 권리와 짝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완전한 의무사상이란 자신이 다한 의무를 권리로서 돌려받아야 한다는 이른바 권리사상 역시 그 짝으로 갖춰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효·제·충·절은 국가에 대한 의무는 결여한 채 개인에 대한 의무만 말한다는 점에서도 불완전하다. 임금에 대한 충성 역시 개인에 대한 것일 뿐이다. 충성의 대상은 임금이라는 개인이 아니라 국가이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발달한 효·제·충·절이라는 불완전한 의무사상은 오히려 바람직한 의무사상의 양성을 가로막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이 불완전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 역시 의무사상의 고취를 위해 필수적인 일이며, 이것이 불완전한 의무사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일방적이고

개인적인 효·제·충·절의 덕목 역시 반성의 대상이 될 것이다.

(q3.2.5.3.2.3.2) 그런데 우리 중국 선철의 가르침 가운데 서양인들이 말하는 의무교육이 있다. 효(孝)니, 제(悌)니, 충(忠)이니, 절(節), 어느 하나 의무를 다하라고 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중국인의 의무사상과 권리사상을 비교해보면, 의무사상이 권리사상보다 훨씬 더 발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불완전한 의무사상이다. 권리가 없는 의무는 보상 없는 노동과 같은 것으로, 그것이 불완전한 첫 번째 이유이다. 개인이 개인에 대한 의무는 있어도 개인이 단체에 대한 의무는 없다는 것이 효·제·충·절이 불완전한 두 번째 이유이다.(제16절, p.108)

3.2.5.4 자유정신

(e3.2.5.4.1) 자유란 외부에 대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스스로가 가진 힘이다. 양계초는 국가라는 주체를 중심으로 생각했으므로 그에게 자유란 국가의 자유가 가장 중요했으며 그것은 외족의 힘에 대해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국가의 힘을 의미했다. 국가의 그러한 힘의 원천은 결국 국민이다. 양계초는 국가의 자유를 위해 국민들에게 역시 자유정신을 요구했다. 그것은 이성(理性)에 대한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성(理性)은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고 국가의 자유를 추구하는 이성을 의미했다.

3.2.5.4.1 자유와 법

3.2.5.4.1.1 개인의 자유는 단체의 질서에서

(e3.2.5.4.1.1.1) 생존경쟁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양계초에게 자유는 일단 경쟁에서 이김으로써 확보되는 것이다. 지금의 세상은 가장 발달한 단체인 국가들이 경쟁하는 시대이다. 당연히 개인의 자유는 국가의 자유에 종속된다. 즉 개인이 자유를 누리려면 자신이 속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힘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개인은 자신의 개인적 자유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국가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단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나아가 단체의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해 개인이 가져야 할

정신과 태도, 그것이 자유정신이라 불릴만한 것이다. 국가의 경쟁력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문명의 자유라 할 만한 이러한 단체의 자유는, 그러므로 겉보기에는 자유와 거리가 멀어 보일 수 있다. 양계초의 표현에 의하면 “일거일동이 기계의 움직임과 같고 그 일진일퇴는 군대의 도보와 같다.” 그래서 야만인의 눈에는 “세상에 그보다 더 심한 부자유는 없어” 보인다. 문명인의 자유는 단체의 자유, 국가의 자유를 위해 개인을 단체와 국가의 규율 밑에 복종시키는 것이다.

(q3.2.5.4.1.1.2) 문명의 자유란 법률 밑에서 자유로운 것이다. 그 일거일동이 기계의 움직임과 같고 그 일진일퇴는 군대의 도보와 같다. 야만인이 보면 세상에 그보다 더 심한 부자유는 없을 것이다. 이런 것이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세상에, 내적으로 정돈되지 않은 채 외부와 경쟁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 외부와의 경쟁은 그칠 때가 없으므로 내부가 경쟁의 준비를 갖추어야 할 때도 그칠 때가 없다. 만약 자유를 남용하여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단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사회는 자립할 수 없을 것이며 나아가 다른 사회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어떤 자유를 바랄 수 있겠는가!(제9절, p.45)

3.2.5.4.1.2 자신이 제정한 법률에 복종하는 것

(e3.2.5.4.1.2.1) 참된 자유는 단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 결과로서 자신의 자유를 보장받는 것이다. 단체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준법정신이다. 준법정신이 어떻게 자유인가? 자유란 자신에게 적용될 법을 스스로 부과하는 것이다. 근대국가의 법이란 국민이 만든 것이다. 그 법은 국가 전체에 질서를 부여하고 그럼으로써 국가의 힘을 길러 국가의 자유를 가능하게 한다. 그런 작용을 하도록 국민 각자의 힘을 모아 제정한 것이 바로 법이다. 그러므로 “참된 자유는 반드시 복종할 줄 안다.” 그 복종은 스스로가 만든 법에 복종하는 것이므로 결국은 스스로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자신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무질서한 방종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복종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의미에서 “복종은 자유의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다.

(q3.2.5.4.1.2.2) 그러므로 참된 자유는 반드시 복종할 줄 안다. 복종이란 무엇인가? 법률에 복종하는 것이다. 법률이란 내가 제정함으로써 나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며 또한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저 영국인들이 그렇다. 세상의 민족 가운데 복종의 성질이 영국인만큼 풍부한 민족이 없고, 또한 영국인만큼 자유를 풍성히 향유하는 민족이 없다. 복종이 자유의 어머니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은가!(제9절, p.45)

3.2.5.4.1.3 법률은 양지와 노력에 의한 것

(e3.2.5.4.1.3.1) ‘양지(良知)’와 ‘인위(僞)’는 맹자와 순자가 각각 선(善)을 설명하면서 사용한 말이다. 맹자는 인간이 천성적으로 선하다는 것을 양지라는 말로 표현했고 순자는 인간은 천성적으로는 오히려 악하다고 할 만하고 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인위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양지와 인위는 각각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을 의미하는 말로 동일한 것을 설명하면서 양립하기 어려운 말이다. 그런데 양계초는 법률은 인위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면서도, 그것이 외부에서 부여된 것이 아니라 만민의 양지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상적으로 법률로 성립하는 ‘인위’가 필요한 이유는 “사람의 성질은 각각 달라 잡박하며 기율이 없기” 때문이다. 이를 그대로 둔다면 “난동이 일어날 것이며 서로 질서하고 적대하여 사회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행정력에 의해 집행해야만 비로소 질서가 생긴다. 사실은 이 법률은 인간의 본성과는 다른 것이므로 인간에게 이 법률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순자는 학습을 강조했고, 보통 법은 강제성을 동반한다. 그런데 양계초는 여기에서 루소식의 법의 성립, 즉 사회계약을 생각했던 것 같다. 그 법률의 근원은 개인의 의지이다. 양계초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 그 법률의 근원은 인간의 양지, 즉 천성적인 선함이므로 권면도 필요 없고 강제도 필요 없다고 말한다. 이는 사실상 법에의 복종을 의미하는 양계초의 자유가 도덕의 영역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이해가 간다. 정치·경제를 비롯한 근대국가의 모든 필요조건을 도

덕의 영역에서 요구했던 양계초는 법에의 복종 역시 도덕의 영역으로 다루었다. 도덕의 가장 큰 특징은 자발성이다. 양계초에게 가장 분명한 자발성의 원천은 맹자의 ‘양지’였던 듯하다.

(q3.2.5.4.1.3.2) 『서경』에서는 “날마다 본성을 절제하는 일에 매진한다.”고 하고, 순자는 “인간의 본성은 악하며 선한 것은 위(僞)”고 했다. 절제한다는 것은 제재한다는 것이며 위(僞)란 인위라는 뜻이다. 사람의 성질은 각각 달라 잡박하며 기울어 있다. 이를 그대로 따르다면 난동이 일어날 것이며 서로 질시하고 적대하여 사회를 이룰 수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인위의 힘을 개입시켜 법률을 만들어 제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 법률은 밖으로부터 녹아든 것이 아니며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규율을 제정하는 것은 군중들이다. 사람들의 마음속 동일한 양지에서 발현되어, 이러저러하면 인도(人道)에 적합하다고 생각된 것들이다. 그러므로 나의 자유를 보존할 뿐 아니라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권면도 필요 없고 강제도 필요 없다. 그러면서도 규구준승(矩矩準繩) 안에서 스스로 처신할 수 있으니 이러한 것을 자치라고 한다.(제10절, p.51~52)

3.2.5.4.2 마음의 자유

(e3.2.5.4.2.1) 나 개인의 자유를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이 국가의 부자유에 있고, 국가의 부자유에 가장 큰 원인이 나의 방종에 있다면, 나의 자유를 가로막는 근원적인 원인은 내게 있다. 양계초는 개인 안에 마음과 감각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 즉 이성과 감정이다. 참다운 나를 대표하는 것은 감각기관이 아니라 이성 즉 마음이다. 마음은 사유하는 기관이므로 마음이 자기 기능을 발휘한다면 국가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마음의 기능을 방해하는 것이 감각기관이다. 국가의 자유를 침해하여, 그리하여 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주범은 나의 감각기관이다. 나의 감각기관이 비대해져서 나의 사고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하여 국가의 자유를 침해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가장 무서운 것은 스스로가 감각기관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힘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마음의 자

유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q3.2.5.4.2.2) 그런데 사람에게는 두 가지 ‘나’가 있다.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 상대한 나, 인간 세상에 서있는 육체적(七尺) 존재가 하나이다. 또 하나는 그 육체적 존재와 상대하고 있는 나, 그 육체 안에 한 점 존재하는 마음(靈臺)이다.(원주: 맹자는 사물과 사물이 교섭하면 사물에 이끌린다고 말했다. 사물은 나와 상대하고 서있는 것이다. 조금 위의 사물은 중생이고 그 아래의 사물은 육체[즉 감각기관]이다. 요컨대 사물은 모두 내가 아니다. 나란 무엇인가? 마음일 뿐이다. 먼저 그 큰 것을 확립하면 작은 것이 빼앗지 못한다고 했다. 오직 나만이 위대하고, 두 영역의 사물은 모두 사소하다. 작은 것이 큰 것을 빼앗지 못하게 되면 자유의 크기는 극대가 된다.) 그러므로 타인이 나를 노예로 삼는 일은 두려운 일이 아니다. 타인에게 스스로 노예가 되는 것보다 더 통탄할 일은 없다. 타인에게 스스로 노예가 되는 것은 오히려 두려운 일이 아니다. 스스로에게 노예가 되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은 없다.(제9절, p.46~47)

3.2.5.4.3 자유의 상실 — 마음속의 노예

(e3.2.5.4.3.1) 국가 자유의 근원이 내 마음의 자유에 있다면, “마음이 노예가 되는 것”보다 더 큰일은 없다. 그에 비한다면 “몸이 노예가 되는 것”은 그다지 큰일이 아니다. 몸이 노예인 상태로부터는, 나의 결단에 의해 헤어날 수도 있고, 혹은 주인의 자비에 의해 헤어날 수도 있다. 또는 정의의 힘에 의해 구제될 수 있다. 그러나 마음속의 노예, 즉 사고 작용이 감각기관의 노예가 되어 규율이 없는 상태는 스스로 만든 것이고, 그 때문에 거기에서 헤어나는 것도 스스로의 힘에 의지할 수 있을 뿐이다. 마음의 자유가 자유의 가장 핵심적인 자유이므로, 마음속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것이 참된 자유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마음이 노예가 되는 경우를 양계초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마음의 자유를 잃지 말 것을 촉구했다. 그 네 가지는 옛사람의 노예가 되지 말 것, 세속의 노예가 되지 말 것, 상황의 노예가 되지 말 것, 정욕의 노예가 되지 말 것이다.

(q3.2.5.4.3.2) 장자(莊子)는 마음이 죽는 것보다 더 슬픈 일은 없으며 몸이 죽는 것은 그 다음이라고 했다. 나 또한 마음이 노예가 되는 것보다 더 치욕스러운 것은 없으니, 몸이 노예가 되는 것은 별일 아니라고 말하겠다. 타인이 강제로 나를 노예로 삼는다면 내가 싫어하여 일단 떨어져 일어난다면 그 줄을 끊을 수 있다. 19세기 각국의 민변(民變)이 이런 일이었다. 몸이 타인의 노예가 되어 있다면 혹은 타인의 자상함을 견드려서 혹은 정의의 힘에 의해 오히려 재난에서 구출될 수가 있다. 미국의 흑인노예해방이 이런 일이었다. 오직 마음속의 노예만이, 그렇게 만드는 것도 외부의 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도 외부의 힘이 어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치 누에가 고치 속에서 스스로를 묶듯이, 비계가 솔 속에서 스스로 꿰듯이 밖에서 어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참된 자유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마음속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일부터 해야 할 것이다.(제9절, p.47)

3.2.5.4.3.1 옛사람의 노예

(e3.2.5.4.3.1.1) 유가고전을 불변의 진리로 여기고 살아온 중국 사람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노예상태는 옛 성인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유교의 세계관 안에서 역사는 불변하는 진리가 드러나거나 숨거나 하는 일의 반복이다. 그러므로 어느 시대의 일이라도 과거의 성인과 그 성인이 남긴 경전을 기준으로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진화론자 양계초의 눈에는 세상의 모든 것은 진화해간다. 사람의 지혜도 점점 발전한다. 지금 사람은 옛날 사람보다 아는 것도 더 많고 더 지혜롭다. 과거 중국에서 성인이라고 불리던 사람일지라도 지금의 세상일까지 다 알 수는 없다. 지금의 세상물정에 대해서는 지금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안다. 자신은 부족해서 모든 일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고, 모든 것은 옛 성인의 말씀에 비취보아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명백히 옛사람의 노예로 사는 것이다. 옛사람이 아니라 진리가 판단기준이어야 한다. 성인이라 불리던 옛사람일지라도 진리에 비취보아 그 옳고 그름이 평가되어야 한다. 진리에 비취보아 옛 사람은 정말로 스승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더러는 적이 될 수도 있다. 그러한 정신이 바로 자유정신이다.

(q3.2.5.4.3.1.2) 생각해 보면 세상은 점점 더 향상되고 사람의 지혜는 점점 더 밝아진다. 위대한 철학자라도 그 이론은 한 때의 폐단을 구제하고 당세의 이익을 구하는 것일 뿐, 천 년 만 년 이후의 사람들의 일까지 포괄할 수는 없다. [...] 나는 이목이 있으므로 내가 보고 들을 수 있다. 나는 사고 능력이 있으므로 내가 이치를 궁구할 수 있다. 높은 산꼭대기에 서고 깊은 바다 속을 갈 수 있다. 옛사람에 대해서는 때로는 스승을 삼을 수도 있고 때로는 친구로 삼을 수도 있고 때로는 적으로 대할 수도 있다. 마음에 정해 놓은 것 없이 공리(公理)를 기준으로 할 뿐이다. 자유가 어떠한가!(제9절, p.47~48)

3.2.5.4.3.2 세속의 노예

(e3.2.5.4.3.2.1) 시대마다 그 시대를 지도하는 대표적인 사상이 있다. 명대에는 심학(心學)이라 불리는 양명학이 그랬고 청대에는 고증학이 그랬다. 그 정도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양계초가 보기에 당시 중국 사람들은 자신의 사리판단 없이 대세를 쫓는 것이 너무 심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서학(서양학문)에 대한 태도였다. 무술변법시기에는 온 나라 안이 부화뇌동하여 서학을 추구하더니, 다시 보수파가 집권하자 서학을 전염병 피하듯이 피한다. 그러다 또 몇 년 사이에 다시 파도처럼 서학을 쫓는다. 이러한 행태는 독자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는 개나 원숭이와 다를 바 없다고 양계초는 비난한다. 자신에게 중심이 없기 때문에 세속에 휩쓸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신의 사고와 행위를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가 아니라 외부에 있다. 그러면 나는 자유롭다고 할 수 없다. 스스로의 행위를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사람이라면 부화뇌동하지 않는 독심이 있어, 스스로 사고하고 스스로 결정할 것이다.

(q3.2.5.4.3.2.2) 명대 후기에 온 나라 안이 모두 심학(心學)에 대해 떠들자 온 학계가 모두 선에 경도된 어정쩡한 이단(野狐禪)이 되었다. 청대 건가(乾嘉) 연간에는 온 나라 안이 고증학에 대해 떠들자 온 학계가 모두

책벌레(蠹魚)가 되었다. 세월은 점차 흐르는 것이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나 최근 몇 년을 보면, 1897~8년에는 온 나라가 서양학문을 개미가 비린내를 쫓듯이 쫓더니 1899~1900년에는 전염병을 피하듯이 피했다. 그러더니 지금은 전염병이 또 비린내가 되었다. 같은 사람이고 같은 학문인데 몇 년 사이에 이처럼 달라지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다. 쫓고 꺼리는 것을 남을 따를 뿐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원숭이들이 노는 것을 보면 한 마리가 튀면 모두 따라 튀고 한 마리가 때리면 모두 따라 때리고, 한 마리가 춤추면 모두 따라 춤추고 한 마리가 웃으면 모두 따라 웃고 한 마리가 소란을 피우면 모두 따라 소란을 피우고, 한 마리가 성내면 모두 따라 성을 낸다. 속담에 개 한 마리가 그림자를 보고 쫓으면 다른 개들이 영문도 모르고 따라 쫓는다는 말이 있다. 슬프다, 사람은 천지의 맑은 기를 받아 태어났는데, 무리를 따라 움직이는 동물과 다른 점이 어디에 있는가! 스스로를 더럽히고 멸시하여 원숭이나 개와 한 무리가 되려 하는가! 새 시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 으뜸이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 다음으로는 옛 시대에 삼켜지고 침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미친 듯이 날뛰는 파도 속에서 하나의 기둥으로 우뚝 서고, 동네 사람들이 모두 취해서 꿈속을 헤맬 때 홀로 마음(靈臺)을 밝히는 것이 장부의 일이다. 자유가 어떠한가!(제9절, p.48)

3.2.5.4.3.3 상황의 노예

(e3.2.5.4.3.3.1) 외부의 힘에 대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 자유라면, 외부의 온갖 조건 하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는 것은 자유의 관철일 것이다. 양계초는 자신의 책임이 아닌 객관적 조건에도 영향 받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했다. 그것을 그는 상황의 노예가 되지 말고 자유로워야 한다는 말로 표현했다. 가령 역경을 이겨내지 못하고 상황에 굴복했으면 미국의 독립은 있을 수 없었다. 가난한 어부의 아들로 태어난 링컨이 자신의 처지에 안주했다면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 흑인노예를 해방시키는 위업은 달성할 수 없었다. 상황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것이 마음의 자유 가운데 하나이다. 양계초가 보기에 중국인들은 운명을 믿고 그것을 그대로 감수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설사 운명이라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스스로를 지배

당하게 한다면 자유인이라고 할 수 없다.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스스로가 스스로의 주인이 되겠다는 기백, 그 것 또한 자유정신이다.

(q3.2.5.4.3.3.2) 나는 생존경쟁의 세상에 이 한 몸으로 서 있는데, 내 주위를 둘러싼 온갖 상황은 밤낮으로 나와 싸움을 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황과 싸워 이기는 자는 서고 싸우지 않고 상황에 압도되는 자는 망한다. 상황에 압도되는 것을 자연의 노예라고 한다. 자연의 난폭함은 한 사회에게도 자행되고 개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자행된다. [...] 중국 사람보다 더 운명 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한 나라의 사람이 모두 죽음을 기다릴 뿐, 힘이 있어도 쓰지 않고 오직 운명에 따를 뿐이다. 그러나 사람이 그렇다면 지푸라기 인형과 다를 바 없고 자동기계와 다를 바 없다. 조금만치의 자주권(自主權)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를 달성해 본 적이 없으니, 사람이 살면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즐기는가?(제9절, p.48~49)

3.2.5.4.3.4 정욕의 노예

(e3.2.5.4.3.4.1) 마음이 처할 수 있는 노예 상태 가운데에서도 정욕의 노예는 자신을 노예로 만드는 것이 정욕이라는 자기 내부의 존재이므로 가장 두려워할 만하다. 정욕의 노예가 되면 이성이 전혀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양계초는 특히 여러 방면에서 뛰어난 재주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욕망 방면에서도 남들을 능가하는 크기를 갖는다고 파악한다. 그 때문에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남들보다 더 쉽게 욕망의 노예가 되기 쉽다. 자신이 가진 재능을 스스로의 의지대로 사용하여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 자신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남들보다 뛰어난 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재주를 사회와 국가를 위해 쓰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큰 욕망을 제어하기 위해 더 큰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욕망을 제어하는 것은 스스로의 주인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다. 자신의 몸을 자신의 이성대로 움직일 수 없다면 그는 스스로의 주인이 아니며, 욕망의 노예일 뿐이다.

(q3.2.5.4.3.4.2) 우리는 자주, 뛰어나게 영특하고 의지와 재기가 보통 이상이어서 먼 앞날을 열고 일세를 장악할 것 같은 소년, 수년 동안 위축

되고 또 더욱 위축되는 일을 본다. 다른 이유가 아니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재주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능가하는 욕심을 갖는다. 다른 사람을 능가하는 재주와 다른 사람을 능가하는 욕심에, 다른 사람을 능가하는 도덕심으로 스스로의 주인을 삼지 못한다면 그 재주는 곧 욕망의 노예가 되기 때문이다.(제9절, p.49~50)

3.2.5.5 진취모험정신

(e3.2.5.5.1) 진취모험정신이란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정신이다. 진화의 세계에서는 진보 아니면 퇴보이고 퇴보의 끝은 멸망이므로, 진취모험정신은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정신이다. 진취모험정신을 굶아먹는 것은 두려움이다. 두려움은 여러 이유로 생길 수 있다. 신체적 나약함 때문에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고 정신적 나약함 때문에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다. 혹은 무지 때문에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다. 양계초는 호연지기를 길러 두려움을 극복하라고 촉구한다.

3.2.5.5.1 진취모험정신의 성격

3.2.5.5.1.1 가장 확실한 생존의 정신

(e3.2.5.5.1.1.1) 양계초가 파악하는 세상 안에는 멈춰있는 것이 없다. 개인의 일생도 그렇고 한 사회도 그렇다. 전진 아니면 퇴보가 있을 뿐이다. 전진하지 않으면 퇴보하고 퇴보를 거듭하다 보면 머지않아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다. 그것이 생존경쟁의 법칙이다. 그 세상에 가장 잘 대처하여 우월한 존재로서 살아남게 하는 정신이 바로 뒤돌아보는 일 없이 전진케 하는 진취모험의 정신이다. 세계에서 중국이 뒤쳐져 있는 이유, 유럽민족이 앞서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진취모험정신의 유무야말로 이러한 우열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양계초는 생각했다.

(q3.2.5.5.1.1.2) 세상에는 중립적인 일이란 없다. 용맹스럽게 전진하지 않는다면 쓰러지고 후퇴하는 것일 뿐이다. 인생은 우환과 함께 오니, 어려움

을 두려워한다면 위험으로 떨어진다. 내가 보기에 지금 세계 만국 가운데 중국보다 퇴보의 속도가 빠르고 이처럼 위험해 보이는 나라는 없다. 나는 이것이 두렵다. 유럽민족이 중국보다 우월하고 강한 원인이 한둘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 진취모험 정신은 가장 중요하다.(제7절, p.23)

3.2.5.5.1.2 용맹불퇴전의 정신

(e3.2.5.5.1.2.1) 양계초는 역사상 진취모험정신을 가장 잘 발휘했던 사람들을 열거한다. 흔들리지 않는 의지와 물러설 줄 모르는 집념으로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 꺾이지 않는 의지로 신앙의 자유를 쟁취한 마르틴 루터, 죽음을 무릅쓰고 태평양을 횡단하여 양 대륙의 교통을 가능하게 한 마젤란을 비롯해, 탐험가 리빙스턴, 러시아의 피터대제, 영국의 크롬웰, 미국의 워싱턴, 프랑스의 나폴레옹 등이 양계초가 꼽은 용맹불퇴전의 정신을 가지고 역사를 개척했던 인물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을 열거한 뒤 양계초는 이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그들은 자신의 영향력을 온 세계로 미치게 하겠다는 원대한 정신, 죽음을 불사하고 후퇴 없이 전진하겠다는 기백, 국민의 행복을 위해 전진하겠다는 치열함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한 그들의 정신과 기백이 역사를 개척해왔다고 양계초는 생각한다. 그것이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 왜냐하면 전진하지 못하면 후퇴가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후퇴하면 열등한 채로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끝내는 생존하지 못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일만이 남기 때문이다.

(q3.2.5.5.1.2.2) 이러한 사람들은 수명의 현자들을 늘어놓은 것에 불과하다. 그 밖의 이와 같은 호걸들은 역사에 어깨를 나란히 하고 뒤를 이어 나타났다. 그 사실들을 다 엮으면 다섯 수레에도 다 실을 수 없고, 그 이름들을 다 거론하는 것은 나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어찌 그리 많은가? 후세에 역사를 읽는 자들은 그 향기만 맡고 그 지류만 퍼 올려 숭배하고 노래하지만,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감히 말하지 못한 것을 그들이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감히 하지 못한 것을 그들이 했다는 것은 모른다. 그 정신은 백 줄기의 강이 흘러 바다를 이루어 온 세계로 퍼져 나갈 때까지 멈추

지 않으며(江河學海), 기 기백은 술을 깨뜨리고 배를 가라앉혀 죽이는 일이 있어도 후퇴 없이 전진하며(破釜沈舟), 자신의 주의를 위해 몸 바치는 천상천하에 유아독존의 기상이다. 앞을 향해 전진하기를 경건하게 임하여 몸이 병들어 죽어서야 그만둔다는 의지로, 성공하면 너의 정기를 다 사용하여 역사의 영광을 사고, 실패하면 붉은 피를 바쳐서 국민의 재앙을 산다는 각오로 임한다. 아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오직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오직 위험을 무릅쓰기 때문이다.(제7절, p.25)

3.2.5.5.2 진취모험정신의 근원

3.2.5.5.2.1 호연지기의 성격

(e3.2.5.5.2.1.1) 양계초는 진취모험의 정신을 맹자가 말하는 ‘호연지기’(浩然之氣)와 같은 성격의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연지기와 같다는 설명을 통해 그가 강조하려고 한 것은 그것이 외부에서 받아들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것을 길러서 생기는 것이라는 점이었다. 맹자는 호연지기에 대해 “의와 도와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의가 외부로부터 녹아들어와 얻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도덕성인 “의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이 그것을 얻으면 살고 얻지 못하면 죽으며, 나라가 그것을 얻으면 생존하고 없으면 망할 정도로 그것은 절실한 것이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면의 것을 성장시켜야 한다. 즉 자신이 가진 바탕을 튼튼하고 왕성하게 키워야 한다.

(q3.2.5.5.2.1.2) 진취모험의 성질은 어떤 것인가? 나는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좋을지 몰라 ‘호연지기’(浩然之氣)라고 부르겠다. 맹자는 호연지기에 대해 “그 기는 의(義)와 도(道)와 결합되어 굼주림이 없다.”고 했으며 또 “의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의가 외부로부터 녹아들어와 얻는 것이 아니다. 행동하면서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그 기는 굼주린다.”라고도 했다. 그러므로 그 성질에 대해 말하면 사람이 가지면 살고 없으면 죽는 것이다. 나라가 있으면 생존하고 없으면 망한다. 그것을 길러서 발현할 수 있는 자는 뿌리가 깊고 두텁기 때문이지, 바탕이 박약한 사람들이 임시로 밖에서 빌려올 수 없는 것이다. 그 근원을 살펴보면 4가지가 있다.(제7절, p.25)

3.2.5.5.2.2 진취모험정신의 네 가지 근원

(e3.2.5.5.2.2.1) 호연지기라고 표현된 진취모험의 정신은 내면의 뿌리를 튼튼하게 함으로써 그것이 밖으로 발현되는 것이다. 양계초는 그 뿌리를 키우는 네 가지에 대해 말한다.

3.2.5.5.2.2.1 희망

(e3.2.5.5.2.2.1.1) 위험을 아랑곳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첫째 힘은 희망이다. 이것은 더 나은 미래를 예상하고 기대하는 마음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등대가 되어 현실의 행위를 인도한다. 양계초에 의하면 희망이 있다는 것은 사람을 동물과 구별시켜주고 문명인을 야만인과 구별시킨다. 문명의 인간만이 현재를 넘어서 미래를 내다보고 현실을 넘어서 이상을 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품고 있는 희망이 원대할수록 진취모험의 마음은 웅대하다. 현실의 행위를 이끌 희망의 힘이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진취모험의 마음이 뒷받침되지 않는 희망은 계속 희망일 수 없다. 과거의 희망이 현재의 행위가 되고, 현재의 희망이 미래의 행위가 되도록, 희망은 진취모험정신에 의해 계속 현실의 행위로서 실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취모험의 정신과 희망은 서로를 키워주는 동력이 되어 인간의 진취적인 실천을 이끌어 낸다.

(q3.2.5.5.2.2.1.2) 인간 세상에는 두 개의 세계가 있다. 공간상으로 말하면 현실세계와 이상세계가 있고 시간상으로 말하면 현재 세계와 미래 세계가 있다. 현실과 현재는 행위에 속하며 이상과 미래는 희망에 속한다. 현재 행위 하는 현실은 전에 품었던 이상의 발현이며, 현재 품고 있는 이상은 또한 장래 행위 할 현실의 차표이다. 그러므로 현실은 이상의 자손이며 미래는 현재의 부모이다. 그러므로 인류가 금수보다 낮고 문명인이 야만인보다 나은 것은 오직 희망이 있고 이상이 있고 미래가 있기 때문이다. 희망이 클수록 진취모험의 마음은 웅장하다. [...] 사람이 사람인 이유, 문명인이 문명인인 이유는 또한 내일을 알기 때문일 뿐이다. 오직 내일이 우리를 무한하게 한다. 3일, 5일, 일주일, 열흘, 한 달, 일 년, 십년, 백년, 천만년, 억·조·경·해의 헤아릴 수 없는 세월, 이것이 모두 내

일이 쌓인 것이다. 오늘을 지키려고 하면 진취의 마음은 없어지고 오늘의 안일을 탐하면 모험의 기운은 사라진다.(제7절, p.25~26)

3.2.5.5.2.2.2 열성

(e3.2.5.5.2.2.2.1) 양계초는 또한 열성(熱誠)을 진취모험정신의 근원으로 꼽았는데, 그가 열성이라고 표현한 것은 영어 ‘inspiration’의 번역어였다. 진취모험정신의 근원이 되는 그것은, 양계초의 설명에 의하면, 목적을 향한 맹목적인 열정이다. 주위의 다른 장애물,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잊어버리고 오직 목적에만 몰두할 수 있는 집중력이다. 그 집중력은 어떤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올 수도 있고, 사랑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극도의 슬픔이나 노여움에서 나올 수도 있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극한 상황에서 발휘될 수도 있다. 열성은 그러한 극한의 감정 상태나 상황에서 추동되는 집중력이다. 목표만 향하는 그러한 집중력이 있다면, 그것이 뿌리가 되어 진취모험정신은 저절로 생길 것이다. 양계초는 사랑과 슬픔, 노여움 등의 감정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한 감정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하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한발 나아가 양계초가 요구하는 것은 그러한 감정을 극단적으로 발전시켜 그것이 열성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상태일 것이다.

(q3.2.5.5.2.2.2.2) 『전국책』(戰國策)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제나라의 시장에서 금을 집어간 사람이 있었다. 관청 사람이 그를 잡아 심문했더니 그 사람은 ‘내가 금을 집을 때는 오직 금만 보고 사람은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저 영웅호걸, 효자열녀, 충신의사들에서부터 열렬한 종교가, 정치가, 미술가, 탐험가들이, 자신들의 믿음(主義)을 위해 몸 바쳐서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면 한결같이 “금은 보고 사람은 보지 않는” 그런 행동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사람은 못하게 해도 하고 못 가게 해도 다다른다. 이런 사람들이 어찌 다른 사람이 있는 것만 보지 않겠는가, 자기 자신도 보지 않을 것이다. 이름 붙이기가 어려워 인스피레이션(Inspiration)이라고 하겠다. 인스피레이션은 열성이 최고조에 달한 그 지점으로, 사람을 모험진취의 길로 나가도록 감동시키고 추동한다. 이 열성은 또한 사랑

으로 인해서만 발휘되는 것이 아니다. 슬픔의 극한, 노여움의 극한, 위험의 극한도 또한 열성을 이끌어내는 도화선이다. 불난 집 안에 있으면 약한 여자라도 천군이나 되는 궤짝을 운반하고, 적진 속에 있는 자라면 피곤에 지친 말을 타고도 적진을 뚫을 생각을 한다. 그러므로 때리지 않으면 뛰지 않고 격분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사랑할만한데 사랑할 줄 모르고 슬퍼할 만한데 슬퍼할 줄 모르며, 노여워할 만한데 노여워할 줄 모르고 위험한데 위태한 줄 모르는 사람은 인성(人性)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 진취모험의 정신이 이처럼 없을 수 없는 것임을 알겠다.(제7절, p27)

3.2.5.5.2.2.3 지혜

(e3.2.5.5.2.2.3.1) 진취모험의 정신은 열성과 같은 감성적인 것만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무지는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은 진취적인 행동을 가로막는다. 그러므로 진취모험의 정신을 키우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없애야 한다. 두려움은 한편에서는 무지 때문이므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혜가 필요하다. 자연현상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 없는 야만인이거나 어린이나 부녀자들이 두려움이 많은 이유는 지식이 부족해서 미신(迷信)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그러한 일 뿐 아니라 배를 타거나 산을 넘는 일도 그 지역의 수세(水勢)나 지세(地勢)를 잘 알고 있으면 두려움 없이 임할 수 있지만, 잘 모를 경우에는 그 위험성에 압도되어 진취모험정신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양계초는 “기를 기르려면 먼저 지혜를 쌓아야 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그러한 모험의 경우 외에도, 지식과 지혜가 모자라면 지식을 독점한 자들의 노예가 될 것이다. 지식과 지혜를 쌓으면 무지 때문에 야기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고, 나아가 환경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그 위협을 극복할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q3.2.5.5.2.2.3.2) 사람이 두려워 위축되는 것은 반드시 그 사태의 이치를 모르기 때문이다. 어린이나 부녀자들은 귀신을 가장 두려워해서 해가 지면 밖에 나가지 못한다. 야만민족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귀신이 관장하

는 김홍화복이라서, 야만인들은 점占到 따르지 않는 것이면 감히 움직이지 못한다. 일식이 일어나거나 혜성이 나타나면 두려워서 숨고 닷새 동안 예배드리며 감히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 13인은 함께 식사하지 않는다.(이들은 서양의 습속이다.) 이는 모두 지식이 모자라 행동하는데 겉을 유발한 것이다. 여울에 온통 돌이 여기저기 깔려있고 물의 흐름이 급한 곳은 물의 성질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감히 건너지 못한다. 큰 눈이 들을 덮고 골짜기를 가득 채웠다면 그 지세를 잘 아는 자가 아니면 감히 넘지 못한다. 세밀하게 보지 못하면 그 기가 먼저 굼주린다. 굼주리게 되면 진취의 정신은 위축된다. 그러므로 왕양명이 지행합일로서 교의를 삼은 것은 참으로 근본을 얻은 것이다. 콜럼버스가 대서양에 배를 띄워 서쪽으로 간 것은 지도의 이치를 깊이 믿어 저쪽 해안에는 반드시 극락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골드스톤(Goldstone)이 아일랜드의 자치를 주장했던 것은 민족주의와 자유평등주의를 깊이 믿어, 그런 방법이 아니라면 영국과 아일랜드 모두 편안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진취모험의 정신은 항상 지식의 심천과 고하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기를 기르려면 먼저 지혜를 쌓아야 한다는 것은 빈말이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가의 노예가 되고 선철의 노예가 되고 습속의 노예가 되고 권세가진 지배자의 노예가 되고 심지어는 자기 마음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 마음은 또한 육체의 노예가 될 것이다.(제7절, p.27~28)

3.2.5.5.2.2.4 담력과 기력

(e3.2.5.5.2.2.4.1) 불교에서는 “이 세상은 모두 내 마음이 만들어 낸 것”(三界惟心造)이라고 말한다. 이 세상의 고통은 모두 내 마음 탓이라는 의미이다.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이나 영국의 영웅 닐슨 같은 사람들은 모두 뛰어난 패기와 정신력을 가졌던 사람들로, 그들은 불가능이나 두려움을 모른다고 자처하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렇게 정신력이 뛰어난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굴복시킬 어려움들은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그들 처럼 뛰어나지 않은 보통 사람들도 그들로부터 얻을 교훈은 있다. 육체적인 질병은 사람의 기 역시 약하게 한다. 이것을 보면 육체와 그 기백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 이런 경우라면 육체적인 건강을 키우는 것이 기백을 키우는 방법이 된다. 또 한편으로는 정신력은 육체와 독립해서

강건한 것일 수 있다. 이런 경우라면 정신력을 키우는 것이 관건이다. 즉 정신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면 자신이 육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하찮은 것으로 만드는 정신력으로 담력과 기력을 가질 수 있겠지만, 보통 사람이라면 육체의 힘과 정신의 힘이 상호 작용하여 담력을 형성할 것이다. 그러므로 보통 사람은 담력을 기르기 위해 정신과 육체 양쪽을 길러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q3.2.5.5.2.2.4.2) 나폴레옹은 “‘어려움’이라는 단어는 오직 바보들이 사용하는 사전에만 있다.”고 하고 또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프랑스사람들은 사용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나폴레옹을 물리쳤던 영국의 장수 닐슨은 “나는 두려워할만한 것을 본 적이 없다. 나는 ‘두려움’이 뭔지 모른다.”고 했다. 아야! 이 말을 읽으면 신기(神氣)가 으뜸이다. 위인들의 근기를 우리들은 얻을 수 없는가? 아니면 본래 있는데 스스로 사용하지 않는 것인가? 나폴레옹이 경험한 지난한 상황은 정말로 많았으며, 닐슨이 만난 두려운 일들 역시 적지 않았다. 그러나 나폴레옹과 닐슨은 아무 일도 없는 듯이 행동했다. 이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다. 그 기(氣)가 먼저 이들을 이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삼계(三界)는 모두 마음이 만드는 것이며 방법은 모두 우리의 의식일 뿐이라고 말한다. 내가 불가능하다고 하고 두렵다고 하면 불가능하고 두려운 것이 된다. 내가 가능하다고 하고 두렵지 않다고 하면 또한 가능하고 두렵지 않은 것이 된다. 이 이치는 참으로 둔한 근기를 가진 중생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이는 또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사람이 병이 들면, 그 것이 치통이나 콧병과 같은 사소한 병이라도 그 날의 정신과 기운은 위축된다. 그런 것을 보면 기력과 육체는 서로 의지하면서 작용한다. 이것이 한 가지 해석이다. 또 엄숙하고 경건하면 날로 강해지고 게으름에 안주하면 날로 나빠진다는 것은 생리의 큰 법칙이다. 중국번(曾國藩)은 “신체의 강약은 지나치게 애석해할 일이 아니다. 정신은 쓰면 쓸수록 더욱 강해지고 양기(陽氣)는 발휘하면 할수록 더욱 융성해진다. 만약 애석해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면 기는 갈수록 꺾이고 없어져 일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으니, 이것이 또 다른 한 가지 해석이다. 이렇다면 육체는 건장하게 해야 하며 담력 역시 키우지 않을 수 없다.(제7절, p.28)

3.2.5.6 단결정신

(e3.2.5.6.1) 단결은, 강한 단체, 강한 국가를 이룩하려면 반드시 요구되는 덕목이다. 특히 당시처럼 강한 국가를 구성해서 국가단위의 생존경쟁에 돌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단결력은 무엇보다도 강력하게 요청되는 덕목이다. 양계초는 가장 강력한 국력은 공화국의 국력이라고 생각했다. 공화국이라면 그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단결력을 발휘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들 각자의 자발적 힘이 모인 나라보다, 특권계층의 수중에 있는 권력에 의해 강제된 단결로 뭉친 전제국의 국력이 더 강할 수는 없다. 자신의 나라를 위해 자발적으로 단결한다는 공화국의 단결정신을 양계초는 역시 도덕적인 것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내면적인 인격의 함양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결하지 못했을 때의 국가의 몰락, 개인의 몰락을 그 이유로 들어 개인들에게 단결의 정신을 가지라고 설득했다.

(q3.2.5.6.2) 아야! 단결하지 못하는 나쁜 성질이 끝내 변하지 않는다면 빨빨이 흩어진 사역의 중국인은 열등한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이미 위축되어 소멸된 자들과 동일한 운명을 밟을 것이다. 얼마나 통탄스러운 일인가!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제13절, p.76)

3.2.5.6.1 공화국의 단결은 도덕에

(e3.2.5.6.1.1) 국가를 비롯한 단체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다. 가령 전제국에서는 강력한 권력을 수단으로 백성들의 노동을 장악할 수 있다. 그러나 양계초의 생각에 전제국의 그러한 단결은 한계가 있다. 민족제국주의 시대에 최고조로 발휘되는 국가의 힘은 전제국의 힘이 아니라 공화국의 힘이다. 즉 국민들이 주인인 나라, 자신의 나라를 위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단결하는 나라의 힘이다. 국민의 자발적인 단결이 바로 그 힘의 원천이다. 국민이 자발적으로 국가의 일에 관여하고 기여하는 공화국에서 국민을 것처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도덕이라고 양계초는 생각했다. 생존경쟁의 오늘날, 도덕이 아니라면 단결을 이루어 외부의 다른 공화국에 대적할 방법이 없다. 양계초는 그 단결을 방해

하는 개인들의 부정적인 특징으로, 오만함, 집요함, 방탕함, 어리석음, 탐욕, 무정함 등을 꼽았다. 그러한 성질들을 극복하는 것은 도덕의 능력이다. 단결정신이라는 도덕이다.

(q3.2.5.6.1.2) 오만함, 집요함, 방탕함, 어리석음, 탐욕, 무정(無情) 등은 모두 단결을 쪼먹는 벌레들일 것이다. 이 가운데 한 가지만 있어도 사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는 몽테스키외가 정치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들었다. “전제국가에서는 원기가 위력에 있고 입헌국가에서는 원기가 명예에 있으며 공화국가에서는 원기가 도덕에 있다.”라고, 도덕이 어떻게 갈 곳 없이 번발(辯髮)처럼 쓸모없는 것일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이전의 중국에서는 한사람만 강하고 만인이 유약했다. 사회를 이룬 근거는 강제에 있었지 공의(公意)에 있지 않았다. 그래서 조금 부패하고 조금 해이해도 오늘날까지 그 거족은 유지해 올 수 있었다. 오늘날의 군자는 이러한 현실로는 생존경쟁의 세상에서 이길 수 없음을 알고 다른 제도로 바꿀 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렇다면 완전한 도덕이 아니라면 어떤 것을 택하겠는가!(제13절, p.79~80)

3.2.5.6.2 단결을 위해 필요한 덕목

3.2.5.6.2.1 공공관념

(e3.2.5.6.2.1.1) 양계초가 단결을 위해 길러야 할 덕성으로서 첫 번째로 꼽은 것은 공공관념(公共觀念)이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공공관념이란, 인간이 혼자서는 일신의 욕망을 만족시킬 수도 없고 또 일신에 닥친 어려움과 고통을 혼자서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단체를 이루어 서로 의지해야 한다는 관념이다. 양계초는 공공관념은 천부적인 능력이라고 하면서도 부처님의 마음과 같은 자비심은 아니라고 말한다. 천부적인 능력이라는 공공관념은 자비심이 아니라, 생존본능과 그 생존본능의 합리적 추구방법을 생각하는 이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성은 때로 사적인 이익을 생각하는 ‘사적인 관념’에 압도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에는 공공관념은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다. 사적인 이익은 자주 공적인 이익의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온전하게 공공관념을 발양하기 위해서는

공적인 이익을 위해 사적인 이익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희생하는 것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관념이란 그러므로, 나 개인의 욕망충족과 보호를 위해 합리적인 방법을 생각할 수 있고, 그 합리적 방법이란 단체의 이익을 사적인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것임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q3.2.5.6.2.1.2) 사람이 단체를 이루어야만 하는 것은 일신이 요구하는 욕망에 혼자 힘으로는 응답할 수 없으며, 일신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을 혼자 힘으로는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반드시 서로 필요로 하고 의지해야 자존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을 공공관념(公共觀念)이라고 한다. 공공관념은 배우지 않아도 알고 생각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진화세계의 우열은 이 관념의 강약에 의해 갈라진다. 배우지 않아도 알고 생각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또 그 사이에 강약의 차가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공적인 관념과 사적인 관념이 늘 서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작고 비근한 사적인 이익은 자주 크고 먼 공적인 이익의 쯤벌레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공공관념이 있다면 사적인 이익의 일부분을 희생하여 공적인 이익을 보호하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더한 경우는 자신이 가진 사적인 이익 전부를 희생해서 미래의 공익에 이바지하기도 한다. 불성(佛性)때문이 아니다. 이 생존경쟁, 적자생존의 진화세계에 처해서 인간의 노력으로 자연의 법칙을 이기려 한다면, 이러한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제13절, p.76~77)

3.2.5.6.2.2 대아와 소아의 구별

(e3.2.5.6.2.2.1) 단결의 정신은 사적인 이익 모두를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단체 안에서 그 단체의 이익 추구에 동의하고 그 이익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시키는 단체 구성원 간의 경쟁은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내가 속한 단체가 다른 단체와 대면해서 경쟁할 때, 나는 나 일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두는 일 없이 단체의 이익만을 생각해야 한다. 이를 양계초는 “단체란 실제로는 위아(爲我)와 겸애(兼愛)의 양면성이 있다.”는 말로 표현했다. 외부 단체의 위협이 없을 때 내가 속한 단체의 존재를 위협하지 않는 테두리에서 나는 ‘이기적(爲我)’일 수

있다. 그러나 외부 단체와 대적했을 때의 나는 나의 단체에 대해 ‘헌신적(兼愛)’이어야 한다. 이를 양계초는 소아(小我)와 대아(大我)로 표현하기도 했다. 소아는 단체 안에서 다른 개인과 상대할 때의 나이다. 대아는 다른 단체와 대적할 때의 나이다. 다른 단체와 대적할 때의 나는 소아의 나는 잊고 오직 단체의 이익만을 생각한다. 단체가 곧 나이기 때문이다. 단결의 정신은 이렇게 소아와 대아를 시의에 맞게 적절히 발휘할 것을 요구한다.

(q3.2.5.6.2.2.2) 단체란 실제로는 위아(爲我)와 겸애(兼愛)의 양면성이 있다. 서로 모여서 단결하면 나의 고집이 있고 자기 이익을 꾀해도 꼭 단체에 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과 개인이 교섭하게 되면 안으로는 내 몸이 있고 밖으로는 타인이 있다. 이때의 나는 일신의 나이다. 이 단체가 다른 단체와 교섭을 하게 되면, 안으로는 나의 단체가 있고 밖으로는 다른 단체가 있다. 이때의 나는 단체의 나이다. 모두 나이지만 대아(大我)와 소아(小我)의 구별이 있다. 내가 있으면 반드시 나의 벗과 나의 적이 있다. 이미 단체를 이루었으면 단체 안은 모두 나의 벗이다. 그러므로 단체를 잘 운영하는 자는 이 단체 밖은 공적(公敵)으로 여기고 단체 안의 사적(私敵)은 인정하지 않는다.(제13절, p.77)

3.2.5.6.2.3 규율에 대한 복종

(e3.2.5.6.2.3.1) 단체를 이루고 공고한 단결력을 키우기 위해 요청되는 또 하나의 절대적인 조건은 단체의 규율에 복종하는 것이다. 양계초는 ‘단체의 노예’라는 말을 사용한다. 단체에 복종하는 단체의 노예라는 것이다. 즉 공화국의 국민은 개인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단체의 노예, 규율의 노예이어야 한다. 그런데 그 단체의 규율이란 사실은 국민들의 합의에 의한 것이다.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다수의 의견에 의해 법률이 성립한다. 그러므로 소수는 자신의 의사에 반한 법률에 복종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수의 의견에 복종하는 것이 공화국 국민의 약속이다. 문명국을 이루고 사는 공화국의 국민은, 자유뿐 아니라 제재가 참다운 자유를 위한 것임을 알고, 자신의 권력을 위임한 대표자와 자신들의 의사에

의해 제정된 법률에 복종할 줄 알아야 한다. 즉 기꺼이 규율의 노예, 단체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

(q3.2.5.6.2.3.2) 단체를 잘 이루는 문명국 사람들을 보면 작게는 한 지역, 한 안전의 법률단체가 있고, 크게는 한 나라의 의회가 있어서, 모두 소수가 다수의 규율에 복종한다. 그럼으로써 모든 일이 그것을 통해 의결된다. 그러므로 오늘날 단체가 한두 사람의 의견으로 무단하고 의론을 막는다면 그것은 규율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단체를 잘 이루는 사람은 한 사람의 우두머리를 세워서 단체 전체를 대표하게 하여 사무를 집행하도록 전권을 주고 그의 지휘에 따른다. 오직 자유가 있다는 것만을 알고 제재(制裁)가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그것 역시 규율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왜 그런가? 소수가 다수에 복종한다면 이는 다수의 노예이다. 당원이 대표에게 복종한다면 이는 대표의 노예이다. 어떻게 노예라고 할 수 있는가? 사람은 타인의 노예는 될 수 없지만 단체의 노예가 안 될 수는 없다. 자기가 속한 단체의 노예가 되지 않으면 사태의 추세로 보아 반드시 다른 단체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다수에게 복종하고 직권(즉 대표자)에 복종하는 것이 바로 그 단체를 보호해서 열등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다.(제13절, p.78)

3.2.5.6.2.4 한마음

(e3.2.5.6.2.4.1) 남이 성공하는 것을 질투 없이 함께 기뻐하는 일은 보통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단결을 위해서는 그러한 마음 역시 필요하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으려면 그 구성원 누구나 그 단체의 번영을 바라는 점에서 한마음이라는 것을 상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체의 번영이 목적이려면, 내게 능력이 있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고, 내게 없는 능력이 남에게 있어서 그가 그 목적을 달성한다면 나는 역시 기뻐할 일이다. 우리의 단체, 우리의 국가의 번영을 위해 할일은 수도 없이 많을 것이다. 그 많은 일들을 앞에 놓고 타인을 배척하고 무너뜨려야 내가 설 자리가 있고 내가 이룰 수 있는 일이 있겠는가! 모두 우리의 단체인 국가를 위해서라는 마음만 있다면 나는 내 일신을 너머서 국가를 나로 여길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국가 안의 모든 개개인의 성공을 나의 성공처럼 기뻐

할 수 있을 것이다.

(q3.2.5.6.2.4.2) 한마음으로 힘을 합한다는 것은, 갑의 사업을 무리하게 을의 사업에 맞춘다는 것이 아니다. 돌아가는 곳은 같지만 길은 다르다. 이르는 곳은 한 곳이지만 백 가지 공리가 가능하다. 목적이 모두 하나로 모였다면 훗날 끝내는 반드시 한 곳에서 손을 맞잡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 못하더라도, 혹은 갑이 실패하고 을이 성공하며, 혹은 을이 실패하고 갑이 성공한다면, 내가 뜻했던 바는 이미 달성된 것이다. 일이 성사되었다면 성사시킨 사람이 꼭 나일 필요가 있겠는가! 인인군자(仁人君子)의 마음 씀은 이와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 세상에 할일은 많은데 타인을 배척하고 무너뜨려야 당신의 자리가 생기는 것이겠는가! 아야!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라. 밖으로는 국난이 있고 안으로는 백성이 족쇄에 채워져 있다. 동포의 반이 꿈에 취해 있고 앞길은 이미 진흙창인 지경에, 내 힘이 미치면 스스로 구하고 혼자 힘으로 안 되면 협력해서 구한다. 내 힘으로 구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이 구해주길 기다린다. 이 또한 재앙의 싹을 힘써 꺾기 위해 온 나라의 원수를 맞아 죽을힘을 다해 싸우는 것이 아니겠는가! 어리석고 못난 사람이라면 나는 기대하지도 않고 탓하지도 않겠다. 그러나 현자, 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는 똑바로 고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제13절, p.79)

3.2.5.7 경제정신

(e3.2.5.7.1) 근대국가의 경제는 그 어느 시대보다 중요하다. 특히 당시와 같은 제국주의 시대의 경제는 식민지 쟁탈의 원인이고 수단이었다. 양계초는 “오늘날은 경제 경쟁의 세계이다. 한 나라의 영고성쇠는 여기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경제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있었던 양계초는 생산을 제고하는 인간의 능력을 체력(體力)과 심력(心力) 두 가지라고 보았다. 심력은 다시 지력과 덕력으로 나뉜다. 즉 지식과 도덕의 힘이다.

(q3.2.5.7.2) 생산력에는 또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체력이고 하나는 심력이다. 심력은 다시 둘로 나뉜다. 하나는 지력이고 하나는 덕력(德力)이다.(제14절, p.83)

3.2.5.7.1 경제를 위한 지력

3.2.5.7.1.1 문명인으로서 갖는 지식

(e3.2.5.7.1.1.1) 경제활동의 근간은 자본과 노동력을 토지에 투자함으로써 재화를 산출해 내는 것이다. 양계초가 파악하기에 그 재화의 양과 질을 결정하는 것은 자본과 노동력이다. 똑같은 자본과 노동력이라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생산량이 달라질 것이다. 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토지를 이용하는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수록 생산량은 늘어갈 것이다. 즉 경제의 발달은 문명의 지표이다. 야만인은 토지를 이용할 줄 모르지만 “문명인은 자본과 노동력을 이용하여 자산을 넓혀나갈 줄” 안다. 자본과 노동력을 어떻게 이용해야 그 이윤을 극대화하고 또 확대재생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는 문명인들이라면 누구나 종사해야 하는 일이다.

(q3.2.5.7.1.1.2) 경제가들은 재화를 만드는 세 가지 요소를 토지, 자본, 노동력이라고 말한다. 이 세 가지가 합해져서 재화가 성립한다. 같은 토지라도 야만 민족의 손에 있으면 돌밭이지만 문명 민족의 손에 있으면 진귀한 물건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문명인은 자본과 노동력을 이용하여 자산을 넓혀나갈 줄 알지만 야만인은 못하기 때문이다.(제14절, p.81)

3.2.5.7.1.2 사군자들과 경제

(e3.2.5.7.1.2.1) 사농공상(士農工商)이라는 신분의 귀천이 분명했던 중국에서, 그 신분구조의 가장 상위를 차지했던 사군자(士君子)들은 농·공·상업의 직접생산의 일은 철저히 배제한 채 정치와 교육의 일을 담당했다. 그들에게 경제의 이익계산은 그들보다 아랫사람들이 할 일이었다. 그러나 양계초에 의하면 “(경제에 관한 수치계산은) 사군자들은 말하기 수치스러워하지만 그 뜻은 나라를 다스리는데 실제적으로 관련된다.” 경제가 국가의 운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면 할수록 그 일은 국가의 머리라 할 수 있는 사군자들이 담당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양계초가 파악하기에 중

래의 사군자들은 오히려 경제의 좀벌레와 같은 존재들이다. 서양의 학교에서 배출하는 사람들이 의사나 법관, 상공업자와 같은 구체적인 직업을 가지고 경제전선에 뛰어드는데 반해 중국의 학자들에게 학문은 끝(졸업)의 개념이 없이 일생동안 계속되는 것이며, 또한 그렇게 배운 것 역시 실생활에 바로 소용되는 것이 아니었다. 경제경쟁의 시대인 이 민족제국주의 시대에 국가와 민족을 구하고 스스로도 승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중국의 독서인들은 달라져야 한다. 그들은 사체를 움직이지 않고 오곡을 분별하지 못하는 비실용적인 학문태도에서 벗어나 서양의 학자들처럼 완성이 있고 쓸모가 있는 학문을 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직접 경제활동에 종사해야 하며,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경제력이 향상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연구해야 한다.

(q3.2.5.7.1.2.2) 사농공상을 나라의 사민(四民)이라 하는데, 독서인은 그 가운데 특출하게 수위를 차지한다. 스미스의 이론에 의하면 서양의 독서인 역시 소모인(消耗人)들이다. 그러나 공평한 마음으로 논해보면 서양의 독서인 가운데 소모인은 열에 한둘이고, 생산자들이 열에 일곱 여덟이다. 왜 그런가? 그들이 학업을 마친 뒤에는 의사가 되거나 아니면 법관이나 변호사가 된다. 그도 아니면 선교사가 되거나 학교 교사가 된다. 만약 공·상업을 배웠다면 직접생산자가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므로 스미스의 이론을 서양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나는 감히 지지하지 못하겠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너무나 지당한 말이 된다. 중국의 독서계를 볼 때 가장 기이한 것이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이른바 학업을 마친다는 개념이 없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실사 졸업을 했다 해도 배운 것을 어디에 써야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뒤떨어진 사람은 바람에 헤어진 작은 집에서 머리가 벗겨지고 이가 빠지도록 팔고팔운(八股八韻)으로 소일한다. 높은 자리에 오른 자들은 처첩을 거느리고 시골에서 무단하며 고향의 좀벌레가 된다. 이러니 지식으로 백성들을 이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나는 독서인이 많을수록 나라는 날로 어리석어진 것을 봤을 뿐이다. 사체를 수고롭게 하지 않고 오곡을 분별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겁 많으며 일하기를 무서워하니 염치는 없으면서 식욕만 탐한다. 독서인은 실로 일종의 기생충이다. 백성에게는 좀벌레이고 나라에는 이다.(제14절, p.89~90)

3.2.5.7.2 경제를 위한 덕의 힘

3.2.5.7.2.1 자신이 중국 빈곤의 주범이라는 각성

(e3.2.5.7.2.1.1) 양계초가 중국경제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한 것은 생산자에 비해 소모만 하는 자가 너무 많다는 것이었다. 거지와 도적, 승려, 고관대작의 자제들, 유랑자, 관리들의 태반, 관리들이 부리는 아전들, 토호향신, 부녀자의 태반, 죄인, 병자, 노비, 배우와 기녀, 독서인, 교사 등이 모두 소모자이다. 즉 농공상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소모자인데, 중국에서는 그들의 숫자가 반을 넘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생산자가 아무리 애를 써서 생산을 해도 중국 인민 전체를 먹여 살리는 데 허덕일 뿐, 나아가 자본을 불리고 다시 투자를 해서 산업을 발전시키는 일은 엄두도 못 낼 일이다. 이러한 빈곤에서 벗어나는 첫 단계는 이전의 소모자들이 중국의 생산자들의 등골을 빼먹고 있었다는 것을 각성하고, 나아가 중국의 생존,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각성하는 것이다.

(q3.2.5.7.2.1.2) 대략 소모자들은 대부분 상등사회와 중등사회의 사람들이다. 하등사회의 사람들은 거의 없다. 그들은 강권(強權)으로 타인이 생산한 이익을 앗아서 가로채는 것이다. 앞에서 들었던 소모자들은, 절인, 노비, 죄수, 질환자 등을 제외하면 그 나머지 대부분은 한사람 당 수 명이 거둔 이익을 소모할 것이다. 나의 계산으로는, 네다섯 명의 생산자가 스스로를 부양하고 난 나머지를 합한 분량 정도 돼야 그 소모자 한 사람의 소모를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중국인 사역 가운데 소모자가 벌써 이억 이상이다. 이 이익이 또 나머지 생산자 이익의 생산물을 다 먹어치우는데서 그치지 않고, 그 두 배, 네 배를 먹어치운다. 아아! 이런 식이라면 어느 백성이 궁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제14절, p.93~94)

3.2.5.7.2.2 경제정신의 실천 순서

(e3.2.5.7.2.2.1) 중국의 경제가 부진한 가장 큰 이유가 반 이상을 차지하는 소모자들 때문이고, 그렇게 소모자들이 많은 것은 사농공상의 신분제를 근간으로 한 사회구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국경제의 활로를 모색하

려면 사회구조의 개선이 요구된다. 양계초는 그러나 실천상의 순서를 개인에서 시작하라고 요구한다. 먼저 스스로가 소모자가 되지 않는 것이다. 즉 사군자를 자처하면서 직접생산에는 종사한 적 없이 그 밖에 생산적인 일도 한 적이 없는 생활을 청산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학문의 이치를 밝혀 전 국민들에게 소모자가 되는 것의 부끄러움을 알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강구해서 구조적으로 소모자를 줄이는 것이다. 결국 종래의 소모자였던 사군자들의 자기혁신이 필요하다.

(q3.2.5.7.2.2.2)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어떤 것인가? 정부 당국은 본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또 꼭 정부당국의 한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나라 안의 생산자를 늘리고 소모자를 적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 실천상의 순서는, 먼저 나 자신이 소모자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학문의 이치를 밝혀서 전 국민들에게 소모자가 되는 것의 부끄러움을 알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정책을 강구하여 이전의 소모자에게 스스로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을 찾게 하여 생산자로 바뀌게 하는 것이다.(제14절, p.96)

3.2.5.8 의력

(e3.2.5.8.1) 의력(毅力)은 꺾이지 않고 버티는 굳센 힘이다. 그래서 『논어』에서는 ‘의력’이 필요한 이유를 “임무는 무겁고 길은 멀”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즉 의력은 무거운 짐을 들고 먼 길을 가는데 필요한 힘이다. 양계초는 근대 민족국가의 국민이 되기 위한 자격으로 또한 이 의력을 요구했다.

(q3.2.5.8.2) “선비는 도량이 크고 의지가 강해야 한다. 임무는 무겁고 길은 멀다. 인仁을 자기 임무로 삼으니 무겁지 않겠는가! 죽어서야 그치는 일이니 무겁지 않겠는가!”(『논어』)라고 증자는 말했다. 이 말은 정말로 성인의 말이다. ‘사람’을 위한 학문을 하려고 하면서, 이 뜻을 깊이 믿고 굳게 지키지 않으며 몸으로 힘써 행하지 않는다면, 높은 뜻이 있고 남다른 기개가 있으며 뛰어난 재주가 있더라도 결국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제15절, p.96)

3.2.5.8.1 의력이 필요한 이유

(e3.2.5.8.1.1) 꺾이지 않고 버티는 힘은 왜 필요한가? 인간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자연의 의도와 상반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양계초는 파악했다. 자연은 인간과 경쟁하는 존재이다. 자연의 운행이 끝이 없는 것처럼 자연과 싸워야 하는 인간의 운명도 끝이 없다. 이것이 인간에게 의력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더구나 양계초에 의하면 인류는 “향상하고 진보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본성”을 가졌다. 인류가 그러한 본성을 가졌는데 자연의 운행이 그것에 역행하는 것이라면 인간이 본성을 실현하는 과정은 늘 역경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양계초는 인생을 수십 년 동안 역류 속에서 항해하는 배에 비유했다. 그 역경 속에서 향상하고 진보하려는 인간의 본성을 실현시키도록 해주는 힘이 의력이다. 의력이 있어야만 그 긴 장정을 깨끗하게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q3.2.5.8.1.2) 사람의 기획은 늘 자연의 운행과는 서로 대립하기 때문에 자연의 운행과 부단한 경쟁을 한다. 자연의 운행이란 왕왕 인류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과는 서로 어긋나므로 그 반발력은 지극히 크고도 격렬하다. 그러나 향상하고 진보하고자 하는 인류의 아름다운 본성은 또한 현재의 지위에 안주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람의 일생은 수십 년을 역류 속에서 항해하는 배처럼 하루도 쉴 날이 없다.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니다. 크게는 한 민족, 더 크게는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궤도를 돌면서 부지런히 애쓴다. 그 희망이 멀고 일을 이루려는 뜻이 클수록 만나야 하는 역경은 더욱 많다.(제15절, p.96)

3.2.5.8.2 절망을 방지하는 의력

(e3.2.5.8.2.1)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동력은 희망이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역경을 헤쳐 나갈 수 있다. 그 반대로 모든 희망이 끊어진 상태인 절망은 인간의 모든 의지와 실천의 싹을 잘라버린다. 인간이 절망하게 되면 마음은 죽고, 마음이 죽으면 결국 살아도 살아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늘 역류 속에서 항해

하는 인생의 역정에서 그 항해를 계속할 수 있기 위해서는 희망을 잃지 않아야 한다. 양계초는 그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는 것 역시 의력뿐이라고 생각했다. 육체적 기(氣)나 마음의 의지, 또는 재능 역시 그러한 역할을 못한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인생에서 의력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덕성이다.

(q3.2.5.8.2.2) 사람은 희망이 없을 수 없는데, 희망은 항상 절망과 서로 기대고 있다. 절망하게 되면 마음은 죽는다. 희망을 키워서 잃게 하지 않는 것은 의력뿐이다. 그러므로 뜻(志)도 믿을만하지 않고 기(氣)도 믿을만하지 않고 재주도 믿을만하지 않고 오직 의력만이 믿을만하다.(제15절, p.97)

3.2.5.8.3 의력은 성패의 열쇠

(e3.2.5.8.3.1) 누구에게나 똑같은 상황인 역경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버티면서 꿋꿋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할 수 있다면, 의력 이야말로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열쇠이다.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수많은 요인, 시간과 공간을 포함한 수많은 요인이 작용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변화 많은 조건 속에서도 의력이 있다면 실패할 수 없고, 의력이 없다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q3.2.5.8.3.2) 예나 지금이나 세상의 성공과 실패의 숲은 잡초가 우거진 것 같아서 한 길이 아니다. 그러나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실패하는가의 요점에 대해 말한다면, 의력이 있는 자는 성공하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한다는 것이다.(제15절, p.96)

3.2.5.8.3.1 성공과 실패의 결과는 세대를 넘어서는 것

(e3.2.5.8.3.1.1) 의력은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열쇠이다. 그런데 성공이란 무엇이고 실패란 무엇인가?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을 성공이라 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을 실패라 할 수 있다. 이루었는지 여부는 어느 시점에서 판단해야 하는가? 양계초가 생각하는 성공과 실패는 단기간에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목표 자체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야 할 국가 차원의 것일 수도 있고, 그 이상의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국 민족이 근대적 민족국가를 이룩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면, 그러한 국가를 이루었을 때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목표는 커다란 사업인 만큼 긴 세월을 필요로 한다. 그 목표를 위해 온 힘을 바친 한 개인은 그 결실을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 그런 경우 그 개인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가? 양계초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 “사람의 뜻이 크고 종사하는 일이 클수록 그 결과는 크고 그 성취 또한 늦기” 때문이다. 그 개인이 자신의 눈으로 노력의 대가를 볼 수 없다는 것은 그가 품었던 뜻과 종사했던 일이 그만큼 큰 것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일 수도 있다. 양계초는 중국인들에게 눈앞에서 일의 성취를 확인하려고 조바심내지 말 것을 요구했다.

(q3.2.5.8.3.1.2) 성공과 실패라는 것은 세속적인 평가이다. 사람이 뜻이 크고 종사하는 일이 클수록 그 결과는 크고 그 성취 또한 늦다. 만약 그 뜻이 한 나라를 구하고 한 나라의 진보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때론 수십 년 수백 년 걸려야 성취될 수도 있다. 천하를 구하고 천하의 진보를 추구하는데 뜻을 두었다면 수백 년 수천 년 걸려야 성취될 수도 있다. 호걸이고 성현이라 할지라도 이 작은 칠척(七尺)의 몸은 수십 년을 넘어서 수 없다. 일마다 친히 그 성공을 보려고 한다면 어떻게 대사를 맡을 수 있겠는가!(제15절, p.101)

3.2.5.8.3.2 성공과 실패는 정신의 문제

(e3.2.5.8.3.2.1) 가는 길의 끝은 보이지 않고, 거기에다 자신이 온 정열을 다해 종사하는 일의 결과가 보이지 않는데,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가기로 쉬운 일이 아니다. 양계초는 “진정으로 의력이 있는 사람은 오직 먼 희망을 품고 목전의 성패는 따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중국이 살 수 있는 길인 민족국가를 이룩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다. 의력은, 그

원대한 목표를 위해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바치며, 눈앞에서, 심지어 자신이 일생을 마칠 때까지도 그 노력의 결실을 보지 못할지라도 꺾이지 않고 원대한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해 마지않도록 해주는 힘이다. 자신이 쏟은 노력의 결실을 눈앞에서 확인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말을 양계초는 “성공과 실패라는 것은 정신의 문제이지 형식의 문제가 아니다”고 표현했다. 형식이라는 눈에 보이는 성공이 없어도 ‘앞으로 다가올, 세대를 뛰어넘을 수도 있는 성공’을 상상하고 좌절하지 말고 전진하라는 의미일 것이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공이 없더라도 일신을 초월하는 더 큰 성공을 위해 지치지 않고 전력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의력이다.

(q3.2.5.8.3.2.2) 성공과 실패라는 것은 정신의 문제이지 형식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공자가 72명의 군주들에게 등용되지 못한 채 공을 이룬 것도 없이 몸을 감추고 길에서 늪어간 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일 등을 실패라 해야 한다. 그것을 실패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진정으로 의력이 있는 사람은 오직 먼 희망을 품고 목전의 성패는 따지지 않는다. 성공을 기약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성공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것이다. 성공도 구하지 않는 데 실패할 수 있는 길이 있겠는가? 천박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신체가 혹은 상해당하고 혹은 구금되고 혹은 살해당하는 것을 보고 제멋대로 정 말 실패했다고 말하는데, 그들이 세상의 일이 때론 지금은 실패했어도 훗날 성공한다는 것, 나는 실패했어도 다른 사람이 성공시킨다는 것을 알겠는가! 이미 만들어진 원인은 끝내는 반드시 결과를 낸다. 세상에서 제대로 사태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만이 완전한 실패의 자리에 서며, 사태를 분별할 줄 아는 자는 반드시 실패 없는 자리에 선다.(제15절, p.101)

3.2.5.8.3.3 성패와 관련한 두 가지 의력

(e3.2.5.8.3.3.1) 눈앞의 성패에서 해탈해서 자신의 생전에 그 결실을 못 봐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중요하고 또한 필요한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눈앞의 성패에 초연하기만 해서는 당장에 성취해야 하는 일에 박차를 가할 수 없다. 그래서 양계초는 의력을 두 가지로 나누고 그 둘이 모두 필

요하다고 요구했다. 하나는 성패를 염두에 두고 사력을 다해 성공을 기필하는 의력으로 이를 ‘굳센 의력’(剛毅)이라 불렀고, 하나는 세대를 초월한 장기적인 성공을 염두에 두고 눈앞의 성패에는 초탈한 의력으로 이는 ‘침착한 의력’(沈毅)이라 불렀다.

(q3.2.5.8.3.3.2) 그러므로 나는 의력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한다. 하나는 성패를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전력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는 남은 용기를 다 바쳐 노력하는 것으로서 이를 굳센 의력(剛毅)이라고 한다. 하나는 성패에서 해탈하여 천직(天職)을 다하는 것을 임무로 삼는 것이다. 이는 생명을 바쳐 일하는 것으로서 이를 침착한 의력(沈毅)이라고 한다.(제15절, p.101)

3.2.5.8.4 의력의 박약과 극복

3.2.5.8.4.1 마무리하는 힘의 부족

(e3.2.5.8.4.1.1) 버티는 힘인 의력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과 관련된 힘이며, 마지막까지 버티서 결실을 얻게 해주는 힘이므로 마무리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에게 신념이 있다면 죽음까지 각오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힘이다. 세상의 주류, 권력의 변화와 상관없이 끝까지 지켜나가는 힘이다. 의력이 부족하다면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지 못하고 자신의 신념과 다른 것이 국가권력의 주류를 이루면 스스로 숨을 죽인다. 의력이 부족한 상태를 양계초는 또한 지의 덕은 있는데 인의 덕이 버티지 못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지의 덕이 이론에 관여하는 힘이라면 인의 덕은 실천에 관여하는 힘이라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몰라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알게 되면 실천하리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모르는 것보다 알면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더 절망적인 상태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절망적인 또 다른 상태는 실천은 하되, 의력 부족으로 끝까지 자신의 앎과 신념을 관철하여 마무리를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양계초는 “충명하지만 나약한 억만의 사람보다는 소박하고 성실하면서 침착한 의력(沈毅)을 지닌 자 한두 명이 낫다.”고 말한다. 충명한 것은 좋지만 나약

한 총명함은 실천과 마무리를 동반하지 못하므로 의미가 없다. 총명하면서 나약한 수많은 사람보다는,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실천하여 마침내 결실을 일궈낼 수 있는 소박하고 성실한 침착한 의력을 가진 사람이어야만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

(q3.2.5.8.4.1.2) 우리 조국의 국민성의 결점이 수백 가지가 넘지만, 가장 통탄스러운 것은 의력이 없다는 것이다. 권력을 가진 노인들은 모두 수구(守舊)를 주장한다. 수구가 무슨 해가 있겠는가! 영국 보수당의 명예로운 역사는 혁혁하게 빛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지키는 것은 좋은데 지키려 한다면 몸을 바쳐 지켜야 한다. 무술신정(戊戌新政)이 시행되었을 때의 3개월 동안 어떻게 수구주의자들은 전국에 한명도 없었을까? 의화단이 일어난 때 우리는 그들의 어리석음에 당황했지만 또한 외세를 배척하는 의분에 넘치는 그들의 용기에 놀라기도 했다. 그러나 몇 개월 동안에 한 구역도 제대로 점령하지 못한 것은 왜인가? 또한 연합군이 도착하자마자 아랫사람 중에는 연합군의 국기를 내거는 사람은 있어도 의화단은 한 사람이라도 있었는가? 윗사람들 가운데는 기독교신자가 된 사람은 있어도 의화단은 한 사람이라도 있었는가? [...] 요컨대 그 의력의 박약 때문이다. 지의 덕은 미치는데 인의 덕이 버티지 못하는 것이다. 시작은 하는데 마무리까지 하는 자가 적은 일이 흔하다. 저 수구주의자들은 말할 것도 없다. 유신주의자라고 불리는 자들에 대해 사람들은 마음에 위안을 주는 정도는 아니지만 없는 것 보다는 낫다고 말한다. 아야! 이는 틀린 말이라 생각한다. 세상일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기대할 수가 있는데,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자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다.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자에게는 오히려 기대할 수 있는데 실천하면서 마무리를 못하는 자에게는 가장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총명하지만 나약한 억만의 사람보다는 소박하고 성실하면서 침착한 의력을 지닌 자 한두 명이 낫다.(제15절, p.102~103)

3.2.5.8.4.2 책임을 자임하는 자의 각오

(e3.2.5.8.4.2.1) 양계초가 절실하게 의력을 필요로 했던 것은 근대국가 건설이라는 거대한 사업 때문이었다. 어렵고도 가깝지 않은 목표를 향해 좌절하지 않고 매진해가는 정신력이 필요했다. 그러므로 의력이라는 덕성

은 근대국가 건설이라는 그 일을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일에서부터 발휘되어야 한다. 양계초가 서양철학자들의 말이라고 인용한 “책임을 아는 것이 대장부의 시작이고 책임을 실천하는 것이 대장부의 끝”이라는 말이 얘기해주듯, 의력은 책임을 느끼고 그것을 실천하는 행동에 일관되어야 할 덕성 또는 힘이다. 그 책임을 느끼는 순간 그 사람은 국민이라는 남편과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로 두 남편을 섬기지 않고 죽음을 다해 남편을 섬길 것을 다짐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짐을 실천해야 한다. 끝까지 실천해 나가는 그 정신력이 바로 의력이다. 그것은 일시적인 객기가 아니며, 단순히 알고 주장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죽음으로 한 남편을 섬기듯이, 실현될 때까지 변함없이 묵묵히 실천해나가는 힘이다. 그 노정에는 필연적으로 온갖 번뇌와 고난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것들이 당연히 있음을 알고 오히려 그 장애들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단련시켜주는 것이라 생각할 정도로 담담하고 당당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바로 의력이다. 이처럼 의력은 책임을 자임하는 자가,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무릅쓰고 그 책임의 달성을 위해 전진해나가도록 하는 덕성이다.

(q3.2.5.8.4.2.2) 나는 수구주의자는 타하지 않겠다. 가짜 유신주의자도 타하지 않겠다. 나는 세상일에 진정한 뜻을 둔 우리당의 사람들에게 고할 뿐이다. 그대들은 객기에 의지하지 말고, 한때의 고론에 움직여 내가 이것을 알고 이 말을 함으로써 나의 일은 끝난다고 생각하지 말라. 서양의 철학자들이 항상 하는 말에 “책임을 아는 것이 대장부의 시작이고 책임을 실천하는 것이 대장부의 끝이다.”는 말이 있다. 우리들이 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만이지만 인정한다면 부인들이 남편에게 하듯이 평생 두 남편을 섬기지 않고 죽음으로 그에게 복종할 것을 맹세한다. 우리들이 책임을 아는 첫날은 바로 우리 몸이 국민과 처음 결혼하는 날이다. 머리에 서 발끝까지 내가 사사롭게 소유한 부분이 있겠는가! 여기에서 게으름을 피우겠는가! 또한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세상의 일은 순경(順境)과 역경(逆境)이 저와 같이 늘 서로 갈마든다. 우리 당이여!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는 저항력 없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저항력을 무서워한다면 이루려고 하지 말고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책임을 방기하고 못 백성들과 한 무리가 되어라. 그렇지 않다면, 갖가지 번뇌는 모두 나를

위해 마음을 단련해 주는 것이며, 갖가지 위험은 모두 나를 위해 담력을 단련해 주는 것이며, 갖가지 고난은 모두 나를 위해 내 지혜와 내 힘을 단련해 주는 것이니, 어디를 가든 모두 나의 학교이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원망하고 무엇에 굶주릴 것인가! 나의 바램은 한이 없고 나의 배움은 한이 없고 나의 실천은 한이 없다.(제15절, p.103)

3.2.5.9 자존감

(e3.2.5.9.1) ‘자존(自尊)’이란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이다. 단순히 자연인인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근대 국가의 국민인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다. 국가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그 중요한 자리를 감당할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것이다. 즉 자존감은 자신에게 국가의 운명을 책임질 사명이 주어졌으며 그 사명을 실천할 능력 역시 있음을 자각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러므로 그러한 자신감은 막연한 정신적 상태가 아니라 구체적인 토대를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경제적, 정신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당당한 인격이어야 한다. 그러한 토대를 가진 인격이라야 국가에 대해 자각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그 일을 감당할 자신감을 품을 수 있으며, 이 자신감은 다시 실제의 능력을 이끌어낼 원동력이 된다. 현실적인 배경을 가진 자존감은, 내실 없는 객기와 구분되는 것이며 책임을 피하려는 겸손과도 구분되는 것이다.

3.2.5.9.1 자존은 국민을 존중하는 것

(e3.2.5.9.1.1) 자존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이므로 공적인 영역의 덕, 즉 공덕이 아니지 않는가? 양계초가 자존의 덕을 공덕의 영역에 넣은 것은 자존은 국민의 한 사람인 자신을 존중하는 것, 인류의 한 사람인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즉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은 자연인인 나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근대국가의 국민인 나, 근대국가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나를 존중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존은 국민을 존중하는 것이며 나아가 인류를 존중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존은 공공영역의 덕인 공덕에 속한다. 즉 개인이 단체와 교섭할 때 발휘되는 덕인 것이다.

(q3.2.5.9.1.2) 일본의 대 교육가인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교육은 ‘독립자존’(獨立自尊)이라는 한마디 표어를 도덕교육(德育)의 최대강령으로 삼았다. ‘자존’(自尊)이 어떻게 덕(德)이라 불리는가? ‘스스로’(自)는 국민의 한 분자分子이므로 ‘자존(自尊)’은 국민을 존중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스스로(自)’는 인도(人道)의 한 티끌이므로 ‘자존(自尊)’은 인도를 존중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제12절, p.68)

3.2.5.9.2 자존은 위대한 기개

(e3.2.5.9.2.1) 자존은 자신의 역사적·사회적 가치를 자각하는 데서 시작한다. 그 가치는 그 사회에서 자신이 수행해야 하는 사명으로 자각된다. 그것은 자신의 능력이기도 하다. 역사적인 성인과 자신은 그 가능성의 면에서만 본다면 다를 것이 없다. 그러므로 자존감은 성인에 대한 존경만큼이나 커질 수 있다. 난세를 구제하겠다는 뜻을 세우고 실천했던 성인들이 자각했던 사명감은 실천 없이 뜻만 큰 기개(狂)가 아니었다. 그것은 실천을 담보한 위대한 기개(太)였다. 성인을 허풍쟁이가 아니라 성인으로 만드는 것은 위대한 사명감의 자각과 그 사명의 실천이다. 가장 바람직한 자존은 그러한 성인의 사명과 실천을 본받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그 가능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이다.

(q3.2.5.9.2.2) 국가는 본래 본체가 없고, 인민에 의지해서 본체를 이룬다. 그러므로 국가의 자존을 원한다면 반드시 먼저 국민 개개인의 자존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윤(伊尹)은 “나는 천민(天民)의 선각자이다. 나는 장차 이 도로써 이 백성을 깨우치려 한다. 내가 깨우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는가!”고 했고 안연(顔淵)은 “순임금은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같은 인간이다.”고 했다. 맹자는 “하늘은 아직 천하를 평화롭게 할 생각이 없는 것이다. 하늘이 천하를 평화롭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날 나를 두고 누구에게 그 일을 시키겠는가!”고 했다. 이와 같은 말들은 보통 사람의 평상심으로 보면, 실천은 담보하지 못하는 기개(狂)가 아니라 분명 위대한 기개(泰)이니, 성현이 성현인 이유는 여기에 있다.(제12절, p.70~71)

3.2.5.9.3 자존감을 해치는 것들

3.2.5.9.3.1 자포자기

(e3.2.5.9.3.1.1) 자존의 근거는 자신의 능력,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자신의 가능성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가능성이다. 자포자기란 스스로에게 폭력을 가하고 스스로를 버리는 행위이다. 자신의 가능성, 자신의 가치를 자각하지 못하고 그 가능성을 실현시킬 노력을 하지 않는 일이 바로 자포자기이다. 그래서 양계초는 “스스로를 해치고 스스로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스스로를 버리는 것의 반대가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이다.”고 말한다. 스스로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은 현실에서 노력하는 가운데 그 가능성을 완벽하게 실현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가까운 결과는 성취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자신의 가능성을 작게 잡은 사람은 그것을 넘어서는 결과를 성취할 수 없다. 현실에서 자존감은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자신의 노력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q3.2.5.9.3.1.2) 서양 철학자들은 “사람은 각자 스스로가 서고자 하는 자리에 선다.”고 말한다.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은 “선비가 오늘날 태어나 강가의 버들이 되고 싶으면 강가의 버들이 되고 소나무나 떡갈나무가 되고자 하면 소나무나 떡갈나무가 된다.”고 말했다. 나는 소나무나 떡갈나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정말로 소나무나 떡갈나무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감히 말하지 못하겠지만, 강가의 버드나무가 되고 싶어 하던 사람이 더 나아가 소나무나 떡갈나무가 되었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 맹자는 “이 사단(四端)이 있는데도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해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스스로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과는 같이 할 말이 없으며, 스스로를 버리는 사람과는 같이 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스스로를 해치고 스스로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스스로를 버리는 것의 반대가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이다. 그래서 군자는 스스로를 존중함(자존)을 귀하게 여긴다.(제12절, p.68)

3.2.5.9.3.2 겸손

(e3.2.5.9.3.2.1) 스스로의 모자란 점을 자각하고 앞으로의 발전을 기대하

면서 스스로 몸을 나추는 ‘겸손’은 과거에는 미덕이었다. 그러나 스스로가 나라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나라의 운명을 개척해야 할 이 때, 그러한 겸손은 더 이상 미덕일 수 없다. 오히려 중국 안의 모든 사람이 겸손의 덕을 발휘한다면 누가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의 임무를 완수하려 할 것인가? 겸손은 결국 책임회피일 뿐이다. 자존감이 책임감의 자각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겸손은 자존감과 대척점에 있을 수밖에 없다. 자존감이 근대국가의 생존과 번영에 필요한 것이라면 겸손은 더 이상 미덕으로 취급될 수 없다. 미덕이 아닌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책임회피를 은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악덕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q3.2.5.9.3.2.2) 오늘날의 이른바 시대를 아는 준결이라는 자들을 보면, 세상의 위급에 대해 그들이 듣지 않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의무에 대해 모르는 것이 아닌데도 그들을 보면 입 안에서는 만 마디가 비등하면서도 어깨 위에는 조금치의 짐도 없다. 왜 그런가? “세상은 넓고 똑똑한 사람은 많다.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가 돌아보면 이 사이에서 감히 무슨 말을 하겠는가!”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뜻을 미루어 보면 한 나라 안 4억인 가운데 3억 9천 9백 9십 9만 9천 9백 9십 9인 가운데 나보다 덕과 지혜가 뛰어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나보다 총명하지 않고 재주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나보다 강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니, 나라는 한 사람이 어떻게 경중을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이라면 4억 인이 모두 각자 자기를 빼고 나머지 3억 9천 9백 9십 9만 9천 9백 9십 9인에게 나라 일을 처리하길 기대한다. 이렇게 되면 모두 스스로는 빠지게 되고 4억인 가운데 한 사람도 남지 않게 된다. 한두 사람이 스스로를 해치고 스스로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스스로를 버리고는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대세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그 폐단이 극에 달하면 이와 같이 된다.(제12절, p.68~69)

3.2.5.9.3.3 객기

(e3.2.5.9.3.3.1) 개인적으로 더 수준 높은 인격을 바라며 자신을 낮췄던 겸손의 미덕 한편으로, 중국인들은 그 이상으로 자신들이 중화민족의 소유자라는 자부심에 차 있었으며 그 자부심은 주변의 민족들을 문화적 열

등국으로 치부하고 오랑캐라고 깔보는 태도를 동반했다. 그것은 자신들의 고급문화에 대한 자신감에 의해 지탱되는 자부심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옛날 일이 되어버렸다. 지금은 자신들의 문화보다 더 높은 수준의 문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배워야 할 때이다. 서양이 중국보다 먼저 이룩한 근대국가와 그 근대국가를 이끌어갈 국민이 갖춰야 할 공덕이, 지금 중국인들이 배워야 할 대표적인 것이다. 양계초는 과거의 문화국으로서의 자부심을 지금은 ‘객기’라고 폄하한다. 객기는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것이다. 옛날에는 과대평가가 아니었을지도 모르지만, 상황이 변한 오늘날 여전히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객기에 불과하다. 이러한 객기 역시 진정한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그 자격에 바탕을 둔 자존감을 갖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이다.

(q3.2.5.9.3.3.2) 옛날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객기(客氣) 때문에 중국은 상등의 나라라고 자부하면서 남들을 깔보고 오랑캐 취급했다. 선각자들은 외국을 배척하겠다는 잘못된 생각은 외교에 해를 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문명을 수입하는 길도 막아버릴 것이라고 걱정을 했었다. 그러나 죽어가는 빌레처럼 숨을 이어가는 자는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어리석게도 이러한 원칙도 없고 의식도 없는 배외자존의 사상을 가지고 그 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그 배외자존의 사상을 품고 스스로 죽어가며 또한 나라를 세울 도구도 완전히 끊어지리라는 것을 누가 알겠는가! 수구로써 나라를 망쳤을 때도 오히려 나라에 가망은 있었지만, 거짓된 유신(維新)으로 나라를 망쳤을 때 구제의 길이 없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는가!(제12절, p.70)

3.2.5.9.4 자존의 길

(e3.2.5.9.4.1) 양계초에 의하면 자존은 생존경쟁의 세계에서 불패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하는데 필수적인 덕목이다. 그 자존의 덕목을 해치는 중국적인 장애들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자존의 덕을 키우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다. 양계초는 자존의 덕을 얻는 전제로서 스스로를 사랑함, 스스로를 규제함, 경제적·학문적 독립, 스스로를 낮춤, 스스로 책임을 맡음이라는 다섯 가지 길을 소개한다.

(q3.2.5.9.4.2) 아아! 이 세상에 나라는 반드시 다른 나라들과 함께 있다. 고금중외(古今中外) 불패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나라들을 살펴보면, 모든 나라들이 하나같이 인민의 자존에 의해서였다. 모든 나라들이 하나 같이 인민 가운데 더욱 뛰어나게 우수한 자가 자존의 대의로 일세의 사람들을 이끌어서 그렇게 된 것이었다.(제12절, p.71)

3.2.5.9.4.1 스스로를 사랑함

(e3.2.5.9.4.1.1) 스스로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스스로를 납득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양계초가 생각하기에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재능과 덕을 닦는다. 외면만을 꾸미거나 권모술수를 능란하게 쓰는 사람도 출세의 기회를 잡아 남에게 인정받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스스로에게는 인정받을 수 없다. 양계초에 의하면 스스로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눈처럼 하얀 절개와 의지”, “소나무와 바람의 덕과 지조”를 지녀야 한다. 그래야만 고고한 정신과 당당한 기개를 드러낼 수 있고, 또 그럴 수 있어야만 스스로가 만족하고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다.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은 품격 높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그 자기존중감은 끊임없이 자신의 품격을 유지하고 나아가 높이도록 노력하게 할 것이다.

(q3.2.5.9.4.1.2) 피상적이고 경박한 선비는, 화통한 척하면서 작은 예법을 무시하는 것이 통달한 선비들의 특징이라고 여긴다. 명예를 희생하면서 굽은 자를 사용해 바른 넓이를 채려는 자들은 호결과 거리가 멀다. 왜 그런가? 스스로의 재능과 덕이 모자라다면 이른바 자존은 도대체 어떻게 얻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므로 진정으로 스스로를 존중하는 자는 눈처럼 하얀 절개와 의지가 있는 뒤라야 고고한 구름과 학의 정신을 드러낼 수가 있다. 소나무와 바람의 우뚝한 덕과 지조를 가진 뒤라야 당당하고 위엄 있는 기개를 드러낼 수가 있다. 스스로 존중하는 것은 사람의 품격을 높여주는 법문이다.(제12절, p.71~72)

3.2.5.9.4.2 스스로를 규제함

(e3.2.5.9.4.2.1) 문명의 표상인 근대의 법률은 개인에게 어떤 의미인가? 근대국가의 법은 주권재민의 원리 위에서 태어난 것이다. 개개인은 자신의 권한을 그들이 선택한 대리인에게 위임함으로써 자신들에게 필요한 법을 만들도록 한다. 즉 근대국가의 법은 개개인 스스로가 만든 것이다. 그것들은 스스로를 규제하기 위해서이고, 양계초에 의하면, 결국에는 ‘자존’을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자신의 욕망을 무절제하게 발휘해서는 단단한 사회를 이룩할 수 없고 단단한 사회를 이룩하지 못하면 이 세계 안에서 ‘자존’의 길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양계초의 생각에는, 고대에는 스파르타가, 현재에는 영국이 세상에서 존중받는 이유는 모두 이 스스로를 규제하는 정신, 즉 법률의 관념이 강하기 때문이고, 중국인의 인격이 날로 비천해져 가는 이유는 이러한 정신, 이러한 관념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로 볼 때, 스스로를 규제하는 정신은 직접적으로 자존의 덕과 연결된다기보다는, 직접적으로는 강한 단체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고, 강한 단체 안에 소속되지 않고서는 존중받는 인격을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q3.2.5.9.4.2.2) 사람은 금수와 어떻게 다른가? 사람에게에는 법률이 있으나 금수에게는 없다. 문명인은 야만인과 어떻게 다른가? 문명인은 법률과 조화를 이루지만 야만인은 그렇게 못한다. 열 사람이 스스로를 규제할 수 있으면 이 열 사람은 동네에서 가장 견고한 단체를 이루어 그 동네에서 존중 받을 수 있다. [...] 수십·수백·수천만 인이 스스로를 규제할 수 있으면 이 수십·수백·수천만 인은 세계에서 가장 견고한 단체를 이루어 세계에서 존중 받을 수 있다. 고대에는 스파르타 인이 만 명이 채 안 되는 인구의 나라로서 희랍에서 홀로 존귀했으며, 현재에는 영국이 중국의 오분의 일이 넘지 않는 인구로서 오대주에서 존중받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모두 스스로를 규제하는 힘이 강하고 법률의 관념이 강하기 때문이다. 혼자서는 스스로를 존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단체가 존귀해 진 뒤에야 단체 내의 사람과 함께 존귀해진다. 서로 스스로를 규제하는 힘이 부족하면 단체 또한 성립하지 못하므로 존귀함이 어떻게 있겠는가! 우리 중국인의 인격이 날로 비천해져가는 그 병의 근원은 모두 여기에 있다.(제12절, p.72)

3.2.5.9.4.3 경제적·학문적 독립

(e3.2.5.9.4.3.1) 예나 지금이나 스스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독립일 것이다.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누군가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예속당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독립적인 개인이 되고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는 개인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럴 수 있도록 스스로를 그리고 후손을 교육시켜야 한다. 앵글로색슨 인종이 오늘날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학교에서 실용적인 것을 가르쳐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이라고 양계초는 말한다. 그런데 자립을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정신적으로도 자립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학문상의 연구능력과 발전능력이 필요하다. 실제 생활에서 활용할 일이 별로 없는 전문지식이 아니라, 경제상이나 법률상의 지식처럼, 실제의 생활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들이 요구된다. ‘학사’나 ‘박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국인들처럼 균형 있게 실생활의 지식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실제 생활에서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또 사회생활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지식을 지녀야, 다른 사람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고 나아가 예속당하지 않고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 살 수 있다. 그래야만 스스로를 존중하는 길로 들어설 수 있다.

(q3.2.5.9.4.3.2) 자립의 분야는 한 가지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상의 노동능력과 독립, 그리고 학문상의 연구능력과 발전이다. 경제상의 능력이 다른 사람을 부양할 수 있으면 상등이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스스로를 먹여 살릴 수 있어야 한다. 학문상으로 다른 사람을 구제할 수 있으면 상등이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스스로를 구제할 수는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스스로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으려 해도 다른 방법이 있겠는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면서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지 않으려고 해도 방법이 있겠는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한다는 것이 반드시 뜻있는 선비들이 피하려는 것은 아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의지하는 바가 있고 저 사람이 내게 의지하는 바가 있어 서로 의지한다면 단체의 모습은 단단해

진다. 그러나 한쪽은 전적으로 의지하고 한쪽은 전적으로 의지당한다면 그 단체는 성립할 수 없고 성립하더라도 오래가지 못한다. 영국인들은 스스로 자랑하면서 하는 말이 “다른 나라의 학교에서는 허다한 박사, 학사들을 배출하지만 우리 영국의 학교에서는 단지 ‘사람’을 양성할 뿐이다.”고 한다. 사람이란 무엇인가? 인격을 말하는 것이다. 영국 교육의 어떤 특색이 이러한 인격을 양성할 수 있는가를 보면, 실용적인 것을 가르쳐서 경제적으로 자립하게 하고 상식을 가르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한다. 앵글로색슨 인종이 전 세계에서 타인을 소유하고 타인에게 소유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기에 의한다.(제12절, p.73)

3.2.5.9.4.4 몸을 낮춰 처신함

(e3.2.5.9.4.4.1) 몸을 낮춰 처신한다는 것은 양계초가 자존에 해가 되는 것이라고 꼽았던 겸손과 별로 다르지 않은 말이다. 그 부정적인 겸손이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겸손이라면, 여기에서 양계초가 자존을 위한 길로 꼽은 ‘몸을 낮춰 처신한다’는 것은 타인을 존중한다는 의미이다. 자존이라는 것은 자기의 육체를 존중한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성원인 자신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의 또 다른 성원인 타인들도 자신을 존중하는 것처럼 존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양계초는 “스스로를 존중하는 자만이 타인을 존중할 수 있다.”고 말한다. 만약 자신을 존중한다는 것을 잘못 이해해, 타인을 폄하함으로써 자신을 높이거나 남을 죽임으로써 스스로가 사는 방법을 택한다면, 그 높임이나 그 삶은 위태로운 것일 뿐이다. ‘몸을 낮춰 처신함’이란, 공동체의 다른 성원의 발전이 공동체의 발전이며 공동체의 발전이 나의 발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타인의 발전을 기뻐하고 존중하는 태도이다. 이러한 태도는 국민의 한 구성원으로서 스스로의 가치를 자각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사람에게서만 나온다. 그 가치에 대한 자각이 발전하여 타인에게까지 그 인식이 확대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존의 덕을 획득한 사람은 스스로를 낮춰 타인을 존중할 줄 알며, 스스로를 낮춰 타인을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자존을 위한 길이다.

(q3.2.5.9.4.4.2) 스스로를 존중한다는 것은 칠척(七尺)의 이 육체를 존중한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한 분자, 인류의 한 티끌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한 분자이고 인류의 한 티끌인 자들은 모두 자신들이 존중받는 것처럼 타인을 존중하므로, 스스로를 존중하는 자만이 타인을 존중할 수 있다. 깊은 곳에 있으면서 높다고 하고 적은 것을 덧붙이고 많다고 한다면 그 높음과 많음은 변변치 못한 것이다. 남을 죽여서 스스로는 살고 남을 망하게 해서 스스로 보존한다면 그 삶과 보존 역시 위태로울 것이다. 그러므로 조금 높은 곳에 올랐다고 우쭐해 있는 사람은 분명 그릇이 작아 채우기도 쉬운 보잘것없는 사람일 것이다. 심하게는 남이 기술이 있거나 재주가 있는 것을 질투하고 미워하는 자라면, 그는 분명 탁하고 비천한 하류의 인간일 것이다. 보잘것없는 사람이나 하류의 인간은 스스로를 높이는 길과 그 거리가 얼마나 먼가!(제12절, p.74)

3.2.5.9.4.5 스스로 책임을 맡음

(e3.2.5.9.4.5.1)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은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으로서의 가치를 자각하는 데서 시작한다. 자신의 가치라는 것은 스스로가 국가를 건설하고 운영할 책임을 지녔고 또 그럴 능력도 있다는 데서 나온다. 그러므로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자각하는 것이 스스로를 존중하는 또 하나의 길이 된다. 맹자는 사람의 본성은 선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람이 인의예지를 천부적으로 갖고 태어났는데 자신은 도덕적인 인간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해치고 스스로를 버리는 것(自暴自棄)이라고 말했다. 양계초는 맹자의 어조를 그대로 옮겨와서 말한다. 국민의 의무를 “천직으로 인정하고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를 폄하하는 것이고 스스로를 더럽히는 것이고 스스로를 버리는 것”이라고 말한다. 인간의 본질에 대한 규정은 맹자와 양계초가 다르지만, 양계초는 맹자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자신의 본질을 자각하면 그 본질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못하면 ‘스스로를 해치고 스스로를 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양계초에 의하면, 스스로의 본질을 자각할수록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은 강해지고 그 책임을 자임할수

록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은 커진다.

(q3.2.5.9.4.5.2) 스스로 책임을 맡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닌데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실은 스스로가 그것을 천직으로 인정하고 최선을 다해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를 폄하하는 것이고 스스로를 더럽히는 것이고 스스로를 버리는 것이다. 도의상으로 스스로를 파는 것이고 정신상으로 스스로를 해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존중할수록 스스로 책임을 맡으며 스스로 책임을 맡는 자일수록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이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궁극은 이윤(伊尹)과 같이 ‘천민(天民)의 선각자’를 자임하고 맹자처럼 ‘내가 아니면 누가하랴’고 자임하는 것이며 부처처럼 ‘중생을 구제하는 대사를 위해 태어났다’고 자임하는 것이다.(제12절, p.74)

3.2.5.10 상무정신

(e3.2.5.10.1) 생존경쟁의 민족국가 시대에, 국가의 건재를 보장하고 그리하여 국민인 나의 건재를 보장해줄 가장 분명한 것은 실은 그 무엇보다도 군사력이다. 군사력과 공덕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공덕은 문명국가, 즉 민족국가의 국민이 갖추어야 하는 덕이다. 나의 책임과 의무가 곧 국가를 성립시키고 유지시킨다는 것을 알고 국가의 힘이 될 나의 힘을 갖추는 것, 나 개인의 이익 때문에 국가의 이익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공덕의 정신이다. 그렇다면 무력을 중요시하는 정신은 의심할 바 없이 ‘공덕’의 목록 안에 들어가야 한다. 나라를 세우는데 “상무의 국민과 철혈주의가 없으면, 문명이 있고 지식이 있”더라도 이 경쟁의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q3.2.5.10.2) 유약한 문명은 결국 야만의 무력을 당해낼 수 없다. 그렇다면 상무라는 것은 국민의 원기이고 국가가 의지해서 성립할 수 있는 기반이며 문명이 의지해서 유지될 수 있는 근거이다. 비스마르크는 세상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공법(公法)이 아니라 검은 철과 붉은 피뿐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공법은 믿을 수 없다. 그러나 나라를 세우는데 상무의 국민과 철혈주의가 없으면, 문명이 있고 지식이 있고 많은 백성이 있고

넓은 영토가 있더라도, 분명 이 극렬한 경쟁의 무대에서 자립할 수 없다.
(제17절, p.108)

3.2.5.10.1 군사력은 정신력

(e3.2.5.10.1.1) 일본에 망명하기 전에 양계초는 스승인 강유위와 함께 1898년의 무술변법운동을 주도했었다. 무술변법운동은, 중국의 가치체계는 유지한 채 서양의 군사력만을 수입하려한 양무운동을 비판하면서 전개된 것이었다. 양계초는 양무운동자들이 키우려 한 군사력은 ‘형식’이고 자신이 키우려 하는 군사력은 ‘정신’이라고 차별화한다. 양계초에 의하면 군사적인 힘을 키우는 것이, 마음에 내재한 덕에 기반을 두지 않고 단지 물리적인 것만을 키우는 것이라면, 그것은 “호랑이 가죽을 뒤집어 쓴 양” 처럼 실질적인 힘은 발휘할 수 없는 가짜이다. 그런 자세로는 민족국가의 국민이 되어 국가를 지킬 수 없다. 내면까지 호랑이로 만들 것은 정신이다. 즉 상무정신이라는 공덕이다.

(q3.2.5.10.1.2) 나는 우리나라가 군사력을 키우려고 한다는 것을 수십 년 전에 들었다. 군함을 사들이고 병사를 훈련시키고 공장을 만들어 무기를 제조하고 군대를 정비하는 데 힘 쓴지 오래 되었다. 그러나 그 효과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들이 키우려한 군사력은 형식이고 내가 키우려 한 군사력은 정신이다. 정신이 없이 다만 형식만 있으면 이는 호랑이 가죽을 뒤집어쓴 양일뿐으로, 그를 맹수와 싸우게 하면 맹수의 먹이가 될 뿐이다.(제17절, p.115)

3.2.5.10.2 정신적 군사력을 위해 키워야 할 것

(e3.2.5.10.2.1) 상무의 형식이 아니라 “정말로 상무정신을 키우려 한다면”(제17절) 세 가지 힘을 갖추야 한다고 양계초는 말한다. 상무정신을 위해 갖추야 할 세 가지란 마음의 힘, 담력, 체력이다. 즉, 상식적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정신집중의 힘, 두려움을 없애주는 담력, 그리고 건강한 신체의 단련을 그 내용으로 한다. 군사력은 말할 것도 없이 군대의 규모,

훈련정도, 무기, 작전 등의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이런 요소들은 군사 개인의 능력이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며, 공덕의 영역일 수 없는 것은 명백하다. 양계초는 이러한 요소들을 제외한 것 가운데 개인이 관여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거기에 상무정신이라는 이름을 붙여 그것 역시 공덕의 영역으로 다뤘다. 그것은 잠재적 병사인 국민 개개인이 군사력 증강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신력을 고양하고 개인적으로 체력을 단련하는 일이었다.

3.2.5.10.2.1 정신집중의 힘

(e3.2.5.10.2.1.1) 집중력은 상식적으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한다. 밑에 깔린 아들을 구하기 위해 일 톤이 넘는 차를 번쩍 들어 올리는 어머니의 힘, 적의 침입을 알리기 위해 다리의 부상도 알지 못한 채 수십 킬로미터를 단숨에 달리는 병사의 힘 같은 것들이다. 어느 한 목적에 집중될 때 나오는 힘은 자신의安危와 위험을 돌보지 않게 한다. 고통, 험난함, 위험은 그의 안전에 없다. 이러한 정신집중의 힘이 발휘된다면 서양의 군대가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중국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여러 면에서 서양의 근대국가 군사력보다 열등할 수밖에 없는 중국의 군사력은 이러한 열외의 실력을 갖춰야만 그들과 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집중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아들을 구하기 위한 어머니의 힘, 나라를 구하기 위한 병사의 힘에서 배우듯이, 국가에 대한 사랑을 지극하게 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이다.

(q3.2.5.10.2.1.2) 서양 학자의 말에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것이 있다. 약한 여자가 홀연 강한 어머니가 되는 것은 그 사랑의 정신이 온통 아들 한 몸으로 모였기 때문이다. 아들에게 급한 일이 있으면 몸을 던져 달려간다. 고통스럽고 험난하고 무서운 곳에도, 건강한 장부도 머뭇거리는 그러한 곳에도 그는 손을 흔들며 앞으로 달려간다. 이전의 겁 많고 나약한 모습이 완전히 바뀐 것이다. 그의 눈, 그의 마음속에 오직 아들만이 있을 뿐이다. 자신의 몸을 돌아보지 않으니 어떻게 고통스

러운 것, 험난한 것, 무서운 것이 보이겠는가! 정신력이 흐트러지면 용감한 자도 역시 겁을 먹는다. 정신력이 집중되면 약자라도 강해진다. 그러므로 원수를 갚고, 치욕을 갚고, 어려움을 견디고, 큰 계획을 세우고, 큰 일을 맡는 등의 일을, 현명한 자도 도모하지 못하고 귀신도 알 수 없는 것이라 해도, 지극한 정성을 가진 사람의 정신력에 의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제17절, p.115)

3.2.5.10.2.2 두려움을 없애줄 담력

(e3.2.5.10.2.2.1) 병사가 최심식 무기로 무장을 해도 그의 마음에 대적해야 할 적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하다면 아무리 가공할 무기라도 제 기능을 발휘할 길이 없다. 반대로 객관적으로 아무리 험난한 상대를 마주했다 하더라도 그 병사가 특출하게 겁이 없다면 상대 역시 위축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양계초는 상무정신을 강화시키기 위한 또 다른 조건으로 두려움을 모르는 담력을 꼽았다. 담력이 있는 자라면 이 세상 어디에나 널려 있는 고난에 두려움 없이 직면하여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다. “겁쟁이는 모욕의 모의를 부르고 전쟁을 두려워하는 자는 반드시 전화를 입”을 것이니, 그런 불행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담력을 쌓아 어떤 적과의 전쟁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니, 두렵고 겁 많은 자에게 무슨 행운이 있으랴!” 죽음도 불사하는 담력만이 살길인 것이다.

(q3.2.5.10.2.2.2) 세상에 어디를 가나 어려운 일이 있지만 오직 담력이 있는 자만이 어려운 일이 없다. 세상에 어디를 가나 무서운 길이 있지만 오직 담력을 가진 자만이 무서운 길이 없다. 하늘이 어찌 이 어려운 일과 무서운 길을 그들만을 위해 사사롭게 없앴겠는가! 인간 세상의 모든 일은 사람 마음이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내가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고 무섭다고 여기면 마음이 먼저 굵주리고 기가 먼저 위축되어, 외부환경이 그 허탈하고 빈 곳을 파고들어 막아버린다. 만약에 거칠게 뒤돌아보는 일이 없다면 그 기는 다시 살아나서 사지에 갇다놓아도 살아남으며 망지에 갇다놓아도 살아남는다. [...] 아아! 겁쟁이는 모욕의 모의를 부르고 전쟁을 두려워하는 자는 반드시 전화를 입는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반드시

시 죽음을 당하니, 두렵고 겁 많은 자에게 무슨 행운이 있으랴!(제17절, p.116)

3.2.5.10.2.3 정신력을 지탱해줄 체력

(e3.2.5.10.2.3.1) 정신력은 똑같은 물리적 힘을 가졌을 때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정신력은 물리적 힘이나 체력과 완전히 독립해서 홀로 자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건강한 신체는 그것만으로도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힘이 있다. 아무리 임전불퇴의 정신력을 갖추고 있더라도, 왜소하고 병약한 몸을 가진 사람이 건장한 신체에다 현대적인 무기를 갖춘 사람을 보고 위축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양계초는 상무정신을 키우기 위한 또 하나의 조건으로 체력을 내세웠다. 상무정신이라는 이름의 공덕을 키우는 일은 개인적으로 덕으로 연마하는 것이다. 그 하나의 조건으로 제시된 체력 역시 개인이 힘쓸 일이다. 중국인 각 개인은 “멍하니 앉아” 있지 말고 “근골을 단련하고 용기를” 기를 일이다. 그리하여 언제라도 병사의 임무가 주어진다면 강한 정신력으로 전쟁에 임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

(q3.2.5.10.2.3.2) 육체는 정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건강하고 강건한 육체가 있어야 건인불발의 정신이 있다. [...] 아아! 사람이 모두 병자라면 그 나라가 어떻게 병든 나라가 안 되겠는가! 이런 나라 국민이 맹수와 같은 이족을 만난다면 이는 난장이가 거인을 만나는 것과 같아서, 거인이 손에 아무 무기도 들지 않아도 손 한번 휘두르는 것으로도 난장이는 무너져 내릴 것이다. 아아! 생존경쟁, 우승열패여! 우리 동포는 근골을 단련하고 용기를 길러서, 멍하니 앉아서 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제17절, p.116~117)

3.2.6 공덕의 약점

(e3.2.6.1) 양계초가 공덕의 이름으로 중국인 개개인에게 요구한 내용은

사실은 정치·경제·사회 영역에서 요구하고 추구해야 하는 것들이다. 즉 근대적 민족국가의 성립에 필요한 제반 시스템이다. 국가의 위상에 대한 합의가 될 국가사상, 제도에 의해 마련해야 할 권리와 의무, 그리고 자유, 경제 등의 사안들을 양계초는 공덕이라는 이름으로 개개인에게 요구했다. 즉 정치·경제 영역의 사안들을 개인적인 도덕의 이름으로 요구했다. 이 요구들은 명백히 공리주의적인 것이다. 강력한 국가의 건설이 모든 구성원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암묵적인 동의 아래, 국가 건설에 모든 구성원들의 참여를 촉구하는 것이다. 그 가치에의 참여는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e3.2.6.2)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그 가치들이 낮선 것이라면 개개인에게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양계초는 그것들을 개인적인 덕으로서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내면화되어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발현될 것이 기대된다. 그렇다면 급하게 외국에서 들여온 그 가치들이 중국인들의 행위 원리로 자리 잡는 데는 익숙해짐이라는 문제를 포함해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을 것이다. 양계초는 도덕이란 동서고금 할 것 없이 모름지기 ‘양심의 자유’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공덕이 양심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양계초가 자신이 제창한 공덕의 한계에 대해 의식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면에서 보면 낮선 것을 행위 원리로 삼을 때의 어려움을 표현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특히 과거 중국인들의 행위 원리가 공리주의와는 대척점에 서 있는 ‘내면의 올바른 마음’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공리주의적 공덕은 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중국인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못했을 것이다. 도덕행위는 내면의 도덕감을 충족시키고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자기 존중감을 유발시키는 것이어야 하는데, ‘나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을 충족시키는 가장 합리적 방법’으로서의 공리주의 윤리가 중국인들에게 그런 요구까지 충족시켜 주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이유를 포함한 몇 가지 이유로 양계초는 곧 공덕 외에 다시 사덕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선전하게 된다.

(q3.2.6.3) 나는 전에 중국의 구도덕이 앞으로의 인심을 포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새로운 도덕을 만들어 이를 보충하기를 바랐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는 다만 이상에 불과할 뿐, 오늘날 현실에서 볼 수 있는 일이다. 정치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은 덕(德)과 지(智)와 힘(力)에 대해 말한다. 그런데 지와 힘은 성취하기가 대단히 쉽다. 오직 덕만이 대단히 어렵다. 지금 새로운 도덕을 가지고 국민을 바꾸려고 한다면 서양의 학설을 줄줄이 늘어놓는 것으로써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즉 소크라테스, 플라톤, 칸트, 헤겔의 책을 읽는 것은 ‘신도덕학’을 한다고는 할 수 있지만 ‘신도덕’이라고는 할 수 없다. 도덕이란 실천이지 말이 아니다. 도덕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면 양심의 자유에서 나오는 것에 의거해야 한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마찬가지이다. 신구(新舊)를 막론하고 마찬가지이다. 도덕을 실천하려고 한다면 사회의 성질이 각각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것에 의거해야 할 것이다. 선철의 미언(微言), 조상의 업적, 먼 조상에서 내 몸에게까지 전해 내려온 것, 이런 것들이야말로 그 사회의 자양물이 될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회의 자양물을 가지고 나를 키우려고 한다면 그게 쉬운 일이겠는가?(제18절, p.131~132)

3.3 사덕

(e3.3.1) 공덕이 공적 세계에서 각 구성원들에게 요구되는 덕이라면 사덕은 사적인 세계에서 개인의 도덕성을 형성하는 덕이다. 양계초가 공덕을 중요한 문제로 다루었을 당초에는 사덕에 대해서는 별도로 천착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당초의 양계초는 중국에서 도덕의 발달이 융성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90% 이상이 사덕에 치우쳐 있고, 또 오히려 사덕의 과도한 발달 때문에 공덕이 지지부진해졌다고 진단했다. 공덕은 사덕과는 질적으로 다른, 이른바 민족국가의 이익을 최고선으로 설정하는 공리주의 체계의 덕이었다. 민족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양계초의 목적이 바뀐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왜 양계초는 처음의 의도와는 달리 사덕을 강조하게 되었을까? 양계초는 당초의 주장을 바꿔 사덕이 공덕의

근원이라고 말한다. 즉 사덕을 갖추지 못하면 공덕은 당연히 가질 수 없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공덕은 사덕의 확충이기 때문이다. 사덕이란 무엇인가? 사덕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양심이다. 양계초는 사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공덕은 양심이라는 사덕의 뿌리에서 자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덕은 공덕에게 양심이라는 순수하고 선천적인 마음에서 자란 것이라는 성격을 부여하기 위해 등장한다.

3.3.1 사덕의 중요성

3.3.1.1 사덕의 중요성에 대한 양계초의 평가 변화

(e3.3.1.1.1) 『신민설』은, 1902년 2월의 《신민총보》 창간호에 그 첫 회를 싣기 시작해서, 마지막편인 제20절 「정치능력」이 연재된 것은 1906년 1월이다. 즉 만 4년에 걸쳐 연재되었는데, 그 사이 양계초의 정치적 입장에는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강유위·양계초가 무술정치개혁에 실패하고 망명해 있던 당시 일본에는, 청왕조의 개혁에 의한 입헌군주제를 지지했던 강유위·양계초와는 달리, 청왕조를 거부하면서 공화제의 건설을 기치로 내걸었던 일련의 유학생들 역시 한편에 있었다. 그들은 일찍부터 해외를 돌며 반청(反淸) 활동을 했던 손문을 지도자로 맞아 동맹회(同盟會)라는 혁명단체를 조직했다. 『신민설』의 연재를 시작한 1902년의 양계초가, 스승인 강유위와 공유했고 또 무술변법운동의 기치이기도 했던 ‘입헌군주제’를 여전히 자신의 정치적 방향으로 설정한 것은 아니었다. 신민의 공덕은, 이념으로서는 어디까지나 공화국의 국민의 자질을 요구한 것이었다. 실제로 양계초는 손문과의 접촉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강유위의 완강한 거부로 손문과의 합작은 성사되지 않았고, 혁명파로 기울고 있던 양계초를 저지하려는 강유위의 의도로 양계초는 1903년 2월 미국의 보황회(保皇會)를 순회한다. 보황회는 강유위가 주장하는 ‘입헌군주’의 실현을 위한 정치활동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화교 조직이다.

(e3.3.1.1.2) 약 9개월간의 미국순회를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온 양계초는 1903년 10월 《신민설》 제18절인 「사덕」을 연재한다. 이는 그 이전까지의 《신민설》이 ‘공덕’을 주제로 했던 것과는 달리, ‘공덕’을 능가하는 ‘사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로, 그 이전까지의 글이 사덕은 논외로 하고 오로지 공덕의 중요성만을 강조한 것과 명백한 대조를 보이는 글이다. 실제로 「사덕」은, 양계초가 공화국 건설에서 후퇴하여, 공화국을 준비하기 위한 단계로서 개명된 군주에 의한 전제를 주장하는 입장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즉 그는 「사덕」의 연재와 동시에 문명화를 추구하는 전제정치를 내용으로 하는 『개명전제론』(開明專制論) 역시 출간했다. 개명전제는 개명된 군주와 그의 행정부를 구성해 실무를 맡을 책임감 있는 엘리트들을 필요로 하는 정치형태이다. 양계초는 그 엘리트들에게 ‘사덕’의 자질을 요구했다. 이리하여 「사덕」편을 기점으로 해서 ‘사덕’의 중요성을 평가하는 양계초의 태도가 갈라진다. 공덕의 강조가 형식적으로나마 공화국의 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면, ‘사덕’을 강조한 배경에는 개명전제를 이끌 엘리트들의 도덕성 고양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3.3.1.1.1 공덕을 중시할 때의 사덕

(e3.3.1.1.1.1) 공덕만을 강조했던 것은, 시기적으로는 《신민설》의 연재를 처음 시작한 1902년에서 미국에 가기 직전 제17절 「상무」를 발표한 1903년 3월까지의 사이이다. 제5절의 「공덕」편 말미에서 양계초는 “공덕의 큰 목적이 사회를 이롭게 하는데 있으니, 수천만의 세목들이 모두 여기에서 생겨난다. 본 편 이후의 각 세목들은 거의 모두 ‘사회를 이롭게 함’을 강령으로 해서 일관되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이 절에서는 공덕의 급무(急務)에 대해서만 논하고, 이 공덕을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별도로 논하겠다.”라고 밝힌다. 즉 제5절 이후, 제6절부터 이어지는 ‘국가사상’, ‘권리사상’, ‘자유’, ‘자치’, 등의 모든 것이 공덕을 실행하는 방법이었다. 이 시기에 사덕에 대한 양계초의 평가는 더 이상 문

제 삼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발달했고, 나아가 ‘사회를 이롭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전적으로 사적인 영역의 덕이라는 것이었다.

3.3.1.1.1.1 사덕에 치우친 중국의 구도덕

(e3.3.1.1.1.1.1) 어느 사회이고 규율 없는 야만사회가 아닌 이상 도덕은 있다. 특히 중국처럼 그 구성원들이 자랑하는 몇 천 년의 찬란한 문화를 가진 나라에서 도덕이 발달하지 않았을 리 없다. 양계초 역시 “중국에서 도덕의 발달은 빨랐다.”고 인정한다. 오랫동안 중국 사회에 도덕원리를 제공했던 것은 『논어』를 비롯한 유학의 경전들이었다. 사실은 그것들은 개인의 수양에서 시작해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화롭게 하는 일까지 일관되게 작용하는 행위원리였다. 그러나 이 시기의 양계초가 보기에 그 유가적 도덕의 90%는 사덕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리고 사덕이란 “타인과 교류하지 않을 때” 개인에게 필요한 덕, 기껏해야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작용하는 개인의 덕이었다. 즉 사회 혹은 단체와의 관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덕이다. 결과적으로 과거의 유가도덕 가운데 사회에 이익이 되는 이른바 ‘공덕’은 10%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에 도덕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공덕은 늘 빈곤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과도한 사덕의 발달 때문에 공덕의 발달이 저지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양계초가 판단하기에, 사덕은 너무 과도하게 발달했기 때문에 주목할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q3.3.1.1.1.1.2) 중국에서 도덕의 발달은 빨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덕에만 치우쳐 있었을 뿐 공덕은 거의 결여되어 있다. 『논어』·『맹자』같은 책들은 우리 국민의 목택(木鐸)이며 도덕의 근원이다. 그러나 그 안에서 가르치는 것은, 사덕이 9할이고 공덕은 1할에도 미치지 못한다. 『고요모』(皐陶謨)의 구덕(九德), 『홍범』(洪範)의 삼덕(三德), 『논어』의 ‘온량공검양’(溫良恭儉讓), ‘극기복례’(克己復禮), ‘충신독경’(忠信篤敬), ‘과우과회’(寡憂寡悔), ‘강의목눌’(剛毅木訥), ‘지명지언’(知命知言), 『대학』의 ‘지지독선’(知止慎獨), ‘계신구렴’(戒欺求慊), 『중용』의 ‘호학역행지치’(好學力行知恥), ‘계신공구’(戒愼恐懼), ‘치곡’(致曲), 『맹자』의 ‘존심양성’(存心養性),

‘반신강서’(反身強恕) 등등, 이러한 것들은 사덕에 관한 것으로 남김없이 발휘되어 사인(私人)(원주: 사인이란, 공인에 대비해서 하는 말로, 한 개인이 타인과 교류하지 않을 때를 말한다)의 자격은 거의 갖춰졌다. 그러나 단지 사인의 자격만 있다고 해서 완전한 인격이 될 수 있는가? 절대 그렇지 못하다.(제5절, p.12)

3.3.1.1.1.2 구도덕은 도덕의 부분일 뿐

(e3.3.1.1.1.2.1) 유가의 대표적 윤리는 오륜(五倫)이다. 오륜은 군신, 부자, 장유(長幼), 부부, 봉우 사이의 윤리적 관계를 규정한다. 유학의 시조라 불리는 공자와 유학의 틀을 만든 맹자는, 고대 주(周)나라의 사회질서를 이상적으로 생각했다. 주나라는 천자가 중앙을 통치하고 천자의 혈연들이 지방의 제후가 되어 통치하는 사회였다. 따라서 그 사회의 지도층은 기본적으로 모두 혈연관계였다. 그러므로 가족 내에서의 질서원리가 그대로 사회전체의 질서원리로 확대될 수 있었다. 아들이 아버지의 권리를 넘보는 일 없이 아버지에게 복종하는 마음을 온 나라 안의 사람이 갖는다면, 그 사회에서 반란이란 있을 수 없다. 차기의 가부장이 될 만형에 대해 아래의 동생들이 모두 당연히 복종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하극상의 비극은 없을 것이다. 지도자들은 가족 안에서의 그러한 질서 있는 사랑을 온 나라로 확충하여 나라 안의 백성을 모두 가족처럼 아끼는 마음으로 통치에 임하고자 했다. 백성들의 덕은 바람에 흔들리는 풀과 같은 것이라서, 지도층이 화목한 가족생활의 모범을 보이고 또 가족적인 사랑으로 자신들을 대하면 거기에 같은 마음으로 응답할 것이었다. 그러므로 유가에서는 가족윤리만을 말해도 그것은 사회윤리까지 포괄하려는 의도였다.

(e3.3.1.1.1.2.2) 그러나 양계초는 냉담하게 유가 윤리의 대부분은 가정윤리일, 뿐이라고 단언한다. 그래서 『맹자』에서 ‘웃어른과 어린아이 사이의 윤리(長幼有序)’라고 규정된 것을, 양계초는 굳이 ‘형제’사이의 윤리라고 축소해버렸다. 양계초는 서양의 윤리를 가족윤리, 사회윤리, 국가윤리로 구분하면서, 그 분류를 오륜에 적용한다. 그에 의하면 오륜 가운데

데 국가윤리에 속하는 것은 ‘군신’ 하나뿐이고, 사회윤리에 속하는 것은 ‘붕우’ 하나뿐으로 나머진 부부, 부자, 형제 사이의 윤리는 모두 가족윤리이다. 사회윤리와 국가윤리는 공덕의 영역이지만 가족윤리는 사덕의 영역이다. 사덕은, 개인이 타인과의 교류 없이 혼자만의 도덕성을 지킬 때, 혹은 개인이 개인과 교제할 때에 필요한 덕을 의미했다. 양계초는 유가의 가족윤리를 개인이 단지 개인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축소시켰다. 사덕인 가족윤리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사회윤리·국가윤리가 필요했던 양계초의 눈으로 볼 때, 중국윤리는 사덕인 가족윤리 하나에 치우친 불완전한 도덕체계였다. 즉, 중국의 구 윤리만으로 산다면 중국인은 가족 안에서의 윤리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대응하겠지만, 일단 사회에 나오면, 군신과 붕우 이외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윤리적 원칙을 갖지 못하는 것이 된다. 특히 당시처럼 근대국가의 수립을 염원하는 때에, 그 근대국가 안에서 필요한 윤리는 중국의 구 윤리로부터는 명백하게 찾을 수 없는 것이었다.

(q3.3.1.1.1.2.3) 중국의 구(舊) 윤리를 서양의 신(新) 윤리와 비교해 보자. 구 윤리는 군신, 부자, 형제, 부부, 붕우로 분류된다. 신 윤리는 가족윤리, 사회윤리, 국가윤리로 분류된다. 구 윤리가 중시하는 것은 한 사적인 개인(私人)과 한 개인의 관계이다.(원주: 한 개인의 독선기신은 본래 사덕의 범위에 속한다. 즉 한 개인과 다른 한 개인이 교섭할 때의 덕으로, 여전히 사덕의 범위에 속한다.) 신 윤리가 중시하는 것은 개인과 단체의 관계이다. 신 윤리의 분류로 구 윤리를 재분류해보면, 가족윤리에 속하는 것이 셋이다. 즉 부자, 형제, 부부이다. 사회윤리에 속하는 것은 붕우 하나이다. 국가윤리에 속하는 것은 군신 하나이다. 그러나 붕우 하나만으로는 결코 사회윤리를 다 포괄할 수 없으며, 군신 하나만으로는 결코 국가윤리를 다 포괄할 수 없다. 왜 그런가? [...] 한 개인이 혼자 있을 때, 그리고 다른 개인과 관계할 때, 그 사이에 반드시 도덕이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이것은 도덕의 일부분이지 전체가 아니다. 전체는 공덕과 사덕을 잘 견해야 한다.(제5절, p.12~13)

3.3.1.1.1.3 중국의 소극적 사덕은 공덕의 좀벌레

(e3.3.1.1.1.3.1) 중국의 구 윤리에 대한 양계초의 비난은, 구 윤리가 사덕에 치우쳐 있어 상대적으로 공덕의 발달은 부진했다는 데에서 멈추지 않았다. 양계초는 더 적극적으로 사덕을 비난했다. 중국의 구 윤리는 부부, 부자, 형제라는 개인 간의 관계에서 더 후퇴해서, 자기 한 몸을 단속해서 과오를 적게 하는(束身寡過) 데 머물렀다고 비난했다. 과실을 적게 하는 것을 최선으로 삼는 처세방법은 난세를 당한 사람들에게는 최소한의 몸보신 방법일 수는 있다. 수기치인(修己治人)을 인간의 본분으로 삼았던 중국인들에게 속신과과(束身寡過) 주의는 주류가 아니었다. 중앙의 권력세계에서 소외되었거나 권력의 쟁탈과정에서 패배하고 값비싼 대가를 치른 사람 가운데는 그러한 몸보신을 최선의 처세로 선택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양계초는 그러한 소극적 몸보신주의가 중국 도덕교육(德育)의 중심이었다고 매도했다. 이러한 소극적 몸보신주의는, 개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 근대국가를 세워야 한다고 촉구하는 양계초의 눈에, 사회가 주는 혜택만을 받고 그 빛은 돌려줄지 모르는 얽미 없는 사람들이었다. 더 과격하게 양계초는 그들을 사회의 좀벌레라고 불렀다. 이 시기의 양계초에 의하면 소극적 몸보신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의 구 도덕은, 사회에 진 빛을 갚지 않고 왜 갚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회에는 일말의 도움도 안 되는 채 오히려 해만 입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양산해내는 최악의 것이었다.

(q3.3.1.1.1.3.2) 요컨대, 우리 중국은 수천 년 이래로 자신을 단속하고 과오를 적게 하려는 주의(束身寡過主義)가 덕육(德育)의 중심이었다. 그래서 그 범위는 날로 축소되었고, 사람들의 언행은 이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사회와 국가의 공리와 공익을 위해 힘을 다하는 자가 있으면 저 비틀리고 도움이 안 되는 선비들은 걸핏하면 “그 지위에 있지 않으면 그 정치에 대해 논하지 말라” 등의 말을 편협하게 끌어와서 비웃고 배척했다. 나쁜 씨앗이 전해져서 습관이 되어 진실을 이기지 못했다. 그러니 국민은 더욱 공덕이 어떤 것인지 모르게 되었다. 사람이 사회 속에서 살면서 그 사회의 권리를 누리려면 그 사회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렇지 않

다면 이는 사회의 좀벌레일 뿐이다. 자기 한 몸을 조심하고 과실을 적게 하려는 자들은 내가 비록 사회에 도움은 되지 않지만 해(害)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무익하면 그것이 해라는 것을 모르는가? 왜 그러한가? 사회가 나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있는데 나는 사회에 이익 주는 것이 없다면 이것은 내가 사회에 빚을 지고 갚지 않는 것이다. 한 사인(私人)과 다른 사인이 교섭할 때, 갚아야 할 빚을 갚지 않으면 사덕은 반드시 그것을 죄로 삼는다. 이것은 그 해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기 때문이다. [...] 오늘날 우리 중국이 날로 쇠락해 가는 이유가 달리 있으랴! 저 자신을 단속하고 과오를 적게 하려는 주의(東身寡過주의)를 잘 지키는 선비가 너무 많고 권리를 누리기만 하고 의무를 다하지는 않으며 사람들이 사회에 빚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제5절, p.13)

3.3.1.1.1.4 공덕과 사덕은 별개의 가치체계

(e3.3.1.1.1.4.1) 유교윤리에서 효는 바람직한 인간관계의 핵심이자 출발이다. 모든 인간이 선천적으로 부여받았다는 착한 본성은 현실의 장에서 구체적인 인간관계와 상황을 만나면서 자신의 본연성을 실현해간다. 사회의 각 구성원들을 연대하는 원리는 사랑이다. 유가에서는 그것을 인(仁)이라고 부르며, 인의 원리는 일상에서 측은지심(惻隱之心)이라는 감정으로 나타난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만나서 사랑받고 사랑하는 곳은 가정이므로, 그 사랑은 부모와 형제 사이에서 최초로 작동한다. 가정 안에서의 사랑으로 예민해지고 강렬해진 측은지심은 가정을 벗어나 사회로 확장된다. 유가의 이상은 세상 안의 모든 사람을 그 사랑으로 감싸 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랑이 세상 끝까지 닿아도, 효(孝)라고 표현되는 부모에 대한 사랑은 그 모든 사랑의 원천으로서 마르지 않으며 또한 가장 강렬하다.

(e3.3.1.1.1.4.2) 그러나, 이것은 효가 사회를 연대하는 원리의 원천이라는 유가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때의 이야기이다. 이 시기의 양계초에 의하면 효는 부모와 자식, 즉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작용하는 사덕일 뿐이다. 양계초에 의하면 사회와 국가가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므로 사회와 국가는 부모와 마찬가지로이다. 일개인이 자기의 부모에게 효로써 보답

하듯이 사회와 국가에도 마찬가지로 보답을 해야 한다. 부모에 대한 효가 사덕이라면 사회와 국가에 대한 보답을 가능하게 하는 개인의 덕성은 공덕의 영역이다. 이 공덕이 없는 사람이라면, 사덕 상으로는 선인이든 악인이든 관계없이, 사회와 국가의 죄인이라고 양계초는 말한다. 즉 공덕이라는 가치 체계는 사덕의 체계와는 별도로 구축된다는 이야기이다. 사덕 상으로는 뛰어난 사람이 공덕 상으로는 모자랄 수 있고, 공덕 상으로 뛰어난 사람이 사덕 상으로는 모자랄 수 있다는 소리이다. 효성스러운 사람이 사회에 나가 공동체에도 여전한 사랑의 마음을 발휘할 수 있으라는 기대는 할 수 없다. 공동체에 대한 사랑은 별도로 배우거나 갖춰야하는 것이라고 양계초는 주장하는 것이다.

(q3.3.1.1.1.4.3) 부모는 자식을 낳고 키우고 보호하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자식은 부모의 은혜를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 사람들이 모두 이 의무를 다한다면 자식을 많이 둔 부모일수록 점점 더 순조로워지고 가족은 점점 더 번창한다. 이와 반대면 가족은 번창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자식이 부모에게 진 빚을 갚지 않는 것을 불효라고 한다. 효는 사덕의 가장 중요한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불효의 문제점에 대해 어렵지 않게 안다. 사회가 개인에게, 국가가 국민에게 베푸는 은혜는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은혜와 같다. 사회와 국가가 없으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은 의탁할 곳이 없으며 우리의 지혜와 능력은 발휘할 곳이 없어, 이 몸은 하루도 천지에 설 수 없다. 그러므로 사회에 보답하고 나라에 보답해야 하는 의무는 혈기를 가진 사람은 모두 갖는다. 이 책임을 버린다면, 사덕 상으로는 선인이든 악인이든 모두 사회와 국가의 도적이다.(제5절, p.14)

3.3.1.1.2 재평가된 사덕

(e3.3.1.1.2.1) 1903년경부터 양계초는 공화제의 실시를 보류하고 그 준비단계로 개명전제의 실시를 주장했다. 그 개명전제의 정치형태를 이끌 사람들은 도덕적 엘리트였고, 양계초는 그들을 염두에 두고 사덕을 강조했다. 동시에 이제는 확실하게 자신과 반대세력이 된 혁명과 역시 비판해야 했는데, 양계초는 혁명파를 사덕이 부족한 집단이라고 비판했

다. 혁명파의 행동이 국가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들의 공덕은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혁명파는 보통은 소수들로서 열악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목적을 추구하므로 그 과정에서 테러나 암살, 적과의 전술적인 연합 등, 수단을 가리지 않는 행동방식을 취한다. 그러므로 그들 각각의 개인적인 도덕성을 문제 삼을 때는 부도덕한 인간으로 비난당할 수 있다. 즉 사덕은 적극적으로는 양계초의 개명전제론을 위한 것이며, 소극적으로는 구국전선에서 혁명파를 배제하기 위한 무기였다.

3.3.1.1.2.1 공덕과 사덕은 전체와 구성원의 관계

(e3.3.1.1.2.1.1) 공덕을 강조할 당시의 양계초의 판단으로는, 사덕과 공덕은 별개의 체계였다. 사덕 상으로 아무리 숭고한 덕을 갖춘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별도의 공덕을 갖추지 않으면 공덕 상으로는 사회의 좀벌레가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 양계초는 “학자들이 날마다 공덕에 대해 얘기하는데도 그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역시 국민의 사덕에 큰 결함이 있기 때문이다.”고 말한다. 이것은 전적으로 새로운 입장이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이전의 입장과 정면에서 대립하는 발언이다. 양계초는 “한 개인이 사적으로 소유한 덕성이 없으면 그러한 개인이 수천, 수억이 모여도 공적으로 소유한 덕성은 없다.”는 “명백한 이치”를 따져보면 그렇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이전의 논리대로라면 한 개인이 사적으로 소유한 공덕이 있어야 공적으로 소유한 공덕이 있게 되는 것이지, 사적으로 소유한 사덕이 공적으로 소유한 공덕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양계초는 이어 “내가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데 타인이 나를 믿어주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한 개인이 한 개인과 교섭하면서 충실하지 못하면서 단체에 충실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는 근거를 댈다. 스스로 믿는 일이나, 개인과의 교섭에서 충실한 일은 사덕이 관여하는 사적인 영역이다. 그 사덕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에게 개인이 단체와 교섭하는 영역에서 필요한 공덕을 기대할 수 없다는 말이다. 즉 이제 양계초는 사덕은 공덕의 토대라고 말한다. 부강한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여전히 지고의 목표이고 그

래서 공덕이 변함없이 중요한 것이라면, 사덕은 그 공덕의 토대가 되는 것으로서 공덕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으로 부상한 것이다. 양계초는 사덕과 공덕은 전혀 다른 별개의 체계라는 입장에서 태도를 바꿔 사덕은 공덕의 토대가 된다고 말한다.

(q3.3.1.1.2.1.2) 사덕과 공덕은 대립하는 명사가 아니라 서로 맞물려 있는 명사이다. 스펜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회란 하나하나의 구성요소가 쌓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의 덕은 구성원들의 덕에 의해 결정된다. 사회란 단체이고 구성원은 개인이다. 단체의 본성과 감정과 형태와 제도는 개인들에 의존한다. 개인이 본래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라면 단체에서 찾을 수 없다. 개인이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이라면 단체에서 갑자기 없어질 수 없다.” 얼마나 분명한 말인가! 이른바 공덕이란 그 본체를 일컫는 것으로, 한 단체 안 사람들의 공공(公共)의 덕성이다. 이 본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의 작용에 대해 말하자면, 개인이 본 단체에 대해 공공관념을 발휘하게 하는 덕성이다. 맹인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한 사람이 눈 밝은 사람이 되지 못하고, 귀머거리가 아무리 많이 모여도 한 사람이 귀 밝은 사람이 되지 못한다. 겁 많은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한 사람의 용맹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한 개인이 사적으로 소유한 덕성이 없으면 그러한 개인이 수천, 수백이 모여도 공적으로 소유한 덕성은 없다는 것은 명백한 이치이다. 맹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으며, 귀머거리가 많은 사람들 앞이라고 갑자기 들을 수는 없으며 겁쟁이가 많은 사람들 앞이라고 갑자기 용기를 낼 수는 없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데 타인이 나를 믿어주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한 개인이 한 개인과 교섭하면서 충실하지 못하면서 단체에 충실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 이치 역시 명백하다. 지금처럼 학자들이 날마다 공덕에 대해 얘기하는데도 그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역시 국민의 사덕에 큰 결함이 있기 때문이다.(제18절, p.118~119)

3.3.1.1.2.2 공덕은 사덕의 확충

(e3.3.1.1.2.2.1) 양계초는 공덕과 사덕이 별개의 도덕체계라는 초기의 입장을 완전히 뒤집어서, 공덕과 사덕은 방편적인 이름일 뿐 뿌리는 하나라고 말한다. 같은 뿌리라고 말하는 근거로 양계초가 드는 것은, 사덕이든

공덕이든 덕을 갖추는 주체는 한 사람이며, 도덕이란 공·사를 불문하고 모두 “공공의 안녕과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점이다. 양계초는 이제 사덕까지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공덕에 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보면 그 반대처럼 보인다. 즉 양계초는 공덕이란 사덕을 ‘확충’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사덕이 공덕보다 근원적인 것이 된다. 그러나 그 사덕이란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방향이 지어진 것이라는 의미에서, 의미가 축소된 도덕이라 할 수 있다. “공공의 안녕과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도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의 안녕과 이익이 행위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는 도덕체계는 공리주의라고 불리는 것으로, 이는 도덕체계의 하나일 뿐이다. 이와 대척점에 서있는 의무론적 윤리론은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돌아보지 않고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 양심에 따르는 행동이 대부분 공공의 안녕과 이익을 해치는 방향으로 나가지는 않겠지만, 경우에 따라선 그럴 수도 있다. 양계초가 “공공의 안녕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만이 도덕이라고 규정했으므로, 거기에서 벗어나는 도덕은 도덕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양계초에 의하면, 사덕과 공덕은 공공의 안녕과 이익에 이바지한다는 같은 뿌리를 가진 것이며, 공덕은 사덕을 화충함으로써 얻어진다. 그러므로 사덕만 있고 공덕은 결여된 사람은 확충하는 일을 하지 못한 결함이 있는 것이지만, 사덕이 없다면 공덕은 자라날 수 없다. 그래서 양계초는 사덕 교육이 “도덕 교육의 반 이상”이라고 말한다.

(q3.3.1.1.2.2.2) 또한 공덕과 사덕은 하나의 경계선이 있어 서로 구별된 다른 것이겠는가! 덕의 발생은, 사람과 사람이 교섭하면서 생겨났다.(원주: 로빈슨표류기의 주인공처럼 혼자 무인도에 있다면 덕이라는 것도 없고 不德이라는 것도 없을 것이다.) 소수와 교섭하거나 다수와 교섭하거나, 개인과 교섭하거나 공인과 교섭하거나, 그 객체는 다르지만 주체는 하나이다. 그러므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도덕이라는 것은 모두 공공의 안녕과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며, 부덕이라는 것은 모두 공공의 안녕과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다. 공이라고 하고 사라고 하는 것은 임시로 세운 명사로서 체험과 실천의 범문에 불과하다. 포괄적으로 말하면 덕은 하

나일 뿐으로 공과 사가 따로 없다. 그러나 분석적으로 말하면 사덕은 순수하고 아름다우면서도 공덕면에서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 있고, 사덕은 형편없이 하급이면서도 공덕면에서는 평가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 맹자는 옛사람이 지금사람보다 뛰어난 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잘 확충한 점이라고 했다. 공덕이라는 것은 사덕의 확충이다. 사덕만 알고 공덕을 모른다면 그 결함은 다만 확충의 문제이다. 사덕을 멸시하고 공덕에만 의탁한다면 확충할 수 있는 바탕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덕을 양성하는 것이 도덕 교육의 반 이상이다.(제18절, p.119)

3.3.1.1.2 공덕의 중요성에 의지하는 사덕의 중요성

(e3.3.1.1.2.1) 양계초가 중국 과거의 도덕은 사덕이 90% 이상이고 공덕은 거의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고한 국가를 이룩해야 할 지금 힘써야 할 것은 오로지 공덕이라고 했을 때, 사덕은 충분히 발달해 있기 때문에 논외로 쳐도 되는 것 정도가 아니었다. 개인의 청렴만을 중요한 것으로 생각한 과거 중국의 도덕은, 사회에서 받은 은혜를 갚지 않는 파렴치한 것이며 사회의 이익을 갹아먹는다는 의미에서 사회의 쯔벌레라고까지 매도되었다. 공화국의 국민을 양성하려던 목적에서 일보 후퇴하여 공화국에 이르기까지의 중단단계로 개명전제를 구상하면서 양계초는 사덕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사덕과 공덕은 전혀 별개의 도덕체계로서 사덕 상으로는 뛰어난 도덕인도 공덕 상으로는 사회의 쯔벌레가 될 수 있다고 양계초는 주장했다. 우선 양계초는 이와 같은 생각을 바꾸어 사덕이 타락하면 공덕은 꽃피울 수 없는 관계로 수정했다. 공덕이 사덕의 확충일 뿐이라면, 공덕의 발달을 위해서는 사덕을 돈독히 하는 일이 첫 번째 과제가 된다. 사덕을 키운 다음에 확충의 문제를 다루어야지, 사덕과 상관없이 공덕만을 키우려 한다면 그것은 사상누각이 될 뿐이다.

(e3.3.1.1.2.2) 이렇게 보면 사덕의 중요성이 이전과 달리 강화되고, 공덕보다 그 중요성이 평가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공덕만을 중요시하던 때의 사덕은 ‘타인과 교섭하기 이전의 개인 도덕’과 ‘개인이 개인과 교섭할 때의 도덕’으로 규정되었는데, 사덕의 중요성이 재평가되었을 때는 “동서

양을 막론하고 도덕이라는 것은 모두 공공의 안녕과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며, 부도덕이라는 것은 모두 공공의 안녕과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다.”라고 하여 공덕과 구별되는 사덕의 특징은 공덕에 매몰되어 버린다. 즉 사덕에 대한 재평가가 의미하는 것은 사덕의 중요성보다 공덕의 중요성이 더욱 확인되고, 그에 따라 사덕까지도 공덕에 종속시키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공덕이란 ‘공공의 안녕과 이익’에 이바지하는 덕이다. 양계초가 말한 대로 공덕이 사덕의 확충이라면, 이제 사덕교육에서부터 공공의 이익을 염두에 둔 도덕교육이 실시될 것이다.

3.3.1.2 개명전제와 사덕의 중요성

(e3.3.1.2.1) 양계초는 중국 국민의 수준이 아직 공화제를 운영할 정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화제로 가기까지의 중간단계로서 당장은 개명전제를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양계초에 의하면 중국의 모든 인민은 장차 주권을 행사할 국민이 될 사람들이지만, 아직 그 현실적인 자격은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그들이 적정한 자격을 갖추는 때까지는 전제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전제는 공화제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인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 전제이므로 문명의 전제라고 주장한다. 그가 사용한 개명전제란 용어 자체가, 문명을 위한 전제, 인민과 국가를 위한 전제란 의미이다. 전제정부는 당장의 국가를 운영하고 또 국민을 교육하여 국가의 미래의 주인으로 키워낼 임무를 갖는다. 양계초의 구상에 의하면 이 정부의 실권은 군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실무를 담당할 관리들에게 있다. 양계초는 군주는 상징적인 존재로 있고 관리들이 실무를 담당하는 군주무책임의 전제제도를 구상했다. 그리고 그 전제정치를 운영할 사덕을 갖춘 도덕적 인사들을 필요로 했다. 관리들은 과거의 유가 사대부처럼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적인 것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다. 유자들의 도덕의식, 책임의식이라야 아무런 사심 없이 인민을 교육시키고 국가의 이익을 도모할 것이었다.(『개명전제론』참고, 『음빙실문집』17책에 수록)

3.3.2 사덕의 필요성

(e3.3.2.1) 양계초는 이 시기에 사덕이 공덕의 토대이며 사덕의 확충이 공덕이 된다고 생각했으므로, 실제로 사덕은 전체 도덕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양계초에게 공덕은 공화국의 국민이 될 자격이었다. 공덕이 있어야만 비로소 주권을 행사하여 의무와 권리를 다하고 자유와 책임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지금 공덕의 뿌리가 사덕이라고 한다면, 사덕과 공덕 즉 도덕이 있어야만 공화국의 국민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이 된다. 양계초는 파괴 사업에도 도덕이 관건이며 건설 사업에도 도덕이 관건이라고 역설한다. 이제 도덕은 근대국가 수립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핵심이 되었다.

3.3.2.1 도덕의 과도기

(e3.3.2.1.1) 공덕을 강조하던 시기의 양계초가 중국의 구도덕은 사덕이 90%라고 한말을 상기하면, 사덕의 재평가는 구도덕에 대한 재평가와 별개의 것일 수 없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양계초에게 사덕의 재평가는 그대로 구도덕의 부활이었다. 그에게 이제 사덕과 공덕은 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었고, 모두 공공의 안녕과 이익에 이바지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공덕의 수입과 마찬가지로 사덕의 수입 역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양계초에게 사덕의 부활은 그대로 중국 구도덕의 부활을 의미했다. 양계초는 당시를 도덕의 과도기로 규정했다. 즉 옛것과 새것의 자리바꿈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그러한 시기에 양계초는 도덕적 아노미상태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경계한다. 당장에 새로운 도덕관념이 자리 잡지 못할 것은 분명한데, 기존의 도덕관념마저 미리 내던져 버린다면 도덕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양계초는 국민교육이 대홍한 뒤에 라야 서양의 신도덕을 수입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그 때까지 중국 “사회를 하나의 선(善)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것”은 “선조들이 전해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구도덕일 뿐”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리하여 사덕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의 구도덕은

다시 그 적극적 의의를 인정받게 된다. 즉 구도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도덕의 과도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도덕이 정착되기까지의 아노미상태를 방지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q3.3.2.1.2) 지금 서양도덕의 원질을 분석해보면, 종교의 제제에서 나오는 것이 약간 있고, 법률의 제제에서 나오는 부분이 약간 있고 사회의 명예의 제제에서 나오는 부분이 약간 있다. 이 세 가지를 오늘날의 중국이 소유할 수 있는가? 나는 그럴 수 없음을 안다. 그럴 수 없는데도 신도덕으로 국민을 바꾸겠다고 한다면 이는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모래를 익혀서 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나는 덕육(德育)면에서 서양의 신도덕을 받아들여 보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이는 국민교육에 대항한 뒤의 일이지, 일조일석에 되는 일이 아니다. 지금은 보릿고개 같은 시기라서, 남이 날마다 밥 먹는다는 소리를 듣는다 해도 자기가 배부를 수는 없다. 하물며 가지고 있는 것도 없이 과도기를 맞으려 한다면 국민교육이라는 말은 또한 허공에 매달린 것이 되고 말 것이며, 실행될 날은 끝내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신 도덕의 수입은 절망적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를 하나의 선(善)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 선조들이 전해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구도덕일 뿐이다.(제18절, p.132)

3.3.2.2 사덕이 특히 요구되는 상황

(e3.3.2.2.1) 도덕의 과도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도덕이 정착하기 전까지는 옛 도덕을 지키고 있어야 한다는 이유 외에, 양계초가 사덕을 요구하는 또 하나의 절실한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청조를 무너뜨리고 민주공화국의 수립을 꾀하는 혁명파와 대결해야 하는 일이었다. 양계초는 한 때 혁명파의 대표인 손문(孫文, 1866~1925)과의 연대도 시도했으나 결국은 그들과 노선을 달리해, 이 시점에서는 입헌군주보다도 더 후퇴한 개명전제의 실시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양계초는 점진적 개혁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혁명을 논리적으로 비판해야 했는데, 그 비판의 핵심은 혁명운동을 추진하는 자들의 사덕의 피폐함이었다. 그들의 사덕 방면에서의 피폐함은 결국 사회 전체의 사덕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사덕이 공덕의 토대이므로

결국은 공덕의 효과, 즉 공동체의 안녕과 이익도 기약할 수 없을 것이었다. 양계초가 이 시기에 사덕을 강조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가 ‘파괴주의’라고 부르는 혁명파의 구국운동을 비판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사덕 상으로 결함 있는 파괴주의자들은 건설을 담당할 수 없으며, 더 분명하게 말하면 파괴조차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파괴와 건설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도덕이라고 역설했다.

(q3.3.2.2.2) 나는 작년부터 『신민설』을 지어, 가슴속에 품어두며 발표하고 싶었던 것을 풀어냈는데, 그것이 수십 조(條)에 이르렀다. 그것을 공덕(公德)부터 시작했는데, 덕에 대해 논하면서 또 ‘공(公)’을 특히 언급한 것은, 사덕(私德)은 없어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은 아니었다. 사덕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실천해온 것이었기 때문이다. 앞선 성인과 현인들이 이미 남김없이 설명해 놓았기 때문에 나와 같은 말학의 젊은 것이 더 이상 떠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나라 안이 시끄럽도록 떠들어댔지만, 나라를 이롭게 하고 사회를 진보시키겠다는 사업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말류의 추행은 완고한 자들에게 신학문(新學問), 신이상(新理想)이 아이들을 해치고 천하를 해친다고 비난할 구실을 주고 있다. 아아! 잠자코 있을 수 없어 사덕에 대해 논한다. (제18절, p.118)

3.3.2.2.1 파괴주의의 존재

(e3.3.2.2.1.1) 무술변법의 실패 후에 일본에 망명한 양계초는 일본을 근거지로 하여 열정적으로 잡지 발행에 종사했고 그 잡지는 바다를 건너가 중국의 많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진보적 사고방식을 전파했다. 그가 스승이었던 강유위의 정치노선 즉 입헌군주에 늘 동의했던 것은 아니지만, 공식적으로 그는 입헌군주제의 주창자였다. 일본에 유학와있던 유학생 가운데에는 일찍부터 만주족 청 정부를 무너뜨리고 한족이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제를 꿈꾸는 학생 단체도 있었다. 그들은 1905년부터는 해외를 동분서주하던 손문을 자신들의 대표로 삼고 ‘중국동맹회’(中國同盟會)라는 강화된 조직을 구성하고 《민보》(民報)라는 기관지도 발행했

다. 그들이 대오를 정비하기 전, 즉 1903년부터 양계초는 공공연히 혁명적 구국노선을 비판했으며, 그 논리적 이유로 그들의 도덕상의 결함을 들었다. 만주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그들의 ‘혁명’ 노선을 양계초는 ‘파괴주의’라는 용어로 지칭했다. 청정부가 개혁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분명해지는 사실이었다. 대세는 입헌군주파에서 혁명파로 옮겨가고 있었다. 사덕의 강조 즉 개명전제로의 후퇴는 동시에 혁명파라는 대세와의 대결을 의미했으며, 그것은 또한 동시에 양계초 자신이 대세에서 분명히 물러나고 있었음을 의미했다.

3.3.2.2.1.1 파괴와 건설

(e3.3.2.2.1.1.1) 젊은 황제인 광서제를 주축으로 한 무술개혁운동(戊戌變法)이 실패한 뒤, 청정부에 등을 돌리는 청년들은 늘어났다. 그들은 이민족인 전제왕국을 전복하고 중화의 주권을 회복함과 동시에 민주공화국의 건설을 꿈꿨다. 그렇다면 그들이 일차적으로 해야 할 일은 낡은 왕국인 청 정부를 무너뜨리는 일이었고, 그들은 중국 각지에서 산발적인 무장투쟁을 전개했다. 그들이 새로운 공화국의 건설보다는 구제의 청산에 몰두했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양계초는 파괴와 건설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동일한 주체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파괴에는 건설과 마찬가지로 도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계초에 의하면 파괴주의자들의 입장이란, 파괴에 복무하는 사람들이 건설까지 감당할 수는 없으므로 일단 자신들의 파괴의 사업을 완수하면 그 뒤의 건설은 다른 인재를 기다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건설에는 도덕이 필요하지만 파괴에는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계초의 생각에는, 건설은 파괴를 포함하고 파괴는 건설을 포함한다. 건설에 도덕이 필요하듯이 파괴에도 도덕이 필요하다. 건설의 담당자가 도덕적인 사람이어야 한다면 파괴의 담당자도 도덕적인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파괴도 건설도 성취할 수가 없다. 이러한 양계초의 논리대로라면, 파괴사업은 건설사업과 별개이며 파괴사업에는 도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

고 도덕성 없이 파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굉장한 오산을 한 것이며, 중국에는 그들이 의도했던 어떤 것도 이루어낼 수 없다.

(q3.3.2.2.1.1.2) 지금 혈기왕성하고 총명한 선비들의 눈을 가장 사로잡고 마음을 취하게 하는 것은 파괴주의가 아닌가! 파괴의 마음이 오늘날 중국에 필요한가는 잠시 옆으로 치워놓고 논하지 말자. 지금 극단으로 달리는 자들은 한결같이 오직 건설하는 데만 도덕이 필요하고 파괴에는 도덕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다. 고금을 통 털어 건설의 위대한 사업은 본래 파괴의 성질을 포함하기 마련이다. 고금에 파괴를 담당했던 위인들은 모두 건설의 정신도 갖추고 있었다. 사실은 파괴와 건설은 서로 의지해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파괴에 필요한 능력과 건설에 필요한 능력 역시 서로 대등해서, 결합이 있으면 건설을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파괴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지금 파괴를 주장하는 자들은 경제학상의 분업의 예를 들어, 우리의 작은 몸으로는 세상의 모든 일을 다 맡아서 할 수는 없으므로, 우리는 시세의 요구에 따라 파괴사업에 전념하고 파괴 뒤의 건설의 책무는 뒤의 군자를 기다릴 것이니, 내 걱정은 필요 없다고 한다. 그 마음은 얼마나 대범한가! 그러나 나는 파괴 후에 건설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파괴 전에도 역시 건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면 날마다 파괴를 말해도 파괴의 목적은 끝내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제18절, p.130)

3.3.2.2.1.2 파괴와 건설과 도덕

(e3.3.2.2.1.2.1) 파괴에도 건설과 마찬가지로 도덕이 필요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파괴에 종사하는 혁명당원들은 기존의 권력체계를 무너뜨리기 위해 인위적으로 짧은 시간에 모인 사람들이다. 그들이 대적해야 할 상대는 오래된 체제 안에서 공고해진 권력집단이다. 그리고 다수의 구성원들로 조직된 집단이다. 그들의 내적인 공고성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혈연으로 이어지고 또 관습과 문화를 공유하면서 형성된 것이다. 그들과 대적해서 이기기 위해 혁명당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들보다 더욱 강한 단결력을 발휘하여 견고한 틀을 구축해야 한다. 양계초에 의하면 그러한 단체의 단결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도덕뿐이다. 그러므로 만약 혁명당이

도덕을 도외시한다면 그들은 적보다 더 강한 단체를 만들 수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절대로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기존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혁명당을 조직하려는 사람은 그 무엇보다 먼저 혁명당의 조직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 방법은 오로지 도덕을 갖추는 것이다.

(q3.3.2.2.1.2.2) 사회학의 법칙에 의하면 내적으로 공고한 존재가 외적인 경쟁을 할 수 있다. 한 사회와 한 사회가 경쟁하며 한 국민과 다른 국민이 경쟁한다. 그 사회와 그 나라의 기틀이 아직 성립하지 않고 경영이 아직 완비되지 않았다면 적을 만나면 백전백패이다. 혹 적을 만나기 전이라도 스스로 먼저 패할 것이다. 파괴주의의 성질은 이 사회와 이 나라를 새로 만들자는 힘이 강하지 못한 소수들이, 저 오래된 강한 힘에 의지한 다수자들과 어렵게 대치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적의 강함을 걱정하기보다 자신의 약함을 걱정한다. 내가 적을 이길 수 있는 바탕은 어디에 있는가? 일치단결해서 견고한 힘을 가진 기틀을 만드는 것뿐이다. 그러나 한 사회, 한 나라는 오랫동안의 유전과 관습이 쌓인 것을 이어받아, 그 기체는 천연으로 발달해 간다. 그러므로 그 성립이 쉽다. 그러나 당파는 그렇지 않다. 선구자들은 의지할 데가 없고 세상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그 기체는 전적으로 인위적으로 발달하는 것이므로 성립하기 가장 어렵다. 이른바 파괴 전에 건설해야 한다는 것은 이것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를 바라다면 도덕이 아니면 무엇으로 하겠는가!(제18절, p.130~131)

3.3.2.2.1.3 일체파괴는 백해무익한 것

(e3.3.2.2.1.3.1) 파괴주의자들의 구호는 ‘일체파괴’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파괴하면 어떤 이익이 있을 것인가? 양계초에 의하면 일체파괴, 즉 혁명의 이점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폐해만 속출할 뿐이다. 양계초가 일체파괴를 반대하는 것은, 남길 것은 남겨야지 그 다음의 건설을 담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이다. 그 다음의 건설을 담당할 것은 무엇인가? 양계초가 ‘영혼과 같은 알맹이’(元神眞火)라는 말로 표현한, 절대로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은 바로 도덕이다. 도덕이 있어야 그 다음의 건설을 담당하며, 또한 도덕이 있어야 파괴의 임무도 완수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파괴하더라도 도덕은 파괴할 수 없는 것이다.

(q3.3.2.2.1.3.2) 나는 인인지사(仁人志士)가 말하는 파괴의 목적이 사회 전체를 파괴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지만, “일체를 파괴하라.”는 말이 이미 입에 습관이 되고 뇌리에 각인이 되어 도덕의 체제가 이미 다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 사회는 반드시 멸망하고 마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지 못하겠다. 나는 또한 인인지사들이 말하는 파괴가 오늘날 사회 전체가 거의 병들지 않은 곳이 없는 것을 보고 너무 분개한 나머지 반드시 근본을 뒤엎어 개조하려는 것임을 잘 안다. 그건 정말 그렇다. 그러나 병을 치료할 때는 아무리 독한 약을 쓰더라도 반드시 “영혼과 같은 알맹이”(元神眞火)를 병을 몰아내는 토대로 삼아야만 하는 법이다. 그렇지 않으면 병 하나가 물러가기도 전에 다른 병이 올 것이며, 뒤에 온 병은 앞의 병보다 더 고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일체를 파괴하자.”는 것은 폐단은 수없이 많지만 거둘 수 있는 효과는 하나도 없는 것이다. 왜 그런가? 파괴하는 것이 있고 파괴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파괴되어야 할 부분이 오히려 파괴의 이익을 증가시킬 것이지만, 만약 일체를 파괴한다면 장래에 성립해야 할 것이 성립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당장 파괴해야 할 것도 끝내는 파괴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감히 단언한다.(제18절, p.131)

3.3.2.2.1.4 파괴주의와 도덕은 양립불가능한 것

(e3.3.2.2.1.4.1) 건설에도 도덕이 필요하고 파괴에도 도덕이 필요하며, 모든 것을 파괴하자는 혁명당의 주장은 한 가지 이익도 없이 폐해는 백가지도 넘는 구호일 뿐이다. 그렇다면 혁명당이 도덕을 갖추면 되지 않겠는가! 혁명당이 도덕을 갖추면 공고한 단체를 이룰 수 있을 것이고, 의도하는 대로의 파괴를 단행할 수 있을 것이고, 순차적으로 건설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양계초는 파괴주의 자체, 혁명당 자체가 근원적으로 도덕과 양립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파괴주의자들은 기존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소수자들이므로, 그들은 자신들보다 훨씬 큰 규모의 강한 적을 상대해야 하므로 원칙이나 신뢰와 같은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적과도 일시적인 동맹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상황이 달라지면 어떤 대상과도 일시적인 동맹을 맺을 수 있으며 언제라도 배신할 수 있다. 교묘한 술수와 사기를 비롯해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아야만 약자의 입장에서 출발해 원하던 목표를 이룰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개인적인 도덕성은 설자리가 없다. 즉 그들이 민족과 국가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지라도 그들의 처지에서 비롯한 그들의 투쟁방법을 생각할 때, 그들의 개인적인 도덕성은 그들과 양립할 수 없다. 즉 그들은 공덕면에서는 평가해 줄 여지가 있을지라도 사덕과는 양립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 내부의 단결도 이룰 수 없을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어떤 파괴도 어떤 건설도 불가능할 것이다.

(q3.3.2.2.1.4.2) 파괴주의자의 경우에는 시시각각 대적을 눈앞에 두고 있으므로, 일거수일투족 움직일 때마다 군사적 전략을 내야한다. 그런데 군사적 전략이라는 것이 두 나라 서로 타협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이라면 무궁한 위력으로 임하고, 내편이라면 몰래 밀약을 맺는다. 이런 식으로 이쪽저쪽을 옮겨 다니니, 극도로 교묘한 술수를 쓰지 않으면 열등한 위치에서 패배하는 데로 귀결된다. 그러므로 파괴주의자라는 지위의 실질은 도덕과 가장 용납되지 않는다.(제18절, p.135)

3.3.2.2.2. 마음가짐의 중요성

(e3.3.2.2.2.1) 양계초는 이제 마음가짐, 또는 군자, 혹은 도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들은 공덕이 아니라 인격 즉 사덕을 일컫는 말들이다. 청정부에 대항하든 열강에 대항하든 어쨌든 승리를 보장하고 영화로운 생존을 보장하는 것은, 양계초가 보기에는 단결뿐이다. 그리고 그 단결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인격을 갖춘 개개인이며, 인격을 갖춘 개개인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도덕뿐이라는 것이 양계초의 생각이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사람과 단체를 이어주는 것은 사람 사이의 도덕이고, 그 단체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갈등이나 질투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도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3.3.2.2.2.1 중요한 것은 주의주장이 아니라 마음가짐

(e3.3.2.2.2.1.1)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전체적으로 참작한다. 양계초는 그 사람의 사람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마음가짐’(心術)이라고 생각했다. 옛날 맹자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 사람을 도덕적 인성을 가진 군자와 감정에 이끌리는 소인으로 구분했다. 양계초는 군자와 소인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군자라도 내가 판단하기에 잘못된 일을 할 수도 있고 소인이라도 때로는 기특한 일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단발적인 한 사건이 그 사람의 사람됨을 바꿀 수는 없다. 양계초에 의하면 그 사람됨은 마음가짐의 문제이다. 그리고 마음가짐은 결국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전체를 결정한다. 마음가짐이 바른 군자는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일도 있지만 결국은 올바른 길을 찾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낸다. 그들을 군자에게 한 도덕이 바로 그러한 일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소인은 입으로 어떤 훌륭한 주의주장을 떠들어대도 아무 것도 이루어낼 수 없다. 일을 성취하게 하는 것은 순간의 주장이 아니라 늘 한결같아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단결하게 하는 도덕이기 때문이다. 혁명파들이 나라를 위하겠다는 마음을 누가 부정하겠는가! 그러나 한 때의 마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도덕이 자리 잡은 마음가짐이 관건이라고 양계초는 역설한다.

(q3.3.2.2.2.1.2) 사람을 평가할 때는 반드시 마음가짐(心術)의 은미한 부분을 살핀다. 그 사람이 소인이라면 나의 주장과 우연히 같다고 해서 그 사람을 군자라 할 수는 없다. 가령 한타주(韓佗胄)가 금(金)을 치자고 주장한 것은 우리들이 모두 찬성한다. 그러나 그 주장을 찬성하더라도 그 사람을 긍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이 군자라면 나의 주장과 우연히 다를지라도 그 사람을 소인이라고 배척할 수는 없다. 가령 왕맹(王猛)이 진秦을 도왔던 것은 우리가 대단히 비루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일은 비루하게 생각해도 그 사람을 부정할 수는 없다. 만약 어떤 한 사람이 심술(心術)을 소략하게 여기고 그것이 경중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한다면 누가 말리겠는가. 그러나 그 말이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진다면 사회전체의 심술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겠는가. 이 뿐만이 아니다. 혁명을

고취하는 것이 구국을 위한 것이 아닌가. 사람이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누가 나만 못하겠는가. 그러나 나라는 끝내 이 ‘공연히 소란을 피우는 무리(騷鬧派)’의 혁명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구하지 못할 뿐 아니라 망하는 속도를 재촉할 뿐이니 이에 대해 또한 평정심으로 기를 가라앉히고 깊이 숙고할 일이다.(제18절, p.133)

3.3.2.2.2 중요한 것은 정치와 군사의 기술이 아니라 마음가짐

(e3.3.2.2.2.1) 지금의 시대적 과제가 근대적 민족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정치와 군사 영역의 일이라고 생각될 것이다. 그러나 양계초는 정치와 군사 영역의 일을 성취하는 데에 근원적인 힘 역시 마음가짐, 즉 도덕성이라고 주장한다. 옛날 삼국시대에 위(魏)나라의 황제 자리까지 올라간 조조(曹操)는 눈앞의 공을 세우기 위해 도덕성은 형편없어도 정치와 군사의 기술을 가진 자들을 발탁해서 썼다. 그러나 그는 얼마 안 있어 “내가 한 때를 구제하려고 풍습이 변잡해져서 결국 진조(晉朝) 이래 염치의 도가 사라진 줄은 몰랐구나.”고 한탄하게 된다. 양계초는 이 조조의 이야기를 끌어들여, 도덕성을 무시한 근시안적 정책은 결국 자폭의 길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q3.3.2.2.2.2) 옛날 조조(曹操)가 하교를 내려, 불인불효(不仁不孝)하지만 정치와 군사의 기술을 가진 자를 구했다. 그러나 그러한 그의 의도는 또한 “내가 한 때를 구제하려고 한 것이 풍습을 변잡하게 하고 결국은 진조(晉朝) 이래 염치의 도가 사라지게 한 줄 몰랐구나.” 하는 사태를 초래했다. 오호(五胡)가 번갈아 침입하고 위(魏)의 원(元)씨가 제멋대로 권력을 휘두르게 되어, 우리 황제(黃帝)자손의 세력이 땅에 떨어진 것은 이때부터였다.(제18절, p.134)

3.3.2.2.3 도덕은 단체를 만드는 근원

(e3.3.2.2.3.1) 조국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주의주장도 아니고 정치·군사적 기술도 아니다. 양계초에 의하면 그것은 심술(心術), 즉 내면의 도덕관념이다. 봉건정부인 청정부와 제국주의 서구열강이 중국 지식인들이 누

구나 인정하는 적이라는 것에는 양계초도 공감한다. 그런데 그들에 대항할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것은 학식이나 실천보다 더 근원적인 것으로서 바로 도덕이라고 양계초는 역설한다. 왜냐하면 도덕이란 양계초에게 인간관계를 성립시키고 나아가 단체를 성립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강한 단체를 만들어야만 청 정부를 무너뜨리고 열강에 대항할 수 있다. 그리고 도덕만이 강한 단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q3.3.2.2.2.3.2) 오늘날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고 조금이라도 혈기가 있는 선비라면 정부를 중대한 적으로 여기고 열강을 또한 중대한 대적으로 여길 것이다. 어려움 속에서 부지런히 세력을 쌓는 이유는 무엇인가? 실제의 힘은 어디에 있을까? 나는 학식이 통하고 실천이 갖춰지는 일은 모두 부차적이고, 오직 도덕이 지도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도덕관념이 없이 서로 만나면 두 사람도 단체를 이루지 못할 것인데, 무슨 일을 도모할 수 있겠는가?(제18절, p.134)

3.3.2.2.2.4 도덕은 협동의 근원

(e3.3.2.2.4.1) 일본 동경에 근거지를 둔 양계초의 개혁파와 손문의 혁명과 이외에도, 중국의 애국 청년들은 중국과 중국민족의 장래를 위해 자신의 일생을 바칠 각오까지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각자 고립되어서는 청 정부를 상대할 수도 없을 것이고 열강을 상대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들은 뭉쳐야 한다. 그래야만 희망을 볼 수 있다. 양계초는 그 애국 청년들을 공고한 하나의 단체로 묶고, 또 그 안에서 정밀하게 분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도덕이라고 생각했다.

(q3.3.2.2.4.2) 지금 뜻있는 선비들은 반드시 개개인이 나뉘어 고립되어서는 이 위험에 처한 나라를 구할 수 없고, 반드시 협동으로 움직여서, 분업이 정밀하고 단결이 공고한 기관을 조직해야 구제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안다. 나는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이 기관을 성립시킬 수 있는 것은 도덕의 감정 말고 어떤 것이겠는가!(제18장, p.135)

3.3.2.2.3 이론과 실천의 간극

(e3.3.2.2.3.1) 세상에 나와 실제로 실무를 접하기 전의 학생의 단계에서는 정신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일단 세상 밖으로 나오면, 예측하지 못했던 온갖 일들에 대처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임기응변의 술수를 터득하게 된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걷는 길이다. 즉 현실에서 실무에 종사하는 데는 더 강인한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도덕만이 그렇게 비도덕적으로 흘러 와해되기 쉬운 인간관계를 건전하게 유지시키고, 또 그럼으로써 그 단체가 추구하는 목표를 추구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일의 성질상 도덕성과는 양립할 수 없는 파괴주의자들은 그들이 목적으로 하는 구국을 절대로 성취할 수 없는 자들임에 분명하다.

3.3.2.2.3.1 실천에서의 갈등을 해결할 것은 오직 도덕

(e3.3.2.2.3.1.1) 학생시절의 인간관계와 사회인으로서의 인간관계는 다르다. 학생시절의 교제는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있어 순수하게 사회의 문제에 대한 고민과 이상을 공유할 수 있다. 그런데 사회에 나오면 이전의 이상도 현실에 묻히게 되고, 설사 여전히 이상을 공유한다 해도 서로 지위가 다르고 선택하는 수단이 다를 수 있다. 양계초는 이렇게 공부할 때와 일할 때의 차이에 대해 말한다. 다른 이상을 선택한 사람들 사이에서만 성원 사이의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정당은 공식적으로 같은 이상을 공유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얼마나 많은 갈등과 충돌이 있는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인 부자, 형제, 부부 사이에도 그러한 갈등과 충돌은 있기 마련이다. 인간관계는 그렇기 마련이다. 그러한 갈등과 충돌을 극복하고 본래 관계의 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도덕뿐이라는 것이 양계초의 주장이다.

(q3.3.2.2.3.1.2) 파괴를 주장하는 자들이 처음부터 스스로를 파괴하려는 생각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쪽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추세이다. 이는 당과 당 사이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은 당 안에서도

그렇다. 왜 그런가? 함께 배우는 것과 함께 일하는 것은 그 길이 매번 상반된다. 이는 뜻을 함께 단체를 이룬 자들도 벗어날 수 없는 일이다. 함께 공부할 때는 처지도 같고 지향도 같고 사상도 같고 언어도 같으니 서로 시기하는 것도 없이 서로 손을 잡고 세상을 바꿔보려고 한다. 그러나 일단 나와서 함께 일을 하게 되면 각인이 각자의 성질이 있고 각인이 각자의 지위가 있다. 실제로 교섭하기에 이르면 의견은 반드시 다 같을 수 없고 수단도 반드시 다 같을 수 없다. 처음에는 서로 고쳐주다가 간혹 서로 다투다가 이어서는 서로 원망하고 끝내는 원수가 되는 일도 종종 있다. 이것은 실제로 중국과 서양의 역사에서 늘 보이는 일로 호걸도 면하지 못한 일이다. 속담에도 “서로 만나는 것은 좋지만 같이 사는 것은 어렵다.”라는 말이 있다. 가정에서 부자·형제·부부 사이에도 역시 그렇고 친구 사이에도 또한 더욱 그렇다. 이 때 오직 도덕의 감정이 깊은 자만이 선을 독려하면서 헤어지지 않을 수 있다.(제18장, p.134~135)

3.3.2.2.3.2 실무에 의한 타락을 방지할 것은 오직 도덕뿐

(e3.3.2.2.3.2.1) 학생 때와 달리 사회에서의 인간관계에 여러 가지 갈등요인이 있기 때문에 도덕이 필요한 것뿐만이 아니다. 인간관계 이전에, 사회에 나와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일들에 대처하다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임기응변의 대응방식을 배우게 된다. 그러다보면 처음에는 순박하고 현명한 사람이었을지라도 점차 사회 속에서 현실에 적응하면서 부지불식간에 각박하고 태연하게 속임수를 쓰는 사람이 되기 쉽다. 양계초는 증국번처럼 뛰어난 사람조차도 그러한 상황에 대해 스스로를 반성하고 경계했다는 예를 든다. 그러니 보통 사람에게는 훨씬 쉽게 빠질 수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그들의 처지와 일의 속성 상, 목적을 위해 상대를 속이거나 이용하는 등, 수단을 가릴 수 없는 파괴주의자 즉 혁명파의 경우는 열이면 열, 모두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말 것이다. 그리고 “그 궁극을 말하자면 각박하고 속임수를 능란하게 쓰는 길로 들어선 사람은 결코 한 가지 일도 제대로 성취할 수 없다.”

(q3.3.2.2.3.2.2) 사람은 일에 임해서 덕성과 유리되기 가장 쉽고, 파괴의 일에 임해서는 더욱더 쉽다. 오늘날 신심이 최고도로 부패한 시점에서

서로 교묘한 임기응변을 번갈아 내어놓고 상대하니 태행(太行)과 맹문(孟門)같은 높은 산도 어찌 높다고 할 수 있겠는가! 중국번(曾國藩)선생이 그 제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는 스스로를 믿으며 타인에게도 성실했다. 단지 세상일을 경험하고 여러 일들을 질리게 겪다보니 여러 임기응변의 작용들도 엿보게 되어 오히려 스스로의 학문을 망치게 되었다.”고 했다. 중국번 선생 같은 현명한 사람도 면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은 말해 뵈하랴. 그러므로 학당 안에서 도덕을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쉽고, 세상 속에서 도덕을 얘기하는 것은 가장 어렵다. 파괴주의자의 경우에는 시시각각 대적을 눈앞에 두고 있으므로, 일거수일투족 움직일 때마다 군사적 전략을 내야한다. 그런데 군사적 전략이라는 것이 두 나라 서로 타협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이라면 무궁한 위력으로 임하고, 내편이라면 몰래 밀약을 맺는다. 이런 식으로 이쪽저쪽을 옮겨 다니니, 극도로 교묘한 술수를 쓰지 않으면 열등해서 패배하는 데로 귀결된다. 그러므로 파괴주의자라는 지위의 실질은 도덕과 가장 용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몸소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은 처음에는 혹 본래 대단히 순박하고 현명한 사람이었을지라도 처한 지위와 습관이 된 성질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점차 함께 변하는 것이다. 채 일이 년도 되지 않아 각박하고 매정하고 기계적인 사람이 백출한다. 이는 실로 정말 두려운 시험장이다. 그 궁극을 말하자면 각박하고 속임수를 능란하게 쓰는 길로 들어선 사람은 결코 한 가지 일도 제대로 성취할 수 없다.(제18절, p.135)

3.3.3 특히 사덕을 갖춰야 할 사람들

(e3.3.3.1) 사덕은 민주공화국의 시민이 갖춰야 할 덕이 아니라, 개명전제에서 정치적 지도자들이 갖춰야 할 덕으로서 강조된 것이었다. 개명전제가 일시적인 처방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모두 갖춰야 할 덕이었지만, 현 시점에서 사덕은 개명전제를 주도하고 또 그 안에서 장차 일반 사람들을 공화국의 시민으로 양성해 낼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덕이었다.

3.3.3.1 장래의 주인공이 될 선각자들

(e3.3.3.1.1) 사덕이 있어야 공덕으로 확충이 되고 그래야 단체라는 것도

이를 수 있으므로, 양계초의 논리 안에서 사덕이 없으면 사회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양계초는 노골적으로 사덕의 소유는 모든 사람에게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그가 사덕을 갖춰야 한다고 촉구하는 대상은 “장래의 주인공이 되어 세계의 대다수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도 남을” 사람들이다. 문맹자들도 아니고 구식의 식자들도 아니다. 이들은 앞으로 한 동안 개명전제를 주도하고 나아가 서서히 중국인들을 공화국의 시민으로 키워낼 그런 사람들이다.

(q3.3.3.1.2) 사덕이란 사람들에게 식량과 같은 것으로 잠시도 떠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책을 읽지 못하고 글을 읽지 못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깨우치려는 것도 아니고, 옛날 책을 읽고 옛날 글을 읽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듣게 하려는 것도 아니다. 내가 중심으로 얘기하고 싶은 대상은 국민 가운데 최소수의 사람들로 한정할 수밖에 없다. 내가 믿고자 하는, 장래의 주인공이 되어 세계의 대다수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도 남을 그런 사람들이다. 나는 이들 때문에 기뻐하고 이들 때문에 두려워하니,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제18절, p.130)

3.3.3.2 국민 양성에 종사할 사람들

(e3.3.3.2.1) 양계초의 구상대로라면 중국 사람들 개개인이 공덕을 갖춘다면 중국의 부강은 곧 이루어질 것이었다. 공덕이란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바람직한 개인의 태도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계초가 원하는 중국의 부강은 이루어지지 않고, 구국의 방법에 대해서도 갖가지 의견이 난무했다. 공덕의 효용도 그런 것이었지만 부강을 위해서는 한마음 한뜻의 일치단결이 무엇보다 요구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양계초는 자신과 구국의 노선을 달리하는 세력, 특히 혁명파들을 사덕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중국인의 힘을 하나로 모아 중국의 살길을 모색하고 그럼으로써 중국인 개개인의 살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가지를 정리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양계초는 생각했다. 그는 그들을 사덕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 사덕이 없는 그들은 공덕을 갖추 수도 없을 것이고 그들은 단체를 이룰 수도 없을 것이다. 양계초는 국민을 만들어낼 사

람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스스로의 사덕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노선은 원천적으로 도덕성을 결여했다는 혁명파들은 하지 못할 것이었다.

(q3.3.3.2.2) 지금처럼 학자들이 날마다 공덕에 대해 얘기하는데도 그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역시 국민의 사덕에 큰 결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민을 만들어내려고 한다면 개인의 사덕배양을 가장 중요한 일로 삼아야 할 것이며, 국민을 만드는 일에 중사하려고 한다면 스스로의 사덕을 배양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제18절, p.119)

3.3.3.3 신학문을 하는 청년들

(e3.3.3.3.1) 사덕은 실질적으로는 중국의 구도덕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구도덕을 인생의 지침으로 삼고 살았던 중국의 노인들이 그 방면에서는 가장 뛰어나지 않을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의 몰락은 그 사람들에게 의해 초래된 것이고 그들 노인사회가 도덕적 암흑 상태에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들에 비하면 이른바 혁명파들의 도덕성은 훨씬 나은 것이 아닌가? 양계초는 노인들에게는 더 이상 아무 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그의 사덕이 단순히 구도덕의 부활인 것은 아니라는 소리이다. 그는 사덕을 함양해야 할 사람, 그래서 중국의 장래를 책임질 사람은 신학문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라고 말한다. 가령 혁명파들이 노인들보다는 낫다 하더라도 신중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도덕성이 결여된다면 노인들과 마찬가지로 나라를 망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의 장래를 책임질 사람은, 단순히 과거의 도덕군자인 척 하던 사람들의 재생이 아니다. 신학문을 함으로써 국가와 진보에 대한 관념과 전망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며, 그 실천을 가능하게 해줄 것으로서 사덕을 몸에 갖춰야 할 사람인 것이다.

(q3.3.3.3.2) 누군가 묻는다. “오늘날 나라 안의 종종의 노인사회가 도덕적으로 암흑인 것은 불가사의하다. 지금 당신이 말하는 것은 오히려 신학문을 하는 청년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인데, 신학문을 하는 청년은 간혹 부덕한 자가 있더라도 노인들보다는 낫지 않은가” 하고. 나는 대답한다. “그렇지 않다. 저들 노인들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고 책임을 물을

것도 없다. 그들은 또한 우리들의 펜의 힘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범위의 자들이다. 중국은 이미 저들의 손에서 망했으니, 오직 새로운 학문을 하는 청년들이 죽음을 각오하며 살려내기를 바랄 뿐이다. 만약 청년들이 조금도 신중하지 않고 저들과 같은 부류가 된다면 중국은 끝내 구제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시끄럽게 떠들며 얘기하는 이유이다.(제18절, p.136)

3.3.4 중국의 사덕

(e3.3.4.1) 양계초가 의미하는 사덕이란 거의 중국의 구도덕, 특히 유가의 도덕과 같은 것이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유감없이 잘 발휘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다시 잘 부흥시키거나 상기하거나 하면 될 일처럼 보인다. 그러나 지금 양계초에게 사덕이란 단순히 과거 도덕의 부활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덕은, 공덕을 강조하던 시기에 규정했던 타인과의 관계를 맺기 전의 개인의, 혹은 개인이 개인과 교체할 때의 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공덕의 토대로서의 사덕이기 때문이다. 양계초는 현재는 중국의 사덕은 타락했다고 말한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있다. 이제 공덕을 발휘하여 강력한 민족국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사덕이 타락한 원인을 파악하고 그것을 개선해야 한다.

3.3.4.1 중국 사덕의 현황

(e3.3.4.1.1) 한마디로 하면 중국의 사덕은 엉망이다. 그 이유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과거에 원인이 있고, 하나는 현재에 원인이 있다. 과거의 원인이란 중국 역사의 특수성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현재의 원인이란 현재 수입되고 있는 서양도덕의 부적적함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3.3.4.1.1 서양 도덕의 수입

(e3.3.4.1.1.1) 양계초가 『신민설』의 연재를 처음 시작할 때의 의도는, 공

화국의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공덕에 대해 계몽하기 위해서였다. 그 공덕은 중국민족은 이전에 거의 가져본 적이 없는 것으로서 외국에서 수입해 들여야 하는 것이었다. 이제 양계초는 그 수입 사업에 잘못이 있었다고 반성한다. 도덕이란 그렇게 단 기간에 수입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수입하려 했던 것이 근본적인 잘못이라면, 그 잘못이 또 다른 잘못을 낳아, 그렇게 수입된 도덕 아닌 것이 도덕의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진정한 도덕의 자리를 잠식하게 된 것이 더 심각한 잘못이다.

3.3.4.1.1.1 도덕이 아니라 과학

(e3.3.4.1.1.1.1) 최근 몇 년 동안 서양에서 수입된 것은, 물론 도덕을 수입할 의도였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학문이었을 뿐이라는 것이 양계초의 진단이었다. 물리를 배우고 화학을 배우듯이, 영국의 윤리학사를 배우고 프랑스의 윤리학사를 배우는 것은 학문(science)을 하는 것, 즉 지식 영역의 일이었지, 도덕 영역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그것들이 새로운 것이어서만은 아니다. 『송원학안』이나 『명유학안』 등의 중국학술서적도 학문적 대상으로 본다면 마찬가지로 도덕과 상관없는 일이다. 리(理)와 기(氣), 이발(已發)과 미발(未發), 쾌락주의와 자유주의, 공리주의와 진화주의를 얘기해도 그것들을 자신들의 행위원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학문의 객관적인 대상으로만 받아들인다면 그것 역시 도덕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양계초가 판단하기에 당시에는 중국의 윤리뿐 아니라 서양의 윤리 이론들까지 넘치고 있었지만, 그것들은 중국인들의 도덕 함양에 어떤 도움도 되지 못했다.

(q3.3.4.1.1.1.2) 최근의 신학계에서 도덕교육을 실천하는 것을 보면 시도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닌데 끝내 그 효과는 보이지 않는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다. 저들이 말하는 도덕교육이란 시종 지식교육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한우충동의 『송원학안』나 『명유학안』을 늘어놓거나, 영국이나 프랑스의 윤리학사를 그대로 믿어버려 자기 것만을 추종하고 남의 것은 무시해버리는 사태이다. 박식하다면 박식하겠지만 덕과는 무슨 상관인가! 누구는 이(理)를 말하고 누구는 기를 말하고 누구는 태극무극

을 말하고 누구는 이발미발을 말하고 누구는 직각주의를 말하고 누구는 쾌락주의를 말하고 누구는 진화주의를 누구는 공리주의를 누구는 자유주의를 말한다. 그 영역에 발을 담그고 그 깊은 곳을 건드려서 파악했다면 파악했겠지만 덕과는 또한 무슨 상관이라! 나는 이들 학설을 연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배운 것은 다만 하나의 과학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물리와 화학을 배우고, 기술을 배우고, 법률을 배우고, 경제를 배우는 것처럼, 이것들은 내 지식의 일단을 보탬 뿐이다. 만약 도덕교육이 여기에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먹는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배부를 리 없고, 가난한 사람이 아무리 돈 얘기를 해도 자기 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방법으로 간다면 어찌 오늘에서 그치겠는가! 아마도 수십 년 수백 년 후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효과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제18절, p.136)

3.3.4.1.1.2 지식의 도덕 영역 잠식

(e3.3.4.1.1.2.1) 실상은 지식에 불과한 윤리학이라는 학문의 범람이 초래하는 결과는, 그것이 도덕 교육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소극적 폐해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것들은 도덕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여지므로 진정한 도덕교육의 실시까지 방해하게 된다. 도덕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지식교육만을 시행하게 되므로, 도덕면에서는 어떤 진전도 보이지 않고, 또 그러한 결과는 고스란히 도덕교육의 무능과 무익이라는 평가를 불러온다. 이것이 당시의 서양윤리학의 수입이 가져온 나쁜 결과라고 양계초는 파악하고 있었다. 중국인의 도덕교육을 위해 수입한 서양윤리가 오히려 도덕교육을 방해하고 있는 형국이었던 것이다.

(q3.3.4.1.1.2.2) 아아! 서양에서는 지식과 도덕이 비례해서 발전하는데, 동양에서는 지식과 도덕의 진보가 반비례한다. 오늘날 중국의 현상은 나쁜 일이 일어나기 전의 조짐을 보인다. 이름은 도덕교육이지만 실상은 지식교육이 되어 도덕교육의 장애가 될 것이다. 지식교육이 도덕교육을 좀 먹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지식교육을 비난할 것이다. ‘실상은 지식교육인 도덕교육’이 도덕교육의 장애가 되면 세상 사람들은 도덕교육마저도 비난할 것이다. 이것이 어찌 옳은 일이겠는가. 세상을 구원하려는 뜻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도덕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제18절, p.137)

3.3.4.1.2 사덕의 타락

(e3.3.4.1.2.1) 공덕을 강조할 시기의 양계초에게 사덕은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더 이상 손 댈 필요도 없는, 거의 다 갖춰져 있는 그런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양계초의 눈에 중국의 사덕은 타락한 것이다. 그것도 현재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여러 가지 원인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상태 그대로라면 중국의 민족국가 건설은 요원하다. 사덕이 바탕이 되어 그것을 확충하여 공덕이 될 것이며, 공덕을 갖춘 중국인들이라야 부강한 근대국가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었다.

3.3.4.2 중국의 사덕이 타락한 원인

(e3.3.4.2.1) 양계초는 당시를 전례 없이 사덕이 타락한 시대라고 진단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원인으로 크게 다섯 가지를 들었다.

(q3.3.4.2.2) 오늘날의 중국에 이르러 사덕의 타락은 극에 달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대단히 복잡해서 다 열거할 수가 없지만, 그 큰 것만을 들어본다면 5가지가 된다.(제18절, p.120)

3.3.4.2.1 전제정치의 영향

(e3.3.4.2.1.1) 전제국(專制國)이란 실상은 근대 입헌국이 등장하기 이전의 모든 국가형태에 해당하는 말이다. 양계초는 오랜 전제정치 때문에 사덕이 타락했다고 말하는데, 이 말은 민주국가가 아니라면 사덕은 발전하기 어렵다는 말처럼 들린다. 그러나 민주국가가 등장하기 이전에도 도덕이라는 것은 분명 존재했었고 발달했었다. 중국의 역대 왕조들이 취한 정치형태 역시, 어느 시대에는 특히 왕권이 비대하게 발달했던 시기가 있었지만 모든 시대에 그랬던 것은 아니며,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왕권을 견

제하는 세력과 장치들은 있었다. 특히 유학자들의 정치적 입장은 왕권의 비대화를 견제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려는 것이었다.

3.3.4.2.1.1 전제정치 하의 일반적 풍기

(e3.3.4.2.1.1.1) 전제정치 하에서는 덕이라는 것이 자라날 수 없다는 생각을 양계초는 몽테스키외에게서 빌려 왔다. 몽테스키외는 “전제국에서는 간혹 현명한 군주도 있지만 신민(臣民) 가운데 덕이 있는 자는 대단히 드물다.”고 했다 한다. 전제국이란 군주 한 사람이 모든 결정권을 가진 나라이다. 군주 개인의 변덕에 의해 그 아래 신민들의 생사가 갈린다. 정해진 원칙이 없이 군주의 호오에 의해 사안들이 결정되므로 측근의 신하들의 행동에도 정해진 원칙 없이, 오로지 군주의 환심을 사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한다. 그런 나라에서 혹 아부하지 않고 올바른을 지키고 염치를 숭상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과 속임을 일삼는 사람들의 손쉬운 먹이가 될 뿐이다. 그러므로 상하의 술수와 사기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술수와 사기가 더욱 발전해 갈 뿐이다. 그런 곳에서 덕이라는 것은 쓸모가 없다.

(q3.3.4.2.1.1.2) 몽테스키외는 “전제국에서는 간혹 현명한 군주도 있지만 신민 가운데 덕이 있는 자는 대단히 드물다.”고 말했다. 역사에서 증명해보면 군주국에서 대신(大臣)이나 근신(近臣)이라고 불리는 자는 대개 용렬하고 비겁하고 질투심 많고 음험한 인간이다. 이는 동서고금 마찬가지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위에 있는 자가 불의한 짓을 많이 하나 아래 있는 자는 올바른을 지키며 아부하지 않고, 귀족들은 오로지 거짓과 속임을 숭상하나 평민은 염치만을 숭상한다면, 밑의 백성들은 장차 관리와 지도자들의 사기에 어육이 되는데 도움이 될 뿐이다. 그러므로 전제국에서는 상하와 귀천을 막론하고 모두 한결같이 변칙과 사기와 술수만이 부딪혀서 더욱 사태가 나빠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추세이다. 이렇게 전제정치 하에서는 본래 덕이라는 것이 쓸모도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제18절, p.120)

3.3.4.2.1.2 중국의 전제정치

(e3.3.4.2.1.2.1)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교육가나 자선가는 자신들의 덕성을 한껏 발휘하여 그에 걸 맞는 수단으로 자신들이 뜻하는 일들을 할 것이다. 그러나 비굴과 거짓이 만연한 전제국가에서 백성들에 대한 동정심에서 관리가 되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들은 일단 관리가 되기 위해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아부와 은밀한 방법을 써야 할 것이다. 일단 관리가 되었다면, 특별히 깨끗한 정신의 소유자라면 처음의 뜻을 지킬 수도 있겠지만 열에 아홉은 초심을 잃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한다. 모두 아부와 편법으로 일처리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혼자서 원칙을 지키고 사는 것은 보통사람이라면 쉽지 않은 일이다. 어느새 주위에 물들어 똑같은 사람이 되어갈 것이다. 인간은 적자생존의 세계에서 본능적으로 적응하는 방법을 찾는다. 비굴과 아부, 거짓과 사기에 의해 움직이는 사회에서 적자로서 살아남는 일은 더 잘 아부하고 더 잘 거짓을 일삼고 더 잘 사기를 치는 것이라는 말이다. 이것이 양계초가 파악한 중국의 몇 천 년의 상황이었다.

(q3.3.4.2.1.2.2) 생존경쟁의 공리에 의하면 적자만이 생존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이 수천 년 동안 전제의 공기 속에서 숨 쉬면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면 반드시 거짓된 수단을 사용하고, 스스로를 보전하고자 하면 반드시 비굴했다. 이 두 성질을 가장 풍부히 갖고 있는 사람이 사회에서 가장 우등한 위치를 차지했고, 조금 모자라게 갖고 있는 사람은 뒤떨어져서 소멸하여 결국에는 후예를 보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것이 사회 안에 기반을 내려서 공공성이 되었는데도, 종자가 서로 혼잡하는 것이 날로 성해져서 호걸이 있어도 스스로 빼어나기가 어려운 것은 이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제 밑에서 어깨를 움츠리고 살살 걸어 다니며 몸뚱이를 보전하며 은혜를 바라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고 사는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한두 명의 박식하고 열성적인 선비들이 팔을 걷어 부치고 백성들을 위해 관직을 원하는 일이 있으면 때론 어쩔 수 없이 수상하고 은밀한 방법을 써야하고 때론 어쩔 수 없이 치우치고 격한 행동을 해야 한다. 그 사람이 지극한 정성을 다했는데도 오히려 그 결과를 보지 못하고 환경 때문에 변질될 수가 있으니, 거둬들여

어 덕성이 엷어진 사람은 이미 많다. 근성이 조금 박약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시류를 따라 어두워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른바 박식하고 열성적인 사람들로 백성들을 위해 관직을 원하는 자들은 한 나라 안에서 많이 얻을 수 있는 인재가 아니다. 자유국 같으면 대정치가, 대교육가, 대자선가는 순수하고 완전한 덕성과 온화한 수단으로 사회를 이롭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전제정치 하라면 부득불 이 방법 밖에 쓸 수 없다. 그러니 이 때문에 타락하는 자는 열에 여덟아홉이다. 아! 이는 모두 이 사람의 허물이라 할 수는 없다.(제18절, p.120)

3.3.4.2.2 청조 패권의 영향

(e3.3.4.2.2.1) 과거 중국의 정체(政體)가 모두 전제정체였으므로 중국의 사덕은 일단 타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에서 특히 이민족 왕조였던 청조는 사덕의 발전을 가로막는 기이한 방법들을 사용했다. 그들은 명조에게 절의를 지키려던 명의 선비들을 ‘박학홍사’(博學鴻詞)라는 제도로 유인하여 청 조정에 무릎을 꿇게 했다. 그러면서도 두 왕조를 섬긴 선비들을 책으로 엮어 그들을 모욕했으며 중국에는 조금이라도 정부에 불온한 글을 쓴 사람을 처벌하는 일을 자행했다. 또한 대규모의 서적 정리 사업을 벌여 선비들이 평생 그 속에서 정력을 사용하도록 했으니, 개인의 도덕적 발전이나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모색의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의도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양계초가 판단하기에, 당시에는 대를 이은 전제의 영향으로 형성된 비굴과 거짓의 풍조에, 청조의 억압 정책으로 형성된 가치와 윤리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사덕의 수준은 유례없이 땅에 떨어져 있었다.

(q3.3.4.2.2.2) 수천 년에 걸쳐 내려온 유전의 영향은 이와 같은데, 이 수천년 사이에 또한 소소한 부침도 있으니, 제왕이 틀어쥐고 좌지우지 하는 힘이 가장 크다. 서양철학자의 말에 “전제국의 군주는 만능”이라는 말이 있는데 빈말이 아니다. [...] 본조에 이르러 순치·강희 연간에는 먼저 ‘박학홍사’로 유노(遺老)들을 엮어매고 이어 『이신전』(貳臣傳)으로 모욕했으니, 만명(晩明)의 사기는 흠어지고 점점 없어졌다. 옹정·건륭 연간의 권력자들은 음험하고 기이한 재주를 휘두르고 조종하고 달래는 묘술을 발휘

했으며, 문자(文字)의 옥(獄)이라는 필화사건을 일으켜 많은 학자들을 처형했다. 또 『사고제요』(四庫提要), 『통감집람』(通鑑輯覽) 등의 책을 편찬하여 도학을 배척하고 절의를 폄하하고 끊어버렸으니, 위(魏)나라의 무제(武帝) 이래, 두려워할 줄 모르고 당당하게 흑백을 혼란시켰던 일이 이처럼 심한 적이 없었다.(제18절, p.130~131)

3.3.4.2.3 수차례 패전의 영향

(e3.3.4.2.3.1) 전쟁이 민심을 황폐화시키리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양계초가 사덕 타락의 요인으로 꼽은 것은 전쟁이 아니라 ‘패전’이었다. 즉 전쟁에서 이긴다면 사덕을 타락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양계초는 전쟁을 크게 외전과 내전으로 나누고, 내란은 백성들의 요행성, 잔인성, 배척심, 교활함, 냉혹함, 구차함 등의 나쁜 성격들만 조성한다고 비판한다. 외국과의 전쟁 자체는 나쁘지 않다. 외국과의 전쟁은 앞의 내란에서의 악습들을 외적에 대한 적대감을 통해 공명심, 적개심 등의 미덕으로 변화게 한다고 양계초는 전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문제는 패전할 경우이다. 패전은 전쟁 뒤의 공포심과 불안정성 등의 악영향에다가 이민족의 압박에 의한 비굴과 거짓이라는 결과까지 낳는다. 그러나 정복전쟁으로 시작하여 승리로 끝났을 때의 효과는 사덕의 양양에도 만점이라고 양계초는 말한다. 양계초가 꼽는 중국의 불행은, 중국 역사가 내전과 패전으로 점철된 것이라는 점, 한 번도 제대로 정복전쟁을 일으켜 민덕(民德)을 세고시키지 못했다는 점이다.

3.3.4.2.3.1 정복전쟁의 장점

(e3.3.4.2.3.1.1) 내란의 경우, 특히 그것이 규모가 큰 경우라면 국내의 모든 사람들이 그 전란의 영향 하에 놓인다. 승자나 패자 모두 나라 안에 있으므로 그 결과를 모두 나라 안에서 떠안게 된다. 그러나 외국과의 전쟁은 다르다고 양계초는 생각했다. 외국과의 전쟁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지 않으며 국민은 다만 상무의 혼을 발양해서 전쟁을 지원하고 자

존의식을 고취하기만 된다고 생각했다. 이는 그대로 제국의 정벌 전쟁이다. 똑같은 전쟁에 참여해도 그 제국의 정벌대상이 된 나라는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 전쟁을 해야 하니 일상생활은 보장되지 않는다. 어쨌든, 양계초는 그 정벌전쟁을 능동적으로 일으켰을 때, 그리고 승리했을 때의 민덕은 제고된다고 생각했다. 외국과의 전쟁을 하게 되면 국내에서는 요행성으로 작용하던 것이 공명심이 되며, 동족에 대한 잔인성은 외적에 대한 적개심으로 변하고, 동족에 대한 배척심은 외적에 대해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각심이 되며, 동족에 대한 교활함은 적을 물리치는 대항심으로 작용하고, 동족 안에서의 경박성은 외적에 대해서는 죽음을 불사하는 과감성이 된다. 동족 안에서의 구차성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자위의 정신이 된다. 그렇다면 내란으로 피폐된 민심은 정벌전쟁으로 일신하고 또 일신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그래서 양계초는 “적국과의 외환을 이용하여 내 나라의 복으로 삼을 수” 있으니 전쟁은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는 생존경쟁의 진화론을 사회개혁이론으로 삼고 있는 입장에서 강자가 되고 싶다는 염원에서 스스로를 강자와 동일시했을 때 나오는 착오이다.

(q3.3.4.2.3.1.2) 능동적으로 타국을 정벌하는 경우, 움직이는 것은 전적으로 군대이며, 자기 터전에서 일상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만 상무의 혼을 발양하고 자존 의식을 고취할 뿐이다. 그러므로 서양철학자 중에 “전쟁은 국민교육의 한 조건이다. 이는 기뻐할 일이지 슬퍼할 일이 아니다.”고 말한 사람도 있다. 수동적으로 정벌을 당하는 사람들의 경우 그 영향은 내란과 대단히 비슷하지만, 요행성이 공명심으로 변하고, 잔인성이 적개심으로 변하고, 배척심이 자각심으로 변하고, 간교성이 적에 대한 대항심이 되며, 경박성이 죽음을 불사하는 정신이 되며, 구차성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정신이 된다. 어째서 그런가? 내란의 경우에는 나라 안에 도망할 곳이 없으므로 오직 변란 후의 안정을 바랄 뿐이다. 그러나 외전의 경우에는 한 번에 사생이 결정되므로 뒤에는 회복할 수 없음을 슬퍼할 뿐이다. 그러므로 적국과의 외환을 이용하여 내 나라의 복으로 삼을 수 있으니 슬퍼할 일이지는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다. 외전을 통해 능동적으로 정복하는 나라는 전쟁을 한 번 할 때마다 민덕은 일층 높아진다.(제18절. p.123)

3.3.4.2.3.2 내란과 피정복의 역사로 점철된 중국사

(e3.3.4.2.3.2.1) 증원은 예닐곱 차례 이민족에 의해 정복당했다. 당시에도 역시 만주족인 청정부가 증원을 정복하고 있는 꼴이었다. 전제정치에서 혼습된 비굴과 거짓의 습성은 이민족 하에서 더욱 가중되었을 것이다. 양계초에 의하면 중국에는 내전과 피정복만의 역사가 되풀이 되었을 뿐, 한 번도 정복해 본 경험이 없다. 양계초의 진단으로는 당시의 중국에는 오랜 세월에 걸친 수난의 역사에서 만들어져 또 대대로 전해 내려온 나쁜 습성들이 이미 만연해 있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었다. 당시에는 15년에 걸친 태평천국의 내란 뒤였으므로 내란이 가져오는 폐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서양제국이 떼거리로 중국을 노리고 있는 현실이었다. 그러니 양계초의 논리대로라면 당시는 오랫동안 내전과 패전으로 형성되고 쌓이고 전해진 악습에다가, 최근의 대규모의 내란의 영향, 그리고 눈앞의 제국의 위협 등, 중국인들이 인간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q3.3.4.2.3.2.2) 전쟁에 패해서 정복당한 측의 국민들은 고유의 본성이 갑자기 변하고 홀연히 낙후하여 흔적도 없어진다. […] 연(燕)과 조(趙) 지역은 옛날에는 세상을 한탄하며 비분의 노래를 읊는 선비들이 많았다. 지금 그 지역을 지나면 순종적인 백성들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일 뿐, 옛날의 협객에 대해 묻는 이는 없다. 왜 그런가? 오호(五胡), 북위(北魏), 안록산(安祿山), 거란(契丹), 여진(女眞), 몽고, 만주 이래 수백 년 사이에 예닐곱 번의 정복을 당하면서 그러한 성질은 모두 없어져 버렸다. 전제정체 하에서 이미 비굴과 거짓의 두 성질이 출세하는데 둘도 없는 방법이 되어버리는데, 그 전제왕조가 우리 종족이 아니라면 얼마나 더 심하겠는가! 그러므로 내란과 피정복자는 이 점에서 한가지로, 그 국민의 인격은 모두 날로 타락해간다. 중국은 수천 년 동안 습관적으로 내란의 국면이 쌓여 역사를 피고름으로 얼룩지게 했으며 날마다 남에게 정복당하고 한 번도 남을 정복한 적이 없다. 수차례 정복당하고 스스로는 한 번도 정복 못했으니, 이러한 악인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지고 전해 내려온 종종의 나쁜 성질이 이미 사회에 만연했다. 오늘날은 10여년에 걸친 경천동지(驚天動地)의 태평천국(太平天國) 내란 뒤인데다가, 유럽세력이 동점

한 이래 저들 정복자들은 또 정복자들을 불러 하나가 아니라 대역석이 우리 앞에서 날마다 노리고 있으니, 국민들이 인성(人性)을 잃는 것이 또한 이유가 있다.(제18절, p.123~124)

3.3.4.2.4 궁핍한 생계의 영향

3.3.4.2.4.1 생계와 민덕의 관계

(e3.3.4.2.4.1.1) 아침 끼니를 때우자마자 저녁 끼니 걱정을 하고, 찬바람이 불면 겨울나기 걱정을 해야 하는 정도의 극도로 빈곤한 처지의 사람에게 도덕적인 행위를 기대할 수는 없다. 관자(管子)도 “창고가 차 있어야 예절을 알고 의식이 풍족해야 영욕(榮辱)을 안다.”는 말을 했으며, 맹자(孟子) 역시 “백성들은 안정된 생업이 없다면 안정된 착한 마음을 가질 수 없다. 안정된 생업이 없다면 방탕하고 편벽되고 사악하고 부정하게 된다. 죽음을 모면하기도 어려운데 어느 거름에 예의를 익히겠는가!”라는 말을 했다. 외적인 상황에 영향 받지 않는 비범한 사람도 있기는 있다. 그러나 그들은 말 그대로 비범한 사람들일 뿐,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은 경제적 궁핍 속에 처해서 예의나 엄치 등은 돌아볼 수 없다. 양계초는 야만인과 문명인의 차이도 결국은 경제적인 조건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경제적인 조건이 열악한 야만인의 경우에 공공관념이나 미래에 대한 설계 등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덕이 결핍된 상태라고 할 수 있는 비굴, 편협, 매정, 허위, 아부, 자포자기, 구차 등을 초래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으나, 그 가운데 경제적 취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양계초는 생각했다.

(q3.3.4.2.4.1.2) 어느 시대, 어느 나라이건 소수의 비범한 선비는 전체의 마력에 속박당하지 않고 곤궁한 생업 때문에 피폐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대중이 모두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다수의 인민은 반드시 먹고 살 수 있는데다 조금 여유가 있어야 자중하고 명예를 생각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기꺼이 자선도 한다. 머리에 여유가 있어야 학문에 종사해서 고상한 이상을 키운다. 힘에 여력이 있어야 관심을 자기 몸에서 넓혀 단체의 정신을

발휘한다. 그렇지 못하고 아침을 먹고 나면 저녁 걱정을 하고 가을바람이 아직 불지도 않는데 겨울옷 걱정에 온다면, 비록 인한 바탕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자기가 얼어 죽고 굶어죽는데 어떻게 중생 걱정을 할 것이며, 비록 원대한 사명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현재를 떠나 미래를 도모하겠는가! 서양의 사회학자가, 문명인과 야만인의 차이는 공공사상의 유무와 미래관념의 풍부여부라고 했었는데, 이 사이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경제상의 안락과 빈곤이 가장 크다. 그러므로 비굴한 성격, 편협한 성격, 매정한 성격, 허위적 성격, 아부하는 성격, 자포자기하는 성격, 구차한 성격 등은 모두 거지반 생계의 취약함에서 오는 것이다. 생계와 민덕의 관계는 이처럼 밀접하다.(제18절, p.125)

3.3.4.2.4.2 중국의 생계와 민덕

(e3.3.4.2.4.2.1) 양계초는 과거의 중국민족이 수천 년 동안 요역과 천재지변, 병역에 시달리면서 경제적으로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은 거의 없는 처지가 되었다고 진단한다. 그러한 경제적 궁핍에서 허위, 편협, 비굴, 매정, 아부, 포기, 구차 등이 악덕이 형성되고 또 형성되어 유산처럼 물려받았다. 그런데 청 말(淸末)은 그러한 악덕의 유산에 새로운 악조건들이 극한상황을 이룬 시대였다. 양계초의 주장에 의하면 해마다 나라의 지출이 수입의 두 배나 되고 외채는 늘어만 갔다. 국민총생산량은 형편없는 수준이었다. 아무런 대책 없이 그대로 계속된다면 백성들은 연명하는 일조차 어려워질 것이 불을 보듯 분명했다. 게다가 세계의 제국주의들은 공장에서 만들어낸 온갖 상품을 배에 싣고 들어온다. 즉 당시는 경제전쟁의 시대였다. 경제적 궁핍이 민덕의 추락과 직결되는 것이라면 당시의 민덕의 타락은 유래 없이 심각한 것이었다.

(q3.3.4.2.4.2.2) 우리 국민은 수천 년 동안 요역에 시달리고 천재지변에 시달리고 병역에 시달렸으니, 편안하게 거처하면서 걱정 없이 생업을 영위하는 사람은 이미 볼 수 없게 되었다. 이른바 허위, 편협, 비굴, 매정, 아부, 포기, 구차 등의 악덕은 이미 십 수 세기를 지나면서 마치 사회의 교육을 받듯이 조상에게서 물려받았다. 현대에 와서는 나라의 밀천이 해마다 불어나지는 않고, 궁정의 토목공사나 관리의 임금으로 나가는 돈이

항상 정부의 수입보다 수배나 되었다. 국민평균총생산액은 7각(角) 1분(分)에 불과하다. 꾸어 쓴 외채는 이미 십만 량(兩)이 되어간다. 지극히 유한한 재화가 모두 증식되지 않는 밀천이 되니, 이렇다면 어떤 나라의 백성이 연명이라고 하겠는가! 게다가 세계는 경제상 경쟁의 풍조가 밀려들 것이니, 지금은 바로 그 시작이다. 국민의 부패와 타락은 점점 심해질 것이니, 아아, 그 끝이 어디일지 나는 모르겠다.(제18절, p.125)

3.3.4.2.5 무능력한 학술

3.3.4.2.5.1 학술의 힘

(e3.3.4.2.5.1.1) 풍속을 만들어내는 것은 공동체의 구성원이지만, 그것은 소수의 선각자들, 또는 뛰어난 정신적 지도자에 의해 바뀔 수 있다. 양계초는 이 시점에서 정치가보다는 학술, 특히 유학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가령 사람들은 동한(東漢) 시대에 절의가 가장 뛰어났다고 칭찬하는데, 그 공을 따지자면 군주의 공이 30%고 유학의 역할이 70%였다는 것이다. 당과 송의 정치적 환경은 비슷했지만 당나라 선비들이 사장을 숭상한데 비해 송나라 선비들은 청렴을 숭상하는 도학의 학문을 했기 때문에 당나라보다 송나라의 습속이 더 나았다. 특히 양계초는 양명학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서, 평민으로서 왕권을 잡은 명나라 왕실이 혹독한 강압정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말 선비들의 기상이 대단히 뛰어났던 것은 양명학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양계초는 이렇게 유학, 그 가운데에서도 양명학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고, 이것이 사덕의 양양에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중국인의 사덕을 고양시키려고 한다면 여전히 양명학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었다.

(q3.3.4.2.5.1.2) 그러나 풍속을 바꾸는 일의 목적은 다수인(多數人)에게 있지만 주동자는 항상 소수인(少數人)이다. 만약 저쪽이 결핍되었더라도 이쪽에서 보충해주면 극단적으로 피폐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동한(東漢) 시대 절의가 융성했던 데에는, 광무제(光武帝), 명제(明帝), 장제(章帝)의 공은 열에 셋이고, 유학의 효용이 열에 일곱이었다. 당과 송은 그 전체의 능력은 비슷했고 군주의 현명함 또한 크게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선비의

습속은 하늘과 땅처럼 달랐다. 당의 유자들은 사장의 허황된 것을 숭상했고 송의 선비들은 도학의 청렴절의를 숭상했기 때문이다. 위진육조가 부패했던 원인은 매우 복잡하지만 노장의 청담학이 그 허물의 반을 차지한다. 명조 때는 각박하고 은혜도 적었으며 단정하고 강직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이 극에 달했지만, 만명(晩明)의 선비들의 기상이 전보다 특히 뛰어났던 것은 왕학(王學)의 공이 우(禹)임금보다 못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18절, p.125~126)

3.3.4.2.5.2 청조 학술의 무능

(e3.3.4.2.5.2.1) 양계초는 양명학을 사람의 마음을 고무시키고 고양시키는 것으로서 가장 가치 있는 학문으로 평가했다. 주자학에 대해서는 그것이 엄정함과 충실함을 지킨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또한 그 엄격함 때문에 위선자들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 대해서는 비판했다. 그러나 청조의 고증학에 대해서는 일말의 가치도 두지 않았다. 청조는 학자들의 정치적 발언을 차단하기 위해 탈정치적인 고증학을 장려했다. 그들은 대규모의 서적정리 사업을 벌여 청대학자들의 모든 정력을 문자학과 고증학, 문헌학에 소모하도록 했다. 양계초의 표현에 의하면 그렇게 만들어진 “저술은 수백 권이라도 시대를 비판하는 말은 하나도 없었고, 천만글자의 논설을 써도 모두 본심에서 나온 말은 없”었다. 청대의 학자들은 그렇게 탈정치화된 학문에 몸을 의탁함으로써 세상에 아부하여 출세할 수 있었다. 양계초는 이러한 청대의 학문풍조가 송학의 위선적 학풍보다 더 나쁘다고 비난한다. 위선자들은 적어도 선악에 대한 관념이 있기 때문에 선을 가장한다. 그러나 청대의 고증학자들은 공공연하고 대담하게 비굴과 아부를 자행하여 출세의 수단으로 삼았다. 양명학도 탄압받고 주자학도 탄압받고 오로지 고증학만이 권장되던 청대의 학풍은 또한 청대의 민덕을 바닥도 모르게 추락시켰던 것이다.

(q3.3.4.2.5.2.2) 그렇다면 근 이백년 동안의 민덕이 타락한 근원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때부터 백 년 동안 인심을 지배하는 왕학은 모두 소탕되어 없어졌다. [...] 내가 보기에 청조 이백년 동안 학자들이 배운 것은 모

두 소귀신이나 뱀귀신과 같은 종류로, 마음을 쓰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것이었다. 사람의 마음을 격양시키고 고무하는 왕학은 청조임금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주자학으로 바꿨는데, 주자학의 엄정함과 충실함 또한 청조임금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한학(漢學)으로 바꿨다. 한학 같으면 인간 사회 밖의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이천년 전 파묻힌 땅속의 돌을 늘어놓는다. 저술은 수백 권이라도 시대를 비판하는 말은 하나도 없다. 천만글자의 논설을 써도 모두 본심에서 나온 말은 없으니, 몸을 단단히 숨기는 데 이보다 더 좋은 묘책이 없었다. 재주 있는 선비들은 이를 세상에 아부하고 명예를 도둑질하는 비책으로 삼았으니, 명예와 절개, 조용함과 검소함은 모두 다시 돌아보지 않게 되었다. 그러므로 송학이 타락해도 오히려 위선자들은 있었으나, 한학이 타락하자 위선자들도 없게 되었다. 왜 그런가? 이름을 날리며 쟁쟁한 선배들은, 향원들도 하지 않던 일들을 공공연하고 대담하게 해도 사회의 숭배를 받고 학계의 명사 자리를 향유한다. 그러니 무엇 때문에 힘들여 우임금처럼 일해서 순임금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었겠는가!(제18절, p.126)

3.3.4.2.5.3 신사상의 해독

(e3.3.4.2.5.3.1) 신사상의 수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양계초가 주도적으로 가담했던 무술변변운동 시기를 전후해서이다. 그러므로 신사상의 수입은 양계초의 과거 사업이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양계초는 구학문이 시대적응성이 뒤떨어진다고 판단해서 신학문을 수입해 구학문의 보조를 삼을 생각이었다고 정리한다. 그러나 부패한지 오래된 토양에 문명사회의 학설이 이식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몰랐다고 반성한다. 그러한 시행착오로 초래된 결과란 어떤 것인가? 수입된 대표적인 서양사상은 자유, 평등, 권리, 파괴와 같은 것들이다. 양계초의 평가에 의하면, 각각의 이념들이 가져올 장점은 가져오지 못한 채 부작용만을 낳았다. 자유의 이론은 질서를 파괴하는 부작용을 낳고, 평등의 이론은 규제를 멸시하는 부작용을 낳고, 경쟁의 이론은 내부의 단결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권리의 이론은 이기를 옹호하는 부작용만을 낳고, 파괴의 이론은 국수를 짓밟는 부작용만을 낳았다는 것이다. 이런 평가라면, 당시의 중국은 청조의

고증학으로 초래된 도덕의 타락에, 최신의 가장 강력한 학설에 의해 보호 되는 악습의 만연에, 사덕의 타락에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요인들만 모아 놓은 형국이다. 청대의 한학시대는 송학시대보다 더 타락했고, 현재의 신 사상시대는 그 한학시대보다 더 타락했다고 하니, 도덕의 타락을 극복할 요량으로 수입한 서양도덕이 오히려 중국 민덕의 타락을 더욱 부채질한 꼴이 된 것이다. 양계초에 의하면 당시 사덕의 타락은 그 어느 시대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할 정도였던 것이다.

(q3.3.4.2.5.3.2) 오년 전부터 해외의 신사상이 열강의 침략 세력을 타고 중국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 주장하다가 이어 수천 명이 화답 하게 되었다. 그 주장자는 본래 반드시 구학을 멸시했던 것은 아니고, 구 학의 단순함이 시대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사상을 보조로 삼을 생 각을 했다. 또 많은 사람들의 사고를 넓혀 사상의 자유가 발달하도록 촉 진하여 학자들이 스스로 선택하기를 바랐다. 그런데 부패한지 오래된 이 사회가 문명의 학설이 갑자기 이식될 수 없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니 자유의 이론이 들어오자 행복을 증진시키는 일은 없이 질서를 파 괴하게 되고, 평등의 이론이 들어오자 의무를 부과하는 일은 없이 규제를 멸시하게 되었으며, 경쟁의 이론이 들어오자 외국을 적으로 삼지는 않고 국내의 단체만을 홀어 놓았다. 권리의 이론이 들어오자 공익을 도모하지 는 않고 개인적 견해만 수직하게 되고, 파괴의 이론이 들어오자 숨어있는 썩은 곳을 경계하지는 않고 국수를 없애버렸다. [...] 요컨대, 위진의 청 담, 건가의 고거학과 지금 학자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자유·평등·권리·파괴는, 그 주장은 전혀 다르지만 그 성질은 동일하다. 지금의 병이 더 깊은 것은 최신의 가장 유력한 학설이, 가까운 과거부터 유전되고 먼 과 거에서부터 유전된 각종의 악성과 악습에 붙어 그것들을 보호하고 키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백년 동안 민덕의 변천을 보면, 송학시대에는 위선 자가 있었지만 그들은 나쁜 짓이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은 알았다. 한학시 대에는 위선자도 없었으니, 그들은 나쁜 짓을 하고도 부끄러움도 없었다. 오늘날에 이르도록 고쳐지지 않았으니, 이 서양학문시대에 반드시 나쁜 짓을 하고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 지금 이미 일부분의 청 년 사이에서 그 싹이 보인다. 나쁜 짓을 하고 영광으로 여긴다면 홍수와 맹수보다 더 무서운 일이 아닌가!(제18절, p.127~128)

3.3.5 사덕의 함양

3.3.5.1 도덕적 지도자의 모범들

3.3.5.1.1 세계의 모범들

(e3.3.5.1.1.1) 당장 근대국가를 세우는 일이 급무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면 도덕, 그것도 내면의 도덕을 얘기하는 것은 우월한 소리로 들릴 것이다. 그러나 양계초의 생각은 도덕이어야만 새로운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그 증거로 세계의 새 사회를 건설한 영웅들의 예를 든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영국의 크롬웰, 미국의 워싱턴, 일본의 요시다 쇼인이나 사이고 난슈 등은 모두 도덕적 군자였다. 그러한 도덕적 군자였기 때문에 마찰 없이 구체제의 파괴를 단행할 수 있었다. 고상하고 순결한 내면에서 나오는 노력하는 자세와 성실성으로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양계초에 의하면 새로운 국가의 건설을 위해서 가장 급한 일은 군사력을 키우는 것도 아니고 지식을 넓히는 것도 아니다. 외국의 윤리를 배우는 것도 아니다. 오로지 자신의 내면을 순결하게 가꾸는 일이다.

(q3.3.5.1.1.2) 독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지 말라. 즉 오늘날 나라를 구하느라고 여가가 없는데 시끄럽게 성이니 리니 얘기해서 어디에 쓰겠는가라고. 여러분은 구국의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사역의 인민이 부패한 지는 이미 오래이니, 내가 어떻게 소수의 여러분에게 시끄럽게 얘기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중국의 전도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도덕을 중시하느냐 도덕을 멸시하느냐는 나라의 존망이 달려 있는 문제이다. 파괴사업을 가지고 말해보자. 여러분은 이백년 전 영국혁명을 주도했던 호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는가? 크롬웰은 가장 순결한 청교도였다. 백 년 전 미국혁명을 주도했던 호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는가? 워싱턴이 이끌었던 사람들은 가장 질 높은 선량한 시민이었다. 삼십 년 전 일본혁명을 이끌었던 호걸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가? 요시다 쇼인(吉田松陰), 사이고 난슈(西郷南洲) 등은 모두 주자학과 양명학의 대가들이다. 그러므로 위대한 불인지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파괴를 말할 수

없다. 고상하고 순결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파괴를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은 말하기는 매우 쉬우나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다. 어렵다는 것을 알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힘써 실천하고자 스스로를 독려하고 서로를 성실과 믿음으로 대하고, 친구사이에 서로 선을 권하고 경계해준다면 구제될 수 있을 것이다.(제18절, p.132~133)

3.3.5.1.2 중국의 모범 — 중국번

(e3.3.5.1.2.1) 중국은 영국이나 미국, 일본처럼 근대국가를 이룩하는데 아직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양계초는 근대 중국인 가운데 중국번(曾國藩)을 모범적인 지도자로 꼽았다. 중국번은 태평천국의 난을 진압한 청 말의 한인 관료로서, 모범적인 유자였던 듯하다. 당시 만주정부를 무너뜨리고 한족이 주도하는 공화국을 세우려는 사람들에게 중국번은 비난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양계초의 민족주의는 한족만의 민족주의는 아니었다. 처음부터 양계초의 민족국가의 민족은, 중국이라는 국명으로 모여 있던 다섯 종족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중국번이 만주정부의 하수인으로 한족 민중을 탄압했다는 비난은, 양계초는 동의할 수 없는 것이었다. 오히려 사덕을 강조하는 지금의 양계초의 입장으로 보면, 중국번은 고귀한 인품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 청나라 정부를 대신해 내란을 평정할 수 있었으며, 도덕에 바탕을 둔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었기에 그 뒤에 잠시나마 동치중흥(同治中興)에 이바지할 수 있었다. 그래서 양계초는 중국번이 지금 다시 산다면 그에 의해 중국은 구제될 수 있을 거라고 극찬한다.

(q3.3.5.1.2.2) (파괴주의자는) 자기가 누각을 세우고 자기가 태우고, 자신이 뿌린 씨를 자신이 짓밟으면서, 파괴할 수 있으면 진정으로 존재하게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파괴된 것은 나의 것이지 적의 것이 아니다. 중국번(曾國藩)선생은 최근에 배만가(排滿家)들이 가장 욕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나는 일을 겪을수록 그 사람을 숭배하게 된다. 나는 중국번선생이 오늘날 장년으로 다시 산다면 중국은 반드시 그의 손에 의해 구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천성이 대단히 순후한 사람이므로 파괴를 해도 팬창

다. 그는 수행이 대단히 엄격한 사람이므로 임기응변의 처리를 해도 괜찮다. [...] 그가 사업을 성취하는 데에는 스스로를 키우는 방법이 있다. 그가 현명한 자들의 무리를 이끌고 격려해서 사업의 성공을 도모하는 데에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사람들을 잘 인도하는 방법이 있다. 우리 당이 세상을 맑게 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만이지만, 그러한 뜻을 갖고 있다면 증국번선생의 전집을 날마다 읽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제18절, p.134)

3.3.5.2 양계초의 사덕 함양

(e3.3.5.2.1) 도덕적 인품을 지녔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 건설의 성공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양계초가 꼽은 사람들에게는, 주자학자나 양명학자뿐만 아니라 청교도인 영국인이나 미국인도 있었다. 이를 보면 양계초에게 사덕의 부활이 구도덕의 부활과 거의 같은 의미라고 할지라도, 사덕이 바로 구도덕 특히 유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다. 양계초는 자신의 사덕을 위해서는 각자 스스로에게 적당한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양계초는 스스로가 사덕함양의 방법으로 선택했다는 양명학을 소개한다. 이 시기에 양계초는 양명학이 시대를 구원해줄 최선의 도덕이라고 생각했다. 주체의 능동성을 강조하는 양명학은 혁명시기에 환영받을 만하다. 또한, 주자학처럼 지난(至難)한 공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역시 정치적 행동을 앞세워야 하는 격동의 시기에 적절했다. 양계초는 양명학의 발본색원론(拔本塞源論)을 강조하면서 의도 없는 순수한 마음을 내세웠으며, 애국은 내면에서 나오는 순수한 것으로서 공리적 계산에서 나오는 것과 구별된다고 주장했다.

(q3.3.5.2.2) “학문을 하면 날마다 늘어나고 도를 닦으면 날마다 줄어든다.”는 말은 정말 좋은 말이다. 지금 우리들은 날마다 늘어나는 일을 하며 애쓰는 사람도 혹 있지만, 날마다 줄어드는 일에 뜻을 두는 사람은 없다. 아아! 이것이 이 도가 날로 없어지는 이유이다. 학자들이 도를 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만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많은 말에서 취할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한두 마디 말이 충분히 나의 지침이 되어 나를 돕도

록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종신토록 그것에 의지할 수 있으니 안신입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 황종희는 “학문의 도는 각자 힘을 얻는 곳이 참된 것이다.”고 말했다. 또 “대개 학문에는 종지가 있다. 이것이 사람들이 힘을 얻는 곳이고, 또한 학자들이 입문하는 곳이다. 천하의 의리는 무궁하니, 한두 자의 글자로 정하지 말고 내 안에 단속해 놓는 것은 어떤가!”고도 말했다. 이는 참으로 학자들이 도를 찾는데 둘도 없는 법문이다. 이왕 각자가 스스로의 방법을 사용한다면 또한 각자 스스로 선택할 것이므로 내가 시끄럽게 떠들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왕 내가 말로 국민들에게 책임을 다하려고 한 이상, 내가 삼가 배우려고 하면서 미처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해 동지의 것과 한번 비교해보지 않겠는가!(제18절, p.137)

3.3.5.2.1 근본을 바르게 함(正本)

(e3.3.5.2.1.1) 양계초가 스스로의 사덕 함양으로 선택했다는 양명학 공부의 첫 번째 항목은 ‘근본을 바르게 함(正本)’이다. 근본이란 마음이다.

3.3.5.2.1.1 공리주의의 만연

(e3.3.5.2.1.1.1) 왕양명의 ‘발본색원론’(拔本塞源論)은 내 몸 안의 마음은 우주 전체로 확대될 수 있는 마음이므로,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이기심을 뿌리 뽑으라는 이론이다. 양명학에 의하면, 내 마음은 원래 우주의 원리를 그대로 담고 있는데(心卽理) 이기심 때문에 남들과 벽을 쌓으면서 그 마음을 축소시킨다. 발본색원이란 근원으로 돌아가서 그 이기성을 제거하고 막힌 담을 허물라는 것이다. 즉 애초에 우주적 진리 자체인 마음의 본래성을 회복하라는 것으로서, 그렇게 되면 나도 남도 없어지고 공평무사한 우주적 마음만 남게 된다. 양계초는 이 공평무사한 진리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을 사덕함양의 첫 번째 방법으로 삼았는데, 그 이유는 공리주의를 비판하기 위해서였다. 왕양명은 우주적 마음을 자기 몸 안에 가두어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 이기심을 경계했는데, 양계초가 발본색원론을 강조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다. 그의 표현에 의하면 양명이 그렇게 경계하던 “공리주의는 오늘날 무성한 일대 영역을 이

루고” 오히려 “하나의 학설로 성립하기에 이르렀다.” 게다가 “학자들은 그것을 부끄러움으로 여기기는커녕 오히려 고상하다고 여”기고 있다. 그러나 양계초는 자신의 정적에 대해 혹 ‘이기주의’라고 비난할 수는 있어도 ‘공리주의’라고 비난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양계초가 그렇게 강조해마지 않던 공덕체계는 국가의 이익을 최고의 가치로 정한 국가주의라는 공리주의의 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지금 그가 공덕의 바탕으로 강조하는 사덕 역시 거기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공리주의를 비판한다는 것은, 스스로는 공리주의가 아니라 양명의 발본색원의 입장이라고 자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q3.3.5.2.1.1.2) 나는 전에 왕양명 선생의 발본색원론에 대해 읽은 적이 있다. 선생은 “성인의 학문은 나날이 멀어지고 나날이 어두워지며 공리의 습속은 점점 심해진다. 그 사이에 중국인들은 불교와 노장에 빠진 적도 있었지만 불교와 노장의 이론으로도 공리의 마음을 이기지는 못하였다. 또 여러 유학을 절충해본 적도 있으나 결국 공리의 견해를 깨뜨리지는 못했다. 오늘날 공리의 독은 사람의 마음속까지 스며들어 습관이 되고 성(性)이 된지 몇 천 년이 되었다. 암송한 것이 많을수록 오만해지고 풍부한 지식이 오히려 악행에 이용된다. 넓은 건문이 변론을 방자하게 하고 풍부한 문장력이 거짓을 수식한다. 명목상으로는 모두 천하의 일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진짜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입신해서 사욕을 채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또 이러한 학술을 한다면 우리 성인의 가르침을 듣고 무용한 것 취급하는 것도 당연할 것이다. (하략)” 아아! 한 글자, 한 문장이 모두 오늘날 우리들을 오싹하게 하는 설법이다. 공리주의는 오늘날 무성한 일대 영역을 이루고 하나의 학설로 성립하기에 이르렀다. 학자들은 그것을 부끄러움으로 여기기는커녕 오히려 고상하다고 여긴다. 양명학은 당시에 오히려 무용한 것 취급을 받았는데, 오늘날 양명의 설교를 듣고 달아나면서 침을 뱉지 않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제18장, p.137~138)

3.3.5.2.1.2 애국은 공리가 아닌 순결한 것

(e3.3.5.2.1.2.1) 공리(功利)와 비공리(非功利)를 가르는 것은 ‘의도’

(意圖) 이다. 공리주의는 행동의 도덕적 가치를, 가능한 전체적 결과의 가치에서 연역하는 윤리체계이다. 가장 최상의 결과를 예상하는 행위원 리이므로, 최상의 결과를 내겠다는 ‘의도’를 갖는다. 양계초는 공리주의의 ‘의도’를 비난한다. 양명의 발본색원의 입장은 공리주의와 상대되는 동기 주의 또는 의무론적 윤리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의무론적 윤리체계는 결과와는 상관없이 어떤 행위의 선과 악이 심정적으로 정해져 있다. 그 윤리체계에서는 양명이 말하는 것과 같이 내 마음이 어떤 것이 선이라는 것을 저절로 알며 그 선을 실천하는 데는 어떤 결과의 계산도 개입되지 않는다. 오로지 그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실천한다. 양명의 발본색원의 입장은 상대적 자아를 제거한 순전한 자아의 상태이므로 그의 자각, 그의 행위는 그대로 다른 어떤 ‘의도’ 없이 선일 수 있다. 그러나 양계초는 ‘애국’이 양명이 말하는 순수한 선의 예라고 든다. 애국이라는 순결하고 절대적인 선의 실천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사실은 개인적인 명예나 영달을 추구하는 정적들을 비판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애국은 양명이 말하는 발본색원의 입장일 수 없다. 애국은 다른 나라를 배제하면서 성립하는 입장이다. 양명의 발본색원은 어떤 존재도 배제하지 않고 어떤 존재도 배타적으로 사랑하는 입장이 아니다. 양계초는 자신의 애국은 자신의 개인적 영달을 초월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정적들의 애국은 위선적인 것이라고 비판하고 싶었던 것이리라. 그러나 애국을 최고의 선으로 간주하는 윤리체계는 또 하나의 공리체계일 뿐이다.

(q3.3.5.2.1.2.2) 같은 일이라도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과 의도를 갖지 않고 하는 일은, 외형은 같더라도 그 성질과 결과는 크게 다르다. 애국이라는 한 가지를 두고 말해보자. 애국이란 절대적인 것이며 순결한 것이다. 만약 애국이라는 이름을 빌어 입신출세하고 사욕을 채우려 한다면, 차라리 애국을 모르고 애국에 대해 논하지 않는 사람보다 못하다. 양명이 말한 공리와 비공리의 분기점은 여기에 있다. 우리들은 양명이 말하는 공리의 마음을 모면하고 있는지 어떤지, 청명한 새벽녘에 스스로의 마음을 비춰보아야 한다. 그것은 남이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발하는 처음에는, 시국의 변화에 자극을 받고 시대의 현자들의 말에

영향을 받아, 처음의 한 가지 마음인 애국심은 모든 사람들이 절대적이고 순결하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갈라지는 사람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다. 이미 잃어버렸다면 더 이상 애국심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름의 아름다움이 탐나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 처음에 잠깐 빌린 것을 오래도록 돌려주지 않으니 스스로도 갖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는가! 처음에는 진심일 작정이었으나 뒤에는 허위를 면하지 못하니, 그렇다면 본성이 악한 것이 아니라 배움이 아직 모자란 것이다. 이른바 발본색원의 공부를 빼를 깎는 고통으로 해본 적이 없는 것이다.(제18절, p.138)

3.3.5.2.1.3 본원은 마음

(e3.3.5.2.1.3.1) 양명의 발본색원론에 의하면 마음을 확립하면 우주 전체가 자기 자리를 찾는다. 즉 양명은 마음을 세상의 근본으로 여긴다. 우주의 평화를 위해서는 내 마음만 제대로 확립하면 된다. 내 마음이 우주평화의 핵심이다. 그래서 양명은 “사람을 죽이려면 칼로 목을 찔러야 하고 학문을 하려면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는 데부터 힘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만물을 비취줄 태양 같은 마음이 확립된다면 설사 한 점 사욕이 싹트더라도 한 덩어리 눈처럼 녹아버릴 것이다. 그래서 양계초 역시 핵심은 마음이니 마음의 공부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마음이 근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심을 없애고 우주적 마음을 회복하는 발본색원의 공부를 해야 한다.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 허위이고 공리일 뿐이다. 이제 마음은 이 세상의 선과 악을 비취줄 유일한 척도가 되었다. 나의 행위가 내 선한 마음에서 발하는 순수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결과를 예상한 의도된 것인지는 누가 판정할 수 있는가? 내 마음일 뿐이다. 양계초는 정당한 애국과 그렇지 않은 애국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각자의 마음을 내놓는다.

(q3.3.5.2.1.3.2) 양명은 “사람을 죽이려면 칼로 목을 찔러야 하고 학문을 하려면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는 데부터 힘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들이 기꺼이 자포자기한다면 그만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마음의 정수

깊은 곳에서 통절하게 스스로를 다스리는 힘쓰기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 영웅이 작은 절개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치자. 영웅은 백에 한 사람 얻을까 말까이다. 그렇다면 작은 절개에 구애받지 않는 자는 99명이다. 나는 여기 한 사람에 속하는가, 저쪽 99명에 속하는가? 나만이 알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양명이 말한 것처럼 발본색원하지 않아도 영웅이라고 한다면, 성실이 아니라면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 나는 성실하지 않으면서 뭔가를 제대로 성취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만약 자신의 본원은 이미 순미해서 발본색원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당신은 혹 그렇다고 해도 우리처럼 나쁜 습관의 영향이 깊고 근기가 천박한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처럼 조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더구나 내가 말하는 구도덕은 자기 한몸 단속하면서 과실을 적게 하거나, 규칙만을 따르자는 것이 아니다. 자기 한몸 단속하면서 과실을 적게 하고 규칙만을 지키는 것을 도덕의 지극함으로 삼는다면, 이는 우리 양명선생이 말하는, 길이 끊어진 곳으로 가봤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는 형국이다. 진정으로 마음의 정수 깊은 곳을 공부하지 않는다면 자기 한몸 단속하며 허물을 적게 하는 허위나 자기 몸을 잊고 애국하는 허위, 규칙만을 따르는 허위, 용이나 호랑이를 때려잡는 허위는 모두 같은 종류의 일일 뿐이다. 왜 그런가? 본원과는 털끝만큼도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제18절, p.138~139)

3.3.5.2.2 신독

(e3.3.5.2.2.1) 순수한 진리의 마음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외부의 환경과 자신의 습관 때문에 그 마음이 늘 자신의 행동을 주도하도록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어떤 외적인 환경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발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양이 필요하다. 양계초는 그 수양의 방법으로 ‘신독’(慎獨)을 제안한다. 신독은 『대학』과 『중용』에 실려 있는 말로서, 중국에서 교육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려서부터 익히 들어왔을 말이었다. 혼자 있을 때에도 조심한다는 의미로,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스스로의 인격의 완성을 위해 공부하는 유자에게는 중요한 수양 방법이 될 것이다. 결국은 다른 사람이 점검하고 교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양심에 맡기는 일이 된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마음의 문제이다. 마음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양명학자들에게 마음은 동시에 우주

적 진리였다. 이론적으로라면 지금 여기의 내 마음은 모든 것들을 정당화시키는 것이었다. 명 말의 양명학자 가운데는 그러한 이론 속에서 창광함에 빠진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양계초 당시의 창광함은 더욱 가관이라는 것이 양계초의 진단이었다. 당시 사람들은 애국지사라는 간판을 걸고, 그 간판이 음험함, 냉혹함, 간사함 등의 모든 악덕을 정당화한다고 생각하는 창광함에 빠졌다는 것이다. 그들은 애국지사라는 간판으로 남을 속이고 스스로를 속이므로 부끄러움도 모른다. 그들은 그 간판으로 당당하게 졸렬한 짓을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막고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회복하고 나아가 그 부끄러움이 없도록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행위를 정화하는 일, 그 수양방법으로 양계초는 신독을 권한다.

(q3.3.5.2.2.2) 뜻이 서고 용기가 고무되었어도 이미 수천 년 동안 사회에서 혼습된 것과 내가 도에 뜻을 두기 전에 만든 습관 등은, 내 의식 깊은 곳에 얹드려 있다가 시시때때로 고개를 든다. 하나의 간이(簡易)한 법을 잡아 제어하고 함양하지 않는다면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보존할 수 없을 것이다. 그 간이한 법은 오직 신독(愼獨)이 아니겠는가! 신독의 뜻은 우리들이 어려서 처음 배우기 시작한 『대학』·『중용』에서 신물 나도록 들던 것이 아닌가! 그러나 실제로 사용한 것은 만분의 일도 되지 않으니, 정말로 뜻이 아직 서지 않았으면 그것을 구해야 할 이유도 밝혀지지 않는 것이다. [...] 오늘날의 학계의 독은 그 원인이 만명(晩明) 시대와 다르면서도 창광함은 그 열배이다. 만명 시대에는 거리에 짝 찬 사람이 모두 성인이고 주색(酒色)과 재운(財運)이 진리의 길에 장애가 되지 않았다. 지금은 거리를 채운 사람이 모두 지사(志士)이고 주색과 재운 외에도 음험함과 변덕, 간사함과 냉혹함이 영웅에게는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렸다. 만명 시대에 창광했던 이유는 양명선생의 간이직재(簡易直裁)한 가르침을 호신부로 삼을 수 있었기 때문인데, 오늘날 창광한 이유는 자신을 잊은 애국, 자유와 평등 등의 구두선을 호신부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은 군자이고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은 소인으로, 당당하게 소인이 된다. 그러나 세상사람 누구도 비난하지 못하고 또 서로 저희들끼리 숭배한다고 하며 하늘이 내게 부여한 권리가 이와 같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내가 입을 크게 벌리고 떠들어대는 것이 저 숨어있는 무뢰한들을 위해 죽을힘을 다하는 것인 줄 알겠는가! 아아! 내가 사람들을 천지 사이에 세

우려 하는데 그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 것인가? 누가 나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인가? 신독 외에 또 무엇을 믿을 것인가!(제18절, p.139~140)

3.3.5.2.3 작은 일부터 조심함(謹小)

3.3.5.2.3.1 작은 일은 모든 것의 씨앗

(e3.3.5.2.3.1.1) 큰일에 종사하다보면 상황 때문에 작은 규칙은 무시하게 될 수도 있다. 그것은 성인이 남긴 교훈이기도 하다. 그러나 양계초는 근기가 약한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작은 규칙을 무시하다보면 결국 큰 원칙도 무시하게 될 거라고 경계한다. 나쁜 습관일수록 커지기 전에 없애야 한다. 커지면 제어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근기가 약한 보통 사람의 경우에, 이기심이나 나태 등의 이유로 작은 원칙들을 무시하게 되는데, 잘못된 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우유부단, 스스로의 잘못을 변호하는 자기변명 등은, 악이 자라도록 힘을 주는 자양분이다. 양계초는 스스로도 그러한 약점이 있다고 고백한다. 또한 많은 동료들이 같은 약점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작은 위반은 큰 위반을 낳는다. 양계초는 작은 원칙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것들부터 확실히 지키는 실천을 하자고 독려한다.

(q3.3.5.2.3.1.2) “큰 덕은 어기면 안 되지만 작은 덕은 그럴 수도 있다.”는 말은 앞선 성인이 남긴 교훈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근기가 박약하고 또 자치력이 스스로를 지키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늘 훈습에 휩쓸린다. 작은 덕이 지켜지지 않는 일이 이미 많으면 큰 덕이 경계를 넘는 일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이른바 흐르는 물을 막지 않으면 강을 이룰 것이니 약할 때 제거하지 않으면 뒤에는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 도심과 인심이 교전할 때, 저 인심은 늘 종종의 변호사를 불러들여 온갖 교묘한 이론을 세워 자신을 변호한다. 일찍이 시에도 “도를 들었으면 늦지 않았다. 왜 뜻을 세우지 않는가? 우유부단은 이미 사악함을 키우는 것이며 말재주 좋은 변명은 적을 풀어놓는 것이다. 작은 규칙이라 하는가, 그러나 얼마나 급하게 제어해야 하는가. 장차 경계하고자 하는가, 그러나 지금 그 하나를 없애야 한다.” 이는 실로 작은 뜻을 실천하는 일에 취약하다는 증거로서, 감히 감출 수도 없는 일이다. 우리 당 안에 나와 같은 병을 앓는 자가 또한 적지 않으니, 이는 우리 모두 힘써야 할 일이다.(제18절, p.141)

3.3.5.2.3.2 작은 현상의 원인은 근원적인 것

(e3.3.5.2.3.2.1) 작은 원칙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보다 중요한 이유는, 작은 원칙의 무시라는 현상으로 드러나는 이면에는, 근원이 무너지고 있다는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사회 일각에서 일어나는 기아와 도둑은 사소한 일인 것 같지만, 그 근원을 보면 사회구조의 모순과 정치적 무능이 있는 식이다. 감기나 종기는 몸에 일어나는 작은 사건이지만 그렇게 된 근원을 보면 몸의 전반적 상태가 좋지 않거나 환경이 나쁘기 때문이다. 사람이 작은 원칙들을 무시하는 근원에는 무엇이 있는가? 의지의 박약, 습관의 힘, 책임회피 등의 근원적인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드러나는 것이 작은 것이라고 작은 일이 아니다. 양계초는 극단적으로 “작은 냉혹한 마음이 아버지를 죽일 수 있고, 작은 음험한 마음이 나라를 팔 수도 있다.”고 말한다. “미워해야 할 것은 이미 드러난 형迹에 있지 않고 그것을 드러내는 근원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계는, 애국이라는 큰 대의를 세워놓고 그 보호막 하에 거짓과 술수를 일삼고 있다고 혁명파를 공격하는 데 초점이 있었다. 그들을 향해 양계초는 “작은 절의에 구애되지 않는 것을 영웅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놓는다.

(q3.3.5.2.3.2.2) 나라 다스리는 일에 비유해 보자. 일부분의 기아와 도둑은 아주 작은 일이다. 그러나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따져 보면 반드시 정부의 실정이 있으며 사회진보의 부조화가 있다. 이 극단적인 폐단이 사소한 것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와 같다. 이것이 이처럼 작은 일이지만 그 화는 장차 전국에 만연할 것이다. 몸을 다스리는 일에 비유해 보자. 하루 이틀 가는 감기와 종기는 아주 작은 일이다. 그러나 이렇게 된 원인을 따져 보면 반드시 기혈의 흐름이 좋지 않고, 위생상으로 좋지 않은 환경 때문이다. 그 극단적인 폐단은 첫날은 이처럼 드러나고 다른 날은 저처럼 드러나지만, 결국 그 고질은 치료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지금 우리들이 작은 행동들을 점검하고 바로잡지 않으려는 것은 어떤 마음인가? 작은 행동들이 거듭 잘못된다면, 분명 그 사람은 습관이 깊이 들은 사람이며 자치의 힘이 박약한 사람일 것이다. 스스로 용납하면서 나는 인과 의에 따라 행동할 수 없다고 핑계를 댄다. 이는 칸트가 말하는 양심의 자유를 방기하

는 것이다. 이러한 종종 의 원인이 합해져서 작은 행위들을 소홀히 하는 태도가 생겨나는 것이니, 이것이 어떻게 작은 애기라 하겠는가! [...] 맹자는 “남의 담에 구멍을 내거나 넘어가 남의 것을 훔치지 않으려는 마음을 확충시키면 의는 넘치게 된다.”고 했다. 이를 거꾸로 적용시키면, 작은 냉혹한 마음이 아버지를 죽일 수 있고, 작은 음험한 마음이 나라를 팔 수도 있다. 미워해야 할 것은 이미 드러난 형적에 있지 않고 그것을 드러내는 근원에 있다. 작은 절의에 구애되지 않는 것을 영웅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제18절, p.142)

3.3.6 사덕의 등장이 의미하는 것

3.3.6.1 도덕 절대주의의 부활

(e3.3.6.1.1) 양계초가 도덕을 공덕과 사덕으로 나누고, 공덕의 본질은 사회의 결속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양계초의 공덕은 상대주의적인 것이 되었다. 즉 그 사회가 야만사회인가 문명사회인가에 따라 적절한 도덕은 달라야 했다. 그 때의 사덕은 공덕과는 다른 체계의 것으로서, 사덕 상 지선의 것이라 해도 공덕체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악일 수 있었다. 그러나 사덕을 강조하게 되면서 양계초는 그 때의 입장을 바꿔 사덕을 공덕보다 더 근원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게 되었다. 양계초는 사덕의 이름으로 구도덕을 다시 전면에 등장시키고, 사덕은 애국에 봉사하는 공덕보다 더 근원적인 개인의 도덕성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사덕은 시대의 가치관에 의해 변화하는 것이 아닌,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도덕이라고 주장되었다. 사덕의 절대성을 강조하면서도, 또한 여전히 공덕의 상대성을 지켜야했던 양계초는 도덕과 윤리를 구별하는 방법에 의해 그 둘을 양립시켰다. 도덕의 근원이 되어야 하는 것은 인간의 양심이어야 하고, 도덕이란 단체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는 점은 시공을 초월한 절대적인 것이다. 단체를 이롭게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것은 각각 도덕과 윤리로 바꿔 부를 수 있다. 공덕의 바

탕이 될 수 있는 중국의 도덕은 결점 없는 것이지만, 시의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중국의 윤리는 결점이 있다고 할 수도 있다.

(q3.3.6.1.2) 도덕과 윤리는 다르다. 도덕은 윤리를 포괄할 수 있지만 윤리로는 도덕까지 포괄할 수 없다. 윤리는 시세에 따라 조금씩 해석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도덕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 그러므로 중국의 윤리에 결점이 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중국의 도덕에 결점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제18절, p.132)

3.3.6.2 애국과 양지의 결합

(e3.3.6.2.1) 양계초는 사덕의 명목으로 양명의 양지를 다시 불러냈다. 그리고 신도덕 체계의 ‘공(公)’과 만물일체의 ‘공’을 동일시하며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 양명이 말하는 양지의 회복을 동일시했다. 즉 만물일체(萬物一體)의 천하(天下) 자리에 민족국가를 얹힌 것이다. 그럼으로써 국가 이익의 추구는 이익의 추구가 아니라 ‘의(義)’의 추구이며 ‘공’의 추구라고 주장했다. 그렇게 해서 자신과 노선을 달리하는 구국 운동은 공리주의라고 비판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자신의 애국’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리하여 양계초의 공덕·사덕 체계는 과거의 수신(修身)·평천하(平天下)의 구조를 그대로 수신(修身)·평국가(平國家)의 구조로 바꾸어 놓은 것이 된다. 그러나 천하 대신에 국가를 얹힌 것은 양립하지 않는 두 개의 세계관을 억지로 가져다 붙인 것이다.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공덕과, 천하주의를 전제로 하는 양명학의 양지는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 애국을 위한 행위의 근본이 양지에 있어야 한다고 요청하는 것은 본래의 천성에 의해 선을 실천하는 인간과 목적에 유도되어 선을 실천하는 인간을 전혀 구별하지 않는, 비논리적 행위이다.

3.3.6.3 사덕의 복잡성

(e3.3.6.3.1) 애국이라는 공덕의 근본이 되는 사덕으로서 등장한 양계초의 양명학은, 그리하여 단순히 종래의 양명학일 수는 없다. 공덕 체계는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민족국가의 국민에게 요구되는 덕으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 국가에 봉사하라는 공리주의 체계이다. 그 체계는 만물 일체를 표어로 내거는 천하주의의 양명학과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 그러나 양계초는 무술변법시기부터 추구해 온, 생존 경쟁 시대의 모든 과제를 사덕의 이름으로, 유학의 이름으로 포괄하려 했다. 사덕을 재조명한 이유는 공덕 체계를 반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덕 체계를 정당화할 더 강력한 수단을 찾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사덕은 양계초의 공덕이 새로운 것 이상으로 새로운 것이며, 공덕이 정치·경제적 요구들을 포함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다. 공덕보다 더 근본적인 것으로서 요청된 사덕은, 민덕(民德)·민지(民智)·민력(民力)이라는 근대적인 덕목들의 이름으로 불리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것들을 모두 포함한 모순 덩어리로 등장한다. 공덕과 그 공덕보다 더 근원적인 사덕의 결합에 의해 애국은 양심에 바탕을 둔 절대적인 선이 된다.

3.3.6.4 대표적 사덕으로서의 양명학

(e3.3.6.4.1) 유학의 여러 학파 가운데 양명학이 선택된 이유, 특히 주자학이 아니라 양명학이 그 시대를 치유할 유일한 법문으로 선택된 이유는 양명학의 ‘간이직제’(簡易直裁) 때문이다. 자신의 애국 운동의 방향을 절대화해줄 권위 있는 원칙이 필요했던 양계초는, 과학을 비롯하여 이전과는 다른 노력이 끊임없이 요구되는 당시 상황에서, 주자학과는 달리 원칙 확인을 중시하는 양명학을 선택했다. 양지라는 원칙과 애국심을 연결시키면, 애국을 위한 과학 역시 순수한 양지에 바탕을 둔 것이 된다. 이렇게 되면 양명학은 도덕 교육뿐만 아니라 지식 교육까지도 포괄할 수 있으며, 심지어 송명유학의 ‘경(敬)’의 수양은 체육 교육까지도 포괄하는 것이라고 주장된다. 양계초의 생각으로는 양명학은 이처럼 지·덕·체라는 근대교육의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것이었다. 또한 마음이 세상의 근본이라는 양명학의 유심주의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시대를 개척하려는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주는 데 둘도 없는 법문일 것이었다.

3.3.6.5 유학에 대한 재평가의 의의

(e3.3.6.5.1) 양계초가 구도덕에 대하여 ‘자기 한 몸을 단속하는 역할’(獨善其身)만 한다는 비난을 철회하고 공덕의 토대로 삼은 것은 무고의 철회라고 할 수 있다. 유학은 수신(修身)하여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하려는 윤리·정치구조이다. 정치적 능력의 달성과 함께 윤리적 인격도 완성된다고 하는 체계를 “자기 한 몸만을 단속하는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분명 무고였다. 양계초가 유학을 명예 회복 시킨 것은 윤리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는 유학의 구조를 재평가했다는 것을 말해 준다.

(e3.3.6.5.2) 양계초가 유학을 무고한 이유는 유학 자체에서는 국가간의 경쟁력을 고양시키는 역할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유학의 이상은 천하라고 하는 모든 존재를 포괄하는 만물일체 세계의 실현이다. 국가 경쟁력만이 절실했던 양계초는 신도덕이라는 이름으로 애국을 절대적 존재로 설정하는 공리 체계를 도입했다. 그런 의미에서, 양계초가 유학에 대해 ‘자기 한 몸을 단속하는 역할’ 밖에 하지 못한다고 평한 것은 무고였지만, 그가 원했던 국가 경쟁력을 고양시키는 역할을 유학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았다. 비판 방식은 적당하지 못했지만 당시 양계초가 생각하는 실무, 즉 국가주의의 고취에 유학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했다.

(e3.3.6.5.3) 그런데, 양계초는 유학에 걸었던 무고를 철회하여 과거 천하관의 세계관에서는 유학이 윤리적 역할뿐 아니라 정치적인 역할까지도 담당했었다고 인정한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과거 천하관에서의 정치적 역할을 지금의 국가 경쟁의 시대에 유용한 것으로 재생시키려 했다. 시대를 초월하는 것이라고 주장되면서 등장한 사덕은 공덕을 주장하던 시대의 양계초의 주장, 즉 도덕이란 시대에 따라 변화해야 하는 것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등장한 것이다. 구도덕이 과거의 세계관에서 정당한 것으로 주장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주장을 뒷받침해 줄 세계관을 배경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신을 통해서 평천하를 성취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수신 안에 이미 세계의 질서 구도를 입력해 놓

왔기 때문이었다. 그 점에서, 자신들이 구상하는 질서에 순응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개인에게 도덕이라는 명분으로 요청하는 공덕-사덕 구조는 수신-평천하의 구조를 계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천하 안에서의 도덕은 존재 전체를 감싸는 보편원리였기 때문에 권위를 누릴 수 있었다. 지금의 양계초는 국가를 절대적인 존재로 왜곡시키고 그 국가에 이전의 천하가 누렸던 권위를 부여하려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 梁啓超, 『新民說』(林志均 편집, 『飲冰室合集』, 上海中華書局, 1932.에 수록).
- 김진균·정근식 편저,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 문화과학사, 1997.
- 이혜경, 『천하관과 근대화론: 양계초를 중심으로』, 문학과지성사, 2002.
- 한국사연구회 편, 『근대 국민국가와 민족문제』, 지식산업사, 1995.
- 니시카와 나가오, 『국민이라는 괴물』, 소명출판, 2002.
- 존 킹 페어뱅크, 『신중국사』, 까치, 1994.
- 프리센지트 두아라, 『민족으로부터 역사를 구출하기』, 삼인, 2004.
- D.D. 라파엘, 『정치철학의 문제들』, 서광사, 1986.

『철학사상』 별책 2권

- 제1a호 철학의 주요 개념 1·2 / 백종현
- 제2호 『밀린다광하』 / 서정형
- 제3호 데카르트 『방법서설』 / 윤선구
- 제4호 로크 『통치론』 / 정윤석
- 제5호 루소 『사회계약론』 / 진병운
- 제6호 칸트 『실천이성비판』 / 박정하
- 제7호 헤겔 『법철학』 / 강성화
- 제8호 벤담 『도덕 및 입법의 원리 서설』 / 정원규
- 제9호 밀 『공리주의』 / 김영정 · 정원규
- 제10호 니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 백승영
- 제11호 마르크스 『독일이데올로기』 / 손철성
- 제12호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 이선일
- 제13호 프레게 『산수의 기초』 / 최 훈
- 제14호 비트겐슈타인 『논리철학 논고』 / 박정일

『철학사상』 별책 3권

- 제1a호 『대학』 / 박성규
- 제2호 맹자 『맹자』 / 이해경
- 제3호 나가르주나 『중론』 / 서정형
- 제4호 조선전기 이기론 / 허남진
- 제5호 조선전기 수양론 / 정원재
- 제6호 조선전기 심성론 / 김영우
- 제7호 조선전기 경세론과 불교비판 / 강중기
- 제8호 플라톤 『국가』 / 김인곤
- 제9호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 김남두 · 김재홍 · 강상진 · 이창우
- 제10호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 박경숙
- 제11호 데카르트 『성찰』 / 윤선구
- 제12호 로크 『인간지성론』 / 김상현
- 제13호 라이프니츠 『단자론』 / 윤선구

- 제14호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 진병운
 제15호 흄 『인설론』 / 장동익
 제16호 칸트 『순수이성비판』 / 김재호
 제17호 헤겔 『정신현상학』 / 강성화
 제18호 마르크스 『자본론』 / 손철성
 제19호 제임스 『실용주의』 / 정원규
 제20호 니체 『유고(1885년 가을-1887년 가을)』
 · 『유고(1887년 가을-1888년 3월)』
 · 『유고(1888년 초-1889년 1월 초)』 / 백승영
 제21호 후설 『유럽학문의 위기』 / 정은혜
 제22호 비트겐슈타인 『철학적 탐구』 / 신상규
 제23호 하이데거 『언어로의 도상』 / 이선일
 제24호 쿤 『과학혁명의 구조』 / 박은진
 제25호 토픽맵에 기초한 철학 디지털 지식 자원 구축 /
 최병일 · 이태수 · 심재룡 · 김영정

『철학사상』 별책 5권

- 제1호 공자 『논어』 / 박성규
 제2호 마명 『대승기신론』 / 서정형
 제3호 황종희 『명이대방록』 / 강중기
 제4호 플라톤 『향연』 / 김인곤
 제5호 흄 『인간지성에 관한 탐구』 / 윤선구
 제6호 칸트 『판단력비판』 / 김상현
 제7호 피히테 『전체 지식학의 기초』 / 김재호
 제8호 마르크스 『경제학-철학 수고』 / 강성화
 제9호 니체 『도덕의 계보』 / 백승영
 제10호 하이데거 『이정표』 / 이선일
 제11호 가다머 『진리와 방법』 1 / 정은혜
 제12호 군맨 『사실, 허구 그리고 예측』 / 김희정
 제13호 군맨 『세계제작의 방법들』 / 김희정
 제14호 롤즈 『정의론』 / 장동익

『철학사상』 별책 제7권 제 5 호

발행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우) 151-742,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http://philinst.snu.ac.kr
전 화	02) 880-6223
팩 스	02) 874-0126
인쇄일	2006년 5월 31일
발행일	2006년 6월 5일
출 판	도서출판 관악 02) 871-2118

